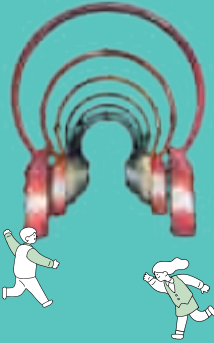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22-14

평촌동 & 평촌신도시

평촌신도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로 조성되며 행정·상업·교육 기능이 집중된 안양의 신도심으로 성장하였다. 체계적인 아파트 단지가 중심을 이루고, 공원과 녹지가 풍부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며, 학원가와 상권도 발달한 주거 중심 지역이다.



제17권

평촌동 & 평촌신도시



해바라기

미국의 역사
1945년
1번가

ONE

방천수리

TAP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衿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문과 침삭을 하였다.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contents

1 평촌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006

제1장 평촌동의 지리와 생활 터전 / 008

제2장 평촌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 046

2 평촌의 개발과 변화 / 078

제1장 평촌동의 자연마을 / 080

제2장 평촌신도시 조성과 공간구성 / 100

제3장 1기 신도시 노후화와 평촌의 재정비 / 130

3 평촌신도시의 생활환경과 주민 삶 / 152

제1장 범계역세권 목련마을 주민생활 / 154

제2장 셋별마을 한양아파트 주민생활 / 182

제3장 샘마을 쌍용아파트부녀회가 싹틔운 안양여성의전화 / 206

제4장 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인동 주민자치회 / 228

제5장 평촌신도시와 환경시설의 공존 / 254

4 평촌신도시의 '핫(hot) 플레이스' / 278

제1장 배움과 만남의 공간, 평촌학원가와 평촌먹거리촌 / 280

제2장 젊음과 문화의 거리, 평촌로데오거리 / 320

제3장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평촌중앙공원 / 340

제4장 주민들의 힐링공간, 평촌자유공원 / 370

5 평촌 사람들의 삶과 경험 / 390

제1장 이동리 사람들 / 392

제2장 평촌신도시 원주민 이야기 / 422

제3장 교육을 위해 평촌으로 이주한 사람들 / 442

제4장 평촌신도시에서 성장한 사람들 : 평촌, 성장과 추억의 도시 / 460

01

평촌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제1장 평촌동의 지리와 생활 터전
제2장 평촌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1장

평촌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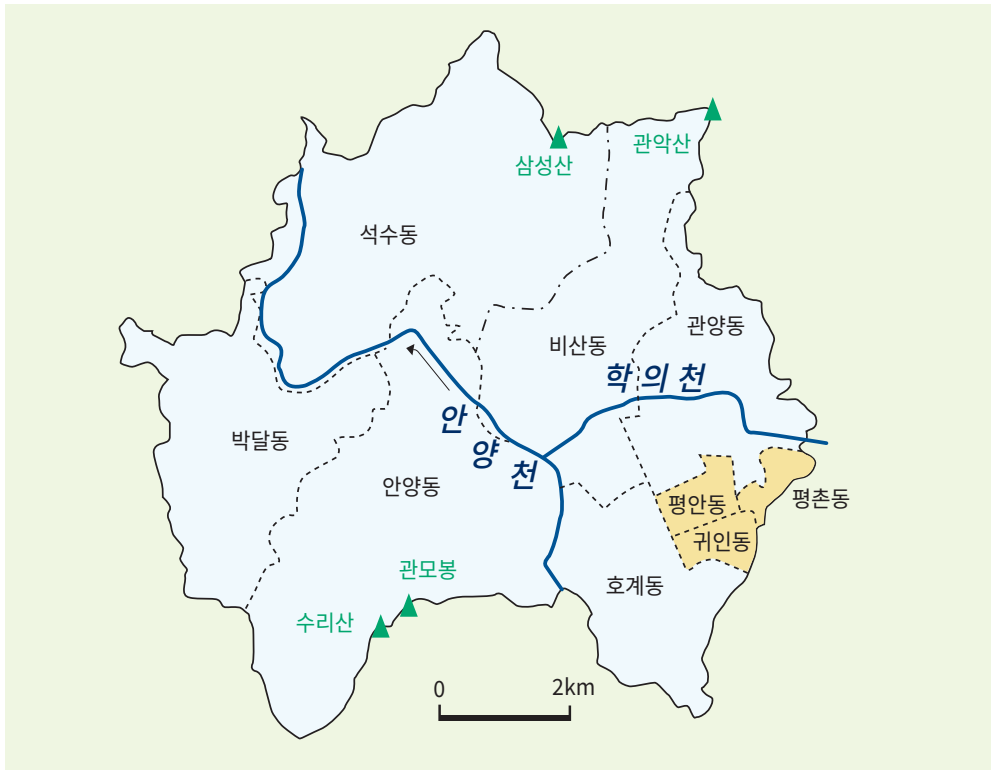
1. 평평한 농경지에 개발된 평촌동

1) 안양시의 동남부에 자리한 마을

평촌동은 안양시의 동남부에 자리한 법정동의 명칭이자, 동시에 행정동의 명칭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평촌동은 3개의 행정동을 아우르는 법정동을 지칭한다. 법정동 평촌동을 구성하는 3개의 행정동은 평촌동·평안동·귀인동 세 동이다.

평촌동은 안양시의 행정구역을 구성하는 7개 법정동 가운데 면적이 가장 좁다. 안양시의 전체 면적은 58.48km²이며, 평촌동의 면적은 2.10km²로 시 전체 면적의 3.6%를 차지하는 정도이다. 반면, 안양시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법정동은 안양동으로, 그 면적은 15.34km²에 달해 전체 면적의 26.2%를 차지한다.

평촌동은 관양동과 호계동의 사이에 끼어 있는 듯 자리 잡고 있으며, 두 동에 둘러싸인 형세이다. 북쪽으로는 부림동과 인덕원동, 서쪽으로는 범계동과 신촌동, 남쪽으로는 갈산동과 접해 있다. 동쪽은 의왕시의 내손동, 포일동과 맞닿아 있다. 의왕시 내손동과 포일동은 평촌동에 제조업체가 입지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농경지와 소규모 자연 마을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관양동과 평촌동의 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진 후부터 시가지로 변화하였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도시공간의 축전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평촌동과 의왕시 내손동·포일동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일부 구간은 도로 폭이 넓은 흥안대로에 의해 두 도시의 경계가 설정되지만, 평촌지하차도에서부터 학의천에 이르는



안양시의 동부 평지에 자리한 법정동 평촌동

구간의 동쪽이 별말초등학교 남쪽에서 나눔초등학교를 지나는 아주 조그마한 골목길(평의길)을 사이에 두고 안양시와 의왕시의 경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촌동(행정동)은 동쪽에 마주하고 있는 의왕시 내손동 및 포일동과 생활권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초, 시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 평촌동의 마을을 통과하던 주요 도로는 지방도 395호선(현재 국도 47호선)뿐이었다. 이 도로는 마을을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였으며, 안양역 남쪽의 주점동에서 달안이들을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여 귀인마을을 지나는 도로가 개설되었을 뿐이었다.

평촌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후 직교형의 가로망이 조성되면서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 역시 크게 확충되었다.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도 47호선(흥안대로)이다. 국도 47호선은 평촌동의 남쪽에서는 의왕시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에서는 시가지를 관통한 후 인덕원사거리를 지나 과천-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왕복 10차로의 대로이다. 평촌동의 남쪽으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평촌고가교가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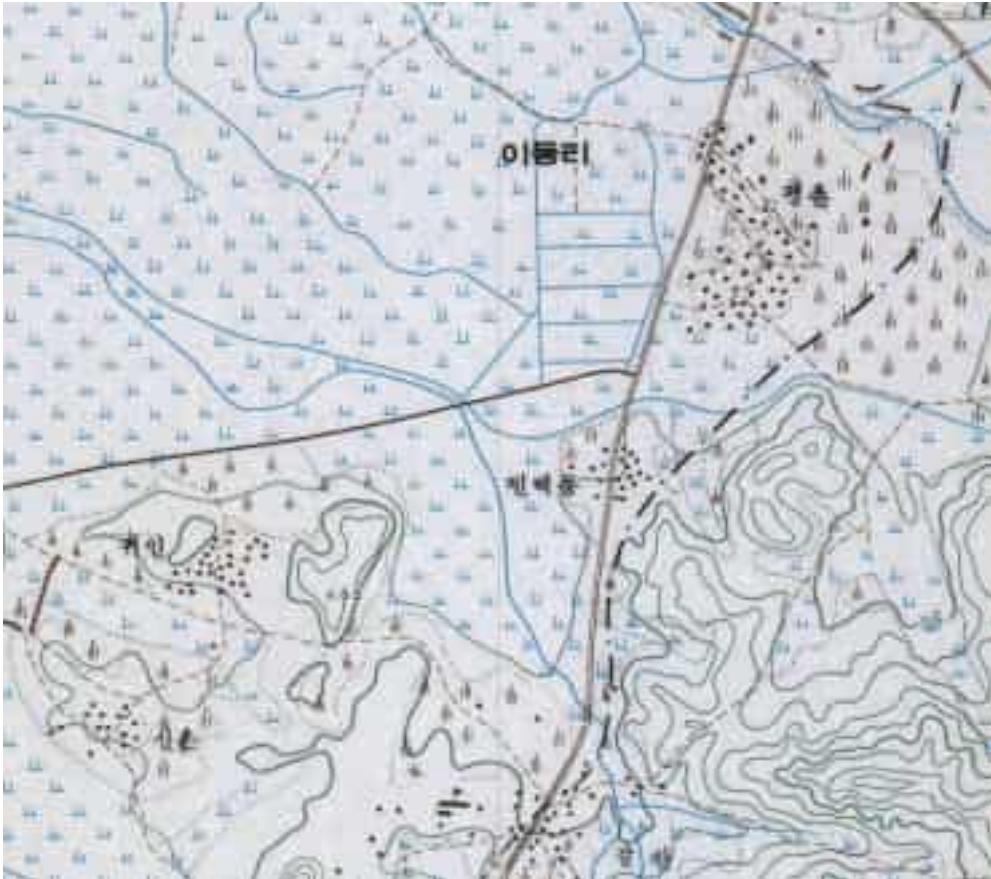
설되어 있으며, 평촌동의 동남단에 있는 계원대사거리에서 평촌IC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다. 평촌고가교의 하부에는 관평로와 신기대로가 통과한다.

평촌동은 대부분 구역이 평평한 지형을 토대로 들어선 시가지로 구성되는데, 이는 평촌신도시가 개발된 1992년 이후의 모습만을 반영한다. 그 이전에는 달안이들의 농경지를 바라다보면서 남쪽의 의왕시에 자리한 모락산 줄기가 북으로 뻗어 평촌동에 이르렀다. 그리고 달안이들과 산줄기가 만나는 접촉부에는 일찍부터 자연마을이 자리 잡았으며, 안양시 남쪽의 수원에서 과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이들 마을을 가로질러 통과하였다. 모락산 줄기의 사면 끝에 입지했던 자연마을은 현재 의왕시 내손동에 편제되어 있지만, 학의천에 접한 벌말, 또는 달안이들에 접한 귀인마을 등이 안양시 승격 이전부터 달안이들을 바라보며 자리 잡았다.

평촌동의 시가지는 수원에서 과천으로 향하는 도로변에 자리했던 벌말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이전해 온 제조업체가 학의천변에 입지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했다. 그 이전까지는 학의천 남쪽에 펼쳐진 농경지를 배경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성격을 가졌다. 모락산 북서사면의 평지를 통과하던 수원-과천-서울 구간의 도로는 평촌동의 공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평촌동에 접한 관양동에서도 제조업체의 입지가 활발해짐에 따라, 평촌동은 관양동과 함께 학의천 남쪽에서 도시적 성격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이후 달안이들에 평촌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평촌동은 농촌적 성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밀집 시가지로 구성된 도시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평촌동을 지나는 비포장 흥안로의 모습(1973년, 안양시청 제공)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평촌동의 지형(1970년)

2) 저산성 산지와 별판으로 이루어진 마을

시가지로 들어찬 평촌동은 대부분 지역이 해발고도가 낮고 평평한 지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해발고도는 30~50m 내외이며, 평촌동의 남쪽이 조금 높고 북쪽과 서쪽으로 갈수록 고도는 낮아진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촌신도시 개발 이전의 지형적 특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촌동은 의왕시에 있는 모락산 줄기의 북서쪽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었다. 모락산에서 떨어져 나온 산줄기의 일부는 해발 65m에 이르는 잔구성 산지를 이루었고, 그 기슭에 귀인마을이 들어섰다. 산지 전면부에는 학의천과 안양천에 이르는 곳까지 넓은 달안들이 펼쳐졌다. 따라서 현재의 평촌동은 남쪽은 모락산 줄기에 인접하여 해발고도가 조금 높고, 북쪽은 달안이들에 맞닿아 해발고도가 다소 낮

다. 다만, 남쪽과 북쪽의 해발고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귀인마을은 달안이들의 남쪽에 있던 조그마한 야산의 사이에 자리 잡았으며, 이 야산은 모락산 줄기의 서북단에 해당한다.

귀인마을은 아주 낮은 두 개의 구릉지 사이에 넓게 형성된 평지에 입지하였다. 마을 주변에 있는 산지는 경사가 완만했기 때문에 귀인마을은 밭농사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주변의 논보다 해발고도가 높아 여름철에 가옥이 침수될 우려도 없는 곳이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농경지는 마을에 바로 접해 있어서 농경 활동을 하던 주민들의 통작거리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귀인마을의 뒷산은 해발고도가 약 60m에 이르는데 이곳은 1970년대까지 수목이 우거진 곳이었으며, 평촌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가 발굴된 곳이다.¹ 지석묘는 평촌 자유공원에 이전하여 복원하였다. 또한 삼국시대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지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귀인마을은 안양 지역에서 비교적 앞선 시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안양 지역에서 지석묘와 선사 주거지 유적은 귀인마을을 비롯해 관양동 등지에서도 발견되었다.² 귀인마을의 구릉지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촌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별말(평촌)은 학의천 남쪽에서 형성되었다. 이 마을은 인덕원에서 수원으로 향하던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마을이다. 한자 지명인 평촌보다 한글 지명인 별말로 많이 불렸다. 1880년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구한말지형도』 「과천」 도엽에는 ‘야촌(野村)’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본어로 ‘별말(ポルマル)’이 병기되어 있다. 별말은 넓은 별판 사이에 마을이 형성된 후 규모가 커진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도로변에 들어선 별말과 저산성 산지 사이의 평지에 들어선 귀인마을과 민백이 등이 평촌동을 구성하던 자연마을이다.



의왕시의 모락산에서는 여러 하천이 발원한다. 그 가운데 의왕시 갈미한글공원이 있는 골짜기에서 발원한 하천의 물줄기는 귀인마을의 동북쪽을 통과한 후 달안이들을 가로지르면서 달안이들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다. 이 하천은 달안이들에 있던 달안이 마을을 지나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하는 쌍개울의 바로 남쪽에서 안양천으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하천의 물줄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3) 달안이들을 품은 마을

학의천과 안양천 사이에는 ‘달안평야(達安平野)’라고 불린 넓은 충적평야가 있었다. 두 하천의 합류부에서 동남쪽으로 넓게 펼쳐진 달안평야는 안양시 남쪽 군포시의 동북부까지 이어지는 타원형의 분지이다. ‘달안이들’ 또는 ‘달안들’로 불리기도 했던 달안평야는 법정동 평촌동에 한정되지 않고 관양동과 호계동에 걸친 아주 넓은 들판이었다. 달안이들은 화강편마암의 사질토양이 쌓여서 만들어진 들판으로 비옥한 농경지였다.

달안이들은 하천의 범람에 의해 형성된 충적토인 중동-규암 토양군과 오산-수암 토양군으로 구성된다. 학의천에 인접한 쪽은 중동-규암 토양군으로 배수가 불량한 식양질 또는 식질토양이며, 모락산에 접한 쪽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질 또는 사질토양으로 이루어진 오산-수암 토양군의 토양이다. 사양질 토양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밭으로 이용하였다. 범람원에 의한 식양질 토양은 하천과 접한 곳에서 주로 발달하며, 토양의 비옥도가 높아서 농경활동을 하기에 유리한 곳이다. 평촌동(행정동)의 학의천변에는 식양질 토양이, 귀인동 일대에는 사양질 토양이 주로 분포한다. 평촌동 전역은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을 보유하고 있던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토양조건을 바탕으로 형성된 농경지가 달안이들이다. 달안이들은 매우 넓은 벌판으로, 바람을 막아줄 만한 언덕이 없어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광활한 들판의 모습 때문에 ‘만주벌판’에 빗대어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기름진 농토로, 쌀 수확량이 많아 ‘만마지기들’이라 불릴 정도였다. 달안이들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인근에 비를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늘 샷갓을 쓰고 일하러 다녔다고 해서 ‘샷갓들’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갑자기 비가 내릴 때 비를 피하려면 빠르게 달아나야 하는 곳이라고 해서 ‘달안이들(達安洞坪)’이라 불리기도 하였다.³ 달안이들은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농경지 외에 민가가 자리하지 않았지만, 1940년대 초반부터 외지인들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달안이 마을이 생겨났다.



평촌신도시 개발 이전의 달안이들(1976년)

안양시 승격 당시인 1973년의 상황을 보여주는 『안양통계연보』(1974)에 따르면, 안양시의 농가는 모두 1,173호였으며, 평촌동에 가장 많은 225호가 있었다. 1973년 안양시 농가인구는 모두 7,14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평촌동에 거주한 농가인구가 1,451명이었다. 평촌동은 안양시에서 농가호수와 농가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평촌동의 225호 농가 가운데 189호가 벼농사에 종사했음은 평촌동의 토지가 대부분 평지를 기반으로 한 논이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농업생산량은 관양동에 이어 평촌동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관양동의 농경지는 학의천 남쪽의 달안이들뿐만 아니라 학의천 북쪽의 관악산 자락으로도 넓게 분포해 평촌동에 비해 훨씬 넓었기 때문이다. 1973년 당시 관양동의 경지면적은 313.2ha에 달했지만, 평촌동의 경지면적은 209.2ha에 지나지 않았다. 평촌동은 2ha 이상의 경작지를 보유한 농가가 22가구에 달했을 정도로 안양시에서 대농이 많은 지역이었고, 평촌동에서 1ha 이상의 농경지를 보유한 농가는 92가구에 이르렀다.

달안이들은 넓은 벌판을 지니고 있고 서울과의 거리도 가까운 곳이었으므로, 1944년

친일 기업가인 박흥식이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던 장소이다.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는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군수업체로 선정되어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물론 기계·노동력·토지 등을 징발할 수 있는 특권 및 경영상의 각종 편의를 받았다.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는 만주에 설치되었던 만주비행기공업의 기술을 전수받고 일본의 나카지마(中島) 비행기제작소에서 생산된 부품을 조립해 비행기를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복이 되면서 비행기 생산 계획은 사라졌고,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는 1945년 11월 30일 조선기계공업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⁴ 수원에서 인덕원사거리를 지나 과천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달안이들의 농경지는 주택과 공장용지 등으로 전용되기 시작했으며, 도로변에 자리했던 민백이의 마을 규모도 확장되었다.

2. 평촌동의 행정구역 변천과 지명 유래

평촌동은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에 따르면, 과천현(果川縣) 상서면(上西面) 삼현이리(三峴二里)와 하서면(下西面) 귀인일동(貴仁一洞), 귀인이동(貴仁二洞)로 편제되었던 곳이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해동지도』 「과천현」 도엽에는 평촌동 일대에 '삼현리(三峴里)'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1895년 삼현이리는 과천군 상서면 이동(二洞)으로 편제되었고, 귀인일리와 귀인이리는 과천군 하서면 일동과 이동으로 편제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과천군이 시흥군으로 편제되면서, 과천군 하서면 일동과 이동이 통합되어 시흥군(始興郡) 서이면(西二面) 이동리(二洞里)로 변경되었다. 당시 서이면 이동리에 편제된 자연마을에는 민백이(民伯里)·귀인(貴仁)·신촌(新村)·별말(坪村)·갈미(葛山) 등이다.⁵ 이들 자연마을 가운데 신촌과 갈미는 현재 호계동에 포함되며, 각각 호계동에 설치된 행정동 신촌동과 갈산동이다. 1941년에는 시흥군 안양면 이동리로 개칭되었다.

1949년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평촌동은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로 편제되었고, 1973년 7월 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하면서 이동리는 지금의 평촌동(坪村洞)으로 개칭되었다. 안양시 승격 당시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했지만, 인구 증가에 따라 1993년 1월에 행정동 평안동이 신설되면서 법정동 평촌동은 행정동 평촌동과 평안동으로 구성되었다. 1994년 7월에는 평안동에서 귀인동이 분리·신설되었다.

평안동과 귀인동의 설치는 평촌신도시 개발 이후 평촌동의 인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행정동 평촌동은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평촌신도시와 과천시 및 의왕시를 연결하는 접경지역이며, 귀인동은 먹거리촌과 학원가 밀집 지역의 특징을 보인다. 평안동은 평촌신도시의 교통·교육의 중심지로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한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이다. 법정동 평촌동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안양시에 구제가 시행되면서 안양시 동안구에 편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평촌동의 행정동은 세 개의 동 모두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명칭이다. 그 가운데 지금의 행정동 평촌동은 엄밀하게 평촌신도시와 큰 관

련이 없는 지역이다. 신도시의 이름이 이곳 평촌동에서 유래했지만, 행정동 평촌동은 평촌신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일찍이 이곳에 들어선 제조업체와 자연마을이 남아있던 곳이다. 물론 행정동 평촌동에서 평안동이 분동하기 이전에는 그 범위가 평안동과 귀인동까지였으므로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에는 평촌동(행정동)이 평촌신도시를 관할하였지만, 평안동과 귀인동이 평촌동에서 분동되는 바람에 실제 평촌동(행정동)이 관할하는 구역은 평촌신도시와 무관한 지역이 되고 만 것이다. 평촌신도시에 건설된 평촌고등학교는 평촌동과는 무관한 호계동에 들어서 있다. 평안동은 과거 달안인들이 자리하고 있던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귀인동은 귀인마을이 있던 지역으로, 모락산자락에서 펼쳐진 나지막한 산줄기가 있던 곳이다. 달안이들을 배경으로 한 벼농사와 구름지의 밭농사를 하던 지역이다.

평촌동에 설치된 행정동 간의 경계는 대체로 반듯한 직선도로를 따라 설정되어 있지만, 행정동 평촌동의 경계는 그렇지 않다. 귀인동은 흥안대로를 경계로 동쪽의 의왕시 내손동과 마주하며 남쪽으로는 관평로 및 신기대로를 사이에 두고 호계동과 마주한다. 귀인동의 서쪽은 평촌대로 건너 호계동과 접해 있고, 북쪽은 귀인로 건너 평안동과 맞닿아 있다. 귀인동의 북쪽에 자리한 평안동은 별말로 건너 동쪽의 관양동 및 평촌동(행정



『호구총수(戶口總數)』, (1789년)

戶口總數表二種 忠清道

羅內面 元戶三百二十六口一千三十二	東面 元戶三百二十二口一千二百六十八	南面 元戶二百七十一口一千五十一	西面 元戶四百八十六口一千九百五十八	上北面 元戶三百二十口一千二百五	下北面 元戶二百九口七百三十一	羅川 元戶三千二百七十二口一萬四千一百七十九	羅內面 元戶六百二十口二千七百七十八
----------------------	-----------------------	---------------------	-----------------------	---------------------	--------------------	---------------------------	-----------------------

東面 元戶四百八十八口二千三百三十六	南面 元戶四百六十口一千九百二十九	上北面 元戶五百七十四口二千五百二十九	下北面 元戶五百八十三口二千一百四十二	上西面 元戶二百四十四口一千五十五	下西面 元戶三百四口一千四百十二	精城 元戶一千六百九十八口五千九百九
-----------------------	----------------------	------------------------	------------------------	----------------------	---------------------	-----------------------

『호구총수(戶口總數)』 경기도 '과천' 부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下西面(하서면)에 歸仁一洞(귀인1동), 歸仁二洞(귀인2동)이라고 적혀 있다.

동)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평촌대로 건너 호계동과 마주하며, 북쪽으로는 평촌대로212번길 건너 관양동과 경계가 닿아 있다. 행정동 평촌동은 오래된 취락이 많이 남아있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전술한 바와 같이 인접한 의왕시 및 관양동과 폭이 좁은 소로에 의해 경계가 설정된 특징을 가진다.

평촌동이라는 지명이 등장한 시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평촌이라는 지명은 지금의 행정동 평촌동이 관할하는 구역에 자리한 자연마을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전에는 순우리말 지명인 별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한자화하면서 평촌(平村)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으며, 안양시 승격과 더불어 평촌은 법정동 명칭으로 공식화하였다. 인덕원 남쪽의 허허벌판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에서 별말이라 불렸으며, 이후에 별말 근처에 또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면서 ‘두별말’로 불리었다. 이들 별말은 조그마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윗별말(上坪村)과 아랫별말(下坪村)로 나뉘었지만, 한자화한 마을 이름이 이평촌(二坪村) 또는 이동(二洞)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하나의 마을로 인식된 듯하다. 이 마을은 괴산 음씨(槐山陰氏)들이 대대로 살아온 마을이라는 데에서 ‘음촌’으로 불리기도 하였다.⁶ 별말이라는 지명은 현재 의왕시의 경계부에 자리한 별말초등학교, 인덕원교 남단의 별말오거리, 별말성당, 별말도서관(안양시립도서관) 등에서 확인된다.

귀인동은 오래전부터 있던 자연마을 이름인 ‘귀인’에서 비롯되었다. 귀인이라는 지명이 최초로 등장하는 자료는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이며, 행정동 명칭으로 사용된 시기는 1994년 10월 이후이다. ‘귀인(貴仁)’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신분·지위가 높





1919년 지형도에 보이는 서이면(西二面) 이동리(二洞里)의 귀인(貴仁)과 민백리(民伯里)

은 사람들이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이 마을에 머물다 갔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귀인마을은 수원에서 과천을 지나 남태령으로 향하는 중간에 자리한 마을이다. 귀인마을이 일찍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1789년에 귀인일동(貴仁一洞)과 귀인이동(貴仁二洞)으로 마을 명칭이 부여되었는데, 과거제도의 폐지로 마을의 기능을 잃으면서 자연마을로 격하되었고, 귀인동이라는 명칭은 한동안 사용되지 않았다.⁷ 1960년대의 지도나 문헌에서는 다시 귀인동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귀인이란 지명은 귀인초등학교, 귀인중학교, 귀인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안동은 1993년 1월 15일 행정동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명칭이다. 당시 신

도시 이름으로 이용되었던 평촌의 평(浬)자와 안양시의 안(安)자를 결합해 평안동이라는 행정동 명칭이 탄생하였는데, 평안이라는 지명은 평안공원에도 적용되었다.

1914년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에 편제된 마을 가운데 현재 평촌동에 속하는 마을에는 별말(평촌)과 귀인을 비롯해 민백이(民伯)가 있다. 민백이(民伯)는 학의천 남쪽의 별말과 귀인마을의 사이에 있던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한양-과천-인덕원-수원으로 이어지던 도로는 한양에서 삼남지방을 오가던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던 구간으로, 인덕원에서 수원에 이르는 구간에 자리했던 민백이 마을은 여행자들이나 상인들이 해가 넘어가면 하룻밤을 묵고 가면서 민박을 하던 곳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민박이(民泊洞)’라 부르다가 구전되는 과정에 지명이 민백이(民伯里)로 변하게 되었다.⁸ 1880년대에 간행된 『구한말지형도』 「과천」 도엽에는 수원에서 인덕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자리한 마을 이름으로 ‘민백(民百)’이라는 한자 표기와 함께 일본어 ‘민백이(ミンペギ)’가 병기되어 있다. 1960년대 들어서서 ‘민백동’으로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민백이(민백) 지명은 평촌지하차도 상단의 민백사거리, 민백유치원, 민백초등학교, 민백어린이공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한적한 농촌에서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화

1) 1960년대 말부터 진행된 공장 입지

안양시에서는 공업화가 1930년대부터 본격화했지만, 안양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평촌동은 당시 농경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마을만 있는 상태였다. 안양의 변두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평촌동은 1960년대 말까지 농촌적 성격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정도로 공업화 또는 도시화의 시기가 느린 지역이었다. 달리 말하면, 평촌동은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업단지 또는 택지개발 대상지로서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이었던 셈이다. 평촌동은 1960년대 말부터 제조업체의 입지 장소로 변모하면서, 순수한 농촌지역의 성격을 지우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공해유발업체를 서울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에 의해 서울의 여러 공업지대에 있던 공장들이 서울 외곽의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설비를 확충하던 때이기도 하다.

평촌동의 중심이 되는 별말은, 1930년대 들어 진행된 일제의 도로 개수 작업으로 서



1970년대 평촌동 흥안로 확장(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지붕 위로 우뚝 솟은 공장 굴뚝이 보인다.

울-과천-군포-남양(화성)을 잇는 신작로가 통과하는 지역이었다. 또한 별말의 남쪽에서는 과천에서 수원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분기한 길이 달안이들을 동서로 가로질러 안양의 중심시가지로 연결되는 분기점이 있었다. 별말은 서울에서 과천을 지나 경기 남부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제조업체의 탈서울 현상이 결부되면서, 별말 주변은 제조업체의 입지로서 적합한 지역이 되었다.

1969년 별말의 학의천 변으로 동일방직 안양공장이 준공되었고,⁹ 1972년에는 오투기식품의 공장이 건립되면서 공업화가 촉진되었다. 오투기식품 안양공장은 현재는 평촌동에 속하지만, 공장이 건립될 당시는 관양동(현재 인덕원동)에 속하였다. 공업화의 진행은 공장 노동자를 불러들이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별말 주변의 택지조성에도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평촌동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1975년에는 서울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삼화왕관주식회사가 평촌동 126-5번지 일대에 병마개를 생산하는 안양공장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일방직 공장은 윗별말 주변에 들어섰고, 오투기식품과 삼화왕관은 아랫별말 주변에 들어섰다. 이 공장은 대한민



평촌동 일대 공장의 소비상권인 흥안로 주변 상점(197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평촌동 일대 공장의 소비상권인 흥안로 주변 상점(197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삼화왕관(주) 안양공장 표지판이 있는 흥안로 주변(1970년대, 이정범 제공)

국 최초로 병마개를 수출했으며, 1997년 경기도 안산시에 안산공장을 준공하면서 안양 공장을 철수하였다. 삼화왕관(주) 안양공장 이전적지에는 두산벤처다임이 들어섰다. 안양시에서는 3만여 평에 달하는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주거용지로 변경하였다.¹⁰

별말에 평촌동 최초로 동일방직이 들어선 후, 제조업체의 입지는 점차 수원에서 과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건너 서쪽의 달안이들로 확장하였다. 동시에 별말 서쪽에 있는 관양동에서도 대규모의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수원에서 과천 방향으로 통과하는 도로의 서쪽에 펼쳐져 있던 농경지가 서서히 공업용지로 변화하였다. 학의천 변으로 제조업 입지가 활발해지면서, 1970년대 중반에는 안양 일대의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수요는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 1970년대 중반 안양시에서 공장부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은 학의천 남쪽에 위치한 관양동과 평촌동이었다.

1980년대 초반, 평촌동 일대에 크고 작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984년 환경청은 전국의 폐수 배출업소를 정밀 조사한 결과, 허



학의천을 청소하는 육군 수도군단 장병들(1997년, 이정범 제공)

용치를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업체 55곳을 적발하였는데, 주로 가죽·펄프·섬유·음식
 료품 제조업 등이었다. 당시 평촌동·박달동에 공장을 둔 가죽제조업체와 호계동의 섬유
 제조업체가 환경청의 단속에 적발되었다.¹¹ 문제는 제조업체가 밀집한 공업지역 서쪽에
 달안이들과 연결된 농경지가 자리하였다는 점이다. 공장 가동으로 발생한 수질오염은
 농업용수의 오염 문제로 번져나갔다. 농업용수의 오염 문제는, 학의천을 비롯해 모락산
 에서 발원하여 민백이 마을의 서쪽을 통해 달안이들로 흘러가던 소하천에서도 나타났으
 며, 공장 주변의 농경지 역시 수질오염 문제로 인해 농업용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
 었다.

2) 서쪽의 신도시와 동쪽의 기성시가지

평촌동의 도시화는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공업화를 배경으로 시작되었지만, 제
 조업체의 입지와 더불어 시가지가 발달한 것은 아니다. 개발계획을 토대로 공업이 입지
 하고 주거단지·상업시설이 조성되는 경우는 공업화와 동시에 도시화가 진행되지만, 평



1970년대 학의천 주변(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촌동에서는 계획적인 제조업 입지가 이루어졌다기보다 개별 업체가 시차를 두고 입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시가지가 조성되었다.

가장 먼저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은 별말 지역이다. 별말은 지방도 395호선의 통행 여건이 개선되고 도로 주변에 제조업체들이 입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을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남쪽에 있는 민백이 마을의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별말과 민백이 마을은 학의천에서 분리되어 달안이들로 향하던 소하천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 서로 붙어버릴 정도로까지 규모가 커졌다. 이들 자연마을의 확장은, 도로변을 따라 들어선 상업 시설이 늘어나면서 진행되었다. 제조업이 입지한 장소와 인접한, 지방도 395호선 도로변의 취락이 빠르게 규모를 확대한 것과 달리, 구릉지에 입지해 있던 귀인마을의 확대는 느리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별말과 민백이는 서로 밀착한 상태에서 밀집 시가지로 발전하였고, 이들 마을과 접한 의왕시 포일동과 내손동에서도 제조업이 들어서고 택지개발이 본격화하였다. 당시 의왕시에 건설되었던 주택 가운데 일부는 재개발을 통해 2009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하였으며, 일부 주택은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별말과 민백이 일대가 의왕시에 연담한 시가지로 도시화가 진행된 것과 달리, 귀인마을은 1980년대 말 때까지도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남아있었다.

이처럼 도시적 성격과 농촌적 성격이 공존하던 평촌동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달안이들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부터이다. 서울의 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주택 부족·교통 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1988년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5개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평촌신도시이다. 평촌신도시는 1988년 비산동·호계동·관양동·평촌동 일대에 걸친 달안이들(평촌별)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토대로 탄생한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이다. 신도시가 들어설 장소는 북쪽의 관악산, 동쪽의 모락산, 서쪽의 수리산이 둘러싸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흐르는 분지지형의 중심부로 지정되었다. 이 별판은 안양 지역 주민들이 벼농사와 시설재배, 축산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곳으로, 도시적 성격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농촌이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 지정된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는, 서울의 도심에서 반경 25km 이내에 위치하며 서울·과천·수원·인천 등 사방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점인데다 그 어떠한 개발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농경지로 존재하던 곳이어서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택지개발의 대상지로 평가받고 있었다. 평촌신도시의 기본 방향은, 안양의 기성시가지에 형성된 도심과의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동

시에 자족적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평촌신도시 개발은 안양시의 기개발지인 안양동·박달동·석수동 등지와 연계됨으로써 안양천 서쪽에 집중되었던 도시개발을 안양천 동쪽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안양시 전체의 차별적 성장을 억제하고 도시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는 효과도 기대되었다. 평촌신도시의 개발 규모는 인구 16만 8,72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4만 2,182가구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1989년 일부 수정되었다.¹² 기성시가지에 자리한 안양시청과 안양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을 신도시로 이전하고, 28개의 학교가 들어서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평촌신도시가 기성시가지와 상호보완적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계획에 포함된 것 가운데 하나가, 학군 문제의 해결이었다. 이를 위해 기성시가지의 일부 학교가 평촌신도시에 포함되었으며, 신도시 개발과 함께 많은 학교가 신설되었다.¹³

서울의 사당역까지만 운행하던 지하철 4호선이 평촌신도시를 경유하고 경부선 철도의 수도권 전철 1호선 금정역과 교차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입주 이후 나타날 교통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다. 이는 서울지하철 4호선이 수도권 전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엄밀하게 따지면 평촌동에는 평촌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전철노선의 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평촌역이 자리한 지역은 관양동에 속하는 부림동이고, 범계역은 호계동에 편제된 범계동에 설치되었다. 단지 평촌역의 3번 출구와 4번 출구가 평촌동에 설치되어 있다. 안양시에 새롭게 건설된 신도시의 이름이 평촌신도시이지만, 당시 평촌동의 일부 구역은 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평촌이라는 지명의 발상지인 별말 일대는 신도시 개발지구가 아니었으며 달안이들에 접한 농경지 및 귀인마을 일대만 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되었다.

평촌동은 동쪽에서부터 시가지가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서쪽은 1990년대 초반 계획적인 시가지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평촌동 동쪽의 도시화 수준이 높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평촌동의 서쪽이 직교형의 가로망과 신축 건물로 채워지면서 동쪽에 비해 도시화의 수준이 더 높은 지역이 되었다. 신도시가 건설된 서쪽에는 평촌중앙공원과 같은 대형 공원이 조성되기도 하였고, 빌딩 숲이 아닌 저층의 주거지역, 상가가 밀집한 상업지역 등이 질서정연하게 조성되었다. 반면 시가지 개발 시기가 오래된 동쪽은 미로형의 도로망, 폭이 좁은 도로, 노후 주택, 공장 이전적지에 건설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로 변화하였다.



평촌역사거리

3) 대지의 면적이 지배적으로 많은 시가지

2020년 기준 평촌동의 면적은 2.10km²로 안양시 7개 법정동 가운데 가장 좁으며, 안양시(58.47km²)의 3.6%에 불과하였다. 법정동 전체의 면적이 넓지 않은 관계로 3개 행정동의 면적도 좁다. 행정동별 면적은 평촌동의 면적이 0.82km²로 3곳 가운데 가장 넓고, 평안동과 귀인동은 각 0.64km²이다. 이렇게 본다면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행정동 평촌동)의 비중은 법정동 평촌동 전체 면적의 39.1%이다. 1973년 안양시로 승격할 당시, 평촌동의 면적은 지금보다 넓은 3.26km²이었으며 당시 안양시 면적(58.16 km²)의 5.6%를 차지하였다. 평촌동의 면적은 안양시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의 행정경계 조정을 통해 시 승격 당시보다 축소되었다. 전체 면적은 1984년 3.13km²로 약간 축소되었고, 1992년에는 평촌신도시 개발 이후 간선도로를 따라 행정경계를 조정함으로써 2.34km²로 축소되었다. 1994년 12월 22일 평촌동의 일부가 행정경계를 맞대고 있는 의왕시로 편입되었고, 같은 해 12월 26일에 평촌동 일부가 호계동에 편입됨에 따라 면적이 2.09km²로 다시 한번 축소되었다. 1995년에는 평촌동의 일부가 관양동에

편입되었다. 이후 전체 면적은 소폭의 변화가 있었으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여주는 지목(地目)의 구성을 보면, 1997년 이후 2020년에 이르기까지, 평촌동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목은 대지이다. 대지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이용되는 지목이다. 평촌동은 안양시 승격 당시에도 산지가 많지 않았고, 평촌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임야 대부분이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임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1.0%에 불과했으며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농촌적 토지이용에 해당하는 전과 답의 면적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는 전체의 40%를 상회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대지의 면적은 신도시 개발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평촌동(행정동)에는 아직 공장용지가 일부 남아있다. 오투기 안양공장과 같은 공장용지는 대부분 평촌동(행정동)에 분포한다. 이렇게 보면, 평촌동은 토지이용이나 지목 구성에서 농촌적 성격이 거의 발현되지 않는 전형적인 도시지역의 특징을 보인다. 면적이 넓지 않은 평촌동은 신도시 개발과 함께 대부분 시가화 구역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2000년 이후 토지이용의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표 1〉 평촌동의 지목 구성 변화

(단위 : m²)

연도	계	전+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공원
1997년	2,097,414	46,835	21,638	837,276	174,024	104,182	433,800	204,256
2000년	2,097,414	24,794	17,450	921,564	109,650	104,182	438,741	204,256
2005년	2,097,414	17,384	16,524	919,505	79,547	115,266	458,973	204,256
2010년	2,097,414	12,044	9,315	935,592	67,683	118,522	463,766	205,812
2015년	2,097,414	8,437	9,150	932,688	60,737	118,522	466,237	205,812
2020년	2,097,409	6,732	6,811	922,691	77,840	118,522	469,622	206,451

자료 : 안양시, 『안양통계연보』.

평촌동의 토지이용에서 안양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점은, 공원의 면적이 시가지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평촌동에는 신도시 개발 당시 평촌중앙공원을 비롯해 여러 개의 소공원이 조성되었다. 공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공원은 평안동의 서쪽 끝에 자리한 평촌중앙공원이다. 안양 9경 가운데 제3경으로 꼽히는 평촌중앙공원은 면적이 11만 9,843m²에 이를 정도로 넓은 면적에 조성되었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농구장·테니스장·분수대·공영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안양시에서는 평촌



노후주택과 신규 아파트가 혼재하는 평촌동 벌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중앙공원과 안양시청 뒤편의 평촌공원(부림동)이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평촌신도시를 대표하는 두 개의 공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2019년 평촌 복합문화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평촌중앙공원은 ‘안양축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로 이용된다.

평촌동의 동남쪽 계원대사거리에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자리한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두 개의 부지가 접해 있는데, 1997년 3월 8만 3,209㎡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준공된 것이 첫 번째 시장이고, 1998년 7월 1,732㎡의 부지에 준공된 소규모의 시장이 두 번째 시장이다. 1998년 건설된 시장은 직판상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7년 건설된 시장은 청과물·수산물·채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이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¹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도권 남부의 유통을 담당하는 공영도매시장으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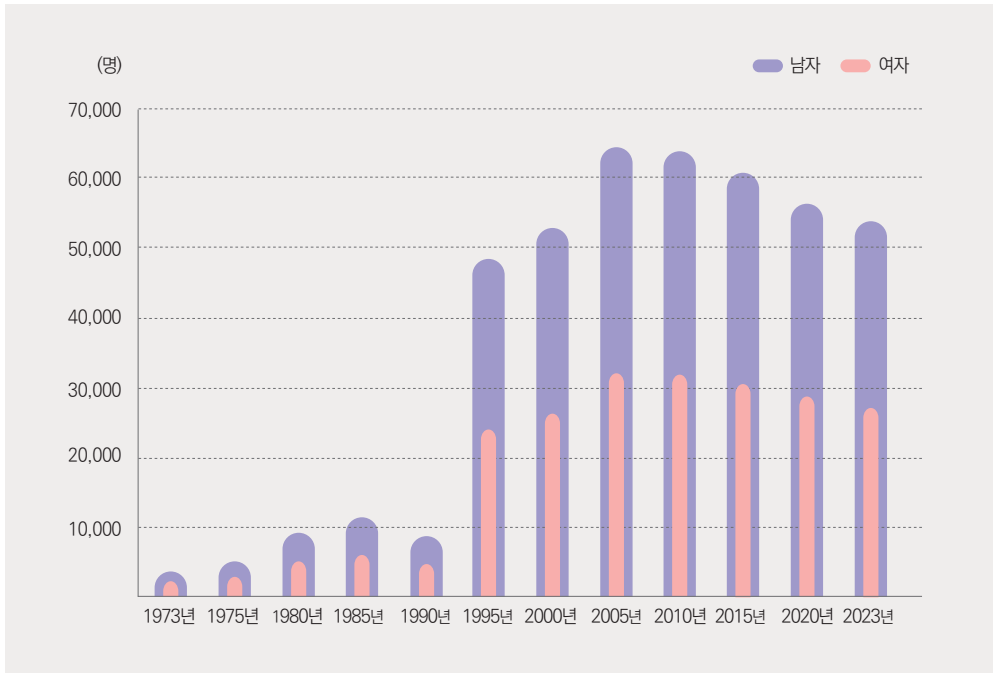
4. 평촌동의 주민과 경제활동

1) 평촌신도시 개발 직후 급증한 인구

평촌동의 인구 규모는 안양시 승격 이후인 197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07년에 고점을 찍은 후 2008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에 이르기까지 증가세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안양시의 기성시가지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 그리고 평촌신도시 개발이 진행된 신시가지에서 2000년대 들어 인구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평촌동은 지역 특성상 농업지역을 대규모로 포함하고 있었고 계획적인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자연마을이 존재하던 지역이어서, 199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 인구는 아주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1992년 평촌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후 자연마을이 사라지고 대단위로 건설된 주택단지에 주민 이주가 시작되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신도시 입주 이후에는 별말(행정동 평촌동) 일대의 노후 시가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인구 증가 요인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미진해지고 기존 시가지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규모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의왕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별말 일대에는 건축 연대가 오래된 주거지 및 상가가 있으므로, 이들 구역에 대한 재개발을 통해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향후 인구 감소 추세는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시 승격 당시인 1973년 3,522명(남자 1,590명, 여자 1,932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1982년(1만 193명)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평촌동의 인구증가는 안양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인구 규모가 비교적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당시 별말 일대에 입지한 제조업에 기인한다. 1980년대 후반 인구 규모가 1만 명 이하로 감소한 원인은, 평촌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귀인마을 등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이주 때문이다. 1992년 신도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이후에는 신도시에 인접한 구역에서 아파트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1990년 8,262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1993년 3만 1,652명, 1995년 4만 8,133명으로 증가하였고 1996년(5만 114명)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1996년의 인구분포를 행정동별로 구분해 보면, 신도시 개발지인 평안동(2만 9,846명)과 귀인동(1만 5,295명)에 인구가 많았지만, 신



신도시 개발 이후 급증한 평촌동의 인구 규모 변화

도시 개발과는 관련이 없던 평촌동(4,873명)의 인구는 5,000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평안동과 귀인동은 면적이 비슷하지만 두 행정동의 인구 규모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주택 유형 때문이다. 평안동은 대부분 공동주택의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지만, 귀인동은 3층 내외의 주택단지와 고층 아파트 단지가 혼재한다.

신도시로 개발되지 않았던 별말(행정동 평촌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체가 이전해 간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주택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법정동 평촌동의 인구는 2002년(6만 2,166명)에 6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0년 7,825명이었던 평촌동(행정동)의 인구 규모는 1만 4,459명으로 늘었다. 이에 힘입어 전체 인구 규모는 2007년(6만 4,088명)에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였고, 2016년(5만 9,492명)에 6만 명 선이 붕괴되었다. 2023년 6월 기준 인구는 5만 3,518명이며, 평안동의 인구 규모가 가장 컸다.

안양시 승격 이후의 인구증가는 제조업의 입지와 신도시 개발, 그리고 신도시 인접지역의 노후공간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에 기인한다. 제조업은 평촌동의 초기 인구증가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당시 별말 일대에 입지한 제조업체가 일자

리를 제공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제조업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제조업의 인구흡인력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당시 평촌동은 택지개발이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평촌동의 인구증가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준 것은 신도시 개발이었다. 평촌동 전체 인구가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3.2%에 불과했으며 신도시 개발 이전인 1985년에도 3.1%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이후인 1995년에 인구비중은 8.1%까지 상승하였다. 2000년대에는 별말 일대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된 결과 2005년의 인구비중은 10.2%로 증가하였다. 2023년 6월 말 기준, 평촌동의 인구는 안양시 인구의 9.8%를 차지했으며, 행정=동별 인구는 신도시로 개발된 평안동의 인구가 2만 3,075명으로 가장 많고, 귀인동(1만 6,300명)과 평촌동(1만 4,143명)이 뒤를 잇는다. 별말을 포함하는 평촌동(행정동)은 과거 공장이 입지해 있던 구역에 대한 택지화로 2000년대 들어 인구가 증가하였다.

〈표 2〉 평촌동의 행정동별 인구

(단위 : 세대, 명)

구분	세대	인구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평촌동	4,922	14,143	6,942	7,201	2.87	
행정동	평안동	8,085	23,075	11,256	11,819	2.85
	귀인동	5,097	16,300	8,079	8,221	3.20
평촌동(전체)	18,104	53,518	26,277	27,241	2.96	

자료 : 안양시청, 2023년 6월 말.

행정동별 인구변화에서는, 신도시에 자리한 평안동의 인구는 2000년 2만 9,367명에서 2023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평촌동(행정동)과 귀인동에서는 인구가 증가하였다. 2000년 평촌동과 귀인동의 인구는 각각 7,689명과 1만 5,354명이었기에, 평촌동에서의 인구증가가 두드러졌다. 평안동은 신도시로 개발된 시기가 30년을 넘어서면서 서서히 주거 여건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전출인구가 많은 곳이다. 반면 평촌동은 기존 노후주택에 대한 재구조화와 공장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한 택지화로 인구흡인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졌으며, 귀인동은 2002년에 준공된 아파트단지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평촌동(행정동)은 노후주택과 노후건축물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인구증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안동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된 것은 전출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의 감소 때문이다. 출산율은 세대당 인구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대당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1973년 평안동의 세대당 인구는 5.98명으로 당시 안양시의 7개 동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안양시 평균(4.95명)보다 1명 많았다. 그러나 1979년에는 세대당 인구가 4.96명으로 5.0명 아래로 감소하였으며, 1988년에는 3.80명으로 4.0명 아래로 내려갔다.

안양시에서 신도시 개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인 평촌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까지 세대당 인구가 3.0명을 웃돌았으나, 2023년 기준 세대당 인구는 2.96명을 기록하였다. 행정동별로 보면, 2023년 기준으로 귀인동은 3.20명으로 안양시 전체 31개 행정동 가운데 유일하게 3.0명을 넘었고, 평촌동(2.87명), 평안동(2.85명)이 그 뒤를 이었다. 평촌동의 3개 행정동의 세대당 인구가 안양시 전체 31개 행정동에서 상위 3개 지역에 해당하였다.

2) 안양시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마을

1973년 안양시 승격 당시 평촌동에는 여자(1,932명)가 남자(1,590명)보다 많았으며, 이후로도 성별 인구구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특징을 보였다. 평촌동은 신도시

평안어린이공원



개발 이전까지 남녀 간 인구구성을 보여주는 성비가 100을 크게 밑돌아 여초현상이 두드러졌다. 성비는 1975년에 67.2(남자 1,915명, 여자 2,848명)를 기록했고, 1980년 76.6(남자 3,785명, 여자 4,942명), 1985년 91.9(남자 5,296명, 여자 5,763명)로 조금씩 증가하여 1990년 100.2(남자 4,135명, 여자 4,127명)에 근접하였다. 이처럼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규모가 컸던 이유는, 평촌동에 입지했던 섬유업체에 종사한 여성 노동자의 영향이 크다. 성비는 신도시 입주 이후 100에 근접함으로써 남녀 간 인구구성에서 균형을 이루었지만,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0년 98.0(남자 3만 1,373명, 여자 3만 2,001명)이 되었고 2023년에는 96.5(남자 2만 6,277명, 여자 2만 7,241명)로 감소하였다.

인구구성은 전체적으로 여자가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인구 규모가 3,522명에 불과했던 1973년에는 1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남녀 간 구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15~24세는 여자(671명)가 남자(389명)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1973년에는 15~24세 연령층에서 발생한 성별 인구 규모의 격차가 전체 남녀 간 인구 규모의 격차에 해당할 정도로, 젊은 여성이 많이 거주하였다. 2000년 들어 60세 미만의 연령층으로 한정해 보면, 25~39세에 이르는 연령층에서 여자(7,493명)가 남자(6,479명)의 규모를 압도했고, 59세 이하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더 많았다. 2022년에는 30~49세의 연령층은 여자가 더 많고, 29세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가 더 많았다.

평촌동에서도 노년 인구의 증가와 젊은 연령층의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고령화가 심화한 단계는 아니고 안양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소년 인구의 비율도 높다. 1973년 34.0%를 기록했던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000년 25.5%로 낮아졌고 2022년에는 16.7%를 기록하였다. 평촌동에 인접한 관양동의 2022년 유소년 인구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고려하면, 평촌동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 9.0%를 기록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2000년에는 4.8%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10.1%에 머물렀다.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64세 청장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의 57.1%에서 2022년 73.1%로 상승하였다. 2022년 기준 평촌동의 노인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18.0%)는 물론 경기도(14.7%)보다 크게 낮았다. 평촌동은 젊은 연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표 3〉 평촌동의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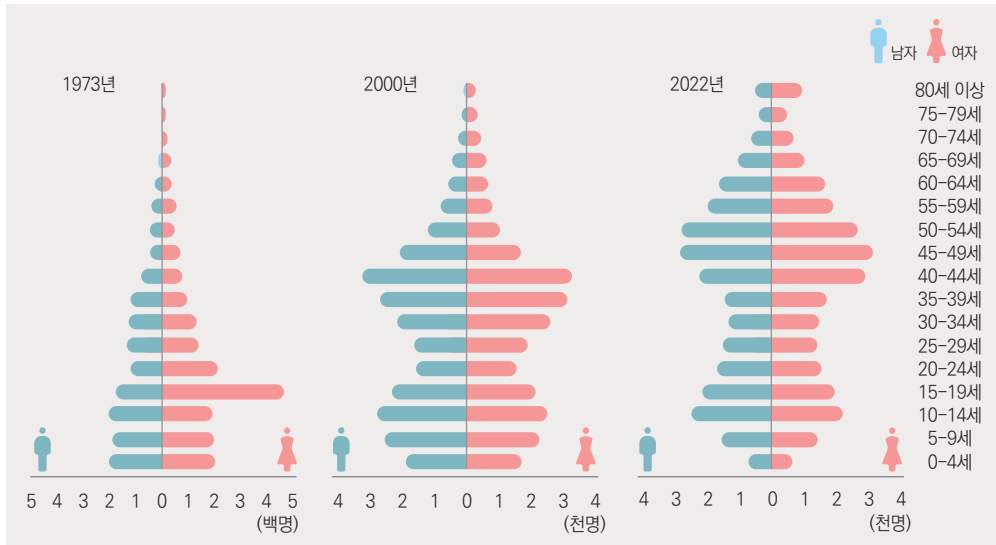
연령	성별	1973년		2000년		2022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유소년 (0~14세)	남자	610	17.3	7,109	13.6	4,718	8.8
	여자	586	16.6	6,274	12.0	4,278	8.0
	계	1,196	34.0	13,383	25.5	8,996	16.7
청장년 (15~64세)	남자	950	27.0	18,178	34.7	19,236	35.8
	여자	1,060	30.1	18,325	35.0	20,118	37.4
	계	2,010	57.1	36,503	69.6	39,354	73.1
노년 (65세 이상)	남자	30	0.9	927	1.8	2,445	4.5
	여자	286	8.1	1,597	3.0	3,008	5.6
	계	316	9.0	2,524	4.8	5,453	10.1
전체	남자	1,590	45.1	26,214	50.0	26,399	49.1
	여자	1,932	54.9	26,196	50.0	27,404	50.9
	계	3,522	100.0	52,410	100.0	53,803	100.0

자료 : 안양시, 『안양통계연보』, 1974년, 국가통계포털.

비고 : 비율은 연도별 총인구에 대한 것임.

1973년에는 10대 미만(23.3%)의 인구나 10대(30.6%)의 인구가 월등하게 많았지만, 2000년에는 30대(14.5%)와 40대(14.0%)의 인구 규모가 컸다. 2022년에는 40대(13.8%)와 50대(11.6%)의 인구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촌동의 주류를 이루는 인구집단이 변화하였다. 2000년 이후 30대와 40대 연령층의 비중이 크게 형성된 것은,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입주한 젊은 연령층의 영향이 크다. 1970~1980년대에는 연령층별 인구구성에서 비중이 탁월한 연령층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연령층별 인구비중의 편차가 감소한 가운데 40대와 50대의 비중이 조금 크게 형성된 정도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은 지역 차가 존재하는데, 기성시가지의 모습이 남아있는 평촌동(행정동)이 11.9%로 가장 높았고 평안동(9.7%)과 귀인동(9.3%)은 이보다 낮았다. 평촌동(행정동)은 50대(20.1%)와 40대(15.8%)의 비중이 크고, 평안동과 귀인동은 모두 40대의 비율이 각각 21.4%와 22.8%로 제일 높았다. 평안동과 귀인동에서 50대 연령층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15.3%와 17.1%를 기록하였다. 평촌동(행정동)은 평안동이나 귀인동과 연령층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지역이다.

1973년의 인구피라미드는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인구 규모가 증가하고 고령층으로



평촌동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 변화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삼각형 모양을 보여주는데, 이는 농촌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인구구성이다. 15~19세와 20~24세 연령층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던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신도시 개발 이후의 평촌동은 전형적인 도시 지역의 인구구성을 보였다. 2000년의 인구구성은 별 모양의 인구피라미드를 나타내는데, 전입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의 인구구성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전입인구의 인구구성이 젊은 연령층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양시 또는 평촌동의 경제활동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전입인구가 선별적으로 이주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도시지역에서는 대체로 중간 연령층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로부터 연령이 낮아지거나 높아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방추형의 모습을 보이는데, 평촌동에서는 2022년에도 별 모양의 인구피라미드가 형성되었다. 이는 평촌동의 인구구성에서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2년 10대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인구가 주변 연령층에 비해 많은 것은 평촌동이 가지는 인구구성의 특징이다.

2022년 인구피라미드는 2020년과 모양은 유사했으나 비중이 큰 연령층에 변화가 생겼다. 앞으로 평촌동은 유소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노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촌동 전체의 인구 감소는 2000년의 인구구성에서 어린 연령층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어린 연령층의

인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어린 연령층의 인구 감소는 전체 인구의 감소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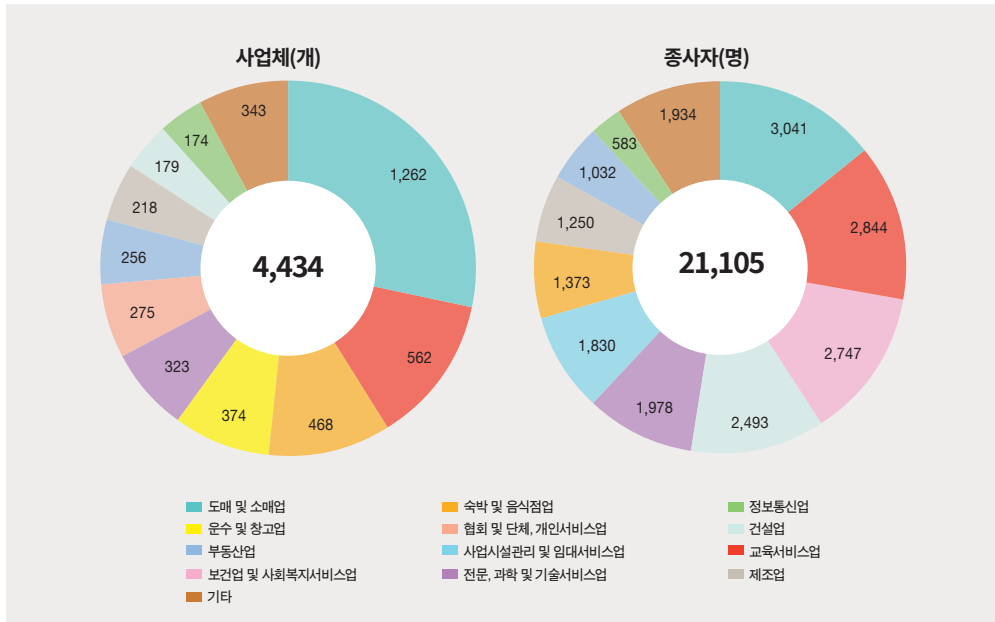
평촌동의 2022년 인구피라미드를 2000년과 비교하면, 비중이 큰 연령층의 연령이 상승하였다는 점과 4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증가와 30대 이하 연령층의 인구 감소 등이 확인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행정동별 평균연령은 평촌동이 39.9세, 평안동이 37.5세, 귀인동은 37.6세를 기록했는데, 이를 안양시 전체의 평균연령 42.3세에 비하면 평안동이나 귀인동은 아주 젊은 지역에 해당한다. 평균연령은 평안동이 안양시의 31개 행정동 가운데 가장 낮으며, 귀인동과 평촌동이 그 뒤를 이었다. 평촌동은 안양시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다.

3) 상업과 교육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

평촌동에 입지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규모는 안양시의 다른 법정동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안양시에는 모두 6만 3,452개의 사업체에 27만 2,06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였다. 평촌동에 입지한 사업체는 도시 전체의 7.0%에 불과한 4,434개이고, 종사자수는 도시 전체의 7.8%인 2만 1,105명이었다. 평촌동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4.8명으로 안양시 전체(4.3명)보다 많다. 평균 종사자수는 평촌동(행정동)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안동이 5.2명이었다. 반면 귀인동은 평균 종사자수가 3.4명에 불과해 안양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귀인동은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평안동이나 평촌동(행정동)은 중·대규모의 사업체가 많은 편이다.

2000년 기준, 평촌동에는 1,739개의 사업체에 8,357명의 종사자가 근무했으며, 당시 안양시에서 차지한 비중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모두 5.3% 수준이었다. 이를 2021년과 비교하면, 평촌동에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고, 평촌동의 경제활동 입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활발했음을 볼 수 있다. 행정동으로 나누어 보면, 모든 동에서 경제활동의 규모가 확장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평촌동(행정동)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다. 평촌동(행정동)의 경제활동은 주로 흥안대로 주변에 입지하며, 인덕원동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오투기식품 공장 근처 벤처밸리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경제활동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다.

평촌동의 경제활동 가운데 산업 대분류 방식을 적용해 보면,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교육서비스업(18.6%),



2021년 평촌동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상위 10개 업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2%), 부동산업(7.5%) 등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일 뿐, 도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교육서비스업(14.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2%),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11.0%), 건설업(10.5%), 부동산업(11.2%) 등의 비중이 조금 높게 형성되었다. 평촌동은 주거기능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체 입지가 많지 않다. 도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업종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021년 기준, 평촌동에 가장 많이 입지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고,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뒤따른다. 종사자수의 분포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종사자가 많다.¹⁵ 교육서비스업은 귀인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귀인동과 평안동 경계의 평촌대로와 귀인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의 이름은 ‘학원가사거리’이다.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규모가 가장 큰 행정동은 흥안대로를 따라 많은 사업체가 입지한 평촌동(행정동)이다. 평촌동에는 2,033개의 사업체에 1만 1,458명의 종사자가 분포하여, 사업체수는 평촌동(법정동)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종사자수는 절반을 넘었다. 평안동에는 806개의 업체에 4,228의 종사자가 있고 귀인동에는 1,595개의 업

체에 5,419명의 종사자가 있다. 주거단지와 공원이 자리하는 평안동의 사업체 입지가 가장 미약했다. 귀인동은 서쪽의 상가밀집지역과 남쪽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인해 사업체와 종사자가 많은 수준이다.

5. 개선이 필요한 평촌동 시가지의 불균형

학의천 남쪽 넓은 달안이들과 의왕시 모락산에서 뿔어 내린 산줄기 말단부 사이에 자리한 평촌동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도시적 성격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별말’이라는 순우리말 지명이 보여주듯, 산지가 없는 낮고 평형한 들판을 배경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1970년대 들어 별말 일대에 제조업체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공업화가 진행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도시화의 정도는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1980년대 말에 본격화한 평촌신도시 개발은 별말의 이미지를 소거해 버렸다.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이 진행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역이 형성되면서 평촌동에서는 시가지의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이전에 제조업체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별말 일대의 시가지는 이제 노후 공간으로 남아있지만, 평촌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신시가지는 아직까지 건전한 도시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인접한 인덕원동에서 확산된 공업화의 영향으로 평촌동(행정동)에는 제조업 관련 시설이 공존한다. 오래전에 입지한 제조업체는 현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골목이 없는 첨단산업으로 재구성되었지만, 일부 공장은 지역 내에서 마치 섬처럼 남아있어 도시공간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평안동과 귀인동은 비교적 현대도시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시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평촌동은 공업설비, 신규 공동주택, 노후 단독주택, 상업시설, 좁은 골목길 등이 공존하고 있어 계획 없이 시가지 개발이 진행된 듯한 인상을 주는 지역이다. 게다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의왕시 내손동 일대에서는 노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촌동의 시가지는 서쪽에 인접한 귀인동 및 평안동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동쪽에 접한 의왕시와도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평촌동은 기성시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노후 지역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 생활 여건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註

- 1 최호림, 1990, 「안양평촌지구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관한 고찰」, 『도지연구』, 제1권, 117~118쪽.
- 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안양시사-제1권 역사와 전통의 안양』, 360~366쪽.
- 3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353쪽.
-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 5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푸른길, 243쪽.
- 6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편, 2011, 『경기도 역사지명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47쪽.
- 7 위의 책, 241쪽.
- 8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369쪽.
- 9 동일방직 안양공장은 1997년 폐쇄되었다.
- 10 민법식·장철순, 2003, 『수도권 대기업공장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이전적지 활용방안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33~34쪽.
- 11 「대기업 폐수 분진 암체 배출」, 『동아일보』, 1984년 3월 14일.
- 1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안양시사-제4권 살기좋은 환경도시 안양』, 10~12쪽.
- 13 안양상공회의소, 1991, 『평촌·산본 신도시 건설과 안양권 발전』, 52쪽.
- 14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 15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규모를 나타낸 그림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표기된 업종의 정확한 명칭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다.

제2장

평촌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박홍규 수원도시재단 차장



1. 평촌동의 인구 및 사업체 현황

평촌동은 안양시 동안구 중앙에 위치한 주거와 상업의 중심지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이다. 수도권 전철 4호선 평촌역과 인덕원역이 인접해 있으며, 평촌IC와 북청계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대중교통과 차량 이동 모두 편리한 입지를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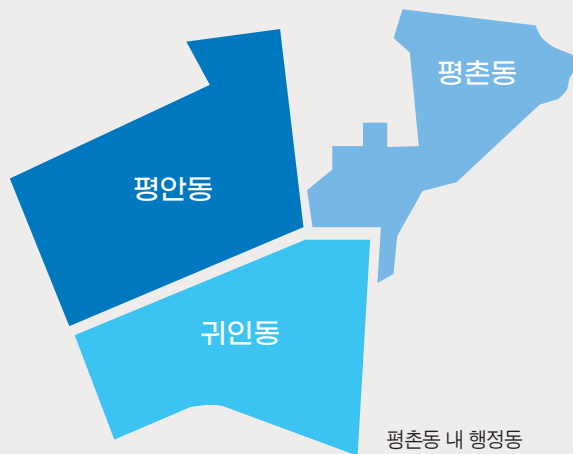
평촌역 주변의 로데오거리는 대형 상업시설과 전문 상권이 밀집해 있으며, 쇼핑, 외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 지역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상권으로 평가받는다.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며, 초·중·고등학교와 평촌 학원가가 조화를 이루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평촌 중앙공원과 평촌아트홀은 주민들에게 녹지와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교통·상업·교육·문화가 조화롭게 발달한 평촌동은 주거와 업무 환경 모두에서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기준, 평촌동(평촌동·평안동·귀인동)에는 5만 3,22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안양시 전체 인구의 약 9.8%, 동안구의 약 16.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2014년 6만 625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평촌동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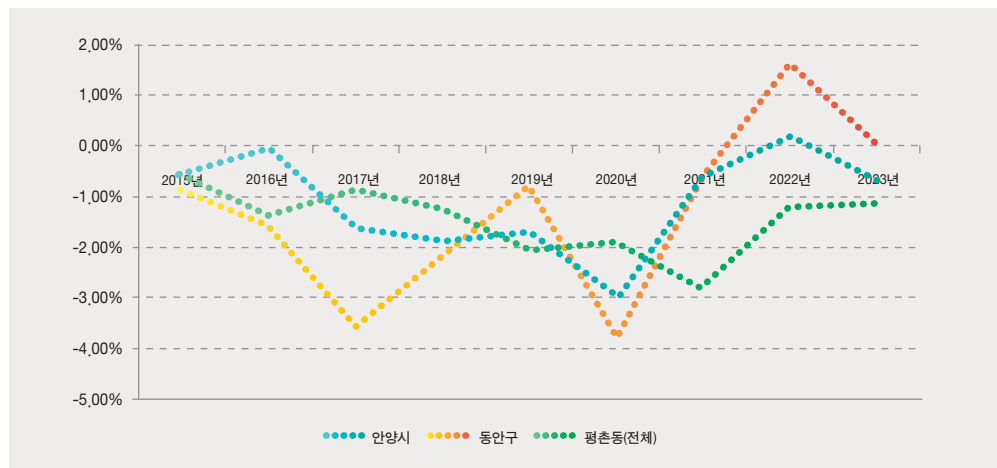


〈표 1〉 안양시·동안구·평촌동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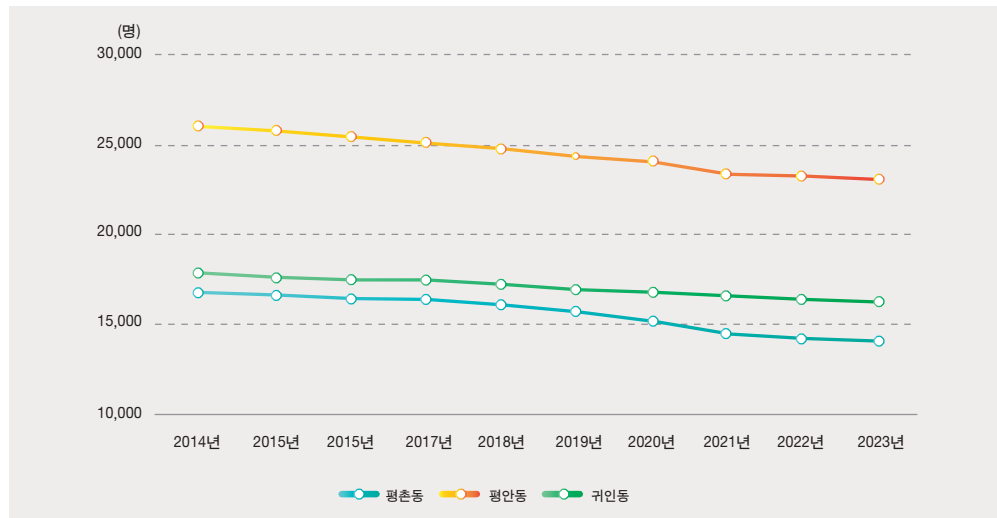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안양시	600,809	597,789	597,414	587,764	576,831	567,044	550,027	547,178	548,228	544,660
동안구	353,494	350,519	345,061	332,787	325,319	322,809	310,614	308,867	313,834	313,996
평촌동	16,758	16,729	16,454	16,415	16,167	15,702	15,047	14,496	14,236	14,047
평안동	26,027	25,855	25,423	25,080	24,793	24,338	24,106	23,325	23,170	22,945
귀인동	17,840	17,729	17,615	17,480	17,287	17,031	16,830	16,607	16,397	16,228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통계」(<https://jumin.mois.go.kr>).



안양시·동안구·평촌동의 인구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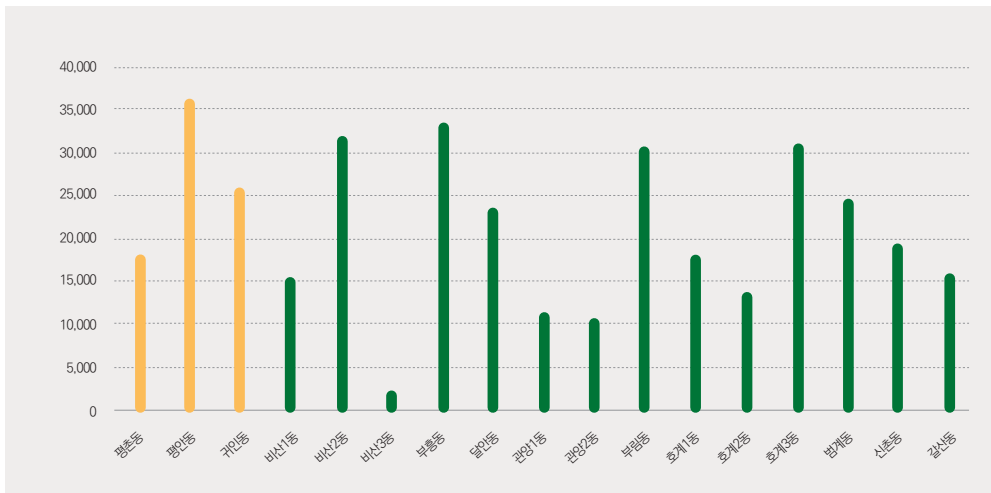
2014~2023년 평촌동의 행정동별 인구 변동

〈표 2〉 2022년 안양시·동안구·평촌동 인구밀도

(단위 : 명/㎢)

구분	인구밀도	구분	인구밀도
안양시	9,476	달안동	23,345
동안구	14,377	관양1동(관양동)	10,907
평촌동	전체	관양2동(인덕원동)	10,497
	평촌동	부림동	30,706
	평안동	호계1동	17,800
	귀인동	호계2동	13,517
	비산1동	호계3동	31,233
	비산2동	범계동	24,341
비산3동	신촌동	19,115	
부흥동	33,376	갈산동	15,664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https://www.anyang.go.kr>).



2022년 동안구의 동별 인구밀도

평촌동의 인구밀도는 25,672명/㎢이고 평안동은 36,266명/㎢로 동안구에서 가장 높고, 평촌동과 귀인동 역시 안양시 및 동안구의 인구밀도보다 높다. 평촌동의 인구밀도는 안양시 전체 대비 270.9%, 동안구 대비 178.6%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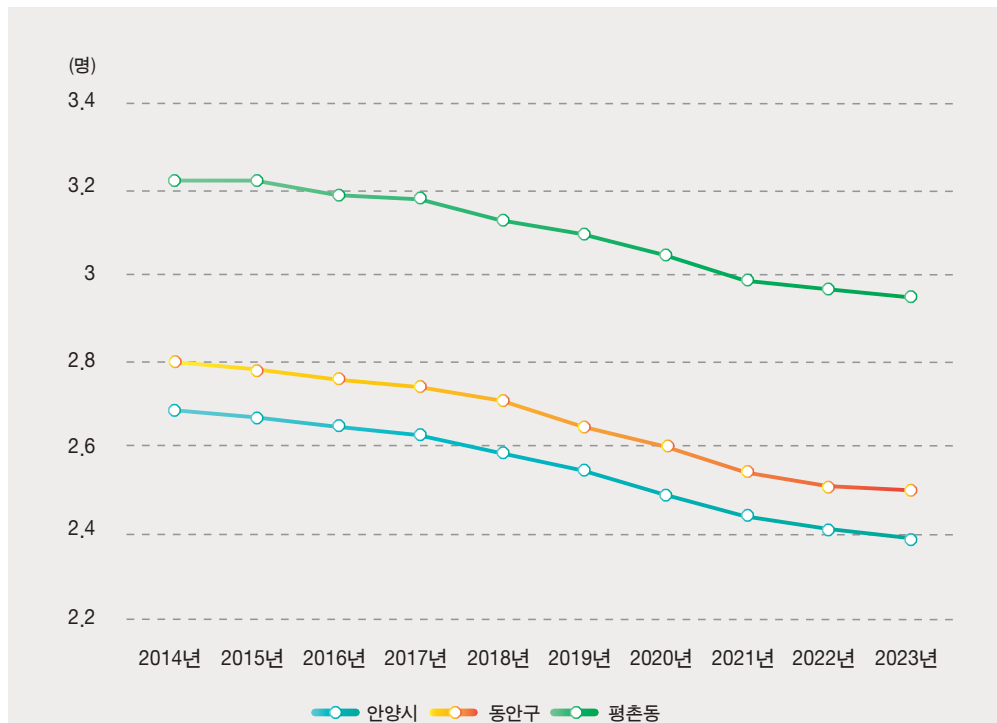
〈표 3〉 2014~2023년 안양시·동안구·평촌동의 세대당 인구수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안양시	2.69	2.67	2.65	2.63	2.59	2.55	2.49	2.44	2.41	2.39
동안구	2.80	2.78	2.76	2.74	2.71	2.65	2.60	2.54	2.51	2.50
평촌동	3.22	3.22	3.19	3.18	3.13	3.10	3.05	2.99	2.97	2.95
전체	3.22	3.22	3.19	3.18	3.13	3.10	3.05	2.99	2.97	2.95
평촌동	3.13	3.15	3.12	3.12	3.08	3.03	2.98	2.91	2.89	2.85
평안동	3.16	3.14	3.11	3.08	3.03	3.00	2.95	2.89	2.86	2.84
귀인동	3.41	3.41	3.39	3.39	3.35	3.33	3.28	3.24	3.21	3.2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https://jumin.mois.go.kr>).

2023년 평촌동의 세대당 인구는 2.95명으로,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안양시 전체적으로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촌동은 안양시와 동안구에 비하여 감소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 안양시·동안구·평촌동의 세대당 인구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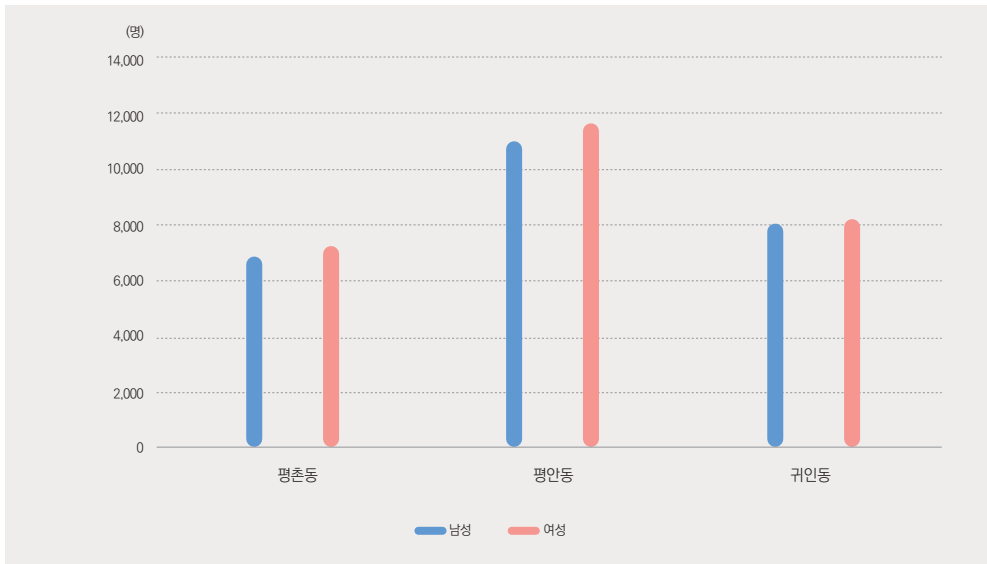
〈표 4〉 평촌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촌동	13,900	6,803	7,097	1,009	1,453	1,721	1,801	2,113	2,719	3,084
평안동	22,715	11,070	11,645	1,895	3,514	2,293	2,926	4,736	3,725	3,626
귀인동	16,157	7,998	8,159	1,060	3,400	1,651	1,041	3,628	2,812	2,565
평촌동(전체)	52,772	25,871	26,901	3,964	8,367	5,665	5,768	10,477	9,256	9,275
비율	100.0	49.0	51.0	7.5	15.9	10.7	10.9	19.9	17.5	17.6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주거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2024년 1월 기준)」 활용한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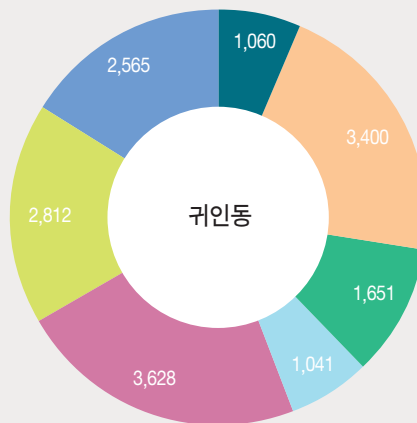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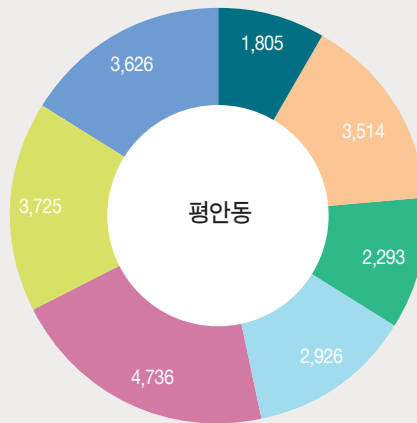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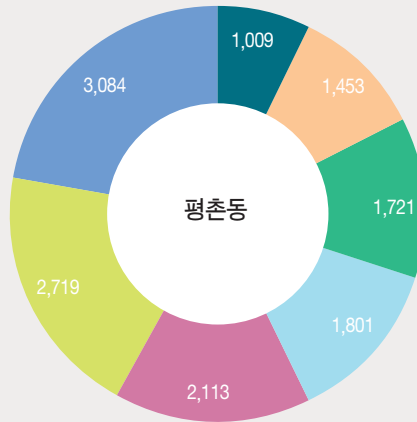
평촌동의 거주 인구는 5만 2,772명으로, 남성 2만 5,871명, 여성 2만 6,901명으로 성비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30대는 전체 인구의 10.9%, 40대는 19.9%를 차지하며, 고령화가 저조한 지역이다. 청소년 인구는 23.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평촌동의 행정동별 남녀 인구(2024년 1월 기준)

- 10대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단위 : %)



평촌동의 연령별 인구 분포(2024년 1월 기준)

〈표 5〉 2014~2022년 안양시·동안구·평촌동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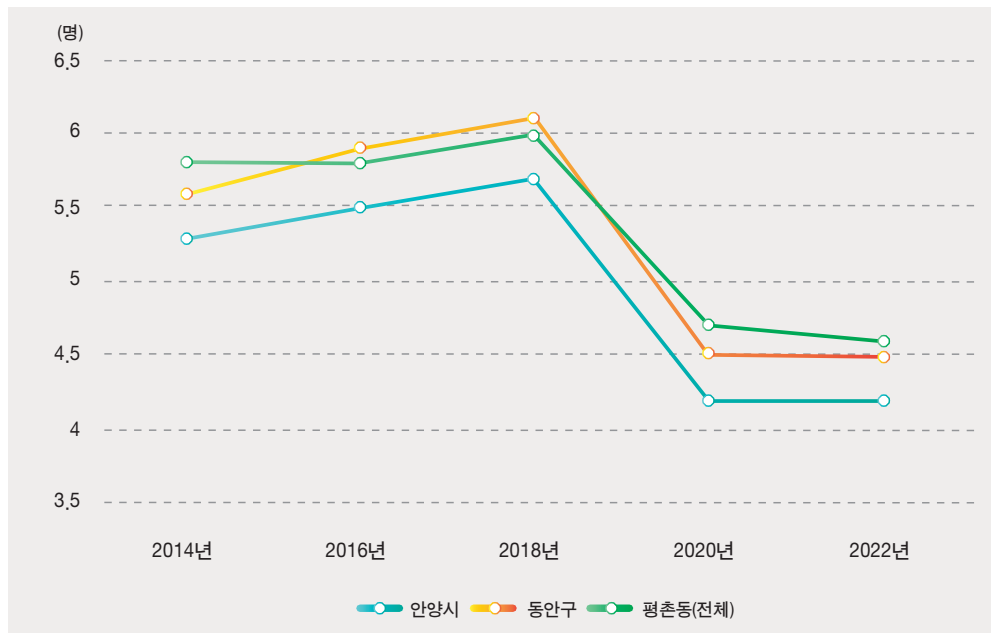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안양시	44,505	235,143	44,767	246,711	44,824	255,402	63,348	267,279	65,722	276,105
동안구	26,789	151,132	27,384	161,360	27,046	166,236	40,652	181,419	40,830	181,863
평촌동	1,157	7,893	1,157	8,025	1,181	8,640	2,021	11,213	2,093	11,229
평안동	490	3,722	469	3,816	472	3,662	742	3,859	861	4,687
귀인동	1,323	5,485	1,290	5,172	1,260	5,232	1,598	5,539	1,602	4,946
평촌동(전체)	2,970	17,100	2,916	17,013	2,913	17,534	4,361	20,611	4,556	20,862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해당연도.(<https://www.anyang.go.kr>).

〈표 6〉 2014~2022년 안양시·동안구·평촌동 사업체당 종사자수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안양시	5.3	5.5	5.7	4.2	4.2
동안구	5.6	5.9	6.1	4.5	4.5
평촌동(전체)	5.8	5.8	6.0	4.7	4.6



2014~2022년 안양시·동안구·평촌동 사업체당 종사자수 변화

2022년 기준, 평촌동은 안양시 전체 사업체의 약 6.9%인 4,556개소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종사자수는 2만 862명이다.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약 4.6명으로 안양시와 만안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촌동에 입지하고 있는 사업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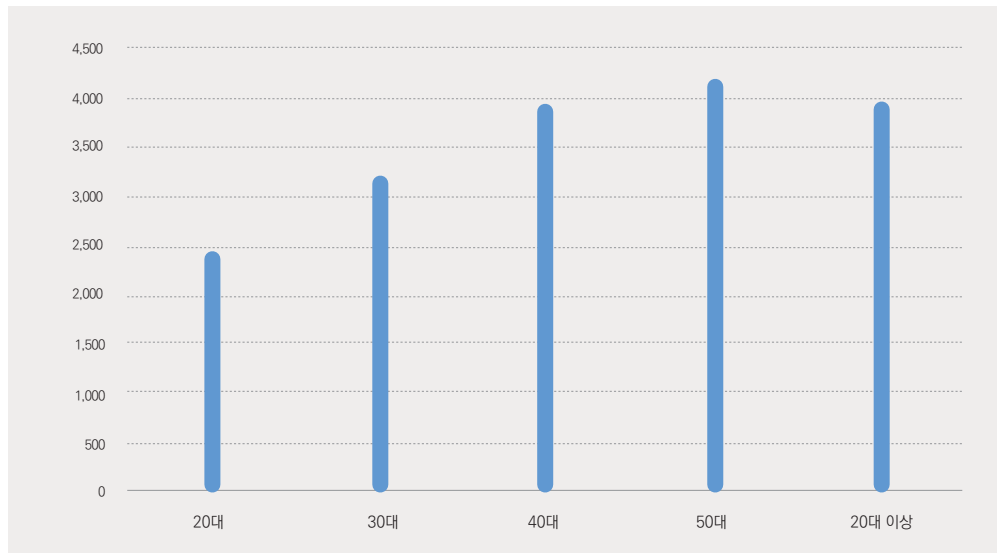
〈표 7〉 평촌동의 직장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촌동	11,317	6,225	5,092	1,233	2,069	2,730	2,840	2,445
평안동	6,470	1,818	4,652	1,221	1,167	1,239	1,340	1,503
귀인동	8,014	3,063	4,951	889	1,306	1,801	1,886	2,132
평촌동(전체)	17,787	8,043	9,744	2,454	3,236	3,969	4,180	3,948
비율	100.0	45.2	54.8	13.8	18.2	22.3	23.5	22.2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직장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를 활용한 추정치).

평촌동의 직장인구 총 1만 7,787명 중 남성이 8,043명, 여성이 9,744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2%, 50대가 23%대로 전체 직장인구의 45%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촌동의 연령별 직장인구 분포

2. 평촌동의 토지이용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평촌동의 용도지역은 총 209.64ha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38.7%(81.31ha)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각각 14.3%(27.62ha), 13.2%(27.62ha)로 주거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일반상업지역은 9.3%(19.49ha), 일반공업지역은 15.9%(19.49ha)로 상업 및 산업 기능을 담당하며, 자연녹지지역(8.6%)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귀인중학교 주변)



제3종일반주거지역(귀인현대홈타운아파트)



일반상업지역(평촌동 900-4 일원)



일반공업지역(GS파워)



평촌동의 용도지역

〈표 8〉 평촌동의 용도지역

(단위 : ha, %)

구분	면적	비율	구분	면적	비율
제1종일반주거지역	27.62	13.2	일반상업지역	19.49	9.3
제2종일반주거지역	29.93	14.3	일반공업지역	33.24	15.9
제3종일반주거지역	81.31	38.7	자연녹지지역	18.04	8.6
중심상업지역	0.01	0.1	합계	209.64	100.0

자료 : 「국토계획/공간시설」,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평촌동의 지목

〈표 9〉 평촌동의 지목별

(단위 : ha, %)

구분	면적	비율	구분	면적	비율
도로	46.87	22.4	구거	0.29	0.1
대	92.26	44.0	공원	20.64	9.7
전	0.56	0.3	잡종지	24.04	11.4
임야	0.68	0.3	학교용지	11.84	5.7
종교용지	2.31	1.1	주차장	0.04	0.1
하천	1.54	0.7	담	0.11	0.1
공장용지	8.33	4.0	주유소용지	0.10	0.1
			합계	209.61	100.0

자료 : 「연속지적도형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대(초원LG아파트)



공원(평촌중앙공원)

평촌동의 지목은 대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거 및 상업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다. 도로(22.4%)는 주요 교통망을 형성하고, 잡종지(11.4%)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공원(9.7%)과 학교용지(5.7%)는 주민들의 여가와 교육인프라를 제공하고, 공장용지(4.0%)는 산업 활동을 지원한다.



잡종지(귀인동 934-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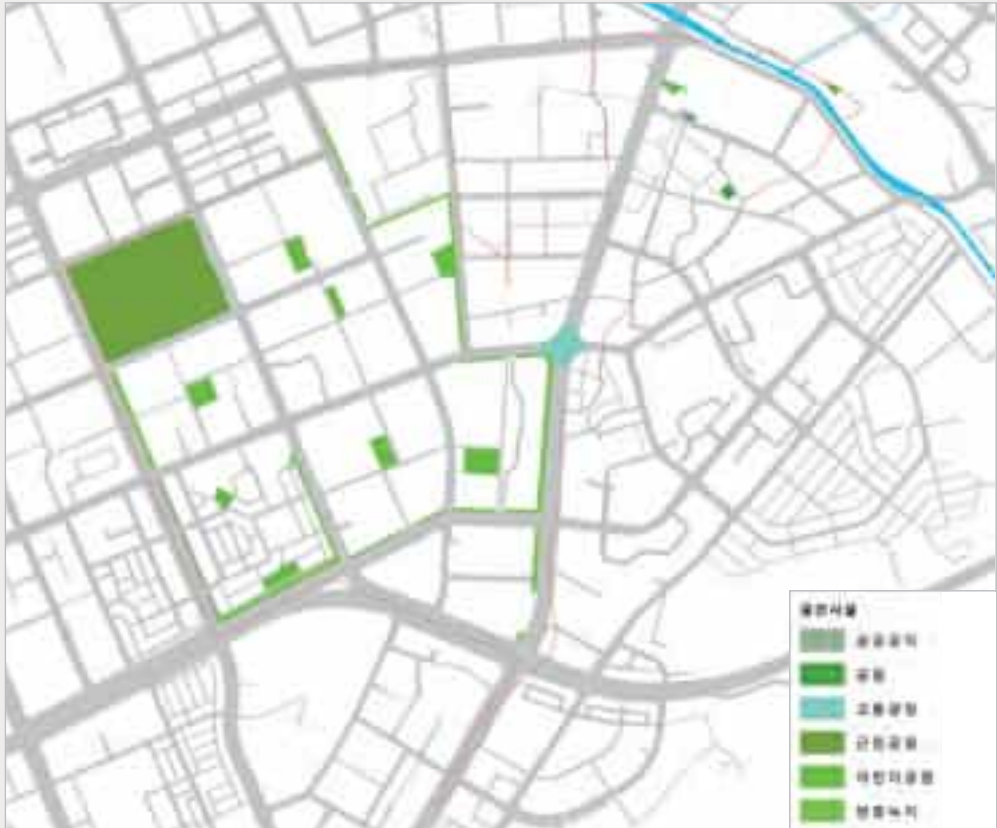
학교용지(민백초등학교)



종교용지(새중앙교회)



공장용지(오뚜기 안양공장)



평촌동의 공간시설

〈표 10〉 평촌동의 공간시설

(단위 : ha, %)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공원	0.17	0.8	
어린이공원	3.61	16.7	
완충녹지	4.18	19.4	
근린공원	12.05	55.9	
공공공지	0.56	2.6	
교통광장	0.97	4.5	
합계	21.55	100.0	

자료 : 「국토계획/공간시설」,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평촌동의 토지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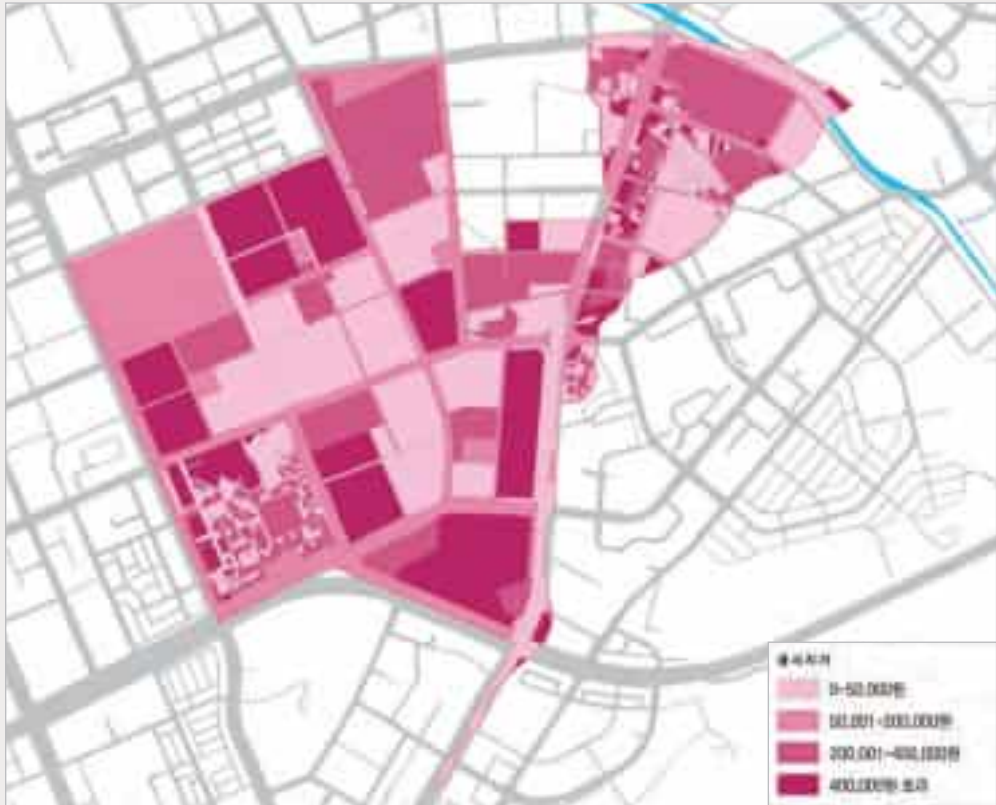
〈표 11〉 평촌동의 토지소유

(단위 : ha, %)

구분	면적	비율	구분	면적	비율
개인	78.62	37.5	법인	32.65	15.6
국유지	14.85	7.1	종중	0.04	0.0
외국인 외국공공기관	0.00	0.0	종교단체	2.39	1.1
시도유지	11.16	5.3	기타단체	5.52	2.6
군유지	64.37	30.7	합계	209.61	100.0

자료 : 안양시청, 「토지 소유구분 자료」, 2024년 10월.

평촌동의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개인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군유지가 30.7%, 국유지 7.1%, 시도유지가 5.3%로 나타났으며, 법인소유 토지가 15.6%, 기타단체 소유가 약 2.6%로 나타났다.



평촌동의 공시지가

〈표 12〉 평촌동의 공시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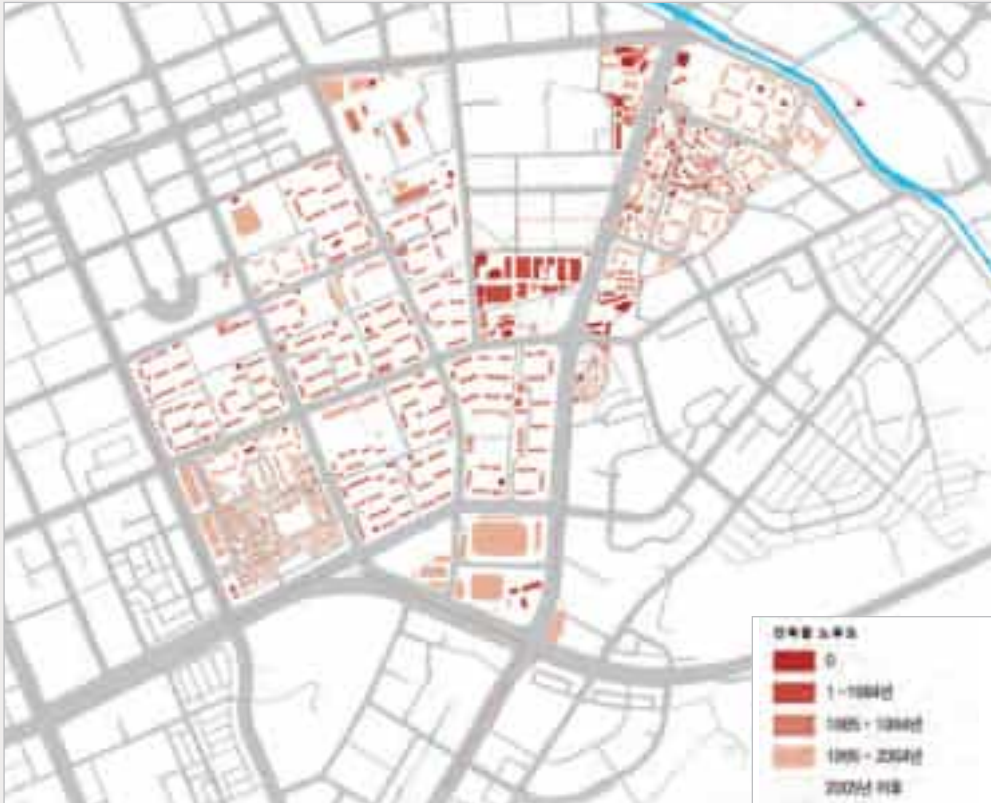
(단위 : ha, %)

개별공시지가	면적	비율
0~50,000원	58.36	27.8
50,001~ 200,000원	4.38	2.1
200,001~400,000원	1.16	0.6
400,000원 초과	145.72	69.5
합계	209.62	100.0

자료 : 「개별공시지가정보」, 2024년 7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평촌동의 개별공시지가가 1㎡당 40만 원 이상 지역이 145.72ha(6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평촌역 주변 주거지역과 학군지가 형성된 상업·주거 밀집 지역에서 확인된다. 1㎡당 0~5만 원 구역은 58.36ha(27.8%)로, 주로 자연녹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3. 평촌동의 건축물



평촌동의 건축물 노후도

평촌동의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사용승인일 기준 1985~2004년에 건축된 건축물이 654동(732%)으로 나타나 1기 신도시 개발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 1984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65동(7.3%)로 낮게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 건축된 최근 건축물도 63동(7.0%)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인다.

〈표 13〉 평촌동의 건축물 사용승인

(단위 : 동, %)

사용승인일	동수	비율	사용승인일	동수	비율
-	114	12.8	1995~2004년	337	37.7
1~1984년	65	7.3	2005년 이후	63	7.0
1985~1994년	317	35.5	합계	896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비고 :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평촌동 공업지역(상)과 학원가 주변(하) 건축물 노후도



평촌동의 건축물 용도

평촌동은 건축물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역으로,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대표적인 학군지로 손꼽힌다. 평촌초등학교·평촌중학교·평촌고등학교와 범계초등학교·범계중학교 등 다양한 교육연구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남쪽에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해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며, 생활 편의를 더하고 있다. 또한, 평촌중앙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같은 의료시설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주거 선호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와 편리한 생활 환경으로 평촌동은 거주지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평촌동 공업지역 건축물 용도



평촌동 학원가 주변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한림대학교성심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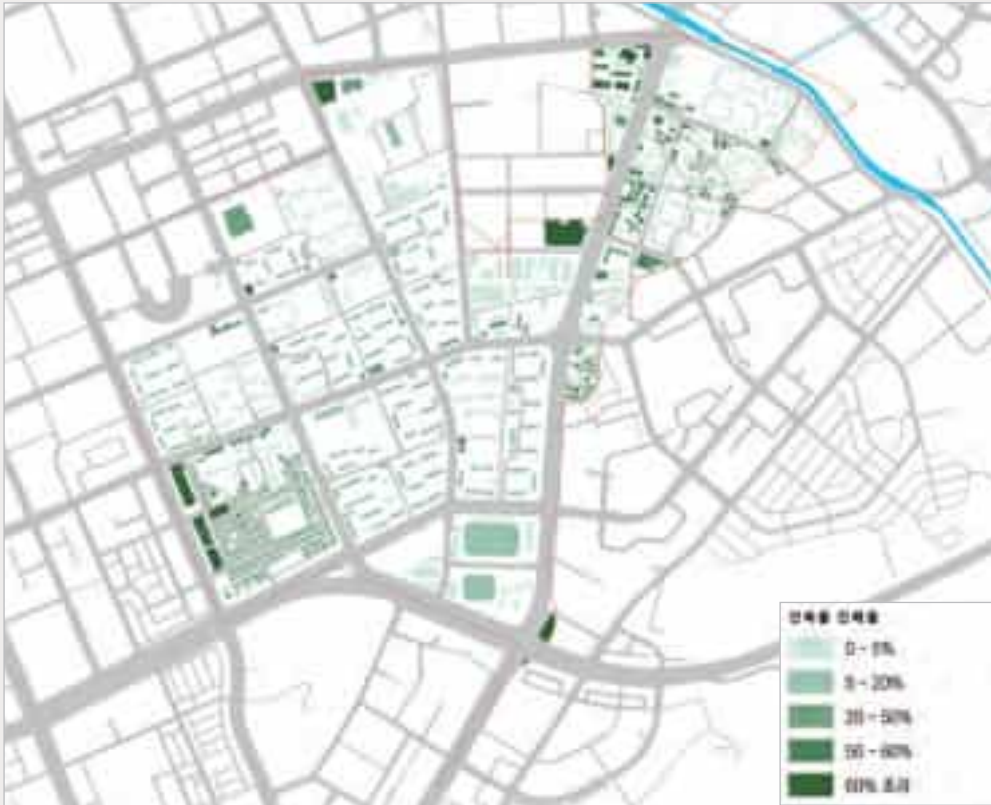
자동차 관련 시설(평촌동 897 일원)



교육연구시설(평촌동 900-7 일원)



판매시설(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평촌동의 건축물 건폐율

〈표 14〉 평촌동의 건축물 건폐율

(단위 : 동, %)

건폐율	동수	비율	건폐율	동수	비율
0~5%	18	41.75	50~60%	75	8.4
5~20%	136	15.2	60% 초과	34	3.8
20~50%	277	30.9	합계	540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비고 :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 등(건폐율 누락 자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임.

평촌동의 전체 건축물 가운데 건폐율 20~50% 건축물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주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건폐율 5~20%의 건축물은 15.2%를 차지하는데, 중저밀도 지역에서 확인된다. 건폐율 60% 이상의 건축물은 3.8%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평촌동 공업지역 건축물 건폐율



평촌동 학원가 주변 건축물 건폐율



평촌동의 건축물 용적률

〈표 15〉 평촌동의 건축물 용적률

(단위 : 동, %)

용적률	동수	비율	용적률	동수	비율
0~50%	46	8.4	100~200%	290	53.2
50~100%	38	7.0	200% 초과	171	31.4%
			합계	545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용적률 누락 자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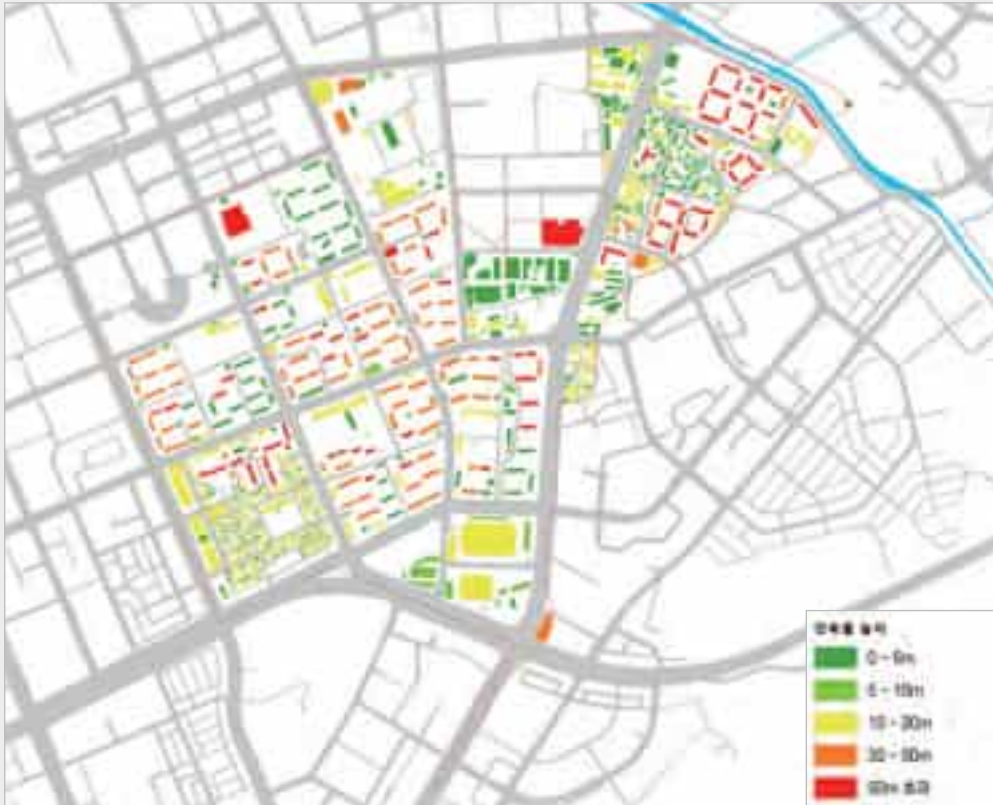
평촌동의 용적률 현황을 살펴보면, 100~200% 구간이 290동(53.2%)으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200% 초과는 171동(31.4%)이며, 주로 주거지역에서 확인된다. 50% 이하의 낮은 용적률을 가진 건축물은 46동(8.4%)로 나타난다.



평촌동 공업지역 건축물 용적률



평촌동 학원가 주변 건축물 용적률



평촌동의 건축물 높이

〈표 16〉 평촌동의 건축물 높이 현황

(단위: 동, %)

높이	동수	비율	높이	동수	비율
0~5m	39	6.3	30~50m	94	15.1
5~10m	133	21.3	50m 초과	72	11.6
10~30m	285	45.7	합계	623	100.0

자료: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비교: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높이 누락 자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평촌동의 건축물 높이 현황을 살펴보면, 10~30m 구간이 285동(4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주로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확인된다. 5~10m 높이의 건축물은 133동(21.3%)으로, 저층 주거지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서 주로 확인된다. 50m 초과的高층 건축물은 72동(11.6%)으로 아파트와 일부 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평촌동 공업지역 건축물 높이



평촌동 학원가 주변 건축물 높이

4. 평촌동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구상

평촌동이 입지하고 있는 평촌·호계 생활권은 상위계획에서 남동쪽에 입지하고 지역으로 평촌 신도시로 대표되는 곳이다. 평촌신도시의 주거환경 노후화를 대비하여 단계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비롯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상업시설(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의 시설정비, 현대화 및 복합기능 도입을 통한 상권 정비를 계획하여 전반적인 주거·상업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정비계획 중심의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표 17〉 상위계획에서의 평촌동 개발구상

분 류	현 황
2030 안양도시 기본 계획(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촌·호계생활권 개발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거환경 노후화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시행방안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순차적 추진 - 공동주택 유형별 관리방향 제시 -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② 상업지역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전략 제시 · 법계-평촌역 : 중심상업기능 강화, 문화컨텐츠 연계, 금융·법을 지원서비스 산업 육성 · 학원가 일원 : 청소년 문화여가기능 강화, 먹거리 특성화 - 교도소 이전지점 복합기능 도입 및 역세권 상업 확충 · 지식·첨단산업 + 문화휴식여가기능 + 주거 ③ 농수산물 도매시장 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개통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 필요 -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한 복합기능 도입(상업, 지식산업, 업무, 문화 등) ④ 노후 공업지역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지식산업 및 ICT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식기반클러스터 육성 -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연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성장·정비동력 확보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촌중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및 관련서비스 기능 강화 - 평촌~법계를 연결하는 중심상업축의 기능 강화 - 노후화되는 평촌신도시에 대한 단계적 개발계획 수립 - 중앙공원과 연계한 보행자중심 가로형성
안양시 경관계획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안생활경관권역 : 문화·예술 요소 인지도 확보를 통한 도시 이미지 형성 • 경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도로경관축: 주요 생활형도로의 경관관리 및 보행자를 위한 가로경관 조성



2030 안양 도시 기본계획(2017)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

제1장

평촌동의 자연마을

우승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1. 어울려 살아가는 자연마을

자연마을은 특정한 공간에 형성된 취락(聚落), 즉 사회생활의 기초 단위인 촌락을 의미한다. 취락은 인간의 생활 근거지인 가옥의 집합체를 말하며, 넓게는 가옥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거주 형태 전반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촌락과 도시의 구분은 인구 집단의 크기,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기능, 경관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근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러한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특히 자연마을의 특성은 기록하는 시점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이 이러한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도 자연마을에 지역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자연마을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 인문학적 요소는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성, 사회구조, 건축 및 공간 배치, 경제적 여건, 생활 방식, 교육 및 지식 전달, 종교 및 신앙, 지리적 환경 등 다양하다. 그러나 전통마을이 해체되고 현대화된 도시에서 자연마을의 이러한 요소를 살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신도시 개발로 전혀 다른 양상의 환경에 놓인 평촌동이 특히 그렇다. 따라서 이 장에서 서술할 내용도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글에서는 평촌의 토박이에게서 수집한 구술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술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현장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한계 또한 존재한다. 사람의 기억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거나 축소된다. 즉, 기억이 크든 작든 왜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술자료는 문헌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와 교차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제보자의 기억 중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거나 사실관계에 모순이 있는 경우 인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한된 검증이나 비교에 따라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모락산자락에서 본 별말 일대(1970년, 음경석 제공)





우리나라의 자연마을은 지리·역사·문화적 요소와 생활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 ‘평촌’은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자연마을로, 신도시 개발로 형성된 평촌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 이전의 자연마을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지거나 변화해서 상상하기 힘든 이전 시기의 마을이다. 따라서 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서술하였다. 첫째, 시간적 범위는 평촌의 신도시 개발 이전인 1980년대까지의 범위로 한정했다. 둘째, 공간적 범위는 법정동 평촌마을로서, 하위 행정구역인 행정동으로 평촌동·평안동·귀인동이 해당한다. 셋째, 자연마을 인문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지명유래 등 앞서 서술된 부분은 최소화하고, 인터뷰 등 구술자료를 통해서 자연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였다.

2. 토박이의 기억 속에만 남은 평촌(坪村)

자연마을 이름인 ‘평촌(坪村)’은 ‘들판’을 의미하는 지리적 환경의 ‘평(坪)’과 ‘마을’이라는 주민의 기본 생활 단위인 ‘촌(村)’을 결합한 단어로, 순우리말로로는 ‘별말’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전통사회에서 평촌은 규모를 갖춘 들판의 농경지를 활용하여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꾸려온 마을이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이 공간을 확장해 보면, 조선 시대에 평촌을 포함한 안양 지역은 한성부(서울)와 가까운 교통의 요지였다. 그래서 자연마을의 이름에 그 지리적 위치를 연결하면, 어느 정도의 유동 인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평촌에서는 전통 시대에도 농업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상업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을 유지하던 농촌에서 인덕원과 같은 주변의 교통시설이 들어서면서 한층 더 활기를 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부터는 상업화와 산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이 일제강점기 농업 생산지로 기능하면서 일부 상업을 비롯하여 공장과 산업시설이 이 지역에 들어선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인 농촌의 생활 방식의 공간이었던 평촌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평촌은 정부의 1기 신도시 개발 계획의 주요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어 그동안의 생활 방식과 공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고, 평촌의 농경지와 주거 지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개발 이전의 자연



1970년대 평촌동 마을 모습(1973년, 안양시청 제공)

마을 평촌은 몇몇 토박이의 기억으로만 남았다.

평촌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복합적인 행정구역이다. 법정동은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정된 주민의 거주 지역을 의미하며, 행정동은 기본적인 단위로서 행정 업무와 관련된 구역을 나눈 지역이다. 법정동은 주로 인구수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뉘기도 하고, 여러 개의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합쳐지기도 한다. 평촌동은 전자에 해당한다. 결국, 법정동 평촌동과 행정동 평촌동은 서로 다른 행정구역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평촌의 주요 자연마을로는 벌말·민백이·귀인 등이 있다. 토박이의 기억 속에 ‘갈미’나 ‘신말’도 평촌의 자연마을이다.

응순배¹ : 평촌동이 다섯 개 마을인데, 벌말·민백이·갈미·신말·귀인 그렇게……

비록 오늘날 행정구역상 갈미(갈산동)와 신말(신촌동)은 평촌동에 속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토박이의 자연마을에 관한 기억은, 5개의 자연마을이 하나의 공동체, 평촌이라



이동리(평춘동) 일대 지형도(1934년) 貴仁(귀인) 民伯里(민백리), 葛山(갈미), 新村(신말) 등의 자연마을 이름이 보인다. '二洞里(이동리)'라는 글자 왼쪽 마을이 별말이다. 현재 갈미와 신말은 호계동에 속한다.

는 하나의 공간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평춘동의 자연마을은 고유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지니며, 현재도 지역 내 다양한 명칭과 시설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별말·민백이·귀인 등 이러한 명칭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주민에게는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외부인에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토박이의 기억 속에만 남은 평춘이지만, 그 공간과 지명은 현재를 살아가는 평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별말·민백이·귀인으로 한정하여도 다음과 같은 활용 예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별말·민백이·귀인 명칭 활용

명칭	지역 내 활용
별 말	별말도서관, 별말오거리, 별말초등학교, 별말경로당 등
민백이	민백사거리, 민백초등학교, 민백어린이공원, 민백유치원 등
귀 인	귀인동, 귀인우체국, 귀인로, 귀인문화복지센터, 귀인중학교 등

3. 평촌동을 구성하는 별말과 민백이

1) 너른 들판에 뿌리내린 별말

인덕원과 갈미 사이에 자리한 자연마을 별말과 민백이는 전통적으로 평화롭고 한적한 평원이었다. 당시 인덕원은 관아와 원이 있어, 지체 높은 사람들이 살거나 묵었던 마을이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주변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었다. 반면, 별말과 민백이는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농촌지역이었다.

『안양집성촌자료집』(2005)에 의하면, 평촌은 인덕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산이 없는 허허벌판에 자리 잡고 있어 별말이라 불렸다고 알려져 있다. 그 후마을이 또 생겨 ‘두별말’ 또는 ‘이평촌’이라 하였고, 이를 줄여 ‘이동리’라 하였다. 별말은 과거 과천-안양에 이르는 취락 중 가장 컸던 자연마을로 괴산 음씨가 입향하여 세거하면서 ‘음촌(陰村)’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괴산음씨에 이어 밀양박씨, 전주이씨, 김해김씨 등이 입향하여 세거하였다.²

이진우³ : 별말이라는 게, 평촌이지. 근데 지금이야 평촌이지, 그때 별말이야, 별말.

과거 이동리의 중심지이자 오늘날 행정동 평촌동은 별말에서 시작되었다. 별말은 넓은 벌판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자연마을이다. 별말은 ‘별판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초기 거주 형태를 반영한 이름이다. 별말은 동일방직 근처를 옷말(옷별말), 오투기식품 근처를 아랫말(아랫별말)로 구분하였다.⁴

별말 지역에서는 고인돌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평촌신도시 건설에 따른 발굴 조사에 의하면, 평촌 지역에서 12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별말에서 6기, 귀인마을에서 1기, 신말(신촌)에서 4기, 갈미(갈산)에서 1기 등이며⁵, 이 중 일부는 평촌 자유공원으로 이전 복원되었다. 이 유적은 지역 사회의 변천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오늘날 도시 개발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었다.

이와 별개로, 2003년 4월에 발견된 고인돌이 있다. 별말에서는 예부터 동네 한 가운데에 있던 7개의 커다란 바위가 있어서 이를 ‘칠성바위’라고 부르면서 신성시하고 제를 지냈다고 한다.⁶ 칠성바위 7개 가운데 6개가 평촌 개발 당시 발굴되었고, 남은 하나가

2003년에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고인들은 인덕원대림2차아파트단지 상가 옆으로 이전되었다.

193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 「군포장(軍浦場)」에 따르면, 오늘날 평촌동 중심지이자 별말로 불리던 지역은, ‘두별말’ 또는 ‘이평촌’을 의미하는 ‘二洞里(이동리)’로 표기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자연마을은 괄호 안에 마을명을 표기하여 행정단위로서 리(里)와 구분하였다. 별말 지역을 별도의 자연마을로 표시하지 않고 이동리로 표기한 것은 별말이 이동리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변의 민백이나 귀인마을이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였던 것과 달리, 별말은 들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과천에서 수원으로 가는 도로와 평촌 지역에서 의왕 지역으로 이어지는 연로(聯路)가 마을 앞에서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술자료에 따르면, 별말 인근 농경지에 샘내가 있었고, 이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별말에서는 물이 별떼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의미에서 ‘샘떼’라 부르기도 하였다. 샘내는 자연 샘에서 물이 솟아나 내를 이루어 학의천으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음경석⁷ : 여기서 멀지 않은데. 큰 샘물, 샘떼 샘떼 그랬어요. (중략) 그 물 갖고 됐어요. 그게 이 별판 다는 못 됐지만, 그 근처는 다 됐어요. 쟁기 보습이라고 이게 넓적한 쇠덩어리 아니에요. 그게 떼어요. 물이 솟는 힘에. 샘이 이렇게 괄괄 흘렀어요. 그렇게 샘이 잘 나와. 그 물이 양쪽으로 논물 대느냐고, 하나는 관양동 별판 쪽으로 내려가고 두 갈래로 내려가. 그 우물에서 바로 두 갈래로 내려가서 이쪽 물 대고 이쪽 물 대고 두 갈래로 내려갔어요.

토박이의 기억 속 샘내는 여름철 천렵과 수영을 즐기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진우 : 샘내라고 있었어요. 물고기도 있고, 애들 수영도 하고, (중략) ○○○식품이 지하수를 끌어 쓰고부터 말라 버렸지.

음경석 : 물이 하도 맑아서 그걸 마셨어요. 그 샘물을 그냥 마셨어. 물도 시원하고 여름에 좋지. 여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냉장고 같은 게 없으니까 거기다 과일 참외 한참 담가놓으면 그냥 냉장고보다 더 시원해. 그렇게 물이 찼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벗고 30분을 못 견뎌요. 물속에서. 워낙 차니까.



인덕원대림2차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고인돌



별말 근처 들판에 있던 샘내(1974년)

토박이의 구술자료에 의하면, 별말은 6·25전쟁 때 많은 주민이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고, 당시 마을의 주택 대부분이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몇몇 파괴되지 않은 집에서 같이 거처하면서 기존의 터에 집을 새로 지어야만 하였다. 별말은 단일 마을로서 안양 지역에서 손꼽히는 규모였다고 한다.⁸

대중교통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도보로 별말에서 안양 시내로 나가는 길은 크게 두 곳이 있었다. 하나는 오투기식품과 민백이 사이의 도새뚝길을 통해 귀인마을을 지나고 호계동 안말을 거쳐 주점동에서 철길을 건너는 코스였다. 다른 하나는 별말에서 ‘물(레)방아꼬리’를 지나 평촌 별판을 걸어서 학의천을 건너고 외비산 지역으로 해서 임곡교를 건너 구시장으로 가는 코스였다, 별말 사람들은 학의천을 ‘장절내’라고 불렀다.⁹

한편, 별말은 산이 없어서 산신제나 공동우물 관련 고사 등 공동체 신앙이 없었다고 전하며, 개인 의례로 집안 고사만 확인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개인 의례에 등장하는 신으로 성주, 조왕, 터줏가리, 삼신주머니, 장신, 우물신, 대감독 등이 있다.¹⁰

1960년대를 거치면서 별말이 속한 이동리는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동리는 학의천과

홍안로를 끼고 있는 평야 지대라서 공장 입지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학의천 가까이 자리잡은 별말에는 1969년에 마을과 학의천 사이에 동일방직이 들어왔다. 이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후 동양섬유·삼화왕관·오투기식품·가나안제과·크라운제과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체가 들어왔다. 다수의 공장이 설립되면서 별말 일대의 인구가 급증하였다.

2) 나그네의 휴식처가 되어 주었다는 민백이

별말과 함께 행정동 평촌동을 구성하는 자연마을은 민백이다. 이 자연마을은 ‘민백이’·‘민백’·‘민배기’ 등으로 불리며, 삼태기처럼 오목하게 생긴 마을로 별말과 갈미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1996)과 『안양시지』(1992)에 의하면, 예전에 과천·인덕원·갈미 등에 관아와 원이 있어서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데 비하여 이곳은 좀 외진 곳이었다. 그래서 서울과 삼남지방을 왕래하는 행려자들이 날이 저물면 민박했다는 점에서 ‘민박이(民泊洞)’으로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다.¹¹ 한편, 정조, 『원행정례(園幸定例)』에 이 지역을 禿林只(독박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독(禿)은 ‘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백이라는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밝히기도 한다.¹²

음순배 : (민백이 유래) 그 위에 살다가, 내가 듣기에는 위에 살다가 내려와서 민백이로 듣고 있어요.

민백이의 유래는 토박이들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구술자료에 의하면, 토박이 음순배는 민백이에서 8대를 이어 오고 있다. 그는 민백이의 주요 성씨 중 하나인 괴산 음씨로 한국전쟁 때 잠시 피난 간 경험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백이에서 거주하였다.



이동리 민백이 마을회관 신축공사(1972년, 안양시청 제공)

그런데, 그의 구술에서 민백이의 ‘독박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췌’은 ‘대머리’ 혹은 ‘민둥민둥하다’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지도로 보면, 민백이는 별판은 아니지만 얇은 구릉에 너른 평지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1932년에 발행한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 「군포장」에 의하면, 별말과 함께 평촌의 중심 마을인 민백이는 별말의 남쪽 ‘民伯里(민백리)’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당시 자연마을인 민백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백이는 모락산 북쪽에 자리하며 거주지는 모락산자락의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며, 과천에서 수원으로 가는 지금의 흥안로가 마을을 남북으로 지나고 있다. 이동리의 다른 마을인 별말·귀인마을 등과 비교하면, 마을의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음순배 : 방공호에 숨고 그랬지. 아버지는 낮에는 저거하고 밤에는 산에 가서, 콩밭에 가서 자고 그랬지. (중략) 그때는 6·25 때 인민군들이 다 쳐들어와서 집집마다 있으니까 막 왔다갔다했지. 들키면 잡혀가니까. 잡히면 끌려가니까 콩밭에 가서 자고 그랬지.

별판에 위치한 별말과 달리 낮은 구릉에 마을이 형성된 민백이는 논농사와 함께 밭농사도 어느 정도 생업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구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백이는 별말과 달리 해방과 1950년대를 거치면서도 마을의 외형적 변화가 거의 없다. 즉, 도로와 주거지의 위치 등에서 가옥이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이전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인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고 있다.

4. 귀인동 이름의 기원, 귀인(貴仁)마을

귀인마을은 평촌신도시 건설 이전의 평촌동(옛 이동리)에서 별말과 더불어 규모가 큰 마을이었다. 18세기 후반 균현별·면별 호구 통계를 정리한 『호구총수』(1789)를 보면, 지금의 평촌동에 해당하는 지역이 과천현 하서면 귀인일동과 귀인이동이다. ‘귀인’을 최하위 행정구역명으로 붙일 만큼 당시는 귀인이 인근에서 가장 번창한 마을이었다고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다. 1934년생 귀인마을 토박이는 그의 10대 시절 귀인마을의 규모가 대략 60호정도 되는 큰 마을이었다고 기억하였다.

이진우 : 그때 한 60가구 됐어요. 큰 마을인데, (중략) 가까운 마을은 신말, 갈미, 민백이, 별말.

귀인마을은 조선시대에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갈 때 이 마을에 들러 머물다 갔다고 하여 ‘귀인(貴人)’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알려져 있다.¹³ 이



는 당시 이 지역이 중요한 교통로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기록에 따라 귀인(貴人)과 귀인(貴仁)이 혼용되고, 지명의 유래는 역사적·지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과거를 보러 가는 주요 경로로 추정되는 인덕원과 귀인동 간의 거리 문제로 이 유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인덕원은 당시 주요 교통 요충지로 알려졌지만, 귀인동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들 간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평촌에서 큰 마을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귀인마을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는 당시 이 지역의 지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은 ‘귀인(貴仁)’으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이 자연마을은 신촌과 민백이를 좌우로 두고 있다. 귀인마을은 ‘어질고 귀한 사람들이 모인 마을’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지명에 담긴 풍수적 의미와도 부합한다. 풍수지리학에서 지명은 지역의 기운과 환경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귀(貴)’와 ‘인(仁)’의 조합은 귀한 사람들, 즉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할 수 있다. 귀인동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기운을 지닌 지역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진우 : 그때는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두 개 있었어요. 겨울이면 얼음판이 싹 어는 거야. 얼음판이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썰매들 타고 많이들 했죠.

귀인마을은 모락산 북쪽 자락에 자리하며, 주거지는 모락산자락을 등지고 넓은 들을 앞으로 두는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풍수지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농업에 적합한 입지 조건이다.

토박이가 말하는 두 개의 큰 저수지는, 강이나 골짜기의 물을 막거나 또는 수로 등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물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다. 귀인마을과 신촌 사이와 신촌과 호계동 방죽마을 사이에 있던 두 개의 저수담(貯水壩)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을철 수확이 끝난 논에 물을 가득었다가 이듬해 모내기 때 다른 논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물이 빠진 저수담은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겨울철에 물이 얼어버린 저수담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귀인마을에서는 청동기시대 유적인 고인돌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주민들은 이 고인



지형도에 보이는 저수지(1964년) 가을철 수확이 끝난 논에 물을 가두어 저수지처럼 보이는데, 이 물은 이듬해 모내기 철 평촌 들판에 공급되고 저수지는 다시 논이 되었다.

돌을 ‘신선바위’로 불렀다고 한다.¹⁴ 고인돌을 주민들이 ‘신선바위’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적 배경이나 신앙 체계를 반영하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신선’은 일반적으로 한국 전통 신앙에서 신이나 신령, 혹은 신성한 존재를 의미하며, ‘바위’는 자연물 중에서도 신성하거나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고인돌이 위치한 장소가 신성한 장소로 간주하였거나, 그 바위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칭은 지역 사회의 신앙이나 문화적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고인돌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특정한 의식적·영적 역할을 했던 것임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는 신선바위로 불린 이외에 마을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조선총독부에서 1932년에 발행한 「군포장」 지도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貴仁(귀인)’으로 확인되는 귀인동의 규모는 별말보다는 조금 작고 민백이나 신촌보다는 크다. 별말에서 귀인마을을 거쳐 신촌을 연결하는 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민백이와는 하천을 경계로 동과 서로 구분된다.

일제강점기 귀인마을에는 강습소가 있었는데, 광복 직후에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난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¹⁵ 귀인강습소는 토박이의 구술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이진우 : 어렸을 적에 강습소가 있었어요. 귀인강습소. 우리 형님들도 다 있었구, (중략) 저는 귀인마을에 태어나서 형님들 밑에서 안양초등학교 나오고. 강습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니다가 초등학교, '고꾸민 각고(국민학교)'라 해서 다니다가 해방이 됐지. 해방이 됐을 때 3학년인가 그럴 거야.

한편, 이진우의 구술에 의하면, 귀인마을의 배수·도로 등 주거 환경과 생업 환경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 수가 증가할 뿐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인 1980년대 후반까지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진우 : (해방 이후) 아버지도 소마차 끌고, 그때 마차가 있는 집이 없었어요. 마차를 아버지가 사서 청계 가서 솔가래 나무를 사다가 잘 말려서 잘 묶어서 서울로 명등포, 신길동에 팔러 가시는 거야. 팔러 가실 적에도 길이 무척 좋지도 않았어요. 시골길 뭐 소마차 끌고 마차길에도 비만 오면 울퉁불퉁했잖아요.

평촌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귀인마을에서는 우리나라 여느 농촌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술자료에 의하면, 귀인마을에서는 겨울철 저수지에서 썰매도 타고, 쥐불놀이도 하고 연을 날리는 등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다. 다만, 이 역시 이제는 토박이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말엽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7월에 길일을 택해 마을 안에 있는 대동우물에서 마을의 풍요와 무해를 기원하는 정제(井祭)를 지냈다고 한다.¹⁶

귀인마을은 평촌신도시 건설계획 상 개발지구에 포함되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개발지구에서 제외되었다. 평촌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였고, 몇 개의 자연마을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평촌동에 속하는 마을이었다. 귀인마을은 개발지구에 편입되는 마을 가운데 가장 큰 마을이었다. 귀인마을에서는 마을의 역사성과 공동체가 훼손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세입자들은 편입을 희망했지만, 토지 소유주의 대부분인 귀인마을 토박이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국 귀인마을은 개발지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평촌신도시 건설 이후 도시 가운데 섬처럼 경관이나 기능면에서 조화되지 못하는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¹⁷ 귀인마을은 결국 10년 정도 후에 귀인마을현대홈타운아파트로 변모하였고, 아파트단지 앞에는 이곳에 귀인마을이 있었음을 알리고 표석을 세웠다.

5. 지역성을 밝혀주는 자연마을

별말·민백이·귀인 등 평촌의 자연마을은 단순한 농촌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담고 있는 중요한 생활 공간이었다.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던 이 마을들은 신도시 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그 결과 본래 모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오늘날 평촌의 옛 자연마을은 토박이들의 기억 속에 단편적으로 남아있으며, 지역이나 지명의 명칭을 통하여 그 흔적이 일부 유지되고 있다.

비록 오늘날 평촌의 모습으로 과거의 평촌을 떠올릴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이 담고 있던 문화적·역사적 가치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 정신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현대사회에서도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신도시로서 평촌이 갖추지 못한 깊이 있는 문화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평촌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지역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마을은 특정한 하나의 공간에서 취락을 이룬 사회생활의 기초 단위가 되며, 지역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자연마을은 주민들의 생활 방식 등을 살펴볼 수 있어서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귀인마을현대홈타운아파트 단지에 세운 귀인마을 표지석

통 시대에는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 방식에 따른 지명이 많았으며, 이는 주민들이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을 영위했던 시기의 특성을 반영한다.

자연마을은 단순히 지역을 구분 짓는 표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며,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평촌동에 있는 별말·민백이·귀인마을도 그 하나의 예이다.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지역 사회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명지대학교박물관, 『안양평촌의 역사와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990.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註

- 1 남성, 1943년생, 과산 음씨, 민백이 토박이, 2016년 10월 18일 인터뷰 자료.
- 2 안양문화원, 『안양집성촌자료집』, 2005, 56쪽.
- 3 남성, 1934년생, 귀인마을 토박이, 2016년 10월 18일 인터뷰 자료.
- 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70쪽.
- 5 명지대학교박물관, 『안양평촌의 역사와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990.
- 6 안양문화원, 『안양집성촌자료집』, 2005, 96쪽.
- 7 남, 1945년생, 과산 음씨, 벌말 토박이, 2023년 12월 23일 인터뷰 자료.
- 8 음경석 2023년 12월 23일 인터뷰 내용.
- 9 음경석 2023년 12월 23일 인터뷰 내용.
- 10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485~486쪽.
- 11 이승언, 앞의 책, 168쪽;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702~703쪽.
- 12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68쪽.
- 13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55쪽.
- 14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264쪽.
- 15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55쪽.
- 16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55쪽.
- 17 한국토지공사, 『평촌신도시개발사』, 1997, 670쪽.

제2장

평촌신도시 조성과 공간구성

황의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수료



1. 벌말에서 평촌으로 : 평촌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평촌은 안양시 동안구의 중앙에 넓게 자리 잡은 신도시이다. 서울과는 도심 기준으
로 남쪽 20km 반경 내에 위치할 정도로 가깝고, 의왕시와 군포시에 인접하여 다른 도시
와의 인접성도 높다. 현재 평촌신도시는 아파트단지와 각종 상업, 행정시설로 뻗뻗하게
들어서 있는 완전한 도시의 경관을 보인다. 그러나 평촌이 늘 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
은 아니다. 불과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벼농사를 짓던 벌판과 여러 공장 단지로
채워져 있었으며, 당시의 풍경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지금과 같은 모습의 평촌신도시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정부가 주도한
대대적인 개발의 흐름을 타고 등장한 결과물이다. 즉 안양 내부에 새로운 업무지구와 대
규모 주택단지를 포함하도록 1기 신도시의 하나로 지어진 곳이 바로 평촌신도시다.¹

이름 그대로 ‘평평한 벌판’을 뜻하는 평촌(坪村)은 인덕원 남쪽에 위치한 ‘벌말’이라
는 순우리말을 한자로 바꾼 지명이다. 벌말이라는 이름은 개발되기 전의 평촌이 너른 논
밭으로 구성된 평야였음을 알려준다.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해당 지역
의 73%가 녹지에 해당할 정도였다.² 현재 벌말이라는 이름은 ‘평촌’으로 거의 대체되었
다. 사당과 금정을 잇는 과천선을 신설할 때 평촌역의 이름도 ‘벌말역’으로 계획되었으
나, 1996년에 안양시의회의 결정으로 ‘평촌역’으로 확정되었다.³ 그러나 역명을 ‘평촌
역’으로 바꾸겠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도 벌말이라는 이름을 그리워하는 시민들의 항의
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95년에 평촌신도시에 입주한 시민은 신문의 한 지면
을 빌려 다음과 같이 불평한다. “벌말보다 평촌이라는 이름이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더 유명하게 돼 그런가 하는 추측”을 하면서도 “좋은 순우리말 지명이 있는데 굳이 한자



평촌역 공사준공표지판

지명으로 바꾸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이다.⁴ 주민들의 아쉬움과 기억 속에서 별말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지워지지만은 않았다. 평촌역의 준공 안내판에는 아직도 ‘별말역’이라는 명칭이 남아 있다.

평촌은 공업지구로도 유명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서울-과천-군포-남양을 잇는 도로가 일찍이 건설되었으며, 1960년대 말부터 평촌동에는 동일방직·오투기식품·가나안제과 등의 공장이 들어섰다. 당시 동일방직이 위치한 평촌의 동북쪽 지역은 옷말 또는 상평촌(上坪村)으로, 오투기식품과 삼화왕관 공장이 위치한 서남쪽 지역은 아랫말 또는 하평촌(下坪村)으로 각각 불렸다. 이때의 이름을 기반으로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된 1973년에 해당 지역은 평촌동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같은 이름을 따르게 된다.⁵

경인공업지대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자리 잡은 1970년대 이후 안양에서는 심각한 오염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교통난과 주거 부족에 시달렸으며, 공장폐수

와 생활하수 처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안양시는 1979년부터 공업용수와 상수도 수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화학공업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금지하기에 이른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안양의 공장들도 차차 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가기 시작하였는데⁶ 이는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항의가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당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평촌신도시의 청구·벽산아파트 주민들이 유독가스로 인한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며 호계동의 신아화학 공장을 이전할 것을 시에 요구한 것도 그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⁷ 평촌신도시가 개발된 시기는 공업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온 안양이 이처럼 내외부의 각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1980년대였다. 당시 서울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주택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정부는 수도권에 주택 200만호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계획 아래, 1989년 4월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분당·일산·산본·중동과 함께 평촌을 1기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⁸ 계획은 대규모 주택지구와 업무지구, 그리고 신시가지 건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평촌신도시는 대규모 주거단지, 그리고 각종 서비스 시설을 갖춘 시가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동일방직 안양공장 조감도(안양과천상공회의소 제공)



1980년대 평촌 개발 전 모습(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1990년대 평촌 개발 후 모습(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과 ‘베드타운’ 평촌의 등장

1989년 본격적인 건설이 개시된 후, 평촌신도시의 아파트는 1992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1995년 12월에 평촌신도시가 준공되었다. 평촌지구의 개발은 이전의 경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987년에 평촌동에 거주했던 문헌학자 김시덕의 회상을 잠깐 빌려보자.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의 평촌동 시골길 한쪽에 세워진 2층 연립주택에 살았다. (중략) 걸어서 15분쯤 걸리던 이 컴컴한 길 옆에는 무덤들이 있었고, 내가 살던 연립주택 너머로는 축사가 띄엄띄엄 있었다. (중략) 외식할 곳이라고는 47번 국도변에 있던 닭갈비집밖에 없었다. (중략) 중국집이 동네에 없어서 1년간 짜장면을 먹지 못하다가, 과천 서울대공원에 놀러 가서 1년 만에 짜장면을 먹고 감격한 기억이 있다. (중략) 내 집을 지나면 별판이 나타났고, 별판 너머로는 신촌마을과 귀인마을이라는 오래된 자연마을이 있었다. (중략) 내 친구가 할아버지와 단둥이 살던 비닐하우스 겸 개 목장은 당살미마을·신촌마을·귀인마을 중간의 별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중략) 1990년 3월 28일자 조선일보 ‘무허가 비닐하우스촌 화재로 천 3백평 전소’에는, 당시 귀인부락에 70동 규모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이 있다는 내용이 보인다. 내 친구의 집은 귀인마을 외곽의 이 대규모 비닐하우스촌에서도 더 바깥쪽의 별판 … 아마 자유공원 사거리 어디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아래 즈음이었던 것 같다. 내 친구의 집은 고속도로가 되었다. <김시덕,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한국일보』, 2022년 1월 15일>

개발을 앞둔 평촌신도시의 지리, 행정 현황을 기록한 『평촌신도시 개발사』를 보면, 개발지구의 약 70%가량이 평탄한 농경지였다고 한다. 또한 부근의 안양천은 심각한 오염으로 “개펄처럼 시커먼 폐수 찌꺼기가 먹구름이 밀려오듯” 흘러넘칠 정도였다.⁹ 한편 자연취락인 신촌·달안·갈산마을에는 600여 동의 건물과 3,000동이 넘는 비닐하우스 및 가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개발지구의 내부 도로는 대부분이 농로(農路)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지구의 서쪽은 경수산업도로(현재 경수대로), 북쪽은 관악로, 동쪽은 흥안로(현재 흥안대로)와 인접해 있어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통행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¹⁰

한때 농지가 대부분이던 별판은 수도권과의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주거지이자 업무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평촌신도시의 건설은 1989년에 실시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기반하여 시작하였다. 1980년대 서울은 극심한 주택 부족과 교통 문제

를 겪고 있었고,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폭등이 예상되던 주택 가격을 안정 시키고자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평촌은 주택 건설 200만 호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1989년 4월에 분당·일산·산본·중동과 함께 1기 신도시의 하나로 지정된다.

그러나 평촌신도시 개발 예정 구역은 이전부터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계획한 지역이었다. 안양시는 1986년 「안양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중앙정부와 갈등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개발의 주도권은 한국토지공사에 가져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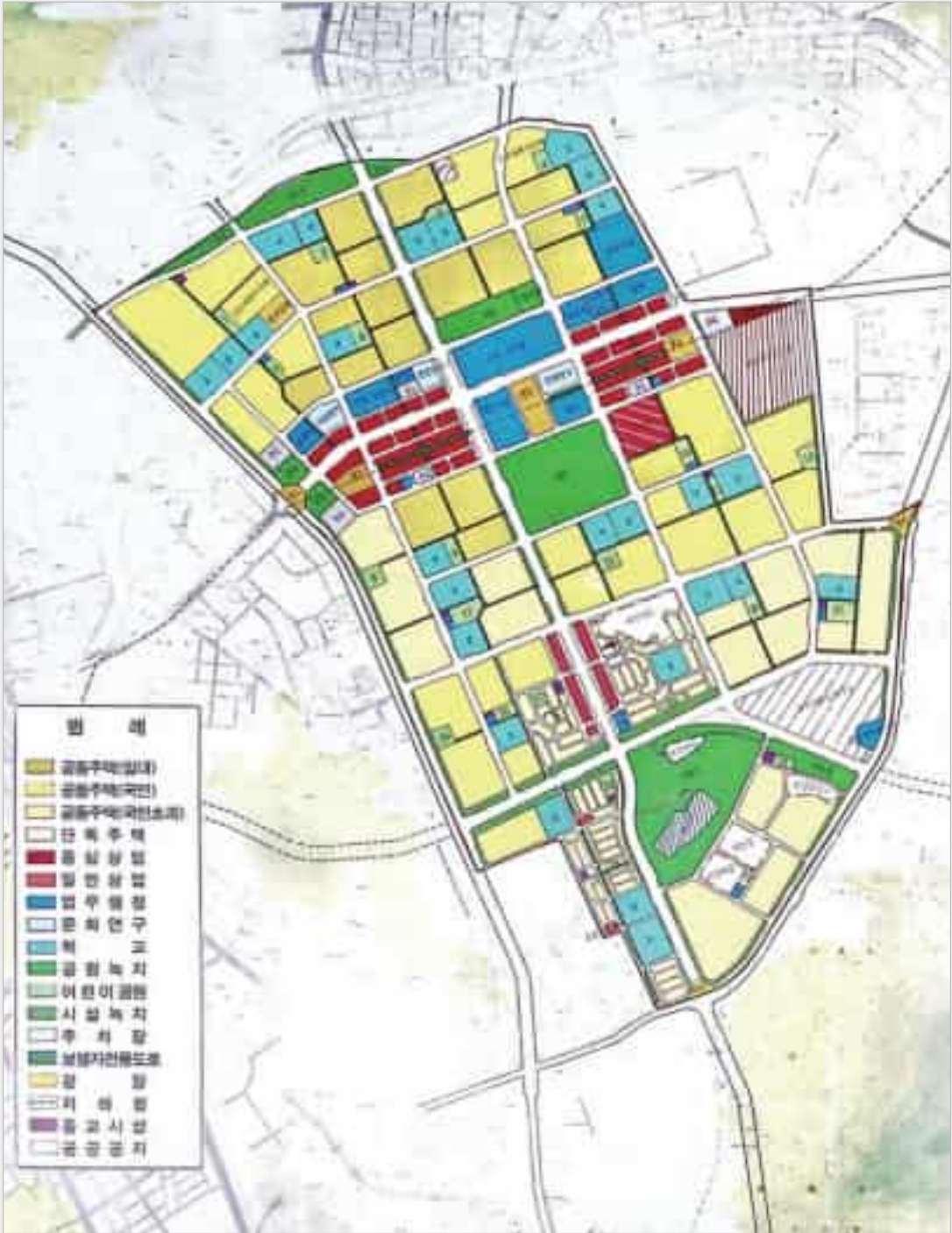
정부는 1988년 9월 평촌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1989년 12월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1990년 아파트 1차 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어 1995년에는 신도시가 준공된다.¹¹ 평촌신도시의 개발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인근 시가지를 개발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수도권의 베드타운을 조성하고 안양 내부에 행정 및 상업 기능을 갖춘 ‘자족적 생활권’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원래 도시 중심에 있는 공업지역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생활 권역별로 상업시설과 녹지를 포함한 공공시설을 설정하도록 하였다.¹²

평촌신도시는 생활편익시설과 녹지공간을 충분히 갖추고 2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지구, 그리고 시청·시의회·교육청·경찰서·법원·검찰청과 각종 행정·금융기관이 입지한 안양 대도시권의 업무 중심지로서 계획되었다. 또한 개발지구의 남동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버스터미널이 들어서도록 하였으며, 평촌중앙공원을 비롯한 녹지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였다.¹³ 이 가운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이어질 통로인 시외버스터미널의 계획은 결국 취소되었지만¹⁴ 중앙공원은 지금까지 도시의 한복판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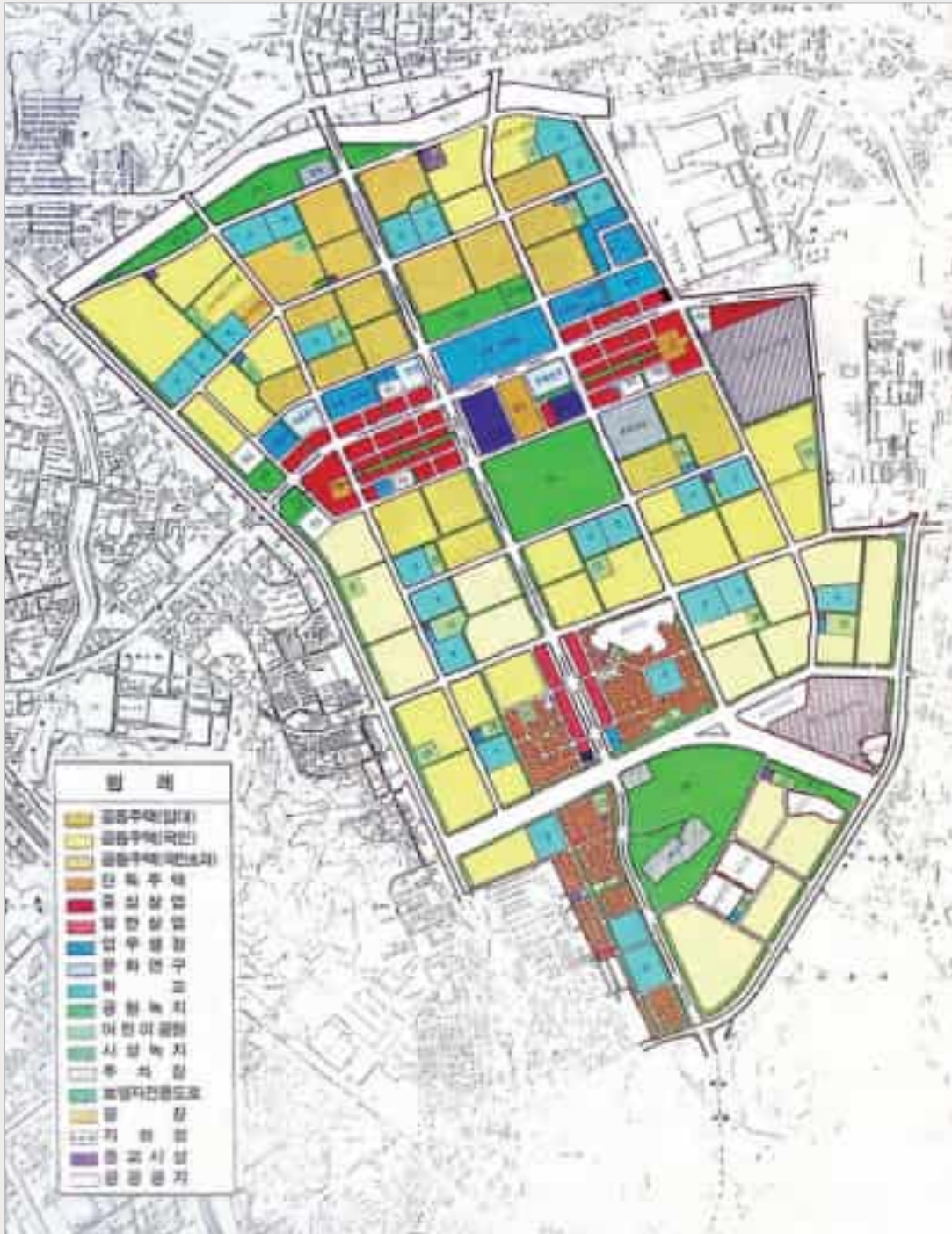
계획 당시 평촌신도시의 공간 배분을 살펴보면, 공원·여가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용지가 58.6%, 주택용지가 37.8%를 차지하였다. 주택용지 가운데는 공동주택이 9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단독주택은 7.8%에 불과하였다.¹⁵ 공동주택지는 ‘중심산업 및 대중교통수단(전철)과 인접한 중앙부’에 고밀도 주거지로 계획되어 17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지구와 공용주차장이 조성되었으며, 이와 함께 개발지구 내에는 학교와 의료·문화시설을 마련하였다.



평촌신도시 개발계획 승인(1989년 8월 30일) 당시 토지이용계획도(한국토지공사, 『평촌신도시 개발사』, 1997)
 개발계획의 명칭은 '안양 평촌지구 택지개발계획'이고 수용인구는 17만 명, 주택계획은 4만 2,500세대, 개발면적은 494만 6,21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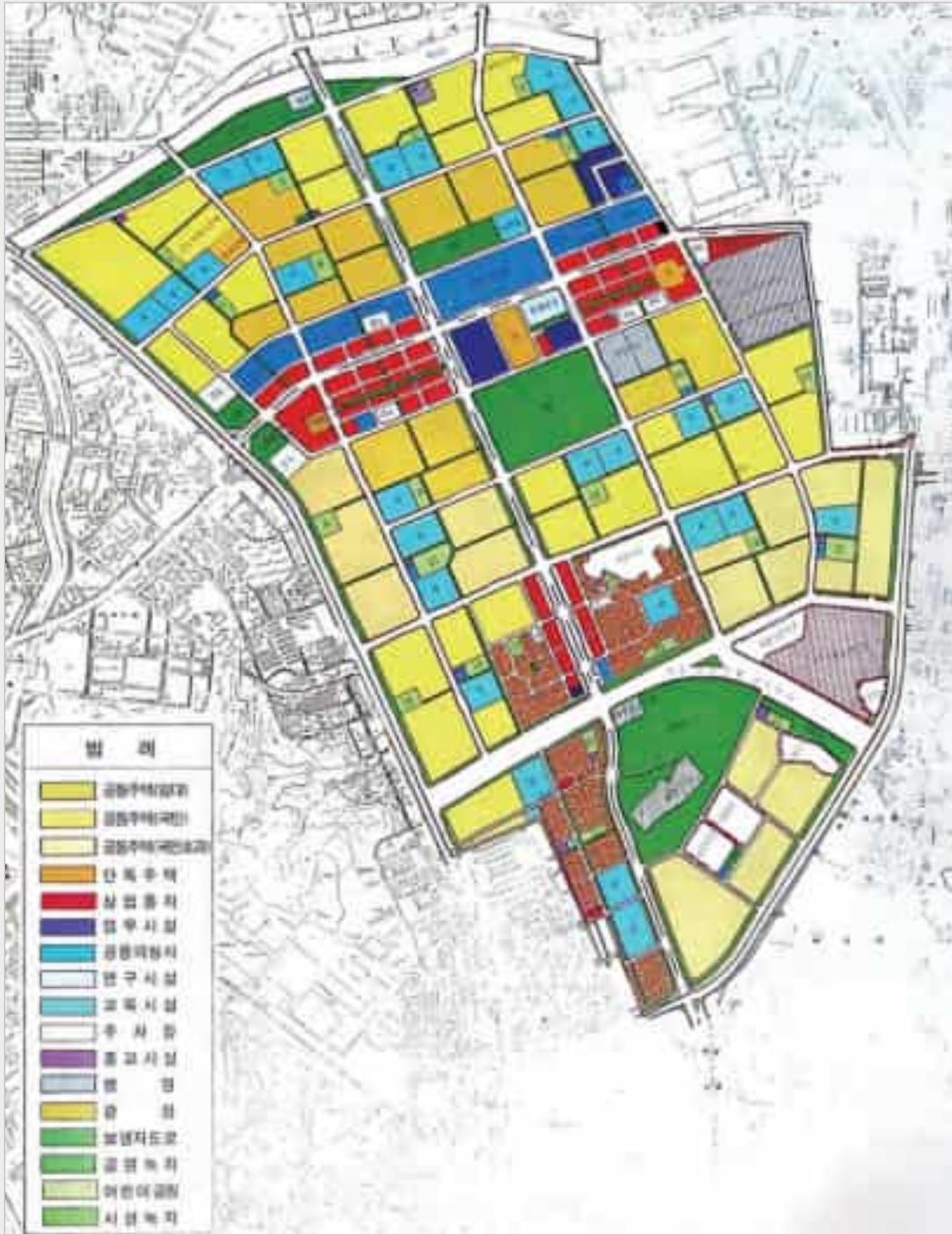
평촌신도시 개발계획 변경(1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한국토지공사, 『평촌신도시 개발사』, 1997)
 주택 및 수용계획의 변동은 없으나, 평균 평형 및 평균 규모별 구성비가 조정되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양)은 평균 평형을 42평으로 조정하였다. 임대주택은 세대수를 국민초과 축소분만큼 늘리고, 평형 규모는 축소하였다.



평촌신도시 개발계획 변경(3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한국토지공사, 『평촌신도시 개발사』, 1997)
 예정지구지정 변경(3차)에 따라 사업 면적이 20만 4,869.2㎡ 증가하였다. 단독주택지 획지분할은 당초 필지당 55평 규모이었으나, 필지당 70평으로 확대하였다.



평촌신도시 개발계획 변경(4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한국토지공사, 『평촌신도시 개발사』, 1997)
 예정지구지정 변경(4차)에 따라 사업면적이 총 4만 1,754.4㎡ 감소하였다. 토지이용계획상 주요 변경 내용은 지하철역 주변 광장 일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동사무소 및 파출소의 위치 및 형태 변경 등이 있다.



평촌신도시 개발계획 변경(6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한국토지공사, 『평촌신도시 개발사』, 1997)
 사업비를 394억 3,400만 원 증액하였고, 일반병원부지를 당초 도로변에서 학의천 쪽으로 위치를 변경(약 13m)하였다.

그러나 평촌신도시에 17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기로 한 결정은 치열한 토론 끝에 내려진 것이었다. 건설부와 한국토지공사는 평촌지구의 용적률을 220%로 설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 설계를 맡은 국토개발연구원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도시 설계에 참여한 교수 안건혁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서울 중계동처럼 고밀도로 개발을 추진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중계지구는 신도시가 아니고 고밀도 아파트단지 집단에 불과”하다고 여겨, 평촌신도시가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¹⁶ 이에 연구원 측에서는 건설업체를 초청하여 용적률을 180%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다. 안건혁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안건혁 : 우선 도시 전체 모형을 만들고 업체들을 초청하였다. 자기들이 매입한 토지에 어떤 규제가 가해질지 궁금했는지, 대부분의 분양 건설업체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우리가 용적률을 180%로 낮추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다. 회의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개 부장급, 차장급들이었는데 내 설명이 끝나자마자 목설과 샷대질이 난무했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히 ○○건설의 차장이라는 사람과 ○○주택의 이사 등은 내게 대들면서, 자기는 이러한 조치를 본사에 들어가서 도저히 설득시킬 수 없다면서 한편으로는 애원조로, 다른 한편으로는 위협조로 말했다. 용적률이 이렇게도 업체에 중요한지는 이때 처음 알았다. 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절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¹⁷

치열한 토론 끝에 용적률은 임대주택의 경우 200%, 국민·분양주택의 경우 210%로 확정되었다. 이 같은 에피소드는 평촌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과정이 적잖은 갈등과 협의를 품고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조직적으로 짜인 평촌신도시의 평면 구성은 이해관계를 민감하게 따지는 건설업체, 최대한 많은 인구를 신도시에 수용하고자 하는 건설부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주거의 쾌적함’을 살려 신도시를 설계하고자 하는 국토개발연구원 등의 치열한 각축전을 거쳐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의 일부가 평촌 개발지구에 포함되었다. 착공 이후 안양시 지명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동(洞)·시설·도로명을 확정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동 이름은 옛 지명을 따오거나 다듬은 것이 많아서 흥미롭다. ‘다라니’ 또는 ‘달안이’로 불리던 마을 이름에서 유래한 달안동(達安洞), 부자가 많이 살고 산림이 울창하였던 부림동(富林洞), 지역 내에 있었던 공장 ‘부흥사’에서 이름을 딴 부흥동(復興洞), 방축말·안말·셋터말을 통칭하여 부르던 옛 지명 ‘범계’를 반영한 범계동, 평촌지구의 ‘평(坪)’자와 안양의 ‘안(安)’자를 조합한 평안동,

자연마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신촌동(新村洞)과 귀인동(貴仁洞), 흙이 많은 산밑에 있다고 해서 ‘갈미’라고도 불린 갈산동(葛山洞) 등이 있다. 원래 갈산동은 지명위원회에서 덕현동으로 이름을 정하였으나 평촌동 지역 주민들의 청원으로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한다.¹⁸ 이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이다.

1기 신도시 개발의 주요 목표는 과도하게 높은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반복되는 아파트 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였다.¹⁹

하지만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원래 살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비닐하우스나 개조 가옥 등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개발에 맞서 1988년 10월부터 1989년 6월까지 여러 차례 시위를 벌였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개발 주체 측에 적절한 이주 방안과 생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980년대 평촌 지역(안양시청 제공)
자연마을과 구별되는 무허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는 이들 가운데 돼지사육이나 원예 농업을 하던 원주민에게서 타협을 고려하는 한편, “투기에 맞을 들인 투기꾼들이 (중략) 보상 특혜를 노리고”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는 사례도 있다며, 안양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 시키기도 하였다.²⁰

1993년에 공작마을 부영아파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한영식(80대, 남성)은 그 시절 마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한영식 : 1993년도 3월에 (아파트에 입주해) 왔다. (중략) 그때 1990년대 초반에는 이 주변이 그냥 벌판이었어요. (중략) 이게 이제 (개발) 발표 나고 얼마 있고부려는 판잣집이 몇 배가 늘어난 거야. 입주권 받으려고. 그래서 그때 난리 났었어. 막 경찰들 오고, 데모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어요. 데모하러. 입주권 받으려고. 저희 집 앞에 친구 형님이 돼지 쳤거든요. 돼지 막사가 한 20개 됐었어요. 그래서 막사 하나에 입주권 하나씩 받았어요. 막사당 입주권 하나씩 받아.

조사자 : 그때 돼지 키우고 또 뭐 하셨어요? 과수원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한영식 : 여기가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는 거예요. 닭도 키우고 그랬어. (중략) 그때 당시에 돼지 보상받고. 보상 받아가지고 얼마 있다 여기 사거리에 경로당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보상 받은 사람들 흥청망청 하는 거지. 노는 거, 술 먹고. 보상받은 사람들이.

1990년대 초반, 아직 사방이 벌판으로 둘러싸여 있던 평촌 일대는 대규모 개발을 거치며 점차 완연한 도시의 모습을 갖춰간다.

박현욱(30대, 남성)은 2001년에 부모님을 따라 평촌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그는 어린이의 시선으로 새집과 동네를 찬찬히 살펴봤지만, 이전에 살던 도시(대전)에 비해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억한다.

박현욱 : 전에는 대전에 살았는데 (평촌신도시가) 대전과 크게 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어요. 새롭게 조성되는 느낌은 아니고, 이미 잘 조성된 마을에 이사 온 느낌이었어요. 주변에 범계역이 있어서 교통에 불편함도 없었고 범계역 근처에 백화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조금 더 가면 평촌중앙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종종 이용했어요. 그리고 입주 당시는 아니지만 2008년쯤에 호계체육관이 집 근처에 생겨서 내부에 있는 볼링장에 자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평촌신도시 개발지구 주민 시위(1989년, 이정범 제공)





평촌신도시 개발지구 강제 집행(1989년, 이정범 제공)





안양시청·의회청사 신축 기공식(1993년 12월, 안양시청 제공)

1990년대 초반에 평촌신도시로 이주한 한영식과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한 박현욱의 기억은 서로 사뭇 다르다. 개발 초기에는 원주민 보상 문제와 부지 확보를 둘러싸고 떠들썩했던 곳은 십여 년이 지나자 “잘 조성된 마을”로 탈바꿈해 있었다. 박현욱에게 평촌신도시는 처음부터 도시의 경관을 갖춘 곳이었다.

평촌신도시 건설 이후, 안양시 내부에서는 만안구와 동안구 사이의 이분화가 두드러지기도 하였다. 신도시가 위치한 동안구와 구시가지가 위치한 만안구 사이에 차이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만안구에 있던 안양시청이 평촌신도시의 중앙부로 이전하고, 그 부근에는 격자로 구획된 도로와 여러 상업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섰다. 평촌신도시는 안양시의 명실상부한 신시가지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의 자료를 보면,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구도심이 위치한 만안구보다도 서울 지역과 끈끈한 연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촌과 서울 사이의 통행발생량으로 미루어볼 때, 평촌신도시는 서울로 오가는 주민들의 베드타운으로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된다.²¹ 이처럼 서울과 평촌신도시 간의 긴밀한 연결은 서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자족적 도시’의 설립²²이 현실적으로는 관철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대규모 주택지구와 업무·여가시설을 갖춘 신도시는 본래의 위성도시와는 달리, 계급적·문화적으로 차별화한 중산층을 위한 도시로 설계된 측면이 컸다. 평촌의 주민들은 안양의 다른 지역에 거주해 온 주민들과는 구별되는 문화·경제적 집단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을 기회 삼아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신도시 주변에 난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²³

평촌신도시의 개발은 이렇듯 복잡한 욕망이 얽혀 이루어졌다. 원래 살던 터전을 지키려 부단히 애쓴 원주민들, 새로운 집을 찾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 변화 속에서 한몫 챙기려고 한 사람들까지, 개발의 흐름 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였다.

3. 개발을 따라 사라진 부락, 새롭게 등장한 ‘마을’

현재 평촌신도시는 공식적인 행정구역인 동(洞) 외에도, 목련마을·은하수마을 등의 ‘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은 아파트단지로 구분한다. 아파트단지는 몇 개의 지구로 나뉘고 각 지구는 고유한 이름을 지닌 ‘마을’로 여겨진다. 마을은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안양시청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관악마을·은하수마을·셋별마을·한가람마을·공작마을이 있고, 남쪽에는 목련마을·향촌마을·초원마을·무궁화마을·꿈마을(민백지구)·꿈마을(귀인지구)·샘마을이 있다.

이들 마을은 개발 이전부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자연부락과는 다른 ‘신도시마을’이다. 반면 평촌신도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갈미·달안이·당살미·민백이 등의 옛 마을은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²⁴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를 운영하는 최병렬(60대, 남성)은 평촌신도시를 비롯한 안양 지역의 옛 모습을 촬영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안양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아쉬워한다. 1977년도에 발생한 큰 홍수 때문에 당시까지 남아 있던 많은 사진과 문서 등 기록들이 물에 잠겨 소실되었다. 이에 그는 직접 촬영하거나 옛 주민들을 수소문하여 과거 자료를 발굴하고 안양의 옛 모습을 재구성하고 있다. 최병렬은 1990년대 평촌신도시의 개발은 “상전벽해에 비할 만했다”라고 회고한다. 대규모 개발로 인해 지금은 이전의 경관과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 그는 생각 끝에 신촌동의 평촌학원가 뒤편의 느티나무를 꼽았다.



평촌신도시 개발지구에 수용된 신말과 주민들(1982년 10월, 조한묵 제공)

최병렬 : 신촌동에 학원가 뒤편에 조그마한 느티나무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지금 몇백 년 됐어요. 근데 이거 이래도 사연이 있어요. 이게 원래 엄마 나무가 있었어요. 천 년 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 살아계신 옛날 분들 다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갖고 글을 썼죠. 천년 나무. (중략) 이 (나무) 사진을 발굴한 거고 이것도 동네 주민이 주신 거예요. 지금은 남아 있지 않은 거죠. 마을 남쪽에 있었던 이게 불이 타서. 옛날 거렁뱅이들이, 갱패들이 불을 질러갔고 그래서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아마 50년대 말 그 당시에 안양소방서가 없어서 수원에서부터 와서 불 꺾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양 시내 갱패들이 잔칫날에 잔칫상 빨리 안 해 준다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이 느티나무 옆에 새끼 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그 나무는 지금 (남아 있고). 엄마 나무는 죽었고. 천 년 먹은 나무는 사라졌고.

조사자 : 그 새끼 나무가 지금 200년이 넘었다는 거죠?

최병렬 : 200이 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동네가 옛날 신말이라고 했고요.

조사자 : 지금은 없어졌고요.

최병렬 : 없어지고 아파트가 생겼죠. 신말은 그냥 지명이 남아 있는 거고. 저기 평촌학원가가 된 거죠. 신촌동에 신말이 있었고, 느티나무 옆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평촌이 농촌사 지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옛날 주민들이었죠.

개발지구에 있었던 원래의 마을, 즉 자연부락들은 개발과 함께 차츰 모습을 감췄다. 대신 옛 마을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지식 마을이 빠르게 생겨났다. 마을식 명명법은 개발 당시의 특수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의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여러 건설업체는 같은 단지를 함께 건설하는 ‘합동사업방식’을 많이 채택하였으므로, 개개의 아파트단지는 하나의 건설사가 아닌 여러 건설업체의 합작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전과 같이 업체별 명칭과 분양 횟수를 사용하여 아파트 이름을 짓기 어려워졌다. 또한 주택업체는 신도시 내에 새롭게 건설되던 아파트단지에 이전과 같은 방식의 명칭을 부여할 경우 입주자들에게 지나치게 식상한 느낌을 줄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판단으로 평촌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에는 이른바 ‘독립명칭’이 많이 붙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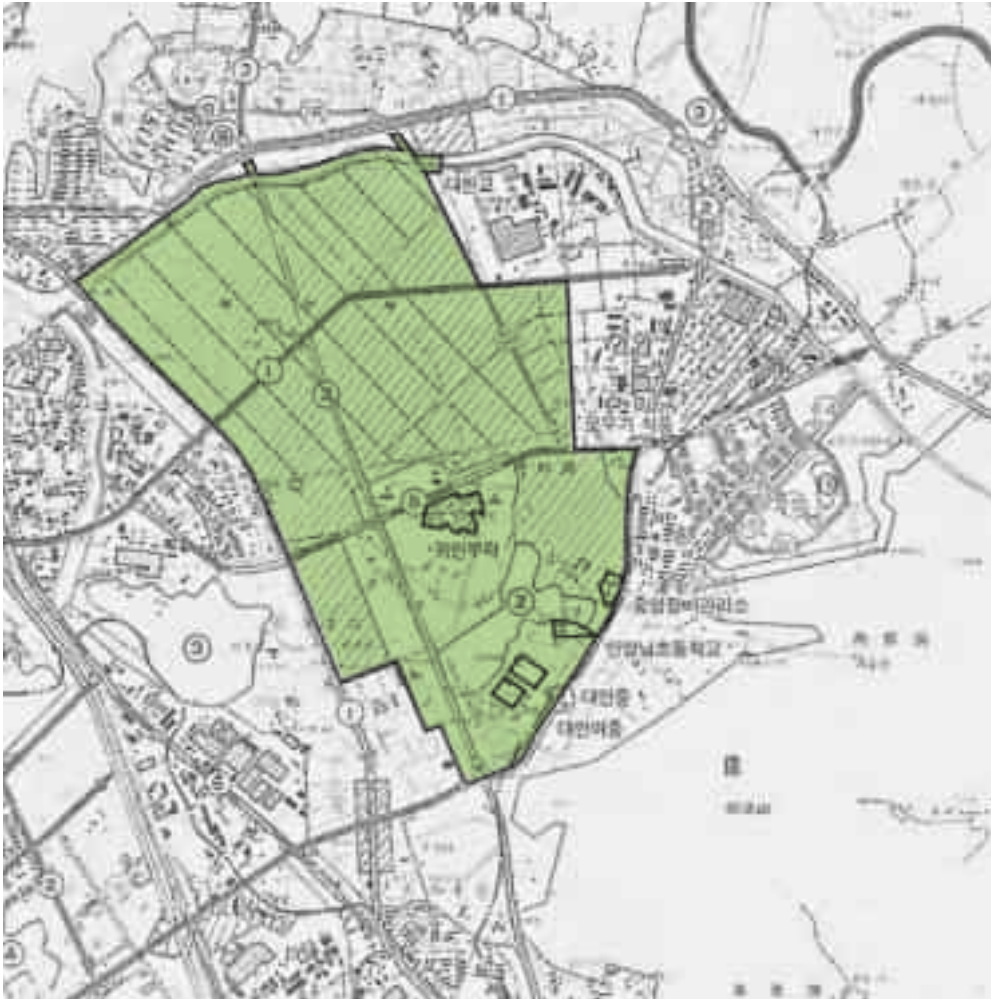


신말 느티나무(최병렬 제공)
신촌동 평촌학원가 뒤편에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건설업체와 도시설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형과 마을의 유래 등을 참작해 순수한 우리말 이름을 짓는” 움직임이 일어났다.²⁶ 수도권지역에 막 들어서던 1기 신도시 아파트와 새로 생긴 동네 순우리말 이름이 붙기 시작하였다. “딱딱하고 무미 건조한 건설업체명을 그대로” 사용하던 기존 아파트 이름 대신, 꽃·산·새·나무·동물 이름이나 역사 인물의 이름을 따서 “아파트의 개성과 고유성을 살리고 정감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전체가 8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평촌신도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도시 개발 단계에서도 아파트 단지명은 사업체끼리 협의하되, 한국토지공사는 업체나 상표명 사용을 금지하고 “고유하면서도 가능한 한 순수 우리말”로 이름을 짓도록 권장하였다.²⁷ 7개 건설업체의 참여로 완공된 범계동의 아파트지구(71개 동, 5,079가구)는 ‘목련단지’라는 이름 아래 1992년 3월 31일 입주를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5월 말에 입주를 시작한 부흥동의 아파트지구(31개 동, 2,346가구)에는 ‘은하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²⁸

이름뿐 아니라 단지의 형태와 건물의 모양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마을의 형태는 촘촘한 개발계획 속에서 짜였다. 예를 들어, 은하수마을은 본래 두 개의 개발 블록으로 나누어 있었으나 “커뮤니티 중심지로서 블록 전체가 한동네 분위기를 갖도록” 통합된 구역으로 조성되었다. 내부에는 “근린공원으로 향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초고층 아파트 건물이 들어섰다. 그런가 하면 평촌신도시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 꿈마을의 경우는 또 다르다. 개발 당시 이곳은 남측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의 공업지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혼잡 및 주거환경이 불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어린이공원과 접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충분히 설치하도록 설계되었다.²⁹

특히 평촌신도시의 남쪽에 위치한 귀인마을은 독특한 경우로 꼽힌다. ‘귀인’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갈 때 이곳에 들러 머물다 갔다 해서 붙었다고 한다.³⁰ 귀인마을은 경주 김씨 및 온양 정씨의 집성촌으로 존재해 왔다. 그런데 개발이 시작되자 귀인마을의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함으로써 개발지구에서 스스로 빠지고 만다.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 제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고향에도 정착할 수 없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³¹ 주민들은 한국토지공사의 계획안을 따르는 대신,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이 때문에 지금도 귀인마을 아파트단지의 경계는 다른 마을의 경우처럼 반듯한 사각형이 아닌 부정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 구불구불한 경계를 띤 이곳 아파트단지 부근에는 귀인중학교, 평촌학원가와 평촌먹거리촌이 있다.



평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위치도(한국토지공사, 『평촌신도시 개발사』, 1997)

최병걸 : 여기가 귀인동이에요. 여기가 원주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기도 끝까지 원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했고.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제일 늦게, 지금 지어진 아파트가 현대홈타운아파트고. 여기 동네가 지금도 원주민이 많이 살고 계시고. 여기가 예전에 주막집도 많았고 일반 서민들이 먹고 가는 그런 음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 원주민들이 여기 살고 계셨고. (중략) 여기 현대홈타운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요. 소공원이. 1996년에 여기 귀인 주민들이 설치한 거예요. 귀인마을 이야기가 좀 있고, 옛날에 귀인강습소라는 것도 있었고. 평촌에 이쪽에서는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인구가 가장 많이 살았던 곳. 번창했던 곳. 조선시대 때부터.

조사자 : 그러니까 개발 이전까지 인구가 제일 많았던 곳이고.

최병렬 :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지석묘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 갈산동 자유공원 여기 가면 지석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여기 문화재 발굴 작업을 명지대학교에서 했어요. 명지대학에서 했는데 하나는 명지대학교 학교 운동장에 가져가 버렸지.

현재 평촌신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마을’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것이 많지만, 귀인마을과 같이 이전의 이름을 이어받은 곳도 있다. 현재 평촌신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비슷한 격자형 외관을 띠는 것과 달리 귀인마을 아파트단지가 구불거리는 경계를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초원 마을이나 은하수마을과 같은 새로운 마을들은 물론, 귀인마을에서도 1990년대 이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1기 신도시 개발의 물결 속에서 남아있던 옛 경관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병렬에 따르면,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와 발굴 작업 후에 평촌자유공원으로 옮겨진 몇 기의 지석묘만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평촌신도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이후 30년이 흐르면서 낙후한 여러 아파트단지가 재건축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현재 평촌신도시의 경관은 신도시 개발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와 주변에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가 공존하는 형세를 띤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역시 다양한 생활의 면면을 경험하고 있다.

4. 재건축 시기, 다시 집을 찾아 들어오는 주민들

평촌 주민들은 웬만한 변화가로 걸어서 갈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고 이야기한다. 꼭 걷지 않더라도 마을버스를 타면 어렵지 않게 평촌신도시의 중심지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평촌신도시 중앙에서 시작하는 왕복 10차선 평촌대로의 양측에 신촌동과 귀인동이 자리한다. 인근에는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 귀인동 쪽으로는 먹거리 골목이 보인다. 이곳을 중심으로 1996년부터 ‘평촌 먹거리촌 문화축제’가 열린다.³² 또한 귀인동과 신촌동의 북편, 즉 평촌신도시 한복판에는 중앙공원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평촌중앙공원의 북쪽으로는 범계역과 평촌역을 포함한 지하철 4호선이 통과한다. 역 근처에는 영화관과 쇼핑몰, 각종 상가와 식당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많은 시민이 안양의 최대 쇼핑상권인 이곳을 즐겨 찾는다. 중앙공원에서는 물론, 여느 아파트단지에서도 걸어요

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은 것이 장점이다. 평촌에서 10년이 넘도록 살아온 정민영(70대, 남성)은 이곳에서의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

조사자 : 여기 살면 좋은 게 뭐예요?

정민영 : 교통 좋고 공기 좋고. 막 사람이 많아서 복잡한 도시 아니고. 적당한 땅 위치에 적당한 인구가 살기 때문에 비율이 잘 돼 있고. 그 교육 좋고. 그리고 또 특히 여기 학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잖아요. (중략)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평촌도 분당 못지않게 좋아요. 분당은, 땅이 넓을수록 장점도 있는데, 우리는 땅은 좀 좁지만, 여기 입지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사릉팔달로 오기 좋으니까. 그런 입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은 서울에 안 살고 일부러 미리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너무 집값이 비싸고 여기는 좀. 지하철에 버스가 다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많이들 옵니다. 여기 (아파트단지) 1,700세대 중에서 한 30%는 젊은이예요. 지금처럼 이제 옛날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왜냐하면 좋으니까 오래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밖에 어디 다른 데 이사를 가서 찾아보면 여기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와요.

평촌신도시는 주거지역과 함께 도로, 산책로, 공원, 그리고 학원가가 잘 조성되어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정민영의 말대로 교통이 편리한 것은 특히 장점이다. 복합터미널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버스와 지하철이 편리하게 구축되어 평촌신도시는 젊은 세대에게도 여전히 매력적인 주거지로 통한다.

하지만 개발이 이루어진 지 30여 년이 흐른 현재, 평촌신도시가 새로운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소년 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이전보다 감소하여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낙후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³³ 평촌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같은 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문수영·오새나 부부는 2020년대 초반에 평촌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주민이 되었다. 이들은 평촌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몇 년을 살다가 지금은 비산동의 신축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오랫동안 과천에서 살아온 이들 부부가 평촌으로 이사를 결심한 데에는 다소 우연한 계기가 있었다.

문수영 : 직장 동료들과 무슨 사회생활 할 때 분당에 수내와 서현을 가든가 아니면은 안양 쪽에 인덕원, 평촌 그쪽에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사는 곳은 과천인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

니까 분당도 익숙했고, 안양에서는 평촌역 근처와 범계역 근처에서 주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양이 되게 익숙했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더 가깝고 제가 익숙했던 평촌에 3년 전에 이사를 간 거였죠. (중략) 평촌역 근처가 이제 역세권이니까. 거기 이마트도 있고, 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평촌역 근처에 살다가 올해 3년 차 때 제가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중략) 비산동에서 안양이 지금 재건축을 많이 해요. 원래 구축 건물들이 많았던 마을 동네들을 재건축을 많이 해서. 이제 비산동에 재건축한 신규 아파트를 구입해서 비산동에 지금 3년 차에 올해부터 살고 있어요.

문수영·오새나 부부의 집이 있는 비산동은, 평촌신도시와 가까이 있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실제로 비산동의 신축 아파트 이름에는 맨 앞에 ‘평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문수영은 관리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취미생활을 위한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지금의 아파트단지에 만족도가 높다. 이들이 거주하는 비산동은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에는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대형마트가 위치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범계역을 중심으로 각종 쇼핑 시설이 있어 편리하게 들를 수 있고, 곳곳에 있는 재래시장도 이용할 수 있다. 오새나는 남편과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라 지역 내 다양한 음식점이 많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평촌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이들 부부의 소소한 취미이기도 하다.

비교적 최근에 평촌신도시로 이주한 문수영·오새나 부부에게는 초원마을이나 은하수 마을 등과 같은 마을 이름이 낯설게 다가온다.



평촌신도시와 이어지는 비산동의 신규 아파트단지

문수영 : 향촌마을 이렇게 옛날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렇게 이름 있는 단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우리 단지만 해도 마을이라는 말 요즘은 안 써요. 옛날에나 마을이라 썼지 요즘 신축 단지들은 영어에다가 지명 합쳐가지고, 왜냐하면 집값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이밍이 요즘은 집값에도 많이 영향을 줘요. 요즘은 그래서 지명과 그다음에 만약에 유명한 건설사라면 건설사 이름과 그다음에 영어 이름. 옛날에야 무슨 마을, 무슨 마을 했지만 요즘은 안 써요. 이것도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마을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우리도 무슨 마을 이런 개념 잘 모르죠.

정민영처럼 평촌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주민들과 달리, 문수영·오새나 부부에게는 1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등장한 마을 이름보다 신축 아파트의 단지명이 더 친숙하다. 1990년대 이전의 자연마을이 개발과 함께 사라졌듯이, 개발 당시 새롭게 등장한 ‘마을’ 역시 점점 그 존재감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평촌신도시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중산층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리라는 기대를 받으며 탄생하였다. 개발의 흐름을 타고 평촌 들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원주민들이 살던 자연마을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아파트단지로 구획된 새로운 마을들로 재편되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평촌은 또 다른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신도시’에서 ‘구도시’로 변한 지금, 주민들은 다시 새로운 모습을 바라고 있다. 평촌신도시가 건설될 당시 구시가지였던 주변 지역이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신규 아파트단지로 조성되면서, 평촌의 아파트가 더 노후되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개발 당시에 이곳으로 들어와 초기 평촌의 모습을 지켜본 한영식,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미 완성된 도시에서 내내 살아온 정민영, 그리고 최근 전개된 재개발의 흐름을 타고 평촌생활권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문수영·오새나 부부는 평촌에서의 삶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였다. 이처럼 평촌신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주민들을 맞이하며 변화를 거듭하는 장소였다. 그 안에서 여러 ‘마을’들 역시 계속해서 이름과 모습을 달리해왔다. 평촌신도시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주민들과 독특한 모습으로 관계 맺으며, 새로운 모습의 보금자리로 다시금 변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2024년 7월 26일.
최병렬,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https://ngoanyang.or.kr/>), 2024년 7월 26일.

註

- 1 란지리, 「한국의 제1기 수도권 신도시에 관한 연구: 1989~1996년간의 5개 신도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1~12쪽.
- 2 한국토지공사, 『평촌신도시 개발사』, 1997, 31쪽.
- 3 「우리말 '벌말'역 평촌변경 핵심」, 『한겨레』, 1996년 11월 21일.
- 4 위의 기사.
- 5 이진희, 「너른 들, 벌말이었던 평촌의 상전벽해」, 『안양 근대사산책』, 안양문화원, 2017, 200~202쪽.
- 6 위의 책, 205~206쪽.
- 7 「'신아화학' 옮겨달라」, 『경향신문』, 1992년 9월 22일.
- 8 란지리, 앞의 논문, 24쪽.
- 9 「서울의 오염현장 <8> 폐수 뒤덮인 안양천 하구」, 『동아일보』, 1979년 5월 30일.
- 10 한국토지공사, 앞의 책, 30~32쪽.
- 1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4 살기 좋은 환경도시 안양: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살기 좋은 그린시티』, 2008c, 9~11쪽.
- 12 한국토지공사, 앞의 책, 33쪽, 69쪽.
- 1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11쪽.
- 14 「안양 평촌터미널 용도 변경... 취소소송 비용 모금문제로 불통」, 『경기일보』, 2021년 9월 30일.
- 15 한국토지공사, 앞의 책, 35쪽.
- 16 안건혁, 「분당에서 세종까지: 대한민국 도시설계의 역사를 쓰다」, 한울엠플러스, 2020, 80쪽.
- 17 위의 책, 94~95쪽.
- 18 안양문화원, 『안양문화 제 10호』, 안양문화원, 1993, 107~110쪽.
- 19 한국토지공사, 앞의 책, 46쪽.
- 20 한국토지공사, 앞의 책, 341~344쪽.
- 21 김진균·권영상, 「신도시 개발에 의한 도시공간의 구조적 이분화에 대한 연구- 안양시와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9), 2002, 71~72쪽.
- 22 한국토지공사, 앞의 책, 200쪽.
- 23 란지리, 앞의 논문, 33~35쪽.
- 2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역사와 전통의 안양: 안양의 혼을 지켜온 서정과 풍경』, 2008a, 115쪽.
- 25 「신도시 아파트 독립명칭 분양」, 『매일경제』, 1990년 8월 28일.
- 26 「고유 아파트이름 창안」, 『한겨레』, 1990년 8월 29일.
- 27 한국토지공사, 앞의 책, 250쪽.
- 28 「신도시 아파트에 "꽃이름 새이름」, 『경향신문』, 1992년 5월 24일.
- 29 한국토지공사, 앞의 책, 252~259쪽.
- 30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b, 360쪽.
- 31 「김시덕의 이 길을 따라가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한국일보』, 2022년 1월 15일.
- 32 이진희, 앞의 책, 211쪽.
- 33 이진희, 앞의 책, 217쪽.

제3장

1기 신도시 노후화와 평촌의 재정비

오윤정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수도권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서울의 인구 밀집과 주택 부족, 과밀화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 호 주택공급을 목표로 시작된 신도시 개발은 서울 인근 지역 5곳을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에 29만 호 주택을 건설하여 서울에 집중된 인구 117만 명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 성남의 분당, 고양의 일산, 안양의 평촌, 군포의 산본, 부천의 중동이 5대 신도시로 지정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들어갔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곳은 분당으로, 최초 입주가 1991년 9월이다. 2024년 기준으로 분당의 상당수 아파트는 준공 34년 차가 되었다. 1993년 3월에 입주가 시작되어 5개 신도시 중 가장 늦게 입주가 이루어진 중동역시 이제는 30년이 넘는 신도시가 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김포 한강, 성남 판교, 수원 광교, 화성 동탄 등을 필두로 하여 충청권의 아산신도시, 도안신도시 등 총 12개 지역에 2기 신도시가 형성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남양주 왕숙지구, 부천 대장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1990년대 초반에 형성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노후화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1기 신도시를 계획하던 1980년대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향한 질주하던 시기였다. 그에 비해 오늘날은 경제 강국이라고 불릴 만큼 국가의 경제력은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 기술은 발전하였다. 국민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으며, 주거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도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80년대에 계획되어 건설된 1기 신도시는 더 이상 신도시라 부르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여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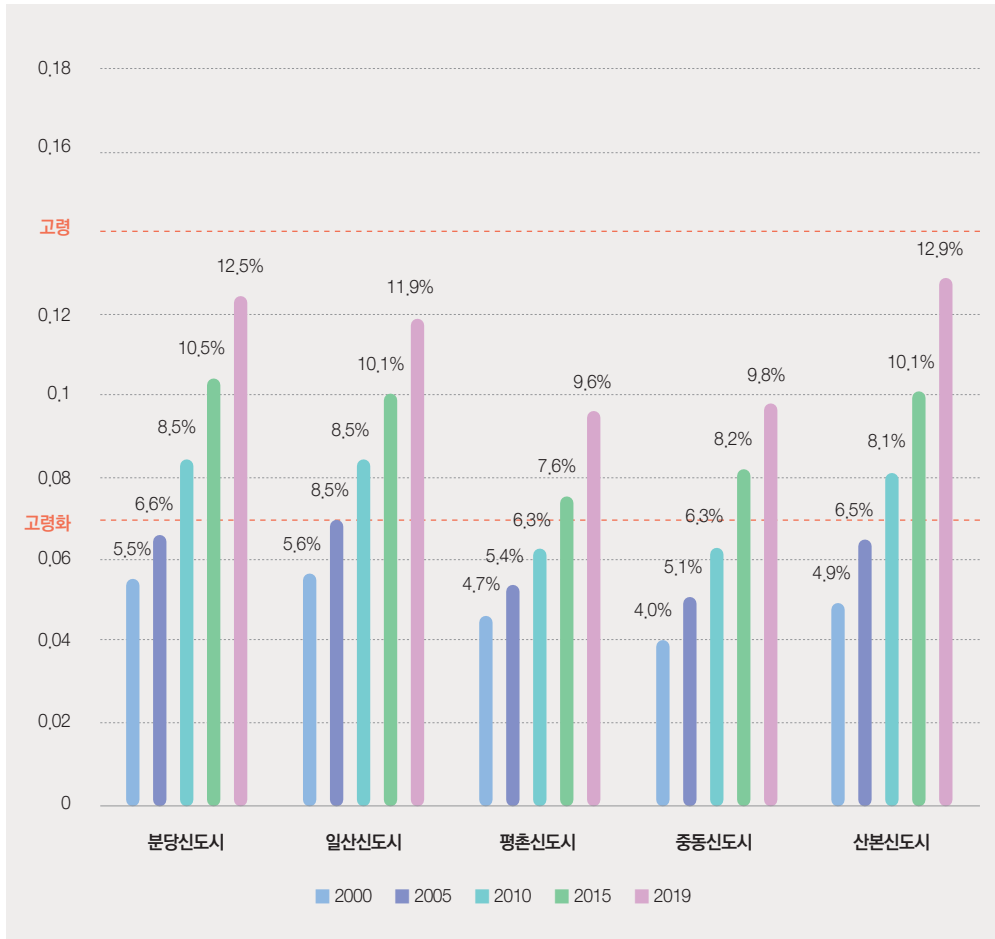
이 흐르면서, 노후화의 흔적은 도시 곳곳에서 드러난다. 도로·공원·학교 등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된 도시 제반 시설과 공공시설은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왔음에도 세월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도시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발생하고, 이는 신도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일산에서 발생한 지역난방 열 수송관 파열 사고이다. 이 사고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열 수송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상기시켰다. 2018년 12월 초, 일산동구 백석동 지하철 3호선 인근의 지역난방 열 수송관이 터지면서 상가건물로 온수가 유입되었고 인근 왕복 4차선 도로가 파손되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온수가 차오르는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사망하고, 22명이 화상을 입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고 여파로 일산 지역의 4개 아파트단지 2,861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일산·분당·산본·중동·평촌에 열 수송관을 설치하였다. 총연장은 686km로, 이는 국내 전체 열 수송관의 32%를 차지한다. 설치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열 수송관의 노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열 수송관이 1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지자체 공동토론회(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00~2019년 신도시 고령화율 변화(국토연구원 제공)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2018년의 일산 사고 이후 ‘발밑의 폭탄’과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23년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역시 1기 신도시 노후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이후 진행된 분당 탄천 일대 전체 교량 안전진단에서 수내교가 최하 E등급을 받아 폐쇄되는 등 노후화 위험이 현실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일산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파열 역시 1994년 11월에 준공해 30년가량 된 아파트의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분당과 일산 두 신도시 모두 해당 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과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까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1기 신도시의 노후화는 주

택이나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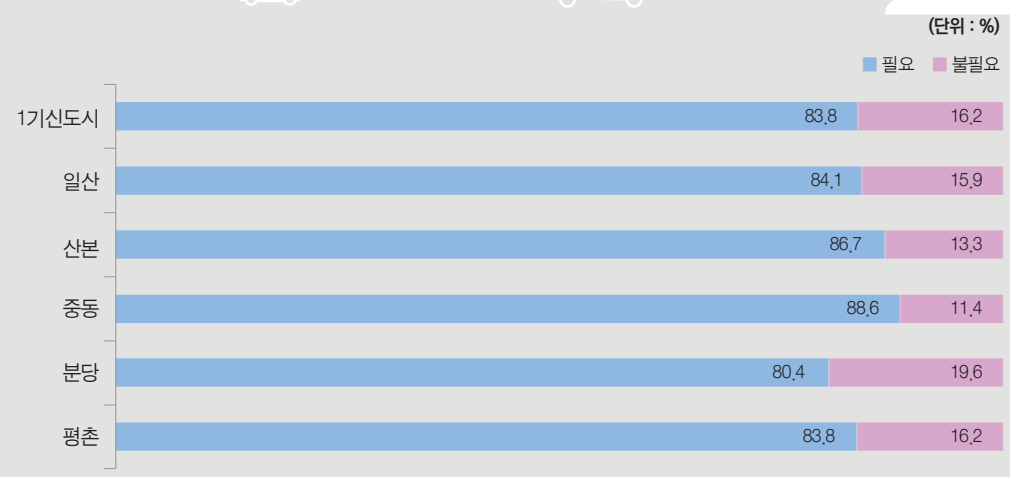
2019년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도시에 따라 최소 9.6%에서 최고 12.9%에 이른다. 고령사회의 기준인 14%에는 미달하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도시별로 4.0~5.6%였으나 지난 20여 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는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 입주 당시에는 30~40대였던 주민들이 30년이 지난 현재는 60~70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신도시의 물리적 공간이 노후화되듯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그 세월을 함께 보내고 있다.

2.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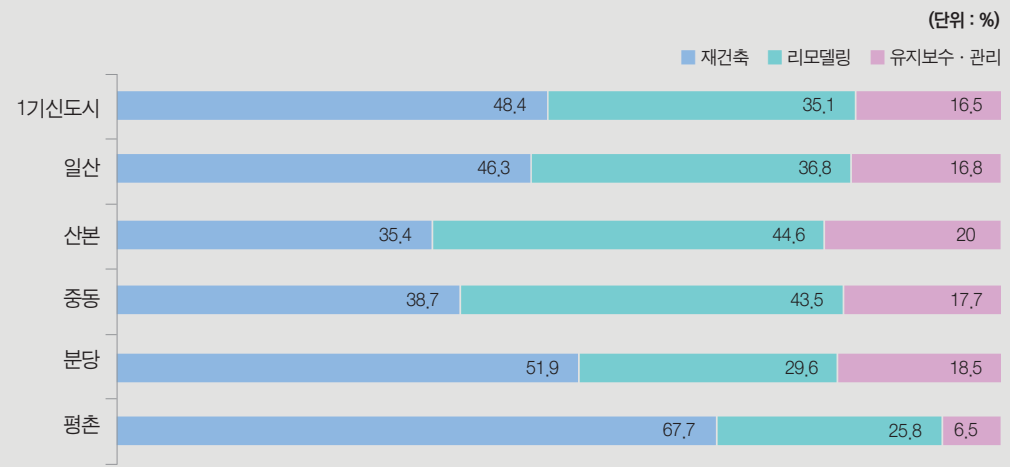
2022년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민의 83.8%는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주택의 재정비는 정비 방식에 따라 대수선과 리모델링, 재건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건축법』에 근거하며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규정되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가능 연한은 준공 후 30년이다. 리모델링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증축과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증가, 3개 층 이내의 증축 등 건축법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재건축은 아파트 철거 후에 시행된다는 점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구분된다. 1990년대 초반에 형성된 1기 신도시 5곳 모두는 2023년을 기점으로 최초 준공 후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다섯 지역 모두 거주 아파트 재정비와 관련한 여러 진통을 겪고 있다. 가장 첨예한 충돌은 아파트 재정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다. 신도시 아파트의 준공이 30년이 넘어가면서 리모델링은 물론이고 재건축의 대상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양분되고 있다.

2020년의 경기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자유로운 평면 및 단



1기 신도시별 공동주택 재정비 사업 필요 여부(2020년, 경기연구원 제공)



1기 신도시별 선호하는 공동주택 재정비 사업 방식(2020년, 경기연구원 제공)



안양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명회(201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지설계'와 '구조 안정성 확보'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8.4%가 재건축을 선호하지만, 응답자의 35.1%가 '사업기간 단축'과 '기존 골조 유지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친환경적인 이유'로 리모델링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주민 의견의 대립은 한 단지 속에서 재건축추진 위원회와 리모델링추진위원회가 동시에 조직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에 각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노력한다.

1기 신도시는 이후에 생긴 신도시에 비해 확실히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투자 가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의 갈등은 좁혀지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현재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169~226%에 이르는데, 이를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배 상향할 수 있는 특별법의 혜택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일반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며, 이는 분담금 우려를 지울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협의, 경기도 심의를 거쳐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국토부는 10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은 낮지만 추진속도에 강점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 조합들도 있는데, 경기도 도시재생과의 2021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본의 4개, 성남의 6개, 평촌의 3개 아파트단지가 조합설립을 추진하여 리모델링 승인을 받고자 하였다. 실제로 분당의 무지개마을 4단지, 느티마을 3·4단지, 매화마을 1단지, 한솔마을 등 여러 단지는 2023~2024년에 걸쳐 리모델링 승인이 나서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평촌에서 가장 먼저 재정비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목련마을 2단지는 2008년에 리모델링 사업 조합인가를 받고 2020년에 효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할 바가 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 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치솟은 데다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재건축 가능성이 제기되어 주민 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장은 “2024년 11월 이주를 시작으로 내년 초 철거를 나설 예정”¹이라고 밝히나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되어 있다.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위치 및 개요(2022년, 경기연구원 제공)



목련2단지

- 준공연도 : 1992년
- 세대수 : 904호
- 2020.8.26. 건축심의 완료

목련3단지

- 준공연도 : 1992년
- 세대수 : 902호
- 2020.9.24. 건축심의 완료

초원세경

- 준공연도 : 1996년
- 세대수 : 9709호
- 2021.10.5. 조합설립인가

3.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과 선도지구 지정

2023년 11월 29일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²⁾’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어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이 1기 신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 법의 핵심은 재건축 규제의 완화로,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조성 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는데, 1기 신도시가 이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의 전체 가구 수 27만 3,000가구 중에서 30년이 지난 아파트단지는 2023년 기준으로 156개, 약 13만 2,000가구로 이는 1기 신도시 단지 전체의 절반으로 본 특별법을 적용하여 1기 신도시의 절반 이상이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 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표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 | | |
|---------------------|----------------------|
| • 재건축 안전 진단 완화 및 면제 | • 인허가 통합 심의로 기간 단축 |
| •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 • 초과 이익 환수해 기반시설 재투자 |

(가칭) 목련2단지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현수막(2024년 8월)



특히,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은 부동산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민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용적률이 높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 재건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는 2종일반주거구역을 3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이 담겨있다. 허용 용적률이 늘어남에 따라 지을 수 있는 층수가 증가해 상가주택을 가진 주민들에게는 사업성이 좋아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신도시 상가주택연합회에서 이 특별법을 가장 환영하고 있다. 평촌의 대표적인 상가주택 지역인 귀인동 상가주택번영회장 김종영은 정기회의 때 특별법 통과에 대해 발표하며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1기 신도시는 정부 주도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여 개발되었지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주민들이 단지나 구역별로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공영역에서의 재정비는 지자체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아파트단지의 재정비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단지의 정비 추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는 주민의 수가 많으면 조합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또한 정비비의 방향과 정도가 재건축·리모델링·하차보수 등으로 나뉘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 개진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평촌신도시 목련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홍보 현수막(2024년 8월)





평촌신도시의 재건축사업 관련 현수막(2024년)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총 2만 6,000가구 이상 규모의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과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단지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즉, “선도 지구는 향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전초전 격”³으로 이후 1기 신도시 정비 방향을 가늠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평촌신도시의 선도지구 기준 물량이 약 4,000호 내외로 결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선도지구 공모를 받아 2024년 내로 4천호+ α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사업 유형(주거단지 정비형 등)과 주택 유형(연립주택·아파트 등)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계획을 밝혔다. 안양시는 2024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 받고, 10월에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는 평촌신도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도 지구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선도지구 지정절차 이행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평촌의 노후화와 주민 생활

평촌은 평촌학원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군지이며 지하철 4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평촌IC로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또한 자연공원인 자유공원과 도심 한 가운데 펼쳐진 중앙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과 지하철역 주변의 상가 밀집지역이 어우러져 훌륭한 주거지역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평촌의 높은 주거 비용과 낡은 아파트 시설에도 불구하고 평촌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30년 이상이 된 현재 시점에서 평촌의 곳곳이 노후화되어 재정비를 기다린다. 아파트 건물의 노후를 감수하고 세대 내부 인테리어를 개인적으로 재정비한 뒤 평촌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재건축 이슈로 오른 집값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위해 낡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투자가들도 있다. 또한, 지금이 아파트 매도 적기라 판단하고 구축 아파트를 매도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주민들도 있다. 평촌의 재정비로 지역 전체가 들쭉이는 상황 속에서 평촌 주민들은 재정비에 관한 각자의 생각을 품고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1) ‘낡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와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주택과 관련해서이다. 대부분의 평촌 아파트단지는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로, 아무리 꾸준히 보수를 해왔더라도 아파트 외형과 구조 자체에서 세월의 흐름을 지울 수는 없다. 더욱이 인근 지역인 호계동·비산동·관양동과 의왕의 내손동·포일동 등이 개발되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평촌의 30년 된 아파트와 상가건물의 노후화는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최송아 : 여기로 과연 이사 올 수 있을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여기 아파트도 막 30년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집값은 많이 차이는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노후화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여기가 아파트가 너무 낡았어요.

최송아(가명, 40대, 여성)⁴은 의왕시 포일동의 신축인 인덕원숲속마을아파트에 살다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6년 전에 꿈마을건영3단지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평촌으로의 이

사를 결정하고 아파트를 보러 다닐 때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은 평촌의 교육 환경과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이웃이 많다는 점이 편안함을 주지만, 6년 전에는 평촌 이사를 고민하게 할 정도로 낡은 아파트가 신경이 쓰였다고 한다.

권미연 : 그게 약간 교육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되게 웃긴 게 저는 애들 유치원을 포일 의왕 쪽에 있는 유치원으로 보냈어요. 여기가 왜 자이랑 대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길 건너 하나 사이에 두고선 동네가 달라지잖아요. 거기가 새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 유치원에 많이 오니까, 저희는 평촌에 사는데, 평촌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신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렇게 약간 갈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자기네는 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고 되게 좀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웃기는 게, 제가 약간 무시당한다고 느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다시 학교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오시더라고요. 그거 포기하고, 새 아파트 포기하고 와서 정보 묻고, 학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로 또 이사 오시더라고요.

권미연(가명, 40대, 여성)⁵은 평촌의 낡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교육과 관련지어 이야기 하였다. 그는 자녀들을 의왕 포일동 유치원으로 보내면서 그 일대의 신축 아파트 거주자들이 낡은 아파트에 사는 평촌 거주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귀인동 상가주택 지역에 있는 인테리어업체들(2024년 8월)

그렇지만 권미연은 포일동 신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고학년이 되면 교육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장점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무시했던 평촌의 구축 아파트로 이사 오는 것을 보았다. 즉, 평촌에 산다는 것은 낡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신축 아파트의 장점을 포기하고서라도 들어오려는 학군지라는 것이다.

최송아와 권미연은 현재 꿈마을에 거주하는데, 이들은 지금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 아파트 내부를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입주하였다고 한다.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하였고 주방과 욕실 일부가 리모델링 상태였지만, 이 역시 10여 년 전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만 몇천만 원”을 쓰고 나서야 들어왔다. 이들처럼 최근에 평촌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아파트 건물 자체의 낡음은 어쩔 수 없더라도 본인이 거주할 세대의 내부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아파트단지의 상가나 인근 상업지구에는 인테리어업체들이 즐비해 있다.

2) 부족한 주차시설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노후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아파트단지의 주차환경이다.

최송아 : 주차가, 저는 주차 때문에 이 아파트를 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때는 아파트에 차를 많이 보유하신 분이 없었잖아요, 30년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을 안 지어놓다 보니까, 막 2중·3중 주차를 하는데, 다행히 저희는 아파트 평수가 좀 있어요. 현대아파트나 저희 아파트(꿈마을건영3단지아파트)나 금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있다 보니까, 한신이나 이런 데는 50평대 이런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세대원이 한 동에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차가 좀 널널한데 막 20평대, 30평대 아파트들은..... 지금 한 집에 차를 2대씩 갖고 있는 집도 많잖아요. 자녀가 또 있으면 3대 있는데, 그러면 난리인 거예요. 2중·3중 주차예요.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평촌으로 이사 와 살기 시작한 최송아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 이유가 다름 아닌 주차 공간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그가 거주하고 있는 꿈마을건영3단지아파트는 1994년에 준공되었으며 전체 6개 동에 총 386세대로, 각 세대가 123~167㎡ 규모의 중대형으로 구성된 단지이다. 세대 당 주차대수가 2.72대로 주차난이 없는 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수가 적은 중·대형 평형 위주의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평촌을 비롯한 1기 신도시 5개 지역 모두가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기사화된 적이 있다.



2중·3중으로 주차하는 목련마을 2단지 아파트 주차장

1기 신도시를 구상하던 1980년대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며 소위 ‘마이카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었다. 1991년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 당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425만 대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6월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13만 대로 국민 1.96명당 1대꼴로 지난 30년간 자동차 보급률이 5배 이상 늘어났다. 1980년대 후반의 자동차 보급률을 기반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주차 공간은, 건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1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대가 된 오늘날에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목련우성3차아파트는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10개 동에 902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나, 주차 면적이 가구당 0.27대에 불과하다. 목련우성5차아파트 또한 7개 동에 총 683세대가 살지만, 가구당 0.28대로 주차 면적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극심한 주차난은 소형 평형 아파트 위주의 대단지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중·대형 평형의 소규모 단지 역시 가구당 자동차 보유 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의 협소함 문제를 겪는다

3) 재정비를 둘러싼 엇갈리는 반응

2022년 안양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안양시의 전반적인 주택 만족도는 평균 4점 만점에 2.94점으로, 대체로 만족이 76.4%, 매우 만족이 10.0%로 총 86.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실태조사에서 평촌·호계생활권의 응답자 7만 1,272가구 중 88.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박달생활권(76.1%)과 비교해 볼 때 12% 이상 높은 수치이며, 안양시의 평균을 약간 상회한다. 상업시설·의료시설 접근용이성 등을 비롯한 총 15개 영역에서 평촌·호계생활권은 안양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안양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 사업에 대한 항목을 생활권역별 비교하면, 평촌·호계생활권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수치를 보면, 평촌·호계생활권 거주자들은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으며, 안양의 다른 생활권 주민보다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낀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하여 선도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경쟁이나 단지별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리모델링 승인을 기다리는 모습은, 평촌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재정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업지역, 지하철역, 공원, 학교 등이 인접한 목련마을

권미연 : 저는 지금 환경이 불편한지 몰랐어요. 계속 여기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시는 여기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마을이 무슨 선도지구 그거에 선정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한창 설문지 돌리고 설명회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무튼 제일 핫한 건 선도지구 선정 문제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갈리는 게, 저처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노인들만 남아 있는 집도 되게 많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커서 또 이렇게 또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노인들만 사는 집들은 재정비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에서 선도지구 문제에 엄청 적극적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표 2〉 안양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별 필요 사업 질문의 응답 비율

(단위 : 가구, %)

구분	가구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노후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	없음
전체	207,152	40.7	27.3	19.3	12.7
안양명학생활권	56,485	41.5	33.0	13.6	11.8
석수생활권	24,700	44.0	25.4	17.4	13.2
박달생활권	14,323	30.8	31.0	25.9	12.4
비산생활권	40,399	46.0	26.6	24.9	2.5
평촌호계생활권	71,272	37.8	23.1	20.1	19.0

자료 : 안양시, 『2022년 안양시 주거실태조사』

〈표 3〉 평촌·호계 생활권 거주자의 지역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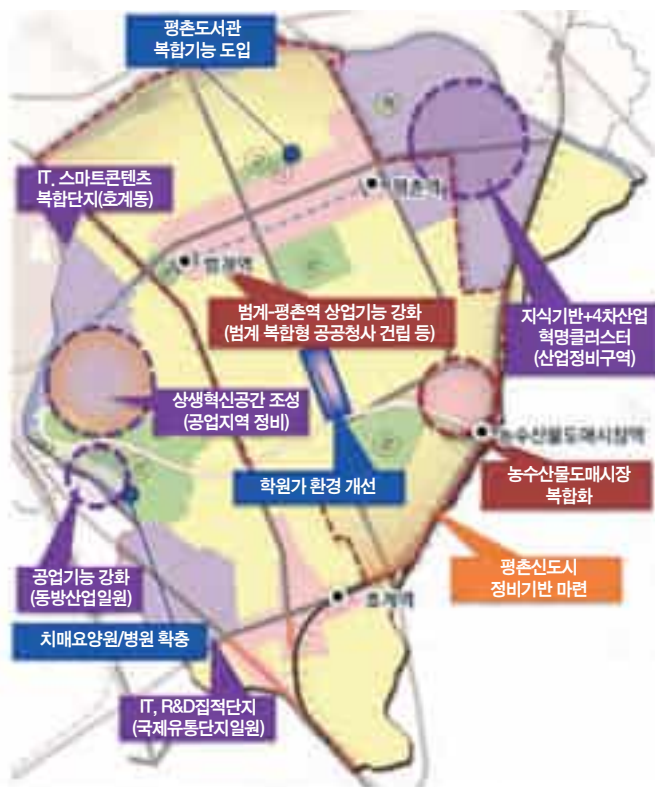
구분	평촌호계생활권			안양시 전체		
	불만족	만족	평균 (4점만점)	불만족	만족	평균 (4점만점)
상업시설 접근용이성	4.3	95.7	3.15	11.0	89.0	3.10
의료시설 접근용이성	3.5	96.5	3.25	8.6	91.4	3.17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4.5	95.5	3.39	10.3	89.7	3.30
문화시설 접근용이성	22.5	77.5	3.13	23.3	76.7	3.06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	4.1	95.9	3.30	9.2	90.8	3.20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4.7	95.3	3.32	9.8	90.2	3.18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22.9	77.1	2.98	25.2	74.8	2.92
주변도로의 보행안전	5.9	94.1	3.22	13.9	86.1	3.08
소방차 진입용이성	8.4	91.6	3.17	14.9	85.1	3.06
교육환경	6.0	94.0	3.18	12.6	87.4	3.07
놀이터 등 놀이환경	10.3	89.7	3.15	14.0	86.0	3.06
방법상태	9.4	90.6	3.10	12.1	87.9	3.07
동네의 소음정도	16.3	83.7	3.00	17.6	82.4	2.98
쓰레기 처리상태	6.6	93.4	3.10	8.3	91.7	3.04
이웃과의 관계	6.3	93.7	3.09	6.3	93.7	3.04

자료 : 안양시, 『2022년 안양시 주거실태조사』

비고 : [표 129]~[표 160] 중에서 평촌호계생활권 수치만 비교 정리

평촌신도시 및 공업지역 재생

구분	생활권별 개발구상
평촌 신도시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촌신도시 정비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정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 상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계~평촌역 : 중심상업기능 강화, 문화컨텐츠 연계, 금융·법률 지원 ○ 서비스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가 일원 : 청소년 문화여가기능 강화, 먹거리 특성과 및 보행환경 개선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한 복합기능 도입
노후 공업지역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맞춤형 공업지역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계동 : 주거+상업과 결합한 상생혁신공간 조성 - 평촌동 :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연계하여 창조지식산업 및 ICT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식기반클러스터 육성 - 유희부지 활용을 통해 지대요양원+병원 확보



평촌신도시 및 공업지역 재생(안양시,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115쪽)

조사자 : 엄마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권미연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도지구도 결국엔 집값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떡할 거냐고 엄마들 만나면 교육 이야기 아니면 그게 다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도지구 때문에 이제 그거 재건축하면 집값이 올라갈 텐데 또 그 몇 평으로 되고 되게 관심 많아요.

1993년에 평촌신도시 입주와 함께 평촌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권○○(40대, 여성)는 평촌의 주거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신축 아파트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이곳에서 오래 살았던 본인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평촌에 오래 산 노년층 역시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으며 이를 부동산 투자와 관련지어 이야기하였다.

귀인동 상가주택번영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영(70대, 남성)은 1980년대 중반에 호계동 현대아파트로 이사 와서 살다가 한국토지공사에서 평촌의 단독주택 필지를 분양했을 때 70평을 분양 받아 들어왔다. 그는 상가주택지역이 아파트단지와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다. 상가주택지역의 어려움은 환경미화와 도로 관리이다.

김종영 : 저쪽은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잖아요. 저분들은 시설 충당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근데 우리 상가주택번영회는 비영리라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는 바자회도 하고, 캔이나 종이 같은 재활용품 팔아서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수입 자체가 없고 또 우리 관리비 이런 것도 안 받잖아요. 여기는 다 각각 개인이니까. 우리는 회비를 그걸 과도하게 받을 수 있나요?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시에서 좀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서 3,000만 원 지원받아서 여기 도로 화단에 명산홍이 딱 식재가 되었어요. 한 2년 됐어요. 근데 이게 관리가 돼야죠. 관리가. 한 번 심어주면 비료도 좀 주고. 지금 다른 데 다 폼데, 지금 필 시기인데 안 피고 이게 지금 퍼렇게. 저거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좀 관리 해줬으면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저게 공원 부지라 개인이 만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는 재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택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현재 상가주택의 소유주가 고령인데다가 자녀 세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의견 수렴이 어렵고, 의견을 수렴하여도 소유주의 사망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변동으로 해당 의견이 향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등과 관련한 법적 절차 문제가 있다고 한다.

김종영 : 결론은 이제 민주적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안으로 의견 1안, 2안을 올려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혜택을 지금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우리 대에는 못 보지만 후대에는 이게 볼 수가 있으니까 자제분하고 의논을 해 갖고 결정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물어보고 자식들 의견도 반영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됐어요. 회의를 하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오는데, 발언권은 아버지가 얻어가지고 발언은 자식이 해요. 여기에 이제 법적으로 건물 토지 등기권자, 그러니까 소유자, 건물주가 회원인데 자식은 건물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건물주 자녀의 발언)까지 거절을 하면 싸움 나고 나중에 번복되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진행을 막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자식이 그건 내 아버지 의견이지 내 의견이 아니다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많아요.

2023년 12월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평촌의 재정비는 현실로 다가왔다. 재정비 방법이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재정비까지는 앞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평촌신도시 주민들에게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가장 중대한 사안이다.

30여 년 전 건설된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라고 평가받았다. 이 대규모 사업은 이후 2기·3기 신도시 건설로 이어지며 국가 차원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다. 평촌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건설 프로젝트가 주택 건설과 입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후속 작업인 재정비로 이어지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모습은 해당 지역 거주자 개인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 전반에 새로운 삶의 방향성 제시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의 전개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고자료

- 국토연구원,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2020.
경기연구원,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 2020.
안양시,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註

- 1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계속 간다...가처분 기각」, 『대한경제』, 2024년 7월 29일.
- 2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들뜬 1기 신도시 분당·평촌 들썩...선도지구 지정이 관건[감평사의 부동산 현장진단]」, 『매일경제』, 2023년 12월 1일.
- 3 「선도지구 지정 앞둔 1기 신도시...정비사업 수주경쟁 뜨겁다」, 『파이낸셜뉴스』, 2023년 12월 18일.
- 4 제보자의 요청으로 이름을 가명 처리.
- 5 제보자의 요청으로 이름을 가명 처리.

제1장

범계역세권 목련마을의 주민생활

홍수린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평촌신도시는 지하철역과 상권이 주거 지역과 밀접하게 위치해 있어 상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학교, 학원가, 공원, 관공서, 백화점, 아울렛, 병원, 대중교통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도보권에 자리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평촌 스마트밸리의 성장으로 직주근접의 장점을 더하게 되면서, 서울의 배후 도시 및 위성도시 역할을 넘어 자족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중 목련마을은 범계역과 가장 가까운 단지로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과 우수한 학군을 기반으로 활기찬 주거지로 자리매김하였다.

목련마을은 범계역 상권과의 인접성, 녹지와 공원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 그리고 학교·도서관·병원 등 교육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특징으로 한다.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 이후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서울과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해져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평촌 내 다양한 상업 및 교육시설은 생활 만족도를 높였으며, 특히 평촌학원가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평촌이 교육도시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 목련마을의 구조와 특징

목련마을은 1단지 선경, 2단지 대우·선경, 3단지 우성, 5단지 우성, 6단지 두산, 7단지 우성, 8단지 동아·경남, 9단지 신동아 등 다양한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였고, 1992년~1994년에 준공하여 총 5,059세대가 입주하였다. 건설사의 특색이 반영된 여러 아파트단지가 어우러져 지금의 목련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목련마을은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통학 거리가 짧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으며, 유명한 평촌학원가도 가까이 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목련마을은 교육을 중시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다.

목련마을의 초기 입주자들은 대기업 직원, 교사, 젊은 대학교 교원 등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젊은 층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안정적인 직업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하고자 신도시로 이주하였고, 그 결과 목련마을은 초기부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의 젊은 신혼부부와 직장인들은 중·장년층으로 성장했고 그들의 자녀도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목련마을의 인구 구조는 다양한 연령층과 가구 구성으로 변화하였다.

목련마을 아파트는 46~195㎡의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기 다른 생활양식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1인 가구부터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족까지 주거 형태가 다양하다. 소형 평형에는 주로 1인 가구·청년층·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며, 대형 평형에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중장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소형 평형 단지에서는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 거래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경우 입시가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재산 가치이다. 안양 토박이이자 목련마을 여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된 범계역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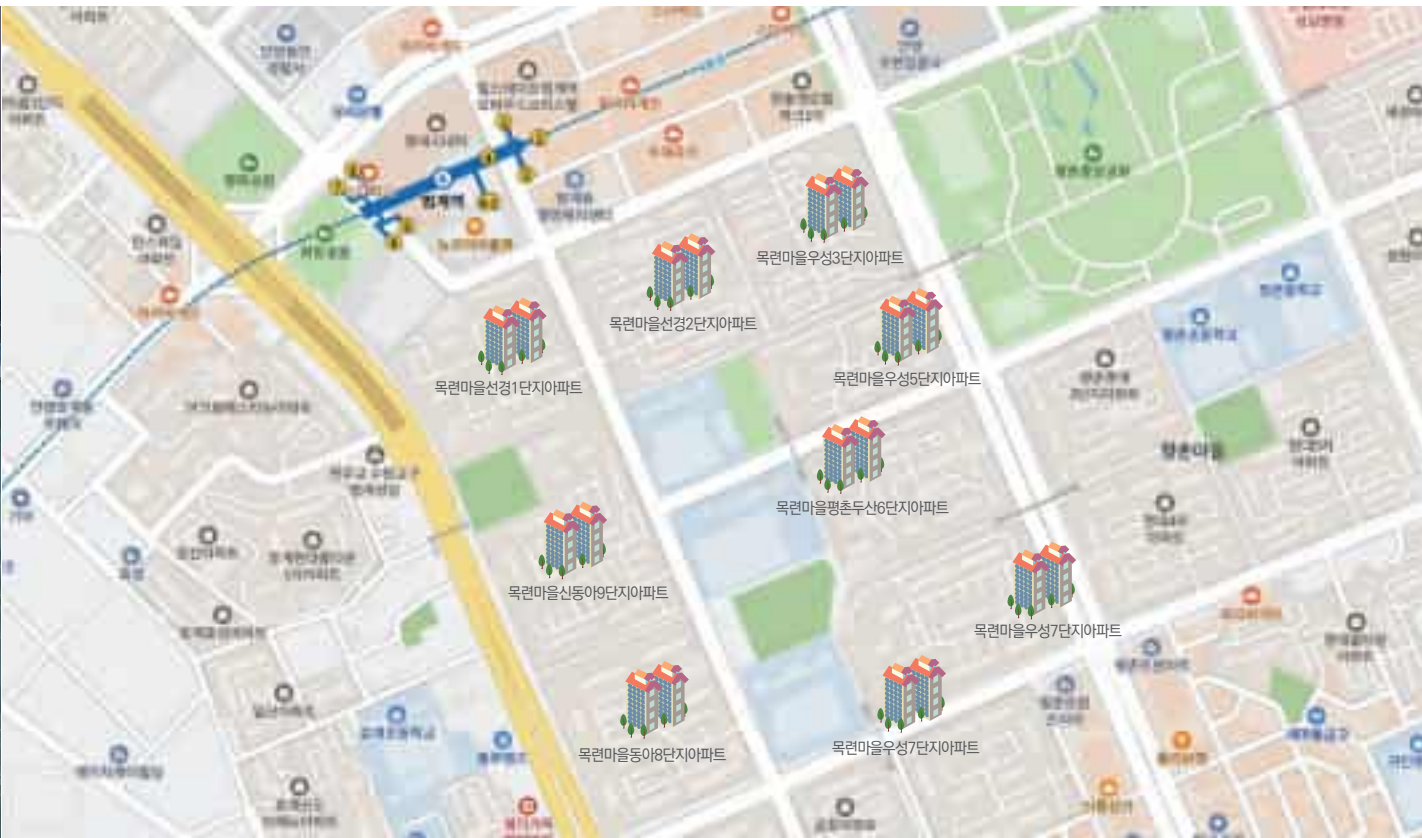


러 단지를 이사 다니며 살았던 조아현(30대, 여성)에 의하면, 대형 평형이 많은 1단지·8단지·9단지에는 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고, 소형 평형이 많은 2단지과 3단지에는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였다.¹ 이러한 차이는 학교 학예회에 참석하는 부모들의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한다.

조아현 : 그 동네 사람들은 일단 잘 사는 중산층이지. 왜냐면 1단지랑 9단지 8단지 이런 데는 평수가 내가 알기로는 40평대 대형이었고, 1단지는 아파트인데 다락방, 맨 위에 층이 이층집이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 2단지 3단지 여기는 14평, 많이 커봤자 24평 정도. 실제로 애들은 뭐 알고 노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들도 그게 보인다 그랬어. 단지별로, 학예회 하면 엄마들도 오잖아. 그러니까 엄마들도 약간 좀 이렇게 구별 지었대.

초기 평촌신도시 입주민들은 이곳을 분당신도시 다음으로 좋은 선택지라고 여겼다. 서울 입성이 어려운 중산층들이 서울 근교에서 살고자 모인 결과로, 평촌은 이러한 사람들의 터전이 되었다. 그러나 평촌 내부에서도 다양한 기준에 따른 구별이 나타났다. 특정 마을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인지를 먼저 인식할 정도로 나뉠 구분하는 양상들이 나타난 것이다.

목련마을 아파트 분포 현황





범계역 상권과 접한 목련마을





목련마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마을 중앙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이경옥 : 평촌의 대형 평수는 주로 목련마을·꿈마을·샘마을 쪽에 몰려 있고, 동네마다 차이가 있어요. 살다 보니 평촌 안에서도 마을 간에 약간의 갭이 느껴지더라고요. 목련 2단지 10평대에서 20평대까지 소형 평수가 많아요. 반면에 6단지 우성은 평수가 넓어서 차이가 나죠. 얼마 전에 부동산에 갔더니 ‘평북’, ‘평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범계역 기준으로 해서 큰 도로, 시민대로를 기준으로 평북과 평남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값도 차이가 나고, 거래가도 다르다고 했어요. 범계중학교는 주로 목련단지 사람들이 다니는데, 범계초 같은 경우는 5학년까지는 반이 무난한데, 6학년 1학기가 되면 증반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귀인초등학교는 한 반에 거의 30명 가까이 차요. 보통 안양에 있는 초등학교 한 반이 25명 내외인데, 귀인초는 29명, 심하면 30명까지 간다고 해요.

구별 짓기의 한 예로 ‘평남’과 ‘평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처럼, 시민대로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특히 평촌이 행정구역상 안양시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안양이라기보다는 평촌이라 부르며 그 안에서도 더 세부적인 구분을 두었다. 동안구와 만안구 두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주민들의 인식도 함께 공고해졌다. 이로 인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만안구에서 동안구로 이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평촌은 신도시라는 지리적 개념을 넘어서 그 내부에서도 차별화된 구별 짓기와 계층화가 이루어진 공간이 된 것이다.

평촌신도시는 그 이름처럼 평지를 구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계획 덕분에 주변 신도시들에서 흔히 발생하는 난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목련마을 아파트단지에서는 다양한 수목과 화초를 조경하여 단지 내 특색을 살리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1993년 2월, 평촌신도시의 아파트 준공에 맞춰 단지별로 수목 특색화 작업²이 진행되었다. 당시 목련마을 아파트단지에는 목련 150그루가 심어지는 등 각 단지 이름에 걸맞은 수목과 화훼류가 식재되었다. 이러한 세심한 조경 작업은 평촌을 더욱 특별한 신도시로 만들어 주었다.

목련마을의 단지와 단지 사이를 잇는 공원은 인도 양쪽에 잔디와 관목이 심겨 있으며 나무들이 높은 가지를 펼쳐 그늘을 만들어 준다. 평탄하게 포장된 도보 주위에는 푸르른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목련단지 안팎에는 주민들에게 평온한 휴식을 제공하는 조용한 산책로가 여럿 조성되어 있다.

목련마을은 역세권에 자리한 아파트로 큰 기대를 받았다. 입주 계획에 맞춰 학군도 함께 조성되어 당시 현장은 입주 점검과 개교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³ 이 때문에 초

기 신도시 개발 당시 난개발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목련마을은 현재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단지들을 재정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목련마을은 30년 된 구축 아파트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설과 설비 노후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배관, 누수, 보일러 등)이 대두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입주주민들의 꾸준한 관리와 노력 덕분으로, 리모델링 공사와 엘리베이터 교체 등을 통해 단지 내 쾌적함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노후화된 단지나 시설이 눈에 띄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특히 계단식 아파트들의 외벽은 깔끔하게 새로 도색하여 외관에서도 단지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2. 목련마을 상권과 그 발전의 역설

상권은 신도시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평촌신도시 역시 이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목련마을 주변의 상권은 소규모 상가들이 모여 다양한 상업 활동을 펼치는 '항아리 상권'이라 불리며 높은 월세와 제한된 확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업지로서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범계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은 유동 인구의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범계역 2번 출구에서부터 펼쳐지는 거리는 하루 20만 명⁴에 달하는 유동 인구가 찾는 경기도 최고의 상권으로 평가받는다. 소규모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평촌신도시의 독점 상권으로 요일과 낮·밤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찾고 있어, 국내 상권별 임대료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인근 평촌역 상권은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의 인구가 범계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07년 완공된 평촌의 랜드마크 '아크로타워'는 당시 경기도 최고층(42층) 건물로, 14년간 안양시 최고층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힐스테이트범계역모비우스오피스텔'이 완공되면서 그 타이틀을 넘겨주게 되었다. 2012년에는 범계역에 경기도 최대 규모의 롯데백화점 평촌점이 들어서면서 평촌신도시는 경기도의 최대 상권으로 도약하였다. 롯데백화점 평촌점의 개점은 주변 상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매출에 타격을 입은 NC(뉴코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안양점이 결국 폐점하게 되는 등 상권의 판도를



범계역 일대 아울렛과 백화점(이정범 제공)

바꿔놓은 것이다. 과거 NC백화점이 있던 부지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섰고, 롯데백화점 안양점은 엔터식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2014년에는 평촌역 동쪽에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다양한 중견·중소기업의 본사와 연구센터가 입주하면서, 평촌신도시는 주거와 상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중심지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상권의 발전과 함께 일부 아쉬움도 존재한다.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상업 환경이 점차 사라지고 대형 상가나 프랜차이즈가 주도하는 상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련마을 8단지에 거주하는 이정란(70대, 여성)과 변용숙(70대, 여성) 등의 구술자는 상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였다.

조아현 : 우리는 단지 내에 시장이 열렸거든. 그 외부에 보부상들이 와가지고 어떤 요일만 딱 펴고 가고. 우리 주변에 마트가 없었거든. 우리는 웬만하면 주변에 그냥 일일장이 와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 자주 안 서. 워낙 저기 길 건너면 있고 농수산물센터 있고, 바로 앞 범계역에는 마트도 많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기 김스아울렛도 있었고.



목련마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변 과일 노점 트럭

이정란 : 저는 뭐가 아쉬우냐 하면은요. 우리 아파트에는 장터들이 안 들어와요. 장터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너무 가까운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상권이 경쟁에서 밀려요. 주민들이 차를 타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장터가 자주 오지 않아요. 저기 9단지는 지금도 와요. 우리는 안 와요.

변용숙 : 처음에는 장터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와야 우리가 편안하니까 장을 여기서 좀 보자, 그런 계몽도 했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장터보다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장터가 자주 열리지 않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장터에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차를 타고 나가서 장을 보니까. 우리 아파트 알뜰장이라고 썼는데 그 장사가 안 오게 되지. 없어졌어요.

목련마을은 상가에 임시로 들어선 노상 가게뿐만 아니라, 범계역 일대의 백화점, 아울렛, 다양한 점포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다. 과거에는 단지마다 주 1회 ‘알뜰시장’이 서거나 푸드트럭이 불시에 나타나 작

은 축제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지만, 가까운 범계역 상권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평촌신도시에서는 알뜰시장이나 푸드트럭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알뜰시장은 평촌 전체 아파트단지에서 거의 사라졌고 현재 몇 개만 남아 있다. 아파트단지마다 장터 공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지에서는 더 어렵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나 알뜰시장을 유치하자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상권이 너무 활성화된 탓에 단지별 알뜰시장을 유치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상권의 발전과 전통적인 소규모 상업 활동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열정과 자부심이 가득한 교육 중심지

평촌신도시는 건설 초기부터 교육 환경을 중시하며 세심한 학군 계획을 통해 교육적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특히 목련마을은 교육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평촌신도시는 주거·교육·녹지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모델을 추구하며, ‘학군 도시’라는 콘셉트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에게 매력적인 주거지가 되었다.

이영기 : 5학년 때 여기(목련)로 전학을 왔는데 전학을 온 이유가 애초에 학원이니까. 당시에는 어느 학교든,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갈 분기점에 전학생들도 꽤 많았어.

임지윤 : 저는 전학 가서 4학년 말에 온 거니까. 전학이었는데 처음에 친해지게 된 것도 같은 반 친구였어요. 처음에 이사 와서 (교내에서) 지나가다가 만난 친구가 같은 동아리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받긴 했거든요.

안양시는 고교입시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평촌신도시 개발 이전부터 이미 교육열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평촌신도시에 거주한 이영기(30대, 남성), 임지윤(30대, 여성) 등을 포함한 구술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부터 올라갈 때쯤 전학생이 가장 많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학령기에 맞춰 이사를 오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평촌을 떠나는 가구도 많았다.

조아현 : 범계초가 학구열이 높아서 학부모들이 엄청 교장 찾아가서 우리가 뭘 해드리면 될까 이런 식으로. 난 아직도 생각이 나. 내가 초등학교였는데도. 목련이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잖아. 단지만 따지면 초중고 주위로 크게 7·8·9단지 있는데 사실 2단지랑 3단지랑 5단지 이 세 단지는 나머지 단지에 비해서 평수가 작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안에서도 학부모들이 되게 진짜 거기 사는 애들 좀 의식적으로 막 편 가르고 산다는 걸 알지. 애들끼리도 “너 몇 단지 살아?” 이러니까. 다 주위에 사니까 이제 초등학교생들이니까 그 집에 놀러 가서 놀고 이러면 뭐 다 알지.

진형석 : 범계역에 고등학교가 평촌고, 동안고, 부흥고 3개가 있는데, 괜찮은 애들이 많았던 거는 평촌고. 또 근처에 백영고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간다는 인식이 좀 있었죠.

목련마을의 교육 환경은 범계초등학교와 범계중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두 학교는 고교입시 성과와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로 잘 알려져 있다. 범계초등학교 출신인 조아현은, 초등학교 시절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목련마을에서는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 일정한 편 가르기가 있었다고 전하였다. 진형석(30대, 남성)의 진술은 학군 내에서 특정 학교들이 특정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도 다니는 학교에 따른 서열이나 등급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중학교 배정 문제로 목련마을과 무궁화마을 사이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범계중학교 맞은편의 무궁화마을 아파트단지는 통학 거리를 이유로 범계중학교 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목련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자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학군 자부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엿보인다. 변용숙은 학군 배정 문제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학원이 근처 학교들이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만큼, 학군 차이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과 관련된 논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변용숙 : 사실 평촌은 교육과 학군 때문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라인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범계중학교에 가까운 금호 아파트에서 1차로 배정한다고 해서 공지문 붙여놓기도 했죠. 목련단



제6회 범계중학교 외국어 합창대회(201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23년 범계초등학교 Happy 범's day 미래과학 체험 부스(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제공)

지 길 건너편은 무궁화 단지인데, 무궁화 단지 애들은 범계중학교가 가까워도 신기중학교로 가야 해요. 왜냐면 개네들은 신기초등학교를 다녔거든. 학군이 달라. 그래서 큰 사거리에 지하철도를 내준 거야. 신기 가려면 거기서 한참 가야 돼. 무궁화 아파트 아이들이 범계 오는 거를 싫다 그러는 거는 아주 못 오게 하잔 게 아니라, 목련 바로 앞이 범계인데. 우리 애들이 /지망으로 가고 나서 남을 때 개네들이 /지망으로 오는 건 가능한데. 거기서 /지망으로 범계중학교를 오게 해 달라 하니까, 그럼 우리 애들이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입구에 플랜카드를 붙여놓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멀리 있는 다른 학교로 가야 할 상황이 생기니까 서명해 주는 거지. 아이들을 위해서는 할 수 없어.

목련마을과 무궁화마을 단지 간의 학군 배정 문제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며 2024년 현재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하철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차도를 건너야 하는 점에서 안전 우려가 크며, 통학 거리가 멀어져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일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목련마을의 범계초등학교와 범계중학교는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목련마을이 교육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목련마을은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자부심이 깃든 지역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조성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4. 목련마을 공동체와 주민의 삶

목련마을 주민들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변용숙은 1997년부터 목련마을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목련마을 8단지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동대표로 활동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였다. 2002년 범계동주민센터가 설립될 당시에는 문화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하였다. 문화센터의 강의가 처음 개설되었을 때 참가 인원이 60%를 넘지 않아 폐강 위기에 처했으나, 변용숙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며 프로그램의 지속을 위해 힘썼다. 주민들도 협력하여 프로그램이 폐강되지 않도록 도왔고, 이러한 공동의 노력 덕분에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20년 동안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



목련마을 8단지 아파트의 동 출입구

이정란 : 1992년 10월부터 아마 입주 시작됐을 텐데 나는 이제 93년 1월에 들어온 거예요. 8단지를 들어오니 어떻게 조용한지 몰라. 내가 퇴직을 2012년에 했어요. 퇴직하고 여기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 좋은 집이야. 왜냐하면 전철 가까워, 공항버스도 가까워. 백화점 가깝지. 넓으니까 집이 시원해요. 바람도 잘 들어오고 빛도 좋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입지를 따지는 거구나. 살면 살수록 그렇게 편해요.

변용숙 : 단지는 공간이 넓어요. 딴 데보다 시원해. 동과 동 사이 거리가 넓고 그런데 한 번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들어오면서 평촌 단지에서 8단지가 제일 넓대요. 차가 싹싹 들 수가 있어서 좋아요. 주차장도. 동 배치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 우리 중정처럼 안쪽으로 주차 공간을 다 몰아놓고 사이드로 건물을 배치하니까 확실히 주차 공간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어딜 가 봐도 우리처럼 시원한 가운데 공간들이 없잖아요. 완전히 숲속의 아파트예요. 어린이도서관 2층에서 이려고 내다보면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요새 재건축이니 뭐니 하기에, “어머 저 나무를 어떡하고. 저걸 언제 기르려고 재건축이야.” 재건축 참말이 하도 좋아들은 하는데. 범계역에 가면 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놀고. 방축사거리 큰길 건너서 조금 가면 호계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또 그렇게 좋아요. 오후에는 거기 한 번 들고. 또 여기 가면 중앙공원 있잖아요. 밤에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생활공간이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대.

목련마을은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8단지는 주차 공간과 넓은 녹지공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평촌신도시에서는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이니 뭐니 해서 실제로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다. 그러나 목련마을 8단지는 아파트 면적이나 주차 공간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함이 별로 없기에, 경제적 부담이 큰 재건축을 받기지 않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이 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반감도 크다. 현재의 주거환경에 대한 애착과 변화에 따른 부담감이 맞물리면서,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뉜다.

변용숙 : 복지관도 여기 있지, 노인 양반들이 가서 지낼 수 있고. 우리 단지는 경로당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번은 동대표 어머니가 노인회 회장님 찾아온 아드님한테 가서 “어머니 치매 검사를 해야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가서 검사해보니 치매가 심하신 거야. 그런 단체에 있는 게 서로 돌봐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변용숙은 목련마을 생활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돌봄과 유대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8단지의 경로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다만 주민들이 지속해서 서로를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소액의 회비를 걷어 반강제적 참여를 유도한다. 회비는 단순한 유지비용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 돌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경로당에서 조기에 치매 증상을 발견한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상호 돌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가족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증상을 주민들이 함께 살피고 돌보며 발견한 것이다. 목련마을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과 상호 돌봄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이 지역은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임지윤 : 한림대병원 있는 게 좋아요. 할머니도 목련 5단지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데 한림대병원 다니시기 좋고 공원도 좋으시다고 하시고. 돌아보니 목련단지, 평촌 좋은 점이 많은 곳이에요. 이사를 하었는데도 병원은 여전히 평촌으로 다녀요.

목련마을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인근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다. 의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안도감은 주거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다. 목련마을을 떠난 임지윤이 여전히 병원 방문 시 평촌 지역을 찾는 이유는, 지역 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편리함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주민 생활의 질과 공동체의 편리함을



목련마을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아현 : 난 3단지, 5단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 5단지는 학교가 많고 애들 키우려고 오는 데니까. 백화점 있지, 학교 있지, 공원도 있고, 초초역세권. 그러니까 (이사 갔다가도) 다시 오더라. 병원도 옆이야. 중앙공원이 여기 있으면, 여기(옆)가 병원이고. 쉽게 얘기하면 중앙공원을 가운데 끼고 3단지, 5단지가 둘러 있어.

목련마을은 중심에 있는 공원과 가까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덕분에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다양한 혜택은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체의 가치와 높은 의료 서비스가 동시에 갖추어진 지역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5. 목련마을 탐방 : 자연과 도시의 조화

매미 소리가 가득한 여름 오후, 목련마을의 매력을 탐색하기 위해 천천히 단지를 걸어보았다. 그늘진 산책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서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적한 공간이 펼쳐진다. 목련 우성 3단지 정문을 나서 보도를 몇 걸음 건너면 바로 범계역의 중심인 분수대가 시원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후문으로 나와 나무 그늘을 따라 걷다 보면 금방 학원가에 닿을 수 있다.

또 아파트의 셋길을 통해 나오면 중앙공원의 푸른 녹지가 눈 앞에 펼쳐진다. 단지 입구에서 몇 걸음만 걸어 보도를 건너면, 곧바로 활기찬 범계역 중심 상가가 나온다. 이곳의 산책로는 나무들이 서로 엮혀 만들어낸 그늘 속을 따라 이어져 있어, 마치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차도와 인도는 수목 조경으로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있어, 차량의 존재를 잊을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다. 숲길을 걸으며 도시의 소음을 들을 때도, 그 소음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하다.

평촌신도시는 단지 간 경계가 모호하게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커다란 마을로 느껴지게 한다. 그중 목련 7단지는 학원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 이곳을 걷다 보면 학생들이 하교하거나 학원에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단지 외곽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은 도보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중심 상권에서 공원·학원가·평촌역까지 도보로 1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이처럼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 덕분에 차량 소음이 거의 없어 걷기에 매우 좋다. 자전거를 타거나 유모차를 미는 사람들, 보행기를 미는 노인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여유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직접 걸어보니 평촌이 ‘걷기 좋은 도시’라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거닐다 보면 ‘걷고 싶은 범계동’이라는 팻말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이 팻말을 발견하는 작은 즐거움은 걷기의 또 다른 묘미를 선사한다. 표지판에는 완보·속보·강보·산보·급보·경보 등 다양한 걸음 유형에 따른 거리·소요 시간·소모 칼로리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범계동 둘레길을 걸으며, 여러 개의 코스로 구성한 이 기획이 평촌이 자랑하는 도시 경관을 얼마나 잘 살려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평촌이라는 이름처럼, 평평하고 초록이 가득한 이 길은 마치 도심 속 산림욕을 즐기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꿈자람어린이공원



목련어린이공원



목련 마을 7단지에 설치된 보행로 안내판



학교 후문과 연결되는 목련마을의 보행로

이곳의 주민들 역시 목련마을의 걷기 좋은 환경을 자주 언급하며 자부심을 드러낸다. 평촌을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들은 이곳의 평탄한 지대와 비교되는 다른 지역의 지형에서 그 차이를 실감한다고 한다.

또한, 여러 갈래의 길은 자연스럽게 학교와도 이어져 있다. 단지 내 상가와 경로당, 초·중·고교로 연결된 길들은 차도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 ‘꿈자람어린이공원’은 중앙에 농구장과 놀이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범계초등학교와 평촌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공원길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세대 친화적인 공간이다. 목련마을 2단지와 5단지 사이에 있는 ‘목련어린이공원’은 낮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곳은 도로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신축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정겨운 분위기를 풍긴다.

단지 바깥으로는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쪽문이 마련되어 있어 이동이 편



버스터미널과 바로 연결되는 목련마을 9단지 아파트 쪽문

리하다. 단지 간 이동이 수월하도록 동선이 잘 짜여 있으며 전 구역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도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다. 곳곳에 마련된 놀이터와 근린시설은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며, 단지 내 상가에는 보습학원이나 마트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주민들은 단지 안에서 모든 일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파트 외벽 주변에는 나무들이 조경되어 있고,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쪽문도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목련마을은 도심 속에 녹음이 드리운 보기 드문 동네로, 입주한 지 30년이 된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조아현 : 내 최초의 기억은 유치원 때야. 우리 가족은 창녕 출신인데 어쩌다 여기 오셨는지 몰라. 내 기억으로는 아빠가 회사 발령 나고 친척이 근처에 살아서 이사 왔다는데, 여기 신도시 개발 들어가기 전 옛날에는 포도밭이었다는 이야기는 맨날 들었지. 내 어릴 때 기억은 항상 공사였어. 롯데백화점도 한 십몇 년을 공사, 그 부지를 보면서 맨날 저기 뭐 생기려나 궁금했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목련마을의 발전은 주거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와 역사적인 연대기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신도시 개발 전후로 변화한 이곳은 주민들의 생활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목련마을은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편리함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일상의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변용숙 : 난 평촌신도시가 크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나무를 다 없애야 하잖아. 우리 안양에 나무 자르는 걸 참 싫어하던 시장이 있었어요. 그이가 유럽하고 일본이고 땡기더니 나무가 서로 엉켜 살듯이 사람도 엉켜 살아야 한대. 예술 공원도 그 양반 하실 때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한 거예요. 나무 자르는 걸 참 싫어했어요. 웬만하면 안양 시내 나무를 안 잘랐어요.

변용숙은 과거 안양시장이 나무를 보호하는 데 애썼던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에서 나무에 대한 중요한 가치관을 설명하였다. 시장은 나무가 서로 엉켜 자생하는 모습에서 사람들도 서로 엮여 살아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술 공원의 조성 계획을 세웠다. 그의 철학은 평촌신도시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목련마을은 범계역세권이라는 이점 덕분에 주거지로서 인기가 있다. 특히 목련마을 2단지에는 평촌신도시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논의가 가장 먼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주거환경 개선과 추가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마을 곳곳에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의를 반영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는 목련마을 전반에 걸쳐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의지가 확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면에는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의 우려도 존재한다.

조아현 : 여기 집값이 진짜 엄청 올랐어. 원래 살던 사람들이 감당 못 할 정도야. 2단지 들어갔는데 리모델링 현수막 붙어 있어. 목련 선경이 제일 처음으로 추진했대. 여기 왔다 갔다만 해도 모든 걸 알아. 플래카드도 맨날 보이고, 듣는 것도 그러니까.

강유라 : 목련단지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리모델링 필요해.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 주차장만 있어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이중 주차도 많고, 아파트가 오래돼서 환경도 좋지 않아.

특히 목련마을의 일부 아파트들은 낡은 지하 주차장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목련 우성 3단지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
주차 면적이 좁은 아파트단지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몇몇 단지에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주거 환경 개선의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변용숙 : 재건축한다고 요새 플래카드를 붙였더라고 1단지랑 8단지랑. 그런데 9단지만 빠졌어. 통합 재건축이라고 돼 있는데 9단지가 제일 늦게 입주했어. 거기 채권 입찰제여서 입주 시기가 2년이나

늦었대요. 그래서 9단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8단지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하라고 그러는데 자재에 뭐에 다 비싸잖아요. 지금 집에서도 살기 불편했는데.

변용숙 :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역에서 가깝고 주차 면적이 좁고 그런 것 때문에 주차 면적이 60%가 돼야지 우리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대. 2단지나 3단지 같은 데는 그런 게 된대. 우리는 주차 면적도 1.3이거든. 통합하려니까 의견들이 안 맞잖아요. 9단지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1단지랑 이제 8단지 이제 이제 저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조그만 단지랑 같이 하는 건 안 되니까. 그냥 거동만 보는 거야.

이정란 : 1단지하고 8단지는 그래도 좀 있어. 왜냐하면 1단지는 처음에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중략) 9단지는 지금 둘이 한다 그러니까 위원장들이 만나더라고. 그런데 내 속으로 나 죽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지금도 사는 데 지장 없어. 아무래도 2, 3단지가 적극적일 수 있는데, 근데 또 문제가 2단지는 10년 전서부터 추적거렸잖아요.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대.

변용숙 : 2단지는 리모델링으로 다 떨어졌어요. 이사까지 결정된 게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이사까지 보내게 다 뺐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그걸로 돌아서는데 먼저 저기 한 거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얼마를 물어내야 한 대. 그러니까 지금 이리지도 않고 저리지도 못하고. 가보면 2단지는 플래카드가 다 붙어 있어요.

목련마을 일부 단지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단지 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형 평형 아파트가 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대형 평형 아파트는 외관은 다소 낡았지만,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생활 불편이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대형 평형 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단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계획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목련마을에 붙어있는 재건축·리모델링 관련 현수막

이 문제는 각 단지의 주민들이 직면한 주거 환경의 차이와 개별적 필요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통합 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목련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註

- 1 한편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해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이 정보만으로 그들이 사는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소유주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작은 평형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덜 부유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주택의 실제 소유주는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부유한 다주택자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현 거주자의 특성만으로 특정 평형이 덜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평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 2 『평촌신도시아파트 樹木(수목) 단지별특색화』, 『동아일보』, 1993년 2월 26일.
- 3 『坪村(평촌)신도시 오늘부터 입주』, 『조선일보』, 1992년 3월 31일.
- 4 2024년 기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의 유동 인구는 273,291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https://sg.sbiz.or.kr>), 2024년 8월 11일 검색.

제2장

샛별마을 한양아파트의 주민생활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수료



1. 비닐하우스촌에서 아파트로

1980년대의 평촌을 기억하는 이들은, 가을철 노랗게 벼가 익어 출렁이는 황금빛 너른 벌판과 뻑뻑하게 들어섰던 비닐하우스를 떠올린다. 2010년 2월 한 언론과 인터뷰한 평촌신도시 분양 입주자는, “비닐하우스가 넓게 펼쳐져 있던 입주 이전의 환경”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고¹ 한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32년째 안양에 살고 있다고 밝히며 처음 안양에 살기 시작했던 “그 당시에는 석수동 주공아파트와 비산동 주공아파트 및 미릉아파트가 있을 뿐, 평촌은 그야말로 벌판에 비닐하우스만 가득하였다”고 묘사하기도 하였다.²

1993년 셋별마을 한양3단지아파트에 입주한 최흥기(60대, 남성)는 당시 개발 예정 토지에 밀집한 비닐하우스 단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최흥기 :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물갈이논(무논)이 좋은 데죠, 자갈밭보다. 그런데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꾸로 됐어. 자갈밭이 더 비싸고 물갈이논이 더 저렴해지고. 그런 역상황이 일어난 거죠. 여기가 개천이 있고 비닐하우스 단지 자리야. (중략) 그 전에 정보가 빨라야 해. 주소만 옮겨놓으면 딱지(아파트 입주권) 하나 줬거든. 살든 안 살든 그냥 주소만 옮겨놓고 거기 사는 걸로. 그렇게 아파트 분양받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서 또 팔아먹고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이 집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딱지 줄 줄 알고. 그건 한 번밖에 안 주는데. 이 사람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는 거야. 그런데 시에서는 한 번 줬으니까 안 준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랬어요. 왜 안 주냐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도 많았지만, 개발 소문을 듣고 1988년 초반부터 미리 찾아온 투기꾼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지어진 주거용 비닐하우스들도 있었다. 1988년 12월 13일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안양시 평촌지구에 6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1990년부터 착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투기꾼과 무허가 입주자들이 앞다투어 몰려든 것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³

본래 1978년부터 안양 지역 영세민들이 가축을 기르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지었던 것과 달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세워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딱지, 즉 아파트 입주권과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1989년 5월 31일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생겨난 전입 주민들이 3,500여 가구나 된다고 하였다.⁴

1988년 『조선일보』 기사에서 당시 평촌동 6통 통장이었던 최남용은 “이 일대 땅의 70%는 서울 등 외지인의 소유”이며 “그중 상당수가 40~50평 규모로 소단위 지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홍기가 언급하였던 ‘정보 격차’로 오랫동안 평촌 들판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원주민보다 아파트 입주권과 돈을 노린 투기꾼과 외지인이 아파트 분양권과 삶의 터전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도 이러한 편법 행위를 근절하고 전입을 억제하고자 1989년부터 불법 가옥 철거와 이전 작업을 시행하였으나, 시공업자·건물주·세입자 간 마찰과 충돌을 막기는 어려웠다. 최홍기와 더불어 1993년 셋별마을 한양1단지아파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 중인 최학분(70대, 여성)은 실제로 평촌 택지를 덮었던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매매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개발 이전 평촌 지역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단지(이정범 제공)

최학분 : 나는 이제 (서울시) 사당동에 살았는데, 나더러 하우스를 하나 사놓으래. 처음에는 150만 원에 사라고 하더니 200만 원 달래. 금세 막 올라가. 그래서 그거(비닐하우스) 하나 사서, (내가) 살지 않고 옆집 애기들 살라고 놔두고 (돌아왔지). 난 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못 다니지. 그랬는데 여기 오라고 그러면 또 오고, 데모한다고 오고 그러는데 내가 못 가서 그 애들(세입자)에게 돈을 좀 썼지, 나 대신 가라고. 그렇게 한 5년 있었어.

그는 지인으로부터 평촌의 비닐하우스를 사라는 권유를 받아 150만 원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막상 돈을 낼 때는 이미 50만 원이나 올라가 있어 200만 원에 분양권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하우스를 이웃에게 임대하고 본인은 서울에서 일하며 자녀들을 키웠다. 그가 기억하기에, 당시 비닐하우스 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았지만, “서울 사람들이 와서 (분양권을) 다 샀다”고 하였다. 당시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고, 비닐하우스 내부에 방과 부엌, 그리고 수도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1988년 평촌 일대는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같은 해 8월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고시 되었으며, 9월부터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세입자들의 전입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 이전이 동결되었다. 그로 인해 무허가 비닐하우스 1동에 300~400만 원까지도 호가하던 입주금은 200만 원대로 다시 크게 떨어졌다. 최학분은 당시 주민등록 이전 동결과 함께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일반분양을 받지는 못했고, 이후 퇴거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임대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와 같이 정부 정책을 수용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1990년 8월 11일 『한국일보』 기사는 이와 같은 주민등록 동결 정책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기꾼들의 편법 행위를 폭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투기꾼들은 정부의 ‘인우보증서’ 정책을 악용하였다는 것이다. 인우보증서란, 평촌지구에 살면서 택지개발지구 고시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선의의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인근 주민 5명이 ‘고시일 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이를 제출하는 주민의 경우 아파트 우선 분양 신청권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해 거주민 1명당 5~10만 원 정도를 주고 허위 보증서를 만들어 쓰게 하는 수법이 횡행한 것이다. 기사에서는 이처럼 허위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받거나 실거주자로 위장해 아파트 우선 분양을 신청하는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⁵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평촌신도시의 아파트가 준공된 후, 1992~1993년을 기점으로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셋별마을 한양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였다. 최흥기는 당시 셋별마을 한양아파트단지 내 일부는 임대 아파트였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된 것이라고 했다. 그가 분양받던 1993년 당시에는 평당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아 17평 아파트가 3,400만 원 미만의 가격에 거래되었고, 약 30년 정도 거주한 후 3억 원에 팔았다. 현재는 한가람마을 한양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최흥기 : 알기 쉽게 얘기하면 10배 정도 올랐죠, 내가 여기 3억에 팔았으니까. (구입할 때는) 3천도 아닌 거죠.(중략) 지금은 5억 2천인가 된다고 하는데. 거품이 더 빠져야 해요. 나는 집 팔고 나니까 갑자기 (집값이) 막 올라가더라고. 내가 정보를 좀 늦게 알아서, 그날 밤에 부동산이랑 계약을 해버렸 다니까. 내가 2억 1천에 내봤는데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3억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옆에서 계약금 2천만 원을 바로 넣어준 거야.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믿고 팔고 그랬으니까.

그는 그러면서도 미련은 없으며, “어차피 청산해야 돈도 남는 것”이라면서,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자산이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밀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2. 아파트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와 영향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은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듯, 전 세대 85㎡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달안동은 동쪽과 북쪽에 평촌공원과 학운공원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평촌중앙공원이 위치한다. 안양동안경찰서·동안구청·안양시청 등의 관공서와 대형마트가 아파트단지 근처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⁶ 여기서 ‘소형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곳은 달안동의 주를 이루는 셋별마을 한양아파트이다. 1단지(8개 동), 2단지(8개 동), 3단지(5개 동), 6단지(20개 동)로 구성되어 있으며⁷, 차이가 조금씩 있으나 39㎡~103㎡ 규모의, 상대적으로 소형 평형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대부분이 한 층에 여러 집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이다.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많은 수의 아파트를 지었던 한양건설은 1980년대 무리한 사업 확장, 그로 인한 부실 경영과 부실 공사로 도산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1995년 법정관리 절차를 거쳐 주택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2000년 최종적으로 청산, 2003년 보성건설과의 M&A를 통해 재기하는 변화를 보여준 기업이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주택공사의 자회사로 들어가면서 셋별마을 한양아파트 또한 그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단지 내에 있던 일부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었다. 2001년 1월 30일 『경기일보』 기사에서 셋별마을 한양아파트 입주민은 “건설회사의 부도 등으로 입주민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해 주민들 간 불신이 심화”되었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⁸

하지만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는 과정에서 5~6년 정도의 시간 흐름에 따른 아파트 시설 노후나 초창기 분양가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함으로써 갈등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홍기는 이와 관련하여 “5년 살았으니까 초창기 분양받았을 때의 단가를 빼야 할 것 아니냐”면서 “초창기 분양가는 평당 200만 원도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실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아, 이것은 이후 나이를 먹어가는 아파트 시설 개선 방식에서도 장애가 되고 있다.





달안동 셋별마을 한양아파트 전경



제91주년 3·1절을 기념하여 태극기를 게양한 셋별마을 한양아파트(201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셋별마을 달안동 안내판

최홍기 : 샤시 같은 것도 별도로 해줘야지. 분양만 받아서. 원래는 아파트에서 잘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복도, 베란다라든가 그런 것도 (수리 보강) 안 해줬잖아, 뺏겼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한 라인에 10가구씩 있는데, 그럼 이제 의견이 다 맞아야 이제 보수든 뭐든 되는 거지. 거기서 (의견이 안 맞는) 한두 명 있다고 그걸 빼고서는 할 수 없잖아요, 한번에 다 같아야지. 그런데 (새로)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래요. 베란다 샤시도 그렇고, 복도식 창문도 그렇고. 그래서 벌집처럼 된 데가 있고 아예 안 한 데도 있어요.

건설사의 부실로 인한 혼란 속에서 덩달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셋별마을 한양아파트는 주민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2001년 『경기일보』 기사에서는 셋별마을 한양아파트의 입주주민 중 60%가 5년 이상 거주하며 이사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의견이 달랐다. 대부분 2000년대 이후 전입하여 거주하는 셋별마을 한양1단지아파트 희성경로당의 할머니들은 “여기가 서민 아파트고 평수가 작아서 형편이 나아지면 더 좋은 곳으로 금세 이사 가거나 맨날 (이사하느라고) 자주 드나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소형 평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자녀 출

산 등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는 경우 이사 가기도 하고, 과거 임대 아파트 또는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소위 ‘이미지’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할머니들은 홀로 사는 1인 가구나 나이 든 사람이 와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 “바깥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혼자 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 살기가 좋으니까 여기를 선호하고 많이 오지”라며 셋별마을 한양 1단지아파트의 노인회 총무를 맡은 할머니는 빙그레 웃는다.

한편으로는 아파트 소유자가 실거주하기보다는 임대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6년에 셋별마을 한양6단지아파트에 들어온 문종희(60대, 남성)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 새시(sash)를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하는 사연을 들려주었다.

문종희 : 얘기를 들어보니까, 70% 정도가 다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내가 여기 안 사는데 그걸 뭐하러 해’, 안 해 주죠. (새시를) 하려고 보니까 한 층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집주인들이면 자기들 뜻 맞춰서 (새시를) 달아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세입자가 많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여기 이사 와서, 저 있는 층에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봤더니 저만 집주인이고, 집주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세 들어 살고.

아파트 복도에 비가 들이치지 않게, 혹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 새시는 매우 요긴한 시설이지만,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같은 층의 전체 가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 셋별마을 한양아파트단지를 둘러보면, 한 층에서 한 가구 앞에만 새시가 설치된 경우가 있고, 그와 반대로 두세 가구를 제외한 복도 전면에 새시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덩성덩성 빠진 이를 보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 묘한 광경, 이것은 셋별마을 한양아파트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것이다.

달안동 셋별마을 한양아파트에는 4·5단지가 없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해 보면, 인접한 부흥동의 은하수한양아파트와 셋별한양아파트 6단지가 함께 묶여 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 6단지에 거주하는 문종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셋별한양 6단지 복도에 설치된 세시



셋별한양 6단지 반원형 베란다와 중앙복도

문종희 : 옛날에는 동안경찰서 앞에 관리실이 따로 있었는데, 어느 시기에 와서는 구별해서 관리한다고도 하고, 6단지 저쪽 은하수 5개 동인가, 어쨌든 같이 묶여 있어요. 주소는 다른데, 우리 6단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전부터 따로 분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하수한양)은 분리되면 5개 동으로만 남으니깐 그게 손해라 악착같이 붙여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자기네들도 득이 되니까. 원래 얘기할 때 떼어놓고 거기는 따로 거기대로 (권한을) 줘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시오'라고 안 하지. 동대표 회의할 때도 항상 같이 하고. 자기들이 떨어질까 봐 꼭 동대표 선출해서 내보내요.

이웃하는 은하수한양아파트 역시 샛별한양아파트 6단지과 더불어 소형 평형의 아파트 단지로, 행정구역은 달안동이 아닌 부흥동에 속해 있다. 최흥기의 표현에 따르면, “마을마다 안 들어간 데가 없는” 한양건설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많은 부분을 “정복”했으며 이는 현재 샛별한양과 은하수한양 간의 의미심장한 관계를 이어주고 있다. 501동부터 505동까지 있는 은하수한양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큰 샛별마을 한양6단지아파트(20개 동)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샛별마을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위치한 희성경로당은 언제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로 가득하다. 1단지에 거주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회 회원이 구성되어 있지만, 간혹 인근 아파트에 사는 외부인도 받아들이고 있다. 소형 평형 아파트 특성상 이사가 잦기는 하지만, “평수도 조그맣고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오니” 살기가 너무 좋다며 아파트 자랑을 한다. 목요일마다 노인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이기는 하나, 그런 특별한 요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 나는 대로 모여 간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정겨운 곳이다. 특이한 점은, 남성 노인은 없고, 이주한 지 10~15년 정도 된 여성 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샛별마을 한양아파트의 입주 초기 상황이나 분양 전환기의 혼란을 알지 못하지만, 그만큼 안정되고 평화로운 아파트에서의 삶을 누리고 있다. 목련마을 아파트에서 왔다는 이○○(70대, 여성)⁹은 평촌에 사는 지인에게 들은 옛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이○○ : 그때 당시 아파트가 되면서 토지가 수용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30억, 20억 이렇게 받은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 이 땅이 맨 논이었는데 보상으로 그렇게, 재산을 받아서 나도 전해 들은 것이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은 사람 중에는 성공해서 계속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 왜냐하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노동하고 농사짓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희성경로당에서 열린 아코디언 공연(201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자식들은 또 컸잖아요, 배웠잖아요? 아버지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요구)해서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다 없애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 내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 개인택시 운전하셨던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마누라한테도 (보상받은) 돈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영원히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라고 소문이 났었거든. 누구에게도 안 주고, 생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택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식들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집은 돈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어.

1990년 전후로 정부의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수립되고 평촌신도시가 지어지면서, 대대손손 평촌에서 살아오던 원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약삭빠르게 달려와 편법으로 분양권 등을 차지한 서울 출신 외지인들에게 밀려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토지를 가진 원주민들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농사를 지어 얻는 수익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목돈을 한꺼번에 가지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목돈을 쥔 늙은 부모와 그것을 본 자녀들이 대부분 이런저런 소모적인 사건을 일으키며 보상금을 허공에 날려 버렸다는 이야기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하여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일확천금 앞에



희성경로당에서 열린 생활안전교육(202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초연하게 일상을 지켰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무심하게 떠올리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로부터 소박하지만 꾸준하게 유지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3. 셋별마을 한양아파트 월요 알뜰시장

셋별마을 한양1단지아파트에서 월요일마다 열리는 알뜰시장은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꾸준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특별한 존재이다. 1990년대, 늦게는 200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서 활성화되었던 알뜰시장이 대부분 없어진 현재, 셋별마을 한양1단지아파트의 알뜰시장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심지어 인근 목련마을 아파트에서 놀러 오는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는 목련마을 아파트에서 열리는 장에 비해 셋별마을 한양1단지아파트 알뜰시장이 규모가 더 크고 먹을거리도 생선이나 채소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물품을 구입하지는 않고 그저 구경만 할 뿐이다. 알



셋별마을 한양1단지아파트 월요 알뜰시장

뜰시장과 관련하여 6단지에 거주하는 문중희는 아파트에서 매주 장이 선다는 것은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화합이 잘 되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중희 : 아파트에 장이 선다는 건, 그 아파트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화합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파트에 저런 장이 안 서면, 그 아파트는 조금 시끄러운 아파트. 아마 보편적으로 그럴 거예요. 여기 6단지도 시끄럽거든. 그래서 지금 장이 섰다 안 섰다 하는데.

그가 제시하는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의 유지 비법은 ‘주민들의 화합’, 다시 말하면 ‘진상 민원의 존재와 민원 처리 역량’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런 아파트 내 시장에서는 법적으로 ‘국물이 있는 것’을 팔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장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공동체 구성원이 이런 것을 모두 함께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민원을 넣으면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찾아와 못 하게 막는다.

문종희 : 여기 같은 경우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구청을 찾아가서 저기 국물 팔고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장터에 와서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거리 같은 것들이 잘 나간다고. 국거리 장수가 들어오므로써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도, 손님들이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같이 장사가 잘되는 건데. 국거리 장수가 안 나오니까 노인들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실망이가 있다가, 다시 이제 살펴봤더니 뭐 때문인지 또 장사가 들어가 버렸어요.

손님이 많지 않은 알뜰시장은, 상인들은 입점비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물건값을 올려 비싸게 받게 된다. 문종희의 말에 따르면, 그런 행위는 상인들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한다. “채소도 싸게 파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노인들은 힘들어도 그리로 가지 가까운 데서는 사지 않는다”면서 “노인들은 물건은 들췌치고 저렴한 데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셋별마을 한양아파트와 같은 소형 평형 아파트 주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은 젊은이들과는 소비 패턴이 다르게 작동한다. 인근의 대형마트 및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주로 쇼핑을 하고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 젊은이들과는 달리, 노인들은 소박하고 규모가 작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물건의 품질보다 가격을 중시하며, 인터넷보다는 직거래에 익숙하다. 또한 셋별마을 한양1단지아파트의 경우 적극적으로 트집을 잡아 관공서에 민원 제기하는 ‘부지런한 사람’보다는 아파트의 일상과 관용을 체득하고 있는 조용한 성향의 주민들이 많을 수도 있다. 이것이 2020년대에도 월요일의 알뜰시장이 유지되는 비결이 아닐까.

2024년 7월 중 열린 셋별마을 한양1단지아파트의 알뜰시장에서는 여름이라는 계절의 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종희가 말한 것과 같은, 국물류 중심의 업장은 보이지 않았다. 정문에서 열 걸음을 채 되지 않는 단지 입구부터 약 14개의 천막 점포가 줄지어 있었으며, 이 중 절반은 순대, 족발, 탕수육 등 즉석 간식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나머지 점포들은 곡물, 야채, 과일 등의 식재료와 더불어 반찬류도 함께 팔고 있었다. 문종희가 귀띔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내에 들어오는 알뜰시장은 보통 한 업체에서 맡아 점포 자리를 분양해 주는 방식이며, 장사가 잘되는 알뜰시장은 점포들이 고정으로 자리를 차지하며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점포들이 단지 내 길목의 양쪽을 차지하고 있어 그 부근을 지나 정문으로 가야 하는 차들은 교행이 어려웠으며, 아파트 화단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는 “셋별한양 주민들은 월요일 알뜰장을 위해 오전 8시까지 주차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알뜰시장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셋별마을 한양1단지아파



셋별마을 한양1단지아파트 월요 알뜰시장

트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알뜰시장이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당연한 일상 중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별마을 한양아파트의 또 하나의 자랑으로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녹색의 조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30년 이상 된 평촌신도시 내 많은 아파트단지의 조경이 아름답지만, 셋별마을 한양아파트의 나무들은 어딘가 그리운 느낌을 준다. 블록렌즈처럼 튀어나온 반원형의 베란다, 복도 중간에 있는 난간, 아파트 복도 바닥의 타일 등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아파트의 외형과 오래된 조경이 어우러져 레트로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동시에 함부로 흉내 낼 수 없는 고유한 세월을 증명한다. 오래된 아파트의 조경은 신축 아파트의 그것과 비교 불가한 규모를 자랑한다. 굵은 나무 등치와 푸르고 무성한 잎은 덥고 습한 여름철 더욱 존재감을 뽐내며 아파트를 푸르게 물들인다. 회성경로당의 할머니들이 '이 아파트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로당 창문으로 드리운 녹

색의 나뭇잎들이 주는 아늑함에 있다. 그러나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와 잘 자란 풀로 가득한 샛별마을 한양아파트에 대해 시선을 달리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최흥기 : 전지를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몇천 단위가 아니고 1억 이상. 이것도 나무의 그루가 몇 인치 따지느냐 봐요. 주민들이 일단 돈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즉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지.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경비원, 경리 같은 사람 쓰는 일도, 배관·아스팔트·조경·도색 그런 것들 다 비용을 내잖아요. 그게 다 돈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놨다가 쪼개서 하나씩 하는 거죠.

아파트단지 조경 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서민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이들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짐작되는 샛별마을 한양아파트의 특성상, 그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경 관리를 다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

문종희 : 조경도, 저층 주민이 뭐라고 안 하면 가지도 잘 안 자르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창에 그늘진다고 요구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지, 자꾸만. 반대로 층수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지를 안 쳤으면 하고. 여기도 한 2년 전만 해도 나무가 진짜 울창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한 번, 때를 잘못 맞춰서 나무들이 시원찮게 됐죠. 나무들이 막 싹이 올라오려는 그때 가지치기하는 바람에 애들이 몸살을 많이 앓았어요. 이게 원래 가을이나 이럴 때 가지를 쳐야 하는데, 그걸 잘못했어. 싹이 올라오려고 할 때 다 쳐놔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자란 거죠. 한 2년 전만 해도 1단지 관리실 뒤에는 완전히...여기만큼 울창한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최흥기는 30년의 세월을 주민과 함께하면서 아파트 5~6층의 높이만큼 자라난 나무들을 가리키며 “나무들이 빌딩 지으려고 올라가려고 한다”는 농담을 던졌다. 그만큼 키가 큰 나무들의 가지를 적절하게 쳐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2년 전 샛별한양아파트의 조경을 담당하던 업체는 가지에서 싹이 올라오는 봄철에 함부로 가지치기를 단행했고, 싹눈이 상한 나무들은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평촌신도시의 아파트들은 모두 저들만의 재건축 이슈를 끌어안고 있다. 샛별마을 한양아파트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파트단지 곳곳에서 재건축 관련 현수막을 찾아볼 수 있다. 회성경로당의 할머니들도 평촌신도시의 재개발 논의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그간 한창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한다.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30년이 넘은 곳이니 재



무성하게 자란 셋별마을 한양아파트의 조경수



셋별마을 안내판

건축이 되면 좋겠지만, 노인들은 내심 반대의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 : 여기 (재건축)하면 좋겠지만,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살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다 반대거든. 그런데 자식들이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어. 자식들은 현실을 보잖아요. 지금 노인들은 나만 살다가 가면 되지만. (중략) 젊은 애들은 들렸어.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젊은 층인 문중희도 심드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비밀리에 재개발 추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아파트 주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사적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합장이 결정되면 재개발 논의가 빠르게 돌아가겠지만, 항상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서 의견을 다투기 때문에 진행이 느리다는 것이다. 희성경로당 할머니들이나 문중희와 같은 아파트의 실거주자들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듯, 서로 간의 알력과 다툼이 예상되는 복잡한 일보다는

일상과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문중희와 최흥기의 경우 달안동 자율방범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밤 10시부터 순찰차를 끌고 달안동 일대를 순찰하고 있으며, 차가 있기 전에는 걸어 다니면서 순찰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들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안에서 담배 피우고 ‘노는 애’들이 많이 있어 계도하는 일이 잦았는데, 지금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애들이 나와서 놀지 않는다’면서, 시끄러웠던 동네가 조용해졌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달안동이 그리 크지 않아서 순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고된 하루 끝에 쉬지 않고 마을을 위해 밤마다 순찰하는 일은 마을의 크기나 분위기와 상관없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중희는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의 영향으로 방범대에 들어오게 되었다가 “아들은 공부를 때려치웠는데 저는 때려치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계속하는 거”라며 겸손하게 웃어 보였다. 최흥기의 경우 새마을회 회장을 맡기도 하고, 택시 운전을 오래 하면서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는 이웃 부림동으로 이사하였지만, 정들었던 달안동을 위해 몸을 움직이고 있다.

달안동 셋별마을 한양아파트는 평촌신도시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본의 부조리나, 부실 경영으로 인한 기업의 위기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혼란과 갈등의 시기를 견뎌왔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상을 영위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비록 오래된, 복도 새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일지라도, 이웃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네의 안전을 위해 고단한 저녁에도 꾸준히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확천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의 순간을 깊이 느끼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지를 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울창한 조경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사는 곳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비춘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소소하고 작은 일상과 삶은,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은 만들 수 없는 굵고 튼튼한 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註

- 1 「평촌 첫 입주 김미진씨」, 『경기일보』, 2010년 2월 17일.
- 2 「지월가든공인중개사사무소, 식물산책」, “평촌초원마을 아파트 및 매매 전월세 실제 물건 소개”, 2013.11.16.
(<https://blog.naver.com/chaesg10/90184808812>, 검색일자 : 2024.8.13.)
- 3 「안양시 평촌지구에 6만가구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군 내년 후반 착공」, 『조선일보』, 1988년 12월 13일.
- 4 「비닐움막 판잣집 자고 나면 새동네, 경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지구」, 『동아일보』, 1989년 5월 31일.
- 5 「비닐천막에 간판만 달아 “사업체”/평촌위장전입 실태와 문제점」, 『한국일보』, 1990년 8월 11일.
- 6 동안구청 홈페이지, 달안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https://www.anyang.go.kr/dongan/contents.do?key=1184>, 검색일자 : 2024.8.13.)
- 7 5단지는 셋별마을 옆의 은하수마을에 속한다.
- 8 「〈우리는 이웃사촌〉 안양시 한양1차 셋별아파트」, 『경기일보』, 2001년 1월 30일.
- 9 정보제공자의 요청으로 이름은 ○○으로 표기.

제3장

샘마을 쌍용아파트부녀회가 싹틔운 안양여성의전화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수료



1. 샘마을 쌍용아파트부녀회의 형성과 변화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평촌신도시 남쪽에 위치한 샘마을 아파트단지는 위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고가를 이고, 아래로는 모락산을 바라보면서, 47번 국도를 경계로 의왕시와도 이웃하고 있는 푸르고 고즈넉한 동네이다. 한가한 평일 오후에도 상당히 많은 차량이 오고 가지만, 30년 이상 아파트단지와 함께 해온 가로수와 곳곳의 푸른 녹지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아파트단지 내부와 주변 상가는 간간이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들려올 뿐,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이다. ‘샘마을’이라는 정겨운 이름이 붙은 이곳 아파트단지는 쌍용아파트·우방아파트·임광아파트·대우한양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992~1993년에 입주한, 중대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단지이다.

샘마을 부근에 있는 평촌자유공원은 녹지뿐만 아니라 실내 배드민턴장·축구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 평촌아트홀과 같은 문화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샘마을 주민들이 가족과 산책을 즐기는 것 외에도 일상에서 운동과 문화생활을 모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샘마을 아파트단지에도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가 구성되어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였다. 특히 이제 막 형성되어 모습을 갖추어가는 시기, 신도시 아파트의 주민들은 교육·교통·치안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주민 기반 조직들의 활동이 절실하였다. 입주 초기인 1992~1993년, 샘마을 쌍용아파트의 1기 부녀회는 다른 아파트 부녀회와 마찬가지로 ‘새마을부녀회’로 활동하며 아파트단지 내에서 여성들에게 맡겨진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5년부터 호계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1992년 샘마을 쌍용아파트에 입주한 주민



평촌도시 삼마을 전경



박명숙(60대, 여성)은 초기의 부녀회가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회상하며 말하였다. 샘마을 쌍용아파트부녀회 2기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샘마을 쌍용아파트부녀회는 기존의 아파트 부녀회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아파트 주민의 특성이 맞물려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박명숙 : 가서 보니까 아파트 부녀회라는 것을 한다고... 예전에도 봤지만, 아파트 부녀회가 이제 청소해 주고 장터를 열고, 그 장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자릿세를 받는 일을 했죠. 그다음에 폐지 수집해서 그걸 팔아 돈을 모으고. 그런 식으로 아파트 부녀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새마을부녀회, 그런 형태로(부녀회를 이끌어 가고 있었어요). (중략) 그 당시에 노인들에게 밥을 해 드린단든지 부녀회 회원들끼리 차 빌려서 놀러 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어요.

1980년대 말부터 인근에서 평촌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을 지켜본 박명숙은 자신이 참여했던 쌍용아파트부녀회의 변화 배경에 시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시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졌고,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1980년대 경제성장에 따라 경제적 여유를 갖춘 중산층이 증가하였는데 그들 중 다수가 평촌신도시, 특히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샘마을에 입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평촌신도시 입주민 가운데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안양 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실제 평촌을 포함한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서울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서울에서 반경 20km 내에 중산층을 유입할 목적으로 건설한 것이었다. 서울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평촌신도시, 그중에서도 샘마을 아파트에 입주한 이들은 경제적 여유와 고학력을 가진 서울의 중산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샘마을 쌍용아파트 2기 부녀회의 시작은 1기 부녀회의 이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 그리고 어린 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된 젊은 어머니들의 결합이 맞물린 결과물이었다.

박명숙 : 어찌 됐든 1세대 부녀회의 모습을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녀회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우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전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놀러 가셔도 신나지도 않고



샘마을 쌍용아파트 입구

시간도 아깝고. 그렇지만 그 1대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40~50, 50~60대니까 애들이 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집에 있는 이유는 거의 다 애들 때문에... 애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 오면 돌봐줘야 하고. 그래서 첫 번째(1대) 부녀회에 갔더니 (새마을)부녀회의 모습이어서 주춤하게 된 것도 있어요.

처음 부녀회의 모임에 발을 들인 박명숙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주축이 되는 1기 부녀회에서 어색함을 느끼고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아파트 부녀회가 연계 되는 금전적 이득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이 젊은 어머니들의 참여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박명숙과 함께 1990년대 중반 쌍용아파트부녀회에서 회계로 활동한 바 있는 최병일(60대, 여성)은 당시 자신이 바라본 1기 부녀회의 모습을 회상하였다.

최병일 : 같은 아파트니까, 아파트에서 부녀회를 바라보니 그분들이 지금의 제 나이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60세인데,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다 부녀회 일을 하시고, 이제 아파트에 들어오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과일이며 각종 음식을 팔러 오는 상인들에게서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서 부녀회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돈이 좀 있구나.’ 하고 생각했고. 폐지 판 돈도 부녀회에 들어가고, 나름 상점들이 들어오면 자릿세라는 것을 받고. 그런 돈으로 운영을 하는데, 오랜 시간 한 분이 회장직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깨끗이 씻은 우유팩과 다 읽은 신문, 종이상자 등을 차곡차곡 모아서 폐지 수거 업체에 팔아 이문을 남기는 것은 부녀회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였다. 여기에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쓰레기 종량제 정책은 폐지 수거량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또한 재래시장으로 가기 어려웠던 신도시의 아파트 특성상, 아파트단지 내에서 정기적으로 시장이 켜는데, 이때 상인들로부터 자릿세를 받고 일일장을 관리하는 것 또한 부녀회의 몫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녀회가 사유화하거나 독점하는 등 재정 체계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은 ‘젊은 어머니들’에게 부녀회를 맡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박명숙에 따르면, 이권을 둘러싸고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갈등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젊은 애들에게 맡기자’고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 젊은 어머니들은 연배가 비슷하였고 자녀들도 겨우 만 두 돌을 넘긴 어린아이들이었다. 최병일은 이때를 회상하며 “아이들을 유치원 가기 전 단계, 당시 유명했던 몬테소리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서 어머니들끼리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서서 대화를 나누고 좀 친해지다 보니, 헤어지기 아쉬워 계속 만남을 유지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어머니들은 “이렇게 마냥 수다만 떨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도 살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이 부녀회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녀회로 꾸준히 들어오는 공금을 잘 관리하여 주민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미친 영향이 크다.

박명숙 : 여성들도 대학을 많이 가고, 대학을 안 갔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자각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 반면에 여성들의 그런 변화하는 심리적·사회적인 욕구를 담아낼 만한 그릇이 없었어요. 지금과 비교하자면, 아파트에서 지금은 노는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모든 젊은 여성들은 다 노는 거야. 노는 거라고 하기도는, 직장을 나가지 않는 전업주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0~90%는 전업주부였어요.

대학을 졸업했거나 고등학교까지 나온 젊은 여성들은 직장에서 업무능력이 뛰어나더



평촌신도시 아파트부녀회가 주최한 알뜰바자회(199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라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일을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가정에서 가사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 ‘노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를 삼가는 분위기지만, 1990년대 당시에는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집에서 노는” 전업주부들이 상당히 많았고, 샘마을 아파트단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위 ‘경단녀(경력이 단절된 여성)’가 되었어도 그들이 가진 생각과 사회적 욕구는 변하지 않고, 자녀 교육과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환경 및 시민 의식 등으로 관심이 이어졌다. 신도시 아파트의 부녀회가 “여성들의 사회적 욕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된 것이다. 이들에게 부녀회의 수입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몰랐던 굉장히 큰 메리트”일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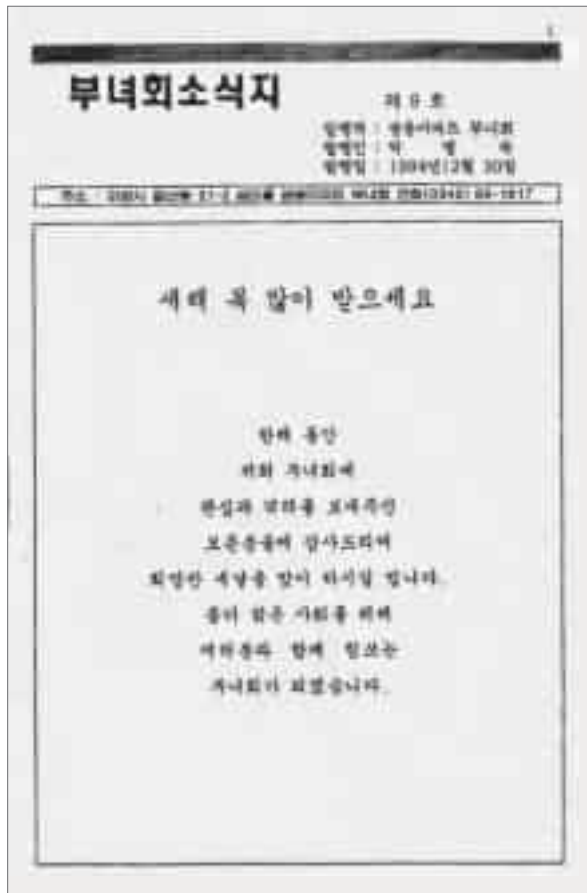
박명숙이 샘마을 쌍용아파트부녀회 제3대 회장을 맡으면서 실천했던 부녀회 활동 중 하나는 어린이도서관 만들기였다. 관리사무소 건물의 1층은 노인정이었다고, 지하에 있는 공간이 보통 관리실로 사용되는데, 이 지하 공간을 부녀회에서 도서실로 개조하였다. 최병일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싶는데 안양시 도서관은 너무 멀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러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도서실 개설의 이유였다고 밝혔다. 처음 도서실을 만들 때는 집에 있는 책도 가져오

고, 버려지는 책 중에서 상태가 괜찮은 책들을 골라내기도 하고, 주변에서 책을 얻어오기도 하는 등 여기저기에서 책을 그러모았다고 한다. 그리고 부녀회 고정 수입 중 일부를 비율로 정해두고 그 돈으로 새 책을 구입하였다. 또한 도서위원회를 꾸려 어떤 책을 구입하여 비치할 것인지 논의하여 선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쌍용아파트의 작은 지하도서관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아이들은 관리사무소 맞은편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수시로 도서실에 들러 텅굴면서 책을 읽다 가곤 하였다. 가끔 아이들을 위한 역사 교실, 이오덕 선생의 글쓰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 한쪽에서는 샘마을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학 스터디가 이루어졌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성공회 교회를 통해 여성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제3대 부녀회장이 있었기에 여성학 스터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인 대상 교육은 쌍용아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샘마을의 다른 아파트단지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는 동안 어머니들은 책을 읽고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당시 입주자 가운데 아이들 양육에 대해 고민하는 젊은 어머니들이 많았기에 ‘좋은 부모가 되는 훈련 프로그램’, 즉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프로그램도 개설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법을 훈련하는 것이었다.

샘마을 쌍용아파트 『부녀회소식지』 제9호에는, 당시 부회장이던 최은주가 「제3대 부녀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글이 실렸는데, 부녀회 활동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3대 부녀회는 제2대 부녀회의 활동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동시에 다섯 가지의 방향성을 두고 1년간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3대 부녀회가 새해를 맞이하며 제시하는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깨끗한 부녀회이다. 격월로 발간하는 소식지를 통하여 회계 보고를 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였다. 둘째, 환경을 생각하는 부녀회이다. 소식지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에는 그린스카우트 운동, 셋강 살리기 운동 등 다양한 생태환경 보존 운동이 시민사회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부녀회는 아이들을 위한 산 교육장이기도 한 생태환경 보존 노력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셋째, 중고 물품 교환 판매의 장을 마련하는 등 알뜰한 부녀회가 되겠다고 하였다. 넷째, 이웃을 생각하는 부녀회이다. 같은 지면에서, 쌍용아파트부녀회의 이름으로 구로의 한 양복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이웃들이 입던 겨울옷을 모아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다섯째, 다양



쌍용아파트부녀회 소식지(1994년, 쌍용아파트부녀회 제공)

한 교육강좌나 주민 친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주민 참여를 이끌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포부와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실행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1994년 제2대 부녀회를 거쳐 1995년 제3대 부녀회로, 그 뒤로도 제4·5대 부녀회가 이어지면서 주민들 일각에서는 과거의 부녀회들이 해 왔던 기존의 돌봄 활동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활동했던 연배 높은 이들이 ‘왜 놀러 가지 않느냐’, ‘왜 우리는 맛있는 것 사 먹으러 가지 않느냐’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노인정에서는 선물이나 음식 등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런 역할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쌍용아파트부녀회의 젊은 여성들은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이 시기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가 명확해지는 2~3년”이었고, 부녀회 활동을 통해 여성들은 “새로운 역할”을 꿈꾸게 되었다고 전한다. 관리사무소 지하에 모인 샘마을 아파트의 여성들은 가정주부라는 위치를 넘어 사회적 변화에 동참하기를 갈구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구조와 그로인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약화 및 인권 침해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안양여성의전화’라는 단체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인연과 도움의 결정체, 안양여성의전화

1996년 10월 1일, 이날은 ‘안양여성의전화’가 태어난 날이다. 국군의 날이었고 당시는 공휴일이었다. 그날 박명숙의 거처에 20명이 채 안 되는 젊은 여성들이 모였다. 사실 박명숙은 사람들을 모으면서도 ‘이것이 잘될 것인가’하는 의심을 스스로 던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1992년에 평촌 샘마을 쌍용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그의 직업 경험과 사회 운동 경험을 통해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단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호계동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는데, 이때 가끔 오던 여성 손님을 떠올렸다. “자주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남편이 부인을 위해 몸살약을 사러 왔었다”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여성의 얼굴과 몸에 든 멍, 자주 앓던 몸살은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폭력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으며 “폭력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을지, 또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고 있을지 모두가 인지하고 그들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는 눈과 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여성운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던 박명숙이 안양지역 여성단체를 조직하도록 인도한 또 다른 요인은 ‘안양여성회’에서의 경험이었다. 그에 따르면, 평촌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세워지고 그곳으로 서울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이 이주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 있거나,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인근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과 같은 환경 오염 물질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자, 이에 대한 항의 운동¹⁾에 참여한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그 경험을 토대로 안양여성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박명숙의 경우 요가원에



안양여성의전화 로고.
2024년에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41주년을 기념하여 로고가 변경되었다.

요가를 배우러 갔다가 만난 요가 선생님에게 안양 지역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 안양 여성회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1995년 그 당시 안양여성회는 회원 수가 100명이 넘는 큰 규모였으나, 정작 모이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 꼽을 정도로 적었는데, 그 이유로 그는 평촌신도시의 성격과 회원들의 특성을 꼽았다.

박명숙 : 평촌신도시 성격이 베드타운이라. (중략) 여기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요가원에 갔더니 (안양) 여성회가 있고, 엄청 크다는데 모였더니 5명도 안 돼요. 거기에 회원들을 보면 제가 십몇 년 동안 (여성운동을 하면서 본) 여성계 사람들의 이음은 거의 다 거기 있을 정도로. 그런데 실질적인 지역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찍이 서울에서 여성 인권 운동을 하던 이들은, 안양여성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중앙”에서 활동하느라 정작 지역 현안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고 그에 따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박명숙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단체를 조직한다면 진정으로 활동하고 싶은 여성들을 모아서 하고, 그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실무자로 키우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1995년 하반기에 한 지역의원으로부터 ‘안양도 이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니 여성 상담 지원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아가 안양시지부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으나 1년 정도의 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 조직도 어려운데, 1년가량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좌절한 그가 다시 일어선 것이 바로 1996년 가을이었다.



2011년 안양시 여성대회 기념 공로상을 수상한 박명숙(안양여성들의전화 제공)

박명숙 :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한 거죠. 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고.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될까?' 이런 의심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 피해자는 어떻게 도울 건데? (중략) 그 사람들은 내가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함께할 것이고, 그것은 잘될 거라는, 승리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 모인 여성들이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사회운동 경험 때문이었다. 불의를 인식하고 싸우는 힘, 그리고 승리의 경험. 그리고 그 바탕에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유명하지도 않고,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파트 부녀회, 그리고 지역의원 선거 캠프나 안양여성회와 같은 지역 풀뿌리 운동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더욱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안양여성들의전화는 크게 세 개의 기둥, 즉 샘마을 쌍용아파트부녀회, 다른 활동을 통해 만난 평촌신도시 주민들, 박명숙이 다녔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우들로 이루어졌다.

쌍용아파트부녀회의 구성원들은 당시 관리사무소 지하의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여성학 공부를 통해 지역 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 등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최병일 : 부녀회를 한 2년, 3년? 그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여성학 공부를 하다 보니 엄마랑 할머니들이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해도 말을 못 한다는 것, 그 이유가 뭘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약하고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맛을 짓을 했으니까' 두들겨 맞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면서 여자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폭력의 피해 여성들을 우리가 상담해 주고 그 일을 해보자, 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릇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박명숙과 함께 요가를 배웠던, 발기인 중 한 명인 송현주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라 할지라도 안양여성들의전화의 발족을 위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았다. 그는

20명의 운영위원 중 한 명으로서 매달 걷는 5만 원의 회비를 꼬박 꼬박 내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였다.

박명숙 : 그녀는 목련(아파트)에 살았어요. 임대 아파트에서. 남편은 무직이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요가원에서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당시 지자체 선거, 그것 때문에 박남식 선생님²이(의원 후보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돕는 사람 중 한 사람이 그의 남편이었어요.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서로 알게 된 거죠.



안양여성의전화 대표 시절 최병일

열정을 가진 운영위원들에게서 걷은 월 5만 원의 회비로 파트타임 간사에게 3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박명숙은 10명의 이사를 모시고 그들에게서 100만 원씩 걷었고 이것은 안양여성의전화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박명숙이 대학원에서 만났던 김덕실과 하숙자는 안양에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안양여성의전화 설립을 돕기 위해 함께했다. 김덕실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여성 지도자들을 소개해 주었으며, 하숙자는 사회복지 공부를 깊게 하여 초창기 상담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1997년 1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이들 조직을 준비위원회로 인정하였고, 그들은 1년간 준비하여 1998년 1월, 마침내 창립총회를 열 수 있었다. 창립의 목적은 “나 자신을 찾는 것”, 즉 여성들이 자존감을 찾는 것을 돕는 데 있었다. 개인의 문제는 곧 사회적인 것으로, 여성 개인의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나비효과처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박명숙의 생각이다.

안양여성의전화가 발족하는 데 있어 당사자들의 노력뿐 아니라 당시의 법·제도적 흐름과 주변의 도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을 시작으로, 1997년 「성폭력방지법」,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각 법안의 개정 작업을 거치며 법안에 따른 각급 단위의 예방 교육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다양한 여성단체의 태동을 도왔다고 할 수 있다. 주변의 금전적 후원과 장소 후원 등도 있었다. 준비위원회 시절 박명숙의 집에 임시로 사무실을 열었을 때, 이를 눈여겨본 샘마을 쌍용아파트

주민이 자신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 건물의 지하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고 소개하였고, 그 병원 의사들이 흔쾌히 그곳을 사무실로 쓰라고 내어주었다. 공적인 장소를 마련한 이후, 안양여성의전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다.

3. 안양여성의전화 원동력이 된 ‘개미군단’

1997년 IMF 금융위기는 안양여성의전화에게 뜻밖의 기회로 작동하였다. 한순간에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로 내몰렸던 어려운 시기, 안양여성의전화 구성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명숙 : 아까도 얘기한 것과 같이 부녀회가 하는 방식, 즉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모아서 적절하게 쓰는 거죠, 그렇게 바자회를 했어요. IMF가 오기 전, 97년도 초에 바자회를 했는데, 우리는 IMF가 오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자영업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중략) 어디에

안양여성의전화 크나눔장터(201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달 곳도 없는데 샴들리에를 준다든가, 골프채를 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그렇게 샴마을 이 공간에서 1차 바자회를 했어요. 1997년 봄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IMF가 왔는데 그때 도산한 사람들의 물건을 우리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매년 바자회를 했어요, 우리 바자회가 굉장히 유명했어. 안양여성의전화 바자회의 영역은 안양만이 아니라 서울서부터 주변 곳곳에서 다 오니까. 우리가 매년 바자회를 했어요.

소소하게 시작했던 바자회는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장이 되었고, 안양 지역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큰 행사가 되었다. 여기서 박명숙은 안양여성의전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개미군단’이란 단어를 꺼냈다. 그는 “한두 명의 잘난 사람으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자신도 성공회와 대학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박명숙 : 교육. 의식화 교육은 세상을 보는 눈,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세상이 아니라 객관화시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 것을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확고한 사람들이어야 하거든요. 제가 성장 상담지도자로서 공부하면서 먼저 배웠고 그것을 안양여성의전화에 전하고, 그 사람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해서, 우리는 개미군단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여성을 도울 기회는 1998년, 안양여성의전화가 1년의 준비기간을 끝내고 정식 승인을 받았을 때 찾아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조직력을 갖춘 각 지역 시민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IMF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여성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 제안, ‘여성가장돕기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때 안양여성의전화가 안양 지역 실무단체가 되었다. 안양여성의전화는 안양·군포·의왕·과천을 아우르며 위기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여성 가장’의 선정, 가정 방문, 쌀 배급, 그리고 여성 가장 교육과 고용을 도맡았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변현주는 “어려운 여성 가장을 모아, 이 중 대학 졸업자를 교육해서 공부방에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성 가장을 돕는 사업에 여성 가장들을 실무자로 고용하였다. 안양여성의전화는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체 펀딩으로 여성 가장들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사회적 재난 앞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이들은 여성·노인·어린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고, 여성에게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현장에서 체감하게 되었다.

4. 안양여성의전화가 불러온 선한 영향력

안양여성의전화는 설립 이후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첫째는, 평범한 사람들의 맨파워(manpower) 규합과 확장이다. 박명숙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1990년대 초 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이들의 경험과 의식이 새롭게 정착한 지역사회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1990년대 초 평촌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건강한 삶을 꿈꾸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시민단체 등 조직을 결성하고 풀뿌리 지역 운동을 전개하였다. 박명숙은 이 인력들이 안양 지역의 기존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바꿔놓았다고 생각한다. 신도시로 밀려들어 온 이주민들의 ‘양’이 그 지역의 ‘질’을 압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평촌으로 이주하여 그가 사는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 평촌 지역의 의식 있는 여성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평촌에서 안양여성의전화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안양시 물론이고 군포·과천 등 주변 도시를 아우르며 여성 인권과 시민 의식을 확장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는 ‘개미군단’들이 함께 했던 1998년 여성가장 돕기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맨파워는 소수의 명망가가 아닌, 교육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 평범한 여성 시민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들이 활동하며 흘린 구슬땀은 안양 지역 시민들의 의식은 물론 주변 도시의 시민 의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박명숙 : 민주화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노태우 대통령 시절 신도시를 개발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든 곳 중 하나가 평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건강한 삶을 꿈꿨던 거죠. 안양환경운동연합 등 온갖 시민단체가 그 당시에 거의 다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인력풀이예요. 그 인력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산본에도 생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큰 인력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을 확 다 바꿔놓은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계산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봐요). (중략) 여기(평촌)에 들어오면서 동안구 전체, 안양 이 지역을 다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양이 질을 바꾼다, 즉 양이 많아지다 보면 질을 변화시킨다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양 여성 시의원 당선자·안양여성단체 간담회(2018년, 안양여성의전화 제공)

둘째, 여성들의 활동이 정치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 영역은 대부분 남성 중심이며, 중요한 사회 제도와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곳마다 여성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안양여성의전화는 일찍이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정치 분야에도 닿아야 할 필요성을 체감하였다. 최병일은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초기 안양여성의전화에서 상담원 및 성폭력 교육 등을 했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안양여성의전화 회장으로 활약하였다.

안양여성의전화 활동을 하면서 여성과 관련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하는데 활동가로서 국회의원이거나 공무원들과 접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우리가 직접 하자, 우리가 정치하자”고 마음먹고 이를 안양여성의전화 정책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대부터 이미 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여성 정치세력화’라는 슬로건 아래 2014년에는 전임 대표를 안양시의회로 입문시켰다. 최병일 자신도 2018년에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제9대 안양시의회 의장으로서 여성 의제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중요 현안들을 여성의 힘으로 가시화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최병일 : 혼자서 못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같이 하니깐, 이제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잘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성과 뒤에는 안양여성의전화 구성원들과 임원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고 최병일은 말한다. 현재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안양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상담소(1999년 개소), 성폭력상담소(1998년 개소)를 부설 기관으로 두고 있다. 또한,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및 어린이 성폭력 예방 캠페인, 한부모 여성가장 돕기 등의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매년 안양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로는 데이트 폭력 예방, 디지털 성폭력 전문가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방식의 변화에 지속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의 시작은 작은 꽃봉오리와도 같았다. 신도시에 입주한 젊은 엄마들이 유치원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졌고, 어느새 아파트 부녀회에서 지역 내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감정은 시대적인 요구,



안양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현판식 기념
(2020년 12월 31일, 안양여성의전화 제공)



교내 불법촬영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2022년, 안양여성의전화 제공)



성폭력 예방 인형극 워크숍(안양여성의전화 제공)



제7회 안양여성인권영화제(201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즉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 설립에 부응하였고 그때 안양여성의 전화라는 꽃을 피워냈다. 이후에도 안양여성의전화가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당시 평범한 전업주부 여성들로 이루어진 개미군단의 힘이었다.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 노력은 조직의 존속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와 인식 변화에도 기여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

- 박명숙 : 샘마을 쌍용아파트 거주, 1995년 쌍용아파트 3대 부녀회 회장, 1997년 안양여성의전화 초대회장, 2000년~ 안양여성의전화 이사, (사)평화를일구는사람들 대표 및 이사장.
- 최병일 : 샘마을 쌍용아파트 거주, 1994년 쌍용아파트 3대 부녀회 회계, 1997년 안양여성의전화 발기인, 2010~2018년 안양여성의전화 회장, 2019년~ 안양 여성의 전화 이사, 안양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

참고자료

- 『부녀회 소식지 제9호』, 쌍용아파트부녀회, 1994년 12월 30일.
- 『안양여성의전화 구술자료 녹취록』,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III)』,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2008.

註

- 1 앵커 :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5백여 명은 아파트 앞에 있는 신화 화학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악취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며 이를 개선하는 요구를 하면서 오전 11시 반부터 안양시청 앞 도로를 점거한 채 2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평촌 입주민 공해개선 요구 시위』, 『MBC』, 1992년 8월 11일)
- 2 안양여성회 지도위원, 명상요가협회 '삼법' 대표. "지역 여성지도자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그들의 실천적 운동 방향을 계도하며 이끄는 안양 지역 여성운동의 대모로 통한다."(『끝없는 여성농민사랑 나눔의 삶 실천』, 『여성신문』, 2005년 5월 12일)

제4장

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인동 주민자치회

오윤정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귀인동의 지역적 특징

1994년 평안동의 남쪽을 분리하여 새로운 행정동으로 만들어진 귀인동은 평촌신도시의 동남부에 해당한다. 꿈마을 아파트단지, 귀인마을 일대, 평촌학원가 일부와 먹거리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귀인동에 속한다. 아파트단지와 일부 상업지역으로 구성되는 대부분의 평촌신도시 마을과 조금 다른 경관을 가지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귀인동은 0.64km² 면적에, 5,074세대, 1만 6,17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동일 면적인 평안동의 8,062세대, 인구 2만 2,715명과 비교했을 때 평안동의 세대수 대비 63%, 인구수 대비 71%에 해당한다. 단위 면적당 거주 세대수와 인구수가 평안동에 비해 낮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귀인동의 지역 구성의 특징이다. 귀인동은 일반상업지역과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촌학원가와 평촌먹거리촌 내 단독주택, 귀인마을현대홈타운 아파트 그리고 꿈마을 아파트단지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많지만 전입 신고한 실거주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둘째, 귀인동 아파트의 성격이다. 귀인동은 세로로는 관평로와 부림로, 가로로는 신기대로를 기준으로 총 4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귀인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구역에는, 학원가인 일반상업지역과 상가주택이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귀인마을현대홈타운아파트가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백영고등학교·귀인초등학교가 있는 구역과 민백초등학교가 있는 구역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꿈마을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 일반상업지구가 있다. 이 중 꿈마을의 두 구역이 귀인동 주민의 주요 주거지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는 라



귀인동 지도

이프·금호·현대·한신·우성·동아·건영아파트 등이 있는데, 각 단지는 최대 566세대(한신 아파트), 최소 196세대(건영5단지아파트)로 단지당 세대수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귀인동 꿈마을은 세대당 면적이 107㎡(32평형)에서 217㎡(65평형)에 이르는 중대형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84㎡(25평) 이하 위주로 구성된 다른 지역보다 중산층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귀인동 주민자치회의 설립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1998년 국민의 정부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구호 아래, 읍·면·동 기능 개편을 추진하였다.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주민

자치센터는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항 및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중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 기능을 상실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역할만 하고 있다는 한계의 지적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되었다. 즉,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 협력의 근린 자치모델로서, 읍·면·동 사무를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며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¹

귀인동은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2021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다. 2020년 7월에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되면서 주민자치위원을 모

귀인동 야경(안양시청 제공)



집하여 위촉하였고 이후 2021년 1월에 자치회로 전환한 뒤, 2월에 귀인동 주민자치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귀인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안재은(50대, 남성)이 초대 주민자치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그는 2015년에 귀인동으로 이사 왔으며, 2016년에 꿈마을라이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맡은 바도 있었다. 그는 2021년 7월 1일에 발간된 『귀인동 주민자치신문』 창간호의 창간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비교하였다.

제가 이전에 활동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귀인동 내 여러 사회단체장, 아파트 입주자 대표, 사업장 대표와 같은 분들과 심사를 통과한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하는 일은 주로 귀인동 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추첨을 중요한 방식으로 하여 18세 이상의 거주 주민과 생활 주민은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자치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마을사업(투자사업 제외)의 수립 및 집행 등 마을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안재은, 『귀인동 주민자치신문』 창간호, 2021년 7월 1일〉

안재은은 창간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설명하며,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 온 자치센터 운영뿐 아니라 마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지 않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 영어회화, 난타 같은 프로그램들을 분기에 한 번씩 접수받고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의 폐강기준을 세우고 새로운 강좌를 추가할지 말지 등을 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자치센터의 강좌 운영과 관련된 의결 외에는 이렇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로 있으면서 안양시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 1년에 3천여만 원의 사업예산이 나온다는 제안서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픽토그램과 글귀를 넣은 디자인 보도블록을 보도에 설치하고 멋진 명화를 바닥에 쓰는 고보라이트를 설치하고 동네 오케스트라 공연과 간단하게 음식 나눠 먹는 축제를 했었고, 오랜 기간 회사에서 사업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당시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의지도 있고 해서 제가 주축이 되어 자치회 전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재은, 『귀인동 주민자치신문』 창간호, 2021년 7월 1일〉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동 위원 위촉식(202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19년, 안재은은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로 위원회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나 고보라이트 설치, 마을축제 개최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그러던 중, 안양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마을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고, 이후 진행된 주민자치회장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3명의 후보 가운데 회장으로 선출되어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주민자치회 1기가 끝난 뒤, 2023년 2월부터 주민자치회 2기가 시작되었는데 1기 회장 안재은이 연임하여 2기 회장도 맡게 되었다. 2기는 2025년 1월에 임기가 끝나지만 안재은은 2024년 1월에 중도 사퇴하고 윤경숙이 이어서 회장직을 역임하게 되었다. 현재 안양시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안양1동과 귀인동뿐이다.

3. 귀인동 로고와 주제가 제작

2021년 2월에 안재은은 주민자치회장 임명장을 받았고 주민자치회장으로서 활동을

즉시 시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년도에 다음 연도 예산 계획을 세운 뒤 의회를 통과해야만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 과정이 간과되어서 2021년도에는 책정된 예산이 없으니 내년과 내후년 사업을 계획하라는 말을 들었다.

안재은 : 그때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제가. 그럼 올해 우리 보러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거냐 그러면 내년 사업을 계획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과 면담했고, 21년 4월 추경예산에 '21년도 귀인동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귀인동 주민자치회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매월 귀인동 주민자치신문을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안재은은 2021년 2월, 주민자치회장으로 임명된 직후 안양시로부터 해당 연도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였다. 마침 안양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고한 '2021 안양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확인하였다. 이 사업은 안양시 거주자 또는 생활기반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었다. 그는 마을활성화 사업 가운데, 안양에서 시도된 적 없는 마을 브랜드 창출과 의제 발굴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새로운 안양' 부문에 지원하였다. 안재은은 "귀한 사람 귀인으로"라는 공동체명으로, 「귀인동 이미지 구축 및 브랜드 알리기」라는 사업을 제출하였고 300만 원의 사업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안재은 : 추경예산 배정이 불확실했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귀한사람 귀인으로" 이런 단체명으로 지원했어요. 호불호가 확실한 제 둘째 아이가 단체명을 듣고 "구리다"고 했지만, 저는 작명하고 나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후 "귀한사람 귀인으로"는 귀인동 로고의 주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고는 마을 브랜드 알리기 홍보용 기림품인 고리수건과 장바구니에 들어갔고, 주민자치신문 표제부, 현수막, 각종 보고자료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귀인동상인회에서 귀인동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를 상인들에게 나눠주더군요.

귀인동 로고는 3개의 후보안을 2021년 8월 『귀인동 주민자치신문』에 실어 '귀인동 로고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9월 귀인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고, 10월 발행 신문부터 귀인동 로고가 삽입되었다. 귀인동 로고 선호도 조사에는 귀인동 주민 156명이 참여하였는데, 선정된 로고는 귀인동 주민자치신문 제호, 현수막, 배너, 배지, 기념품 등에도 적용되었다. 이후, 2023년에는 귀인동 주제가인 「No1. 귀인동」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귀인동 로고가 들어간 『귀인동 주민자치신문』 표지

No1. 귀인동
(1절)

밝은 미소 인사 속에 귀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동네 귀인동에 모두 만나러 오세요.
혼자만의 행복은 NO 함께 하는 행복은 OK 살기 좋은 안양 귀인동에서 우리 모두 함께 웃어요~
민백초 민백어린이공원 귀인초 앞 꿈마을공원 귀인중 백영고도 있고 학원가 교육의 중심
귀인 귀인 귀한 사람 만나러 와요~
귀인동 넘버원! 귀인밖에 없어! 난 오직 귀인뿐이야~!
귀인 귀인 귀한 사람 귀인밖에 모르는 나~ 우리는 하나~ 귀인뿐이야!
(간주) 귀인으로~! 귀인으로~!

(2절)

공원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미소가 절로 나오잖아요~
담소 나누는 어르신들 얼른 얼른 이리오세요~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 체험들도 있어요
꿈마을 8개 단지 있고! 귀인마을 흥타운 있고! 학원가에 맛집 몰려있는 먹거리촌 있어요~
귀인 귀인 귀한 사람 만나러 와요~ 귀인동 넘버원! 귀인밖에 없어!
난 오직 귀인뿐이야~ 귀인 귀인 귀한사람 귀인밖에 모르는 나~
우리는 하나~! 귀인뿐이야! 넘버원! 귀인동이야~!
우리는 하나~! 귀인뿐이야! 넘버원! 귀인동이야~!
귀인동이야!

귀인동 주제가 「No1. 귀인동」

4. 귀인동 주민자치회 신문 발행

귀인동 주민자치회는 2021년 2월에 출범하였으나, 귀인동 주민자치회 신문 창간호는 5개월 뒤인 7월에서야 발행하였다. 그 이유는 추경예산이 확정된 뒤에야 발간을 준비할 수 있었던 재정적 이유와 신문 발간 등록 및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안양시 명사들은 『귀인동 주민자치신문』 창간을 기념하며 축사를 보내 왔고, 귀인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창간 기념으로 귀인동 마을 지도를 제작하였다.

안재은 : 귀인동 공무원들이 신문은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시냐고 걱정 많이 했어요. 신문사를 운영하는 친구한테서 디자이너를 소개받는 등 많은 조언을 받았죠. 디자이너에게 제 의도를 알리기 위해 파워포인트로 대략적인 틀을 만들어 비슷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렇게 디자이너와 함께 3번인가 4번인가 신문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고 그걸 매번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번거롭고, 또 제가 혼자 하면 하겠다 싶어서 제가 디자인을 배웠어요.

안재은은 창간호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문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신문 포맷과 틀을 잡아 발행하였으나, 수정 작업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이후에는 신문 디자인을 배워서 직접 신문 지면을 디자인하였다. 직접 신문 디자인을 맡아서 한 데에는 수정 작업의 번거로움 외에도 사업비 관련한 문제도 있었다. 주민자치회 출범 첫해인 2021년에는 추경으로 받은 예산을 2021년 하반기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2022년에도 이를 감안하여 비슷한 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제한된 사업비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는 직접 신문을 편집하였고 직장도 병행하다 보니 이틀씩 밤새는 날도 있었다. 그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간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였다. 더욱이, 처음에는 아파트단지에 신문을 넣는 것도 힘들었다고 한다.

안재은 : 총 4천 부, 5천 부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사업비가 모자라면 부수를 좀 줄이기도 하고. 배포가, 그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거는 각 아파트 관리실 다니면서 좀 넣어 달라 부탁하고 그렇게 했죠. 그냥 관리사무실에 갖다 놓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갖고 가면 효과가 없으니깐, 그러가지고 컵라면을 야식으로 드시라고 갖다 드리고 주민자치회의 경품으로 협찬받은 걸 경비원들께 드리면서 각 우편함에 넣을 수 있게끔 사정사정했죠. 청소 아주머니들이 계시니깐, 청소 아주머니들은 며칠 지나고 안 갖고 가면 치우시니깐. 요즘은 종이신문을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에서 3분의 1정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버려졌어요.

귀인동 주민자치회 신문은 각 세대의 우편함에 배부하였으나, 종이신문 선호도가 낮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절반 이상이 버려졌다. 안재은은 종이신문의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애초부터 생각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신문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여 귀인동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을 신문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귀인동의 지형적 공간을 소개하며 귀인동 생활백과사전이 되고자 하였다.

기획연재로 실린 「귀인동 사용 매뉴얼」은, 귀인동 생활권인 신촌동·평안동·평촌동 일부를 포함하고 전체 지도에 아파트단지의 상가 등을 번호로 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귀인동 지도가, 향후 빗물받이·가로등·CCTV·소화전·제설함·공기주입기 등 마을 제반 시설과 장비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보도블록·도로 파손 위치 소통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귀인동 사용 매뉴얼은 주민자치회 신문의 또 다른 코너인 「귀인동 탐방」으로 이어지는데, 해당 코너는 귀인동의 소상공인과 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는 영역이다. 귀인동 탐방에서는 주로 카페나 식당 등을 소개하였는데, 귀인동 상우회에서 명단을 추천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소개를 원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연락받기도 하였다.

안재은 : 저는 취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기도 하고 또 같이 신문을 만드는 분들이 각각 카페와 음식점 하나씩 맡아 취재했죠. 또 상인들에게는 “신문 기사로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비망록을 갖게 된다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죠, 카페 사장님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사진도 본인들이 잘 찍은 사진을 주거나 전문 사진사를 동원해서 꽤나 예쁜 사진을 췌어요.

안재은은 귀인동 주민자치회 신문이 귀인동 주민들과 관련된 내용 중심의 신문이길 원했기 때문에,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는 귀인 뉴스나 귀인동 사람들 등을 주된 코너로 배치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투고하는 반려동물 소개글을 게재하고 주민이 마을 발전에 대해 직접 제안하는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기사 내용이 주로 귀인동과 안양시에 집중되어 있지만 주민자치회 신문의 지속적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위해 지역 사안과는 별개의 흥미로운 정보를 부가적으로 실었다. 안재은 본인이 야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을 기반으로 「알파벳의 기원, 역사 그리고 파닉스」를 7회에 걸쳐 연재한 것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귀인동 주민자치신문

창간호

"주민이 주인이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귀인동 귀인자치센터 1층 | 전화: 02-931-9100-1120 | E-mail: gwin@gwin.or.kr
 발행처: 귀인동 주민자치회 | 발행일자: 2021년 7월 1일

귀인동 주민자치회



귀인동 주민자치회 출범 경과

2020년 11월	주민자치회 1차 회의 개최	2021년 6월	현행 주민자치회 출범에 필요한 조례 제정
2020년 12월	주민자치회 2차 회의 개최	2021년 7월	현행 주민자치회 출범식 개최
2021년 7월	주민자치회 3차 회의 개최	2021년 7월	현행 주민자치회 출범식 폐막
2021년 7월	주민자치회 4차 회의 개최		

위원들의 다짐

동료! 주민자치회 임지는?
 길은! 주민의 목소리로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길은!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길은!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 정몽규 회장**
 1.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2.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3.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4.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5.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6.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7.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8.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9.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10.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 김민준 사무장**
 1.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2.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3.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4.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5.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6.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7.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8.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9.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10.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 김민준 사무장**
 1.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2.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3.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4.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5.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6.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7.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8.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9.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10.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 김민준 사무장**
 1.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2.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3.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4.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5.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6.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7.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8.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9.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10.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 김민준 사무장**
 1.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2.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3.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4.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5.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6.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7.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8.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9.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10.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 김민준 사무장**
 1.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2.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3.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4.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5.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6.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7.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8.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9.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10. 주민자치회 임지는?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참간사

친근한 친구처럼 다정한 이웃처럼

안녕! 주민자치회 임지는?
 길은! 주민의 목소리로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길은!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길은!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주민자치회 사무장 김민준

안녕! 주민자치회 임지는?
 길은! 주민의 목소리로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길은!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길은!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안녕! 주민자치회 임지는?
 길은! 주민의 목소리로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길은!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길은! 주민자치회 임지는 어디에?

「귀인동 주민자치신문」 창간호, 2021년 7월 1일.

「기획연재」 귀인동 사용 매뉴얼

■ 귀인동의 유래

조선시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갈 때 머물다 갔다고 하여 귀인이란 지명이 붙여졌다 한다. 조선조 정조 때(1789) 인구 조사인 호구총수에 의하면 귀인이 안양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서 귀인 1동, 귀인 2동으로 분동할 정도로 번창한 마을이었다.
(출처 : 안양시 공식블로그)

■ 지역 특성

주민들은 증대형 아파트 4개 단지 67개동과 먹거리촌 상가주택에 거주하며, 교육 성향이 높은 초·중·고와 평촌학원가가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평촌IC 옆에 먹거리촌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한 외식과 유통산업의 요충지임.

1. 귀인동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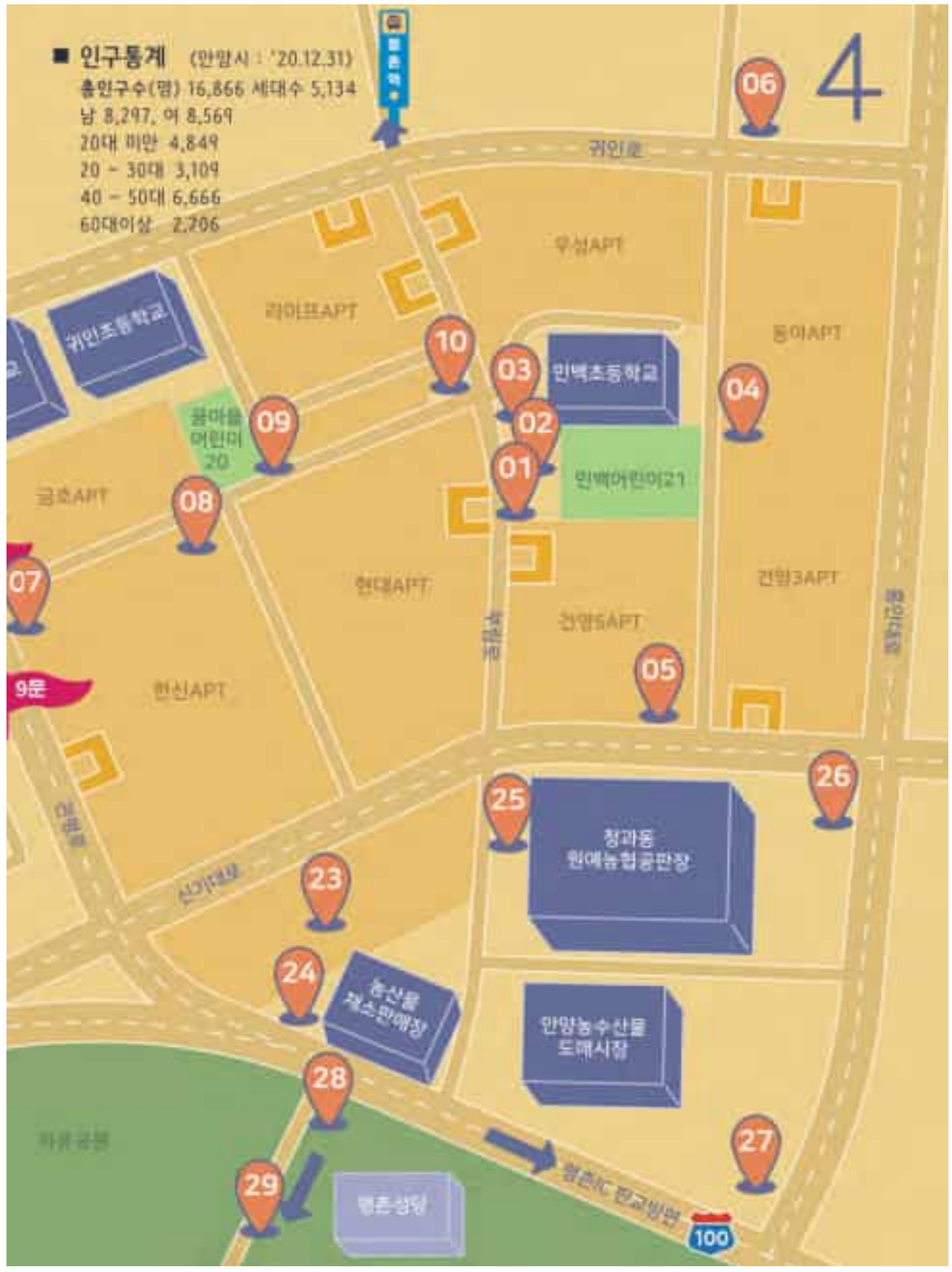
01. 귀인 문화복지센터
02. 귀인동 행정복지센터
03. 새순교회
04. 꿈마을유치원
05. 하나은행
06. GS칼텍스 주유소
07. 성남발_333/3330
08. OMP 필드스쿨
09. 귀인동자활방범초소
10. 민백유치원
11. 신한은행
12. 대신스포츠센터
13. 초록마을
14. NH농협은행
15. 한살림생활협동조합
16. 평강교회
17. 새마을금고
18. 안양축산농협
19. SK브로드밴드
20. 평촌주자빌딩
21. 성남행_333/3330
22. SK주유소
23. 구)터미널부지
24. 성남발_333/3330
25. 안양원예농협
26. 인동산 농수산물도매장역(가칭)
27. 해법/경찰/파출 전우회
28. 성남행_333/3330
29. 갈산지구대(갈산동)



■ 인구통계 (안양시 : '20.12.31)

총인구수(명) 16,866 세대수 5,134
 남 8,297, 여 8,569
 20대 미만 4,849
 20 - 30대 3,109
 40 - 50대 6,666
 60대이상 2,20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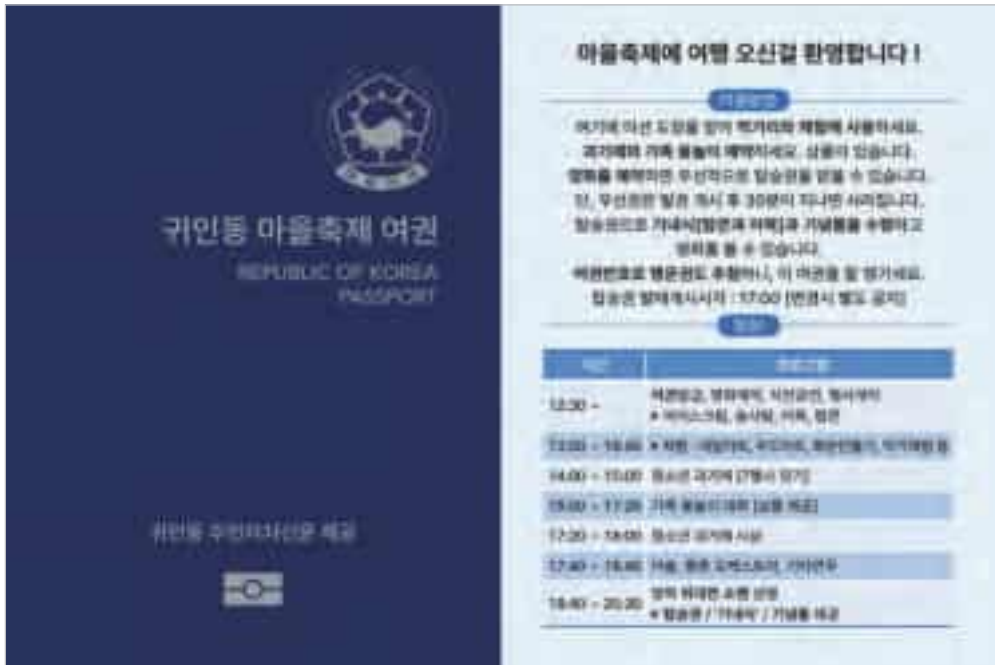
5. 귀인동 마을축제와 귀인소품

마을자치회의 활동을 주민들에게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축제를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인동 주민자치회 역시 귀인동 마을축제와 ‘귀인소품’이라는 두 종류의 축제를 개최하였다. 먼저, 귀인동 축제는 귀인동 주민자치회가 출범 이듬해인 2022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였는데, 귀인동 마을축제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관내 거주자와 관내 직장을 두고 있는 생활주민 중에서 공연이나 전시, 체험행사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였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며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축제를 지향하였다.

제1회 귀인동 마을축제는 2022년 9월 17일에 귀인동행정복지센터와 민백어린이공원에서 ‘제1회 여름날 귀인들의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2,0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이 축제는 오후 1시에 우쿨렐레 앙상블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네일아트·우드아트·화분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 부스가 함께 운영되었다. 또

제1회 귀인동 마을축제(안재은 제공)





2022년 귀인동 축제 때 사용한 여권 모양의 안내장(안제는 제공)

한, 축제 당일에는 주민총회를 겸해 2023년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 해 사업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날 투표 안건은 주민자치신문 발간의 필요성 여부와 성인 주말 영화제작학교 운영 찬반에 대한 것이었다.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 1항에 따라 주민총회는 개최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한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의 1,000분의 5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모이는 축제일에 투표 보드를 설치하였다. 주민투표의 결과, 주민자치신문 발간과 성인 주말 영화제작학교 운영은 각각 88.7%, 85.2%의 찬성 득표율을 받으며 2023년에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2022년에 열린 제1회 귀인동 마을축제의 주제는 해외여행이었다. 코로나 기간에 열린 축제였던 만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축제장 입구에 여권 발급 창구를 설치하여 여권 모양의 안내장을 받은 뒤 축제장으로 입장하였고, 축제장의 여러 이벤트 부스를 돌아다니며 출입국 도장 찍듯이 다양한 스탬프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비행기 탑승권 모양의 영화 관람권을 발권하여 실제 여행가는 기분이 들도록 구성하였다.

제2회 귀인동 마을축제는 2023년 9월 16일에 2022년의 축제 장소와 동일하게 민백어린이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제2회 마을축제 역시 관내 주민과 학생, 학부모 동아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등을 중심으로, 댄스·사물놀이·밴드·난타·색소폰·칼림바 연주·귀인동 주제가 발표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2023년의 귀인동 마을축제의 행사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 상영회였다. 앞서 2022년 마을축제 때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주민투표 찬반 투표보드에 등장하였던 성인 주말 영화제작학교 운영 지속 여부는 지속하는 것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주말 영화제작학교의 결과물이 제2회 귀인동 마을축제에서 상영하기로 하였으나, 축제 당일에 비 예보가 있어서 축제 개최 자체에 비상이 걸렸고 결국 상영 장소에 변동이 있었다.

안재은 : 2023년 9월 16일은 비가 예보가 됐어요. 비가 예보되어 있었지만, 축제 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몽골 텐트라도 쳐서 강행하기로 했는데 영화는 야외 상영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찾다가 주민자치센터 4층 대강의실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제작에 참여한 2기 멤버들이 어린이들과 함께한 주민들에게 인사를 했죠.

제1회 귀인동 마을축제(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23년 11월 꿈마을어린이공원에서 열린 귀소풍(안재은 제공)



2023년 5월 먹거리촌어린이공원에서 처음 열린 귀인소풍 홍보물(안양시청 제공)

축제 때 상영된 영화는 2022년과 2023년에 직장인 위주의 주민들이 만든 4편의 단편 영화이다. 안재은은 안양5동의 신광교회 김문건 목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9년 동안 영화 제작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귀인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귀인동의 아이들은 학원 다니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았다.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해보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강 시간을 2022년에는 토요일에, 2023년도에는 월요일 저녁 7시 이후로 배정하였는데, 그 덕분에 2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수강하며 영화 제작에 참여하였다. 수강생들은 지역 사회를 주제로 한 「꿈마을」, 직장인의 일탈을 담은 「탈」 등의 단편 영화를 제작하였고 그렇

게 제작된 영화는 제2회 귀인동 마을축제에서 「dotzari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상영되었다.

귀인동 마을축제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연례행사인데, 귀인소풍은 2023년에 한시적으로 열었던 월례행사였다. “지구사랑, 마을사랑, 귀인소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귀인소풍은, 2023 안양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금과 GS파워안양열병합발전처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5월에는 먹거리촌어린이공원에서, 6월·7월·11월에는 꿈마을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안재은 : 떠들썩하게 했는데, 아뿔싸 거기 단독주택들은 방음이 잘 안 되고 공원하고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의욕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소프트아이스크림이 좋다고 해가지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도 사고 그랬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 소프트아이스크림 기계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솜사탕 기계도 전원이 계속 떨어져서 엄청 힘들었죠. 아무튼, 주민들이 재밌어는 했는데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꿈마을어린이공원으로 옮겨서 했죠.

귀인소풍이 열린 먹거리촌어린이공원은 1층 상가와 2층·3층 주택으로 구성되는 상가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다. 그런데 귀인소풍 행사로 주민들이 몰리다 보니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6월 행사부터는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는 꿈마을어린이공원으로 옮겨서 이어갔다. “지구사랑, 마을사랑, 귀인소풍”이라는 행사 이름답게 친환경 세계 만드는 법이나 자전거 고치는 방법, 절전스티커 배포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식을 소개하였고 지역에서 예술문화 활동하는 주민들의 공연도 열렸다.

6. 귀인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 참여와 반응

주민들은 귀인동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인식한다. 첫째는 귀인동 마을축제나 귀인소풍 같은 행사이고, 둘째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권미연 : 애들 데리고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엄청 좋아했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 주말에 할 게 생기니까. 제일 인기 많았던 게 여기 바로 앞에 민백공원이 있거든요. 큰 게 있는데, 거기서 주민자치회 행사를 엄청 크게 했어가지고 애들이 시장 같은 것도 하고 체험 부스 같은 것도 하고. 비누 만들기, 부채 만들기 이런 거 만들기 체험 부스들 이랑 악기 연주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슨 경품 행사 같은 걸 해가지고 애들이 그게 엄청 기억에 남았는지 다음에 하는 행사를 기다리더라고요.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는 권미연(가명, 40대, 여성)²은 주민자치회의 활동 중에서 귀인동 마을축제 참여 경험을 제일 우선으로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주말에 아이들과 외출할 수 있는 행사가 마을 내에서 열린다는 게 좋았다고 하였고, 행사 부스가 다양하고 경품의 품질이 좋았던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권미연 : 일단 행사가 생기니까 엄마들이 그래도 챙겨서 찾아가는 경우들 많더라고요. 주말에 하니까. 여기서도 하고. 여기가 집 앞이니까 행사한다면 나갈 텐데 그 먹자골목 쪽에 있는 공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거 이제 게시판에 이렇게 붙으면 날짜 봤다가 같이 가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퍼즐 같은 것도 기억이 나요. 애들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도 꽤 있었고.

조사자 : 신문 같은 것도 좀 자주 보셨어요?



귀인소풍 때 제작한 귀인동 퍼즐(안제는 제공)

권미연 :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사자 : 신문이 발행되는데 아파트 내에 신문 들어오는 것도 보셨어요?

권미연 : 경비실 오가다가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신문을 보고 간다기보다 그 게시판이나, 저 같은 경우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안양시에서 보내주는 톨이 있는데, 그걸로 보고 갔거든요.

권미연은 주민자치회 축제를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던 행사로 기억하였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으나 자세히 본 적은 없었고, 오히려 아파트 게시판이나 안양시청의 알림 메시지로 주민자치회의 행사에 대해 인식한다고 하였다. 또한 본인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한 적은 없으나, 귀인동에 거주하는 친정어머니와 샘마을에 거주하는 시부모님은 주민센터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하신 걸 알고 있었다. 친정어머니는 요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데 하루 중 중요한 일과로 여기고 열심히 다니셔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것은 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정작 권미연 본인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였다.

권미연 : ‘왜 내가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관심도가 낮았지?’라고 생각해 보니, 저 앞에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하는 문화센터도 되게 잘 돼 있고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보통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 교회 문화센터로 가는 것 같아요. 교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저희 애들도 교회 문화센터 다녀요.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미술·음악·체육 다 있고, 언어도 있고.

권미연은 인근의 대형 교회에서도 자체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수강료로 제공하고 있어, 교인이 아님에도 자녀들을 교회 문화센터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수강한 적은 없다고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주로 평일 오전과 오후에 집중되어 있어 직장인이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참여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안재은은 직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진행되는 영화제작학교를 운영하였고, 권미연은 주말에도 운영되는 교회 부설 문화센터를 이용한다.

안재은은 귀인동 주민자치신문을 제작할 때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여러 아이디어를 구상하였는데, 귀인동이 학군지로 교육열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 기자단을 조직하였다.



귀인동 지도 퍼즐 맞추기 체험(2023년, 안양시청 제공)

안재은 : 귀인동은 엄마들의 교육열이 높은 곳이죠. 어린이들이 기자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엄마들이 관심을 갖고 엄마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 창간에 도움을 준 친구가 추천해주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했고 그 어린이 기자단의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부모 동아리도 만들었죠. “평촌 같이하는 학부모”라고. 7~8명이 제대로 활동했어요. 네 차례 개최한 귀인소풍에서 친환경 세계 나눔 봉사하고, 또 9월 16일 귀인동 축제 때 포토존을 운영한다든가, 그분들 역할이 컸어요. 그리고 어린이 기자단 아이들과 함께 게임회사인 펠어비스, 안양 쓰레기소각장, 안양시의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안재은의 의도대로 어린이 기자단 소속 어린이들의 학부모는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평촌 같이하는 학부모” 동아리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귀인동 마을축제와 귀인소풍 때 부스를 운영하며 축제 봉사 인력으로 참여 활동을 이어갔다.



제3회 귀인동 마을축제(202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최송아 : 여기 주민자치회 활동 중에 어린이 기자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 기자단을 보고 우리 애도 함께 하면 좋겠다 싶어서 기자단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벼룩시장에 관해 기사를 썼는데,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학부모 동아리 활동 중에 벼룩시장을 좀 같이 결들였어요. 주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접목을 시킨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호회 엄마들끼리 교육도 하고, 새롭게 뭔가를 배웠고, 애들도 방학 때 개별적으로 가기 힘든 곳에 견학도 가고. 그 엄마들이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축제 때 과학 키트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관련해서 친환경 세제 만들기 강습 같은 활동을 주로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자녀의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통해 학부모 동아리까지 참여하게 된 최송아(가명, 40대, 여성)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역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안재은은 귀인동에서 어린이들 그리고 이들의 학부모인 30~40대의 성인들을 고려하여 행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그 어려움은 바로 어린이들의 학업 스케줄이었다.

안재은 : 우리 귀인소풍 할 때도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주말에도 있어서 토요일에 하니, 일요일에 해야 되니 뭐 그런 일이 있었죠. 토요일에는 학원이 있으니 일요일에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월에는 일요일에 했는데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교회도 가고 일요일은 쉬어야 한다고 해서 토요일로 옮겼어요. 결국에는 5월 말 일요일에 하고, 6월·7월과 10월에는 토요일에 했죠.

안재은이 느낀 이러한 어려움, 즉 사교육 일정과의 조율의 어려움은 실제로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부모가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다.

최송아 :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학원 때문에, 토요일도 학원을 가고 있거든요. 예체능을 다 토요일로 뺐어요. 기자단 활동은 4학년 때는 했는데, 이제 고학년이라서. 지난 방학 때 우리 자치회에서 컴퓨터 수업이라든지 기자단을 운영했는데 저는 그때는 못 했거든요. 애가 방학 특강을 대치로 다녀서 못했는데, 다행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엄마들이 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최송아는 자녀가 고학년이 됨에 따라, 주말에도 학원에 가고 방학 때는 서울 대치동에 특강을 들으러 가기 때문에 어린이 기자단이나 주민자치회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그래도 방학 때는 여유가 있으니, 주민자치회에서 방학 기간에 하는 행사를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다.

세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안재은 역시 귀인동의 교육열과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귀인동의 특색이자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는 현재 주민자치회장을 사임했음에도 지역공동체 활동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귀인동의 여러 특징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註

- 1 홍성우, 2022, 「주민자치조직의 제도적 변화와 한계 분석 - 주민 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집 2호, 239~240쪽.
- 2 제보자의 요청으로 이름은 가명 처리.
- 3 제보자의 요청으로 이름은 가명 처리.

제5장

평촌신도시와 환경시설의 공존

황의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수료



1. 평촌신도시의 성장과 환경 인프라의 조성

아파트단지와 상업지구가 빼곡하게 들어선 평촌신도시는 경기도에서 인기 높은 주거지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가는 지하철 평촌역 근처에는 다소 어색한 풍경이 눈에 띈다. 불독 숲은 소각장의 굴뚝이 그것이다.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시설이 시민대로에 바로 접해 있어 지나가는 이에게 생소한 느낌을 준다.

개발 당시에도 평촌 쓰레기소각장의 공장동은 “녹색 그림으로 채색된 거대한 건물”로 “높이가 70여 미터나 되는 붉은색, 흰색의 굴뚝과 대조되는 색감이라 인상적”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¹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소각장은 이와는 또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지금은 ‘자원회수시설’이라 불리는 이곳은 거대하기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흰 벽에 알록달록하게 채워진 그림들로 보는 이에게 한층 친근한 느낌을 준다. 시설의 정문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녹색의 폐기물 수거 차량이 오간다.

자원회수시설은 평촌은 물론 안양에서도 중요한 기반 시설로 꼽힌다. 평촌신도시가 한창 계획되던 1980년대 말, 새로운 거주지구에 들어올 주민들의 생활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신도시 개발은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타 도로 및 상하수도, 쓰레기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해 인구 규모에 비해 기반 시설의 용량 한계로 야기되고 있던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 수단으로서도 추진”되었다.² 적절한 기반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절실함은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와 오염화, 인구 과밀화 문제에서 일찍이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였다.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작업은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과제였

다. 신도시 내에서 사용할 열에너지를 만드는 열병합발전소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을 짓는 것 외에도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건설 역시 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15만 톤에 이르는 규모로 “평촌신도시와 산본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지어졌으며, 쓰레기소각장(현재 자원회수시설)은 신도시 내부에 3,910평(1만 2,943.9㎡)을 할애하여 매일 2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평촌동 897-1번지에 조성되었다.³ 이 가운데 소각장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지역난방 시설에 공급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 및 에너지 이용의 극대화 효과까지 거두”⁴도록 조성된 점이 특징이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함께 지역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발전까지 수행하도록 복합적 기능을 갖춘 기반 시설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기반 시설이 조성된 배경에는 대규모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 신도시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난한 고민이 깔려 있었다. 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오밀조밀한 주거단지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됐다. 새로운 도시의 입주자들은 충분한 녹지로 둘러싸인 집에서 이웃과 교류하며 살 수 있어야 했다. 실제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은 1기 신도시 건설이 지닌 주요 지향 가운데 하나였다. 자연환경과 도시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은 도시설계 과정에서 이처럼 중요한 테마로 여겨졌다고 하겠다.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30년여 이 흐른 지금, 자연환경과 도시공간을 연결하는 데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물론 생활의 면면에 녹아 있는 자연 요소를 모두 ‘자연환경’이라는 단어로 단순히 묶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1기 신도시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자연환경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띠고 나타나는 점이 눈에 띈다. 첫째, 자연환경은 “인간 중심의 쾌적한 도시”⁵ 조성을 위해 녹지 및 광장 등의 공공시설이 조직적으로 마련된 체계를 의미한다. 둘째, 사람들의 정주생활을 지속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자연과 인간이 호흡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폐기물을 처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반 시설의 작동에서 비롯된다. 이때 도시의 자연환경은 자원을 생산하는 장으로서 인간생활의 일차 조건이자, 적절한 기반 시설을 통해 “환경오염의 근원을 차단하여 공해 없고 깨끗”⁶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 기반 시설의 작동을 통해 재구성되는 자연환경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 특히 촘촘하게 계획된 격자형의 구획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신도시 주민들의 경우에는 기반 시설을 통해 도시의 ‘자연환경’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반 시설은 도시공간 내에서 시민들이 배출한 폐기물이나 오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생활의 쾌적함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단순히 오염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되돌림으로써 도시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이 평촌신도시에서 운영되는 방식은 흥미롭게 다가온다.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 기반 시설은 개발 이후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과 항의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여 한산했던 폐기물 처리장 인근이 주거지로 개발될 때는 더욱 그렇다. 평촌신도시는 계획될 때부터 안양시청과 평촌역, 여러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게다가 소각장이 현재 자원회수시설로 이름을 바꾼 채 평촌신도시의 중간부에 완전히 자리 잡은 모양이다. 높게 솟은 굴뚝이 다소 두드러지기는 하나, 자원회수시설은 평촌역을 오가는 사람들과 동네 주민들의 눈에 익숙해지며 지역의 오래된 일부로서 녹아든 듯 보인다.

물론 주민들의 반응은 한 가지로만 수렴되지 않는다. 이 근처에 살면서도 자원회수시설의 존재가 그리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시설이 아무리 오랫동안 운영되었다 해도 영 적응이 어렵다는 주민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평촌신도시 초기

입주해온 주민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소각장을 반대하던 과거의 주민 운동을 여전히 기억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가능성은 없는지 은근한 희망도 비춘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열병합발전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기반 시설과의 동거가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초기의 입주주민들은 소각장의 존재를 적잖이 불편해하곤 했다. 평촌신도시가 목표로 삼은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은 소각장의 작동을 전제 삼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인근 아파트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쓰레기 처리장의 존재는 당황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소각장이 신도시 내부에 들어선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기반 시설이 이 같은 갈등에 직면하면서도 주민들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음이 드러난다.

2. 자원회수시설의 등장과 전개

평촌신도시의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1993년 겨울에 준공되었다. 당시 건설 현장에 함께했으며 지금도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소장 정해운의 회상을 들어보자.

정해운 : 제가 93년도에 (평촌에) 왔으니까. 그때는 이 건너편에 대한전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 오뚜기식당이 인덕원 저쪽 편에 있었고요. 이 뒤쪽은 주거단지가 없었어요. 다 이게 그냥 논밭이었어요. 주변이 다 논밭이었고, 여기 평촌역도 그때 아직 안 생겼을 때예요. 그때가 초창기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와 보니까 여기 부영 아파트하고 한양 아파트는 있었어요. (중략) 현재 백화점 저기도 없었고 여기가 거의 그냥 아직 초기 상태였거든요. 그때 막 시설들이 이제 논밭 있는 부분 다 밀고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맨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안양시에서 여기를 지은 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땅이 이제 이렇게 남으니까, 이 부분에 소각장을 지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었죠.

몇몇 신축 아파트와 공장들만 빼면 ‘아무것도 없던’ 벌판이었다. 한창 진행되던 개발의 흐름을 타고 소각장은 이곳에 들어섰다. 시설은 1993년에 준공된 이래 시운전을 거쳐 다음 해 4월에 가동되기 시작하였다.⁷ 소각장이 가동되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

다. 주변의 여러 아파트단지, 특히 초원마을과 공작마을 입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주민들의 민원이 줄을 이었지만 한 주민의 말대로 “이미 다 갖춰진 도시라 옮기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소각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자원회수시설로 탈바꿈하였으며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의 이면에 갈등만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안양시, 그리고 주민들은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로써 타협점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평촌신도시가 ‘쾌적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이 과정은 도시 공동체 내에서 엇비슷한 모습을 띠고 생겨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례도 될 것이다. 이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싸고 오간 약 30년간의 대화를 따라가 보자.

평촌 시민대로 자전거 달리기(1993년, 안양시청 제공)
안양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초기 모습이 보인다.



1) 평촌신도시에 들어선 자원회수시설

평촌신도시는 수도권의 베드타운이자 안양시 내 업무·행정의 중심지로서 조성되었다. 그리고 신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개발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평촌신도시의 기반 시설 건설이 다음과 같은 방향을 띠게 된 것도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염두에 둔 1기 신도시 계획에 기대고 있었던 측면이 크다. 즉 “자연과 인간이 호흡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Green Energy)를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생활하수와 쓰레기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의 근원을 차단하여 공해 없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 것이다.⁸

평촌신도시와 같이 자원회수시설을 도시의 한가운데 설치하는 것은 다른 신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폐기물처리 기반 시설을 배치했다가 주거지구의 팽창으로 기반 시설과 아파트단지가 인접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평촌신도시는 아예 도시계획 단계부터 지금과 같은 입지가 유지된 사례이다. 이러한 입지에는 속사정이 있었다.

안양시 자원회수시설(201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평촌 소각장 건설 반대 주민 집회(1994년 8월, 이정범 제공)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국토개발연구원 소속으로 설계에 참여했던 안건혁 교수의 말에 따르면, 평촌지구의 동쪽은 개발 전부터 공업지역으로 국도 47번과 연결되어 서울과 통행이 편리하였고, 도로 좌우편에는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개발공사 측은 이 지점에 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을 두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추후 착오로 드러났다. 서울을 떠나 평촌신도시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사람들, 특히 강남을 오가는 ‘반쯤은 서울 사람인’ 평촌 주민들이 소각장 부근의 아파트에 차차 입주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소각장 주변의 공장들은 이 지역의 땅값이 오르자 다른 지구로 차츰 자리를 옮겼고, 이곳은 점차 주거용이나 상업용 부지로 변모하였다. 결국 이 부근의 주민들은 소각장(현재 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⁹

한편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공장과 농업용 토지가 즐비하던 해당 지역에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뒷받침할 만한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신도시 건설에 앞서 안양시와 주도권 갈등을 겪으면서, 평촌신도시 개발에 대한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등 공급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검토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⁰ 그런가 하면 안양시는 개발 권한을 두고 갈등 관계에 놓였

던 한국토지공사와의 개발 협의안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소각과 열병합발전을 병행하는 쓰레기처리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¹¹ 생활 기반 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를 수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래도록 이어진 셈이다.

1989년 5월, 평촌신도시의 개발 사전협의안을 두고 안양시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이어진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안양시가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레기를 연료로 삼는 방식을 채택해 달라고 토지개발공사에 강력히 요구하자 사안은 지역난방공사에 넘어갔다.¹² 이후 안양시와 토지개발공사, 지역난방공사가 협의하여 평촌신도시는 복합적인 폐기물처리 방식을 취하게 된다. 가연성 폐기물은 평촌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의 소각로에서 처리하며, 비가연성 폐기물은 김포 쓰레기 매립지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¹³

그런데 이 같은 결정에 당시 주민들은 불만이 많았다. 당시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소각장 바로 인근에 자리한 부영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한다. 환경단체까지 가세하여 시위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개발 관계자들이 “완성된 소각로를 움직여 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지개발공사와 안양시 측은 견학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각동 건물에 오염물질을 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¹⁴ 자원회수시설이 자리를 잡고 가동되기까지의 배경에는 이처럼 안양시와 주민 간의 부단한 갈등과 협의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국면을 달리하며 반복되기에 이른다.

2) 갈등을 넘어 타협으로 : 주민과 자원회수시설의 관계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은 도시 내부에서 매일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빠르게 수거되어 모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안양시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약 96톤의 음식물쓰레기는 건식 처리 후 사료화하고, 하루 500톤가량 나오는 매립 폐기물은 외부 매립지에 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적환장을 거친다.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매일 20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다.

자원회수시설 측의 주장은,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할 수 있고 매립지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회수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 시설”이라는 설명이다.¹⁵ 소각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증기와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창출한다는 이점도 있다.¹⁶ 자원회수시설 측에 따르면,

다른 시에 비해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은 적은 편이라 한다. 해당 시설은 2022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¹⁷

그러나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처음부터 소각장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굴뚝이 높게 솟은 소각동이 탐탁지 않은 입주주민들이 많았다. 게다가 가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인 1996년,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소각장의 배출가스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¹⁸ 이에 소각장의 인근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평촌소각장비상대책위원회’는 안양시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¹⁹

당시 한 입주자 대표는 언론사 기자를 만나 “소각장, 즉 안양복합화력발전소 문제가 최대 현안”이며 가동 이후 “3,000가구가 악취와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토로하였다. 입주자 대표는 “생활 불편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시에, 안양시와 대화를 통해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여부를 다시 검사하기로 협의하는 등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였다.²⁰ 대립과 갈등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한 거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에 나선 것이다.

준공 이후 약 30년이 지난 지금 평촌 주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주민들의 목소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각장의 첫 가동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근처 주민들의 항의로 보인다. 공작마을과 초원마을의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도 자원회수시설과 그 옆에 붙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불만을 안양시에 제기하였다. 공작마을 부영아파트 노인정을 찾아가면 그 지난한 기억을 지닌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

정민영 : 부림동 발전위원회라고 우리가 있거든요. 평안동이면 평안동, 부림동이면 부림동 다 하고 있어요. 그 열병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사자 : 오랫동안 해오신 거죠?

정민영 : 그렇죠. 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사를 안 온다는 사람 있을 정도로. 그게 아주 미세한 먼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중략) 사실 열병합만 좀 나가 주기를 정말로 바래요. 그래서 열병합만 외곽으로 빠져주면, 이게 우리 흔한 말로 집값이 배가 된다고, 막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재산권 문제니까. 거기를 좀 언급해 주세요.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열병합 그 공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7년 전부터 데모를 시작했어요. 한 3~4년 했어요. 초반까지 했어요. 서울에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난리 났었지 그때. (다른 단지 주민들도) 다 했어요. 우리가 주축이 됐지. 공작 부영이 주축이 됐지. 우리가 의기투합이 잘 되니까 우리 여기를 위주로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



평촌역 주변 오피스텔 옥상에서 바라본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 (200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작이 됐다고 데모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부림동 전체가 퍼지고 이렇게 됐어요. (중략) (다른 할머니들을 가리키며) 여기 다 같이 갔어.

노인회원(여, 80대) : 거기 시청 앞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

정민영 : 우리가 열병합 나가라고 소리치고 팽과리 치고 막 난리 났었어.

현재 70대 후반인 정민영은 2000년대 중반에 공작마을 부영아파트에 입주하며 평촌에 정착하였다. 그 당시에도 소각장에 대한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있었다고 한다. 정민영과 주민들은 2010년에 들어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그 옆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반대 행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도 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도 걱정이었거니와, 이 같은 시설들 때문에 집값이 정체되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정민영은 공작 부영아파트의 주민들을 시작으로 부림동의 다른 주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전개했던 일을 기억한다. 시청으로 행진한 인원은 40명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로 집회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2024년 안양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전경

이러한 움직임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GS파워와 안양시에서 2014년에 발표한 안양시 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2015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이후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환경 문제를 이유로 반대 협의체를 꾸리고 보상을 요구하였다. 집회에는 안양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주변 건물 소유자와 거주민도 여러 명 참여하였다.²¹

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꼭 체계적인 움직임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안양 주민들이 모여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자원회수시설에 관해 우려를 표하는 글이 종종 올라오곤 한다.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시설이 “왜 도시 한복판에 있는지”, 정말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지 묻는 주민도 있다. 이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기는 한다”는 댓글과,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요즘엔 공원처럼 지어서 살다 보면 있는지도 모른다”는 댓글이 섞여 달린다.²² 좀 더 진지한 우려 표명이 나오기도 한다.



안양자원회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200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창문으로 엄청 커다란 굴뚝이 보이는데 쳐다보면 마음이 무거워서 밖을 잘 안 보게 돼요. 예전에 신도시 살 때도 동네에 지역난방 소각장 있었지만 이렇게 큰 소각시설은 안양 와서 처음 봤어요. 비 오거나 흐린 날에는 매캐한 냄새도 좀 나요. 왜 이런 걸 민가 한가운데 지어놨는지. 회사가 옆이니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네이버 카페 『안양 군포 의왕의 모든 것!!』, 2024년 1월 3일〉

반대로, 소각장의 존재가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주민도 존재한다. 민수호(50대, 남성)는 2020년대를 전후하여 평촌에 이주한 후 한 번의 이사를 거쳐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가 평촌에 처음으로 이주한 집은 자원회수시설과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였다.

민수호 :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막 굴뚝에서 계속 연기가 나오니까 저게 너무 유해 시설 아닌가 생각했는데. 얼핏 어디서 봤는데 그게 유해한 게 아니고, 어쨌든 다 정화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죠.

조사자 : 그냥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된 건가요?

민수호 :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데모를 하면서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시설이 꽤 오래 있었어요. 아마 도시를 만들 때부터 있는 자리였다면은 유해 시설인지 여부 이런 거 따지기가 (어렵죠).

민수호의 의견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앞서 살펴본 주민의 토로와대조적이다. 그는 오히려 그런 시설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의견 차이와 열띤 관심을 반영하듯 자원회수시설은 안양시와 주민 간에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2006년에는 안양시에서 한 시의원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가 선거 홍보물을 통해 “평촌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전국 1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의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법정 기준치 이하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해당 후보의 주장을 문제 삼았다.²³ 이처럼 소각장이 가동된 후부터 현재의 자원회수시설에 이르기까지 평촌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둘러싼 각축과 논쟁은 지난하게 이어져 왔다.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책임자이면서 평촌신도시 주민이기도 한 정해운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평안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주기적으로 주민자치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들곤 한다.

정해운 :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는 분명히 다 공감을 하시거든요. 공감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다만 내 옆에는 없으면 하는 거예요. 혐오 시설이잖아요. (중략) 이제 초기에는 여기 문제가, 전체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됐던 게 다이옥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출가스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 기술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도 지금 짓는 소각시설들은 그냥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서 연소될 때 거의 완전 연소가 될 수 있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지어요. 이렇게 짓다 보니까 다이옥신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측정하다가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출 가스가든지 이런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와서 실제 참관해 보고, 이렇게 해도 이게 우려가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산권하고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정해운의 말처럼, 주민들은 공동의 생활에 소각장이 빠질 수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여러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시설은 매일 다량으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기반 시설이다. 평촌





평촌신도시 초원마을 전경

신도시의 주민들은 도시 내부의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쓰레기 적환장과 소각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던 2005년의 겨울날이었다. 매립용 쓰레기가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매립지 반입이 열흘 동안 중단된 데다, 소각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이어져 쓰레기 적체가 심해지는 일이 있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이면서 발생한 악취가 퍼지면서 근처 주택가 주민들은 적잖은 고생을 했다. “냄새가 심하고 비 오면 더하고 파리도 많아서 아주 불편”하다는 호소가 나오기도 하였다.²⁴

주민들 사이에서 자원회수시설의 존재감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아파트단지 와 평촌역 바로 옆에 위치한 낯설고 불편한 존재였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심각한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는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기도 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자원회수 시설을 향한 이 같은 시선들은 1기 신도시가 꺼냈던 문제, ‘깨끗하고 쾌적한 신도시’의 모습을 희망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주민들의 쾌적한 삶이라는 전제를 같이한 채,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대화는 소각시설을 넘어 보다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촌신도시가 개발 당시부터 고심해 온 공동의 문제, 즉 ‘쓰레기 문제’에 어떻게 직면할 수 있는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3. ‘깨끗하고 쾌적한 신도시’를 찾아서 : 폐기물처리 기반 시설의 현재와 미래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보이는 주민들은 적지 않다.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는 정해운 소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걱정에 귀를 기울이고자 애쓰고 있다. 과거 다이옥신 배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시설을 개선하고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정해운 : (시설을 향한 우려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주기적으로 초청을 해서 견학도 이렇게 하고, 또 설명을 이제 꾸준히 드리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민원 부분은 상당히 좀 해소는 된 것 같아요. (중략) 주민들도 견학 오십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좀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잠잠하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 평안동이라든지, 또 동·반장님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내지 좀 길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기 다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주민들께서 필요하시면 또 개별적으로도 모시고 오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따로 그거는 (통계에) 안 잡히지만 제가 또 다 안내를 해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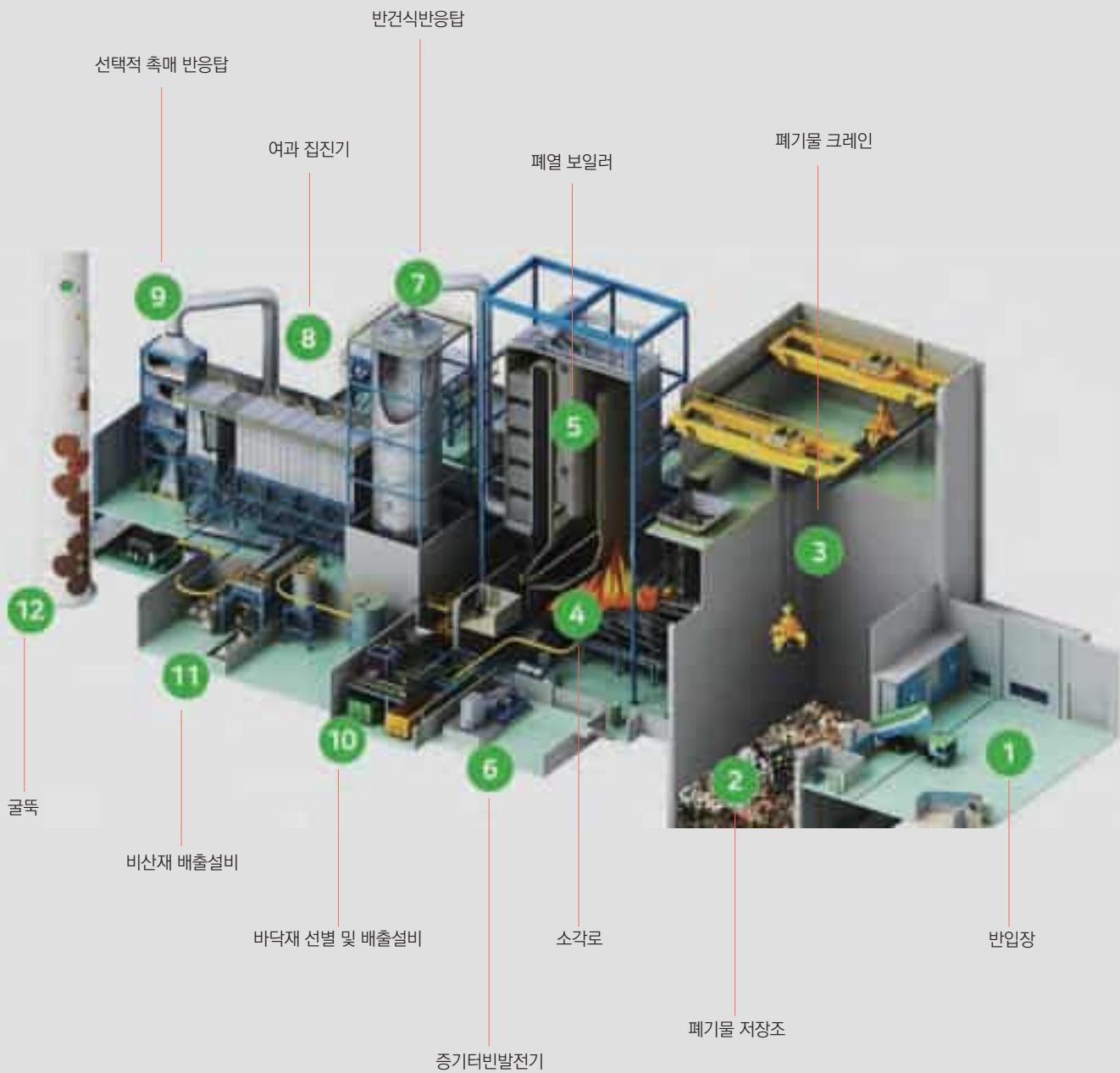


안양시새마을부녀회 자원회수시설 현장 견학(안양시새마을회 제공)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시와 주민 간의 불화가 오랜 시간 이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설을 견학하고 관련된 설명을 직접 듣고자 하는 주민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 간의 협력은 이러한 갈등을 풀고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결과를 낳았다.

단순히 기계 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견학 장소로서 자원회수시설은, 이제 위압적이라기보다는 친숙한 모습을 띠고 있는 듯 보인다. 과거의 소각장은 현재의 자원회수시설로 변모하면서 겉모습을 새롭게 꾸몄다. 본래 소각동은 ‘붉은색, 흰색의 굴뚝을 동반한 녹색의 거대한 건물’로 지어졌으나, 리모델링을 거친 지금은 알록달록한 도형으로 구성된 파스한 느낌의 벽화를 그려놓았다. 이러한 탈바꿈에는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애써온 자원회수시설의 노력이 묻어나는 듯 보인다.

평촌의 소각시설은 안양시라는 더 큰 공동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논의가 결코 시설 이전 문제에 머물러서는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안양시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해 왔으나 2026년부터 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373.12톤이다. 자원회수시설과 자원선별시설에서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자원회수시설 투시도(안양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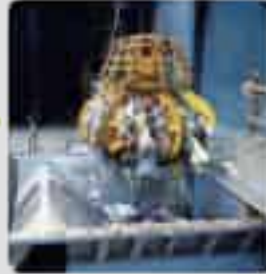
반입장

안양시 전역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폐기물 저장조로 반입



폐기물 크레인

폐기물 크레인으로 폐기물을 혼합 시켜 성상을 균등히 유지



투입호퍼

투입호퍼를 통해 폐기물을 소각로 내로 투입



소각로

최신의 소각기술을 적용하여 폐기물을 완전히 소각



굴뚝

유해물질이 제거된 깨끗한 연소가스가 100m 굴뚝을 통해 기중으로 배출



선택적 촉매반응탑

암모니아 분사후 촉매 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 제거



여과집진기

여과필터에 의해 먼지, 중금속 등이 걸러져 깨끗한 가스배출



반격식 반응탑

액상소석회를 분살여 염화수소, 황산화물 등 산성가스 제거

폐기물 처리과정(안양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제공)



중앙공원에 비치된 캔과 페트병 회수 기기 '네프론'

탓에 45.64톤은 매립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안양시는 새로운 자원선별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하루 1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립하고자 계획 중이다.²⁵

자원회수시설이 전체 쓰레기의 아주 일부만을 소각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평촌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도시 내부의 기반 시설을 통해 말끔하게 처리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 외부 매립지로 매일 옮겨지고 있다.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 역시, 동안구와 만안구의 사설업체에 수거·운반을 위탁하고 있다. 평촌신도시의 주민들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서 이처럼 만안구, 또는 안양시 외부의 다른 지역과 알게 모르게 연결되는 셈이다.

안양시는 최근 들어 시민들이 더 위생적이고도 편리하게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양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RFID 종량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 역시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에 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내놓기 편리한 데다 가정 내 환경이 한층 개선된다며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²⁶ 또한 평촌신도시의 중앙공원을 비롯한 총 15곳의 공공시설에는 페트병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회수 기기가 2021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추고 캔과 페트병을 회수하는 '네프론'이라는 기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을 투입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²⁷ 시민들

이 쉽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시설들은 쾌적한 ‘배출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쾌적한 도시 만들기’를 향한 노력을 살펴볼 때, 평촌신도시를 비롯한 안양 시민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평촌신도시는 개발 과정부터 쓰레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1994년에 평촌신도시 건설 당시 불법으로 매립한 건축폐기물이 대량 발견되는가 하면, 2000년과 2001년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부근에서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결성한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안양시와 한국토지공사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벌인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불법 쓰레기 투기나 허가받지 않은 소각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는 데도 힘을 모았다. 개발 당시부터 평촌신도시가 지니고 있었던 오염 문제는 시민들의 활동에 힘입어 해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²⁸

밝게 채색된 안양자원회수시설 외벽과 굴뚝



1990년대를 다시 돌아보면, 평촌신도시 개발계획은 자족적이며 자립적으로 기능하는 신도시의 건설을 장담한 바 있다. 자원회수시설을 30여 년 가동하고 있는 평촌신도시의 경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재사용하는 문제에서는 상당히 ‘자립적인 신도시’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신도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이 세워지고 운영되는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다. 기반 시설의 입지와 가동 방식을 결정하는 도시 설계자의 의도는 물론, 계속해서 시설을 가동하고 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시 내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경험과 의견이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깨끗하고 쾌적하여 살기 좋은 신도시는 도시 내부의 기반 시설을 통해서만 완성되지도 않는다. 평촌신도시가 그렇듯이 안양시 내부의 다른 지역, 또는 안양시의 경계 너머 있는 다른 지역의 도움을 얻어야만 신도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신도시’를 만드는 일은 쉽게 달성할 수는 없지만 모두의 염원을 담은 숙제로 남아 있다.

註

- 1 한국토지공사, 『평촌신도시 개발사』, 1997, 669쪽.
- 2 앞의 책, 593쪽.
- 3 앞의 책, 241쪽.
- 4 앞의 책, 10쪽.
- 5 앞의 책, 12쪽.
- 6 앞의 책, 10쪽.
- 7 안양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www.anyangre.com>)
- 8 한국토지공사, 『평촌신도시 개발사』, 1997, 9쪽.
- 9 안건혁, 『보당에서 세종까지: 대한민국 도시설계의 역사를 쓰다』, 한울엠플러스, 2020, 89~90쪽.
- 10 한국토지공사, 『평촌신도시 개발사』, 1997, 75~77쪽.
- 11 앞의 책, 91쪽.
- 12 앞의 책, 91쪽.
- 13 앞의 책, 167쪽.
- 14 앞의 책, 669쪽.
- 15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www.anyangre.com/>)
- 16 『안양 평촌역과 '이웃사이' 환경 민원 걱정은 담쌓고 산다』, 『기호일보』, 2021년 6월 21일.
- 17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전국매일신문』, 2022년 12월 20일.
- 18 『목동·평촌·광양 등 쓰레기소각장 인체유해가스 과다검출』, 『매일경제』, 1996년 9월 18일.
- 19 『소각장 가동중단하라』, 『동아일보』, 1996년 9월 19일.
- 20 『“정부는 회피 말고 약속 지켜라” 신도시의 분노 주민대표에게 듣는다』, 『조선일보』, 1996년 2월 14일.
- 21 『안양열병합발전소 인근 주민들 “일방적 공사로 환경피해… 보상해야”』, 『경기일보』, 2016년 3월 29일.
- 22 『자원회수 시설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요?』, 네이버 카페 '안양 군포 의왕의 모든 것!!', 2022년 11월 25일.
- 23 『〈5.31지방선거-안양〉 안양시, 시의원 후보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구』, 『뉴스』, 2006년 5월 29일.
- 24 『적환경 쓰레기로 주민 불편』, 『YTN 뉴스』, 2005년 11월 3일.
- 25 『수도권 매립지 2026년 금지 '발등의 불'… 안양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안간힘』, 『경인일보』, 2022년 7월 6일.
- 26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RFID총량제 확대』, 『아주경제』, 2021년 4월 13일.
- 27 『안양시, 자원회수로봇 '네프론' 50대 설치』, 『인천일보』, 2021년 11월 24일.
- 28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4 살기 좋은 환경도시 안양: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살기 좋은 그린시티』, 2008, 515~516쪽.

04

평촌신도시의 ‘핫(hot) 플레이스’

제1장 배움과 만남의 공간, 평촌학원가와 평촌먹거리촌

제2장 젊음과 문화의 거리, 평촌로데오거리

제3장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평촌중앙공원

제4장 주민들의 힐링공간, 평촌자유공원



제1장

배움과 만남의 공간, 평촌학원가와 평촌먹거리촌

홍수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1. 평촌학원가의 역사와 배경

‘평촌학원가’는 평촌신도시 건설에 따라 평촌고등학교, 동안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등의 학교들이 신설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가 줄줄이 설립되면서 학군지가 형성되었고 교육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원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으며 지금의 평촌학원가가 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서울학원과 필답학원이 큰 성공을 거두며 평촌학원가의 유명세를 이끌었다. 이들 학원은 강남과 노량진의 인기 강사를 초빙해 높은 인기를 끌었으며, 이를 계기로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명문 학원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대형 입시 전문 종합학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단과 및 보습학원들도 증가하여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¹

평촌학원가의 특징은 일산, 대치, 목동, 평촌 등 소위 4대 학원가 중 가장 밀집도가 높다는 것이다. 평촌대로와 귀인로가 교차하는 학원가사거리부터 신기대로와 평촌대로가 교차하는 자유공원사거리까지 학원들이 이어진다. 학원이 밀집된 두 개의 큰 건물 외벽에는 학원명과 전문 과목명이 적힌 간판이 뽀뽀하게 들어차 있다. 다른 지역의 학원가와와는 달리 평촌학원가는 구조적으로도 독특하다. 평촌학원가는 수도권 남부에서 가장 큰 학원가로 자리 잡았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평촌역을 통해 접근성이 좋아 과천·군포·의왕·수원 등 인근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모여든다.



평촌대로 양쪽으로 형성된 평촌학원가



김용환² : 여기 집약도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제가 대치동에서도 수업을 해봤고, 목동에서도 수업을 해봤고, 그다음에 일산에도 수업은 짚아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요 라인, 이 블록 안에 지금 거의 330~340개 정도의 학원이 들어차 있으니까. 대치동은 막 퍼져 있잖아요. 이 평촌학원가 공간은 다 모여 있으니까 집적도가 높죠.

학원가 주변 아파트단지들은 학군과 학원가의 접근성 덕분에 높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으며, 학령기 자녀 교육과 학원 이용 편리성을 위해 평촌학원가 인접 단지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커졌다. 특히, 목련마을과 꿈마을 아파트단지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가 많이 입주하여 평촌학원가의 안정적인 수요를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학원가 주변 아파트단지는 ‘평촌 제1학군’으로 불리며,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이 유입되면서 ‘좋은 주택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졌다. 근방의 주요 학교로는 평촌초등학교, 평촌중학교, 평촌고등학교, 귀인초등학교, 귀인중학교, 범계중학교, 백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들 학교는 평촌학원가의 활성화와 더불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보인다.³

강유라 : 학원가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 아파트단지가 되게 크게 있어. 학원가 근처니까 당연히 집값이 비싸잖아. 그러다 보니 그쪽은 학구열이 엄청 높지. 그쪽이랑 가까운 학교들이 다 애들이 공부를 잘했어. 친구 중에서 외고를 준비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학구열이 좀 있는 편이다 그러면 일부러 지원을 막 평촌중 지원을 하지. 고등학교는 백영고가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왔었어.

김용환 : 많은 사람이 자인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촌학원가가 집값이 좀 높아요. 꿈마을 쪽이 비싸거든요. 꿈마을이 역세권은 아닌데 학원가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또 되게 유명한 초중이 있어요. (중략) 점점 귀인동으로 모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학원가에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귀인중은 학원 명재나 과학교를 대단히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귀인초·중으로 보내려는 경향이 되게 강하죠.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 수요를 주요 기반으로 형성된 평촌학원가는 평촌을 교육 도시로 인식하게 하였고, 수강료도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일부 학생들은 학원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평촌학원가의 수강료가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원이 밀집해 있다더라도 실제 수용력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평촌학원가에는 필담학원·서울학원·청솔학원 등 유명 학원들이 밀집해 있었고,



평촌학원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수가 학원의 수와 규모를 짐작케 한다.

대형 건물에서 많은 학생을 수용했지만, 학원등록을 원하는 모든 학생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태용 : 고등학교 2학년 때 더 이상 학원 안 다니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평촌학원가의 한 달 비용이 지나쳤어요. 한 달에 70만 원이었는데, 제가 고등학생이던 당시 2009~2010년 기준으로 70이면 굉장히 비싼 거죠. 사실 지금 제가 내라고 해도 못 낼 것 같거든요. 당시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교육비를 평균적으로 부담했고, 많게는 140만 원까지 내는 경우도 있었던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비싸 보였어요. 서울학원은 외고나 과고 준비반이 있었고 청솔학원은 부잣집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학원가에서 유명했던 게 필탑학원, 서울학원, 청솔학원. 학원가 들어가자마자 보여서 랜드마크처럼. 그래서 유명했어요. 학원가가 보면 그냥 일자로 쪽 뚫려 있잖아요. 서울학원이 건물을 두 개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았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대치동에 있는 메가스터디를 가봤는데 대치동이 더 싸니까. 대치동은 100~200명 이렇게 강의하는데 시설 수준은 똑같은데 서울은 학생이 너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 시설이 너무 낙후된 것 같았죠. 자리도 100명을 다 앉히니까 너무 좁아요. 인기 강사 강의를 현장에서 듣고 싶어서 간 건데

거의 대기를 한 30분 넘게 했었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식으로 시설 수용력이 낮다 보니까 돈을 비싸게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평촌학원가와 다른 지역 학원가를 모두 경험한 이태용(30대, 남성)은 서울의 학원들과 비교했을 때 평촌학원가가 더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편이라고 했고, 이런 이유가 평촌학원가의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이유라고 분석하였다.

2. 교육열이 만들어낸 명문학군

평촌학원가는 학령기에 접어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되는 교육의 중심지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된 학부모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학생들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입학 시기를 기점으로 평촌학원가에 발을 들이게 되며, 그전에는 주로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있는 소규모 학원에 다니면서 학습의 기초를 다졌다.

평촌학원가에 대한 정보는 주로 학부모들, 특히 어머니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반 학부모 모임,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은 모임을 통해 학부모들은 학원 정보를 교환하며 자녀들에게 적합한 학원을 찾았다. 이러한 부모 간의 친분은 자연스럽게 자녀들 간의 친밀감으로 이어졌고, 친구를 따라 학원에 등록하는 예도 흔했다. 특히 평촌 지역에서는 비평준화 시절의 ‘명문’ 학교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 안양의 고등학교에서는 “관악산을 경계로 가장 가까운 국립대(서울대학교)에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학급 교훈으로 삼자는 농담이 오가곤 한다. 이 농담은 서울 명문대와 지리적 근접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분위기를 반영하며, 서울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습 분위기는 평준화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어머니의 권유와 주변 친구들의 영향으로 평촌학원가에 발을 들인 진형석(30대, 남성)은 당시 평촌학원가가 부모님들 사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평촌학원가는 ‘학원의 메카’로 불릴 만큼 모든 학생이 한 번쯤은 거쳐 가는 곳이었으며, 학업에 큰 뜻이 없던 학생들조차도 자연스럽게 학원가에 다니게 될 정도로 유명하였다. 중학생이 되면 아파트단지 상가 학원을 떠나 학원가의 학원에 다니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구슬자 대부분 큰 고민 없이 평촌학원가에 합류하게 되었다.



‘서울대 의대 합격’을 홍보하는 학원 플래카드(2025년, 김민성 제공)

진형석 : 초4 때쯤에 아파트가 꾸르르 생기고 단지 안에 놀이터가 완전 비가뻐뻐하게 지어지면서 거기서 주로 놀고, 초등학교·중학교 때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평촌학원가에서 학원 다니기 시작했죠. 동네 상가에 있는 유명한 단과 학원에 같이 다니던 초등학교·중학교 애들도 다 평촌학원가 쪽으로 가서 저도 갔죠. 어머니가 하란 대로 영어학원이나 언어 학원 다녔어요. 그때는 진짜로 부모님들이 다 평촌학원가를 보내길 원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아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녹색어머니회를 하셨어요. 그때 어머님들끼리 많이 친해져서 소동이 활발했는데 어머님들이 다 그쪽으로 많이 보내시니까. 그리고 당시에 평촌학원가에 대한 인식이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되게 긍정적이었고 학생들도 거기 따라가는 거죠. 전 공부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공부에 뜻이 없는데도 평촌학원가를 다녔다는 건 학원가가 그만큼 유명했다는 거죠. 왜냐면 모두가 다 알고 거쳐 가는 곳이니깐. 거기는 진짜 학원의 메카였어요. 지금은 음식점도 많이 생겼지만, 옛날엔 진짜 학원밖에 없었거든요.

이태용 : 저는 학원가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다녔고, 평촌학원가를 간 건 관심이 가장 컸죠. 학원가를 다니는 게 거의 당연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친구들 다 있으니까.

안양에서 나고 자란 이영기(30대, 남성)는 만안구와 동안구를 오가며 이사를 많이 다녔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교육을 목적으로 학원가 근처의 아파트단지로 이사하였다. 이는 학원가와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영기 : 나는 명학역 근처 살다가 고천동, 오전동도 살고. 호성초에서 5학년까지 다니고, 이제 정말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6학년 때 범계초로 전학 갔어. 전학해 와서부터 학원가 다녔지. 애초에 전학을 온 이유가 학원이니까 오자마자 학원부터 등록했어. 아무리 봐도 여기 학원가가 이제 매우 잘 돼 있다. 국어를 여기만 다녔는데, 나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 근데 학원가 다니니까 다 해주던데? 여기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여기만 다녔는데 그냥 국어 성적이 잘 나왔어. 내 생각에는 여기는 서울권 제외하고 비하면 경기권 중에서 이만큼 짱짱한 데 없어. 애초에 이음부터가 학원가니까. 수준 높은 편이야.

김광일(30대, 남성)은 교육을 위해 평촌으로 이사 온 경우이다. 당시 많은 보호자가 평촌이 교육 환경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였고,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어 자녀의 교육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학원의 명성과 교육에 대한 열망이 결합하여 평촌학원가는 지역사회 내 중요한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김광일 : 저는 원래 의왕에서 살다 저희 형 공부 때문에 이사를 왔어요. 교육 때문에 이주한 거죠.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의왕·군포 쪽에 비하면 그래도 안양 평촌이 제일 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교육열이 되게 또 그만큼 치열하고 학원가라는 게 또 잘 돼 있으니까. 저는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필담학원이라고 되게 큰 종합학원이 있었거든요. 저 때는 평준화 시대여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제 약간 뽕뽕이로 갔지만, 백명고가 명문이라고 알려져 있던 해요. 면학 분위기가 좋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평준화 때 잘하는 학교였다는 인식이 있어서. 귀인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오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같이 학원에 다니고, 약간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좁은 감이 있죠. 초등학교는 같이 나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가도 학원가에서 만나죠. 아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다 학원가에 다녔을 거예요.

평촌학원가는 학구열이 높은 지역사회와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여건을 갖춘 가정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를 위해 집단으로 노력하는 환경에서 발전하였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자율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습 환경 개선에 힘썼다. 학원가 근처에는 다양한 학원뿐만 아니라 독서실과 문구점, 화방, 떡거리 상점 등이 밀집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조성되었다.

평촌 지역에서 교육 정보력은 주로 어머니들을 통해 형성되었다. 학교 행사나 지역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모임 등에서 학원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들에게 적

합한 학원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구술자들 또한 친구의 추천이나 부모의 권유로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자녀의 일상을 돌보는 동시에, 교육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도 더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이태용 : 워낙에 부모님 사회가 형성돼 있어서, 돈 많은 애들이 학원을 막 움직였어요. 개네들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거죠. 평촌도 중산층 이상이잖아요. (중략)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려는 사회를 많이 형성했죠. 부모님들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보기에든 너무 내놓고 문제를 공유하려고 하거나. 약간 족보 같은 게 돌아갔죠.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위기였죠.

평촌의 학구열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언급하였다. 이태용의 경험에 따르면, 평촌학원가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모이는 곳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특히 외고와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이 두드러졌으며, 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원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준이 요구되었다. 특정 학원들은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했으며, 상위권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심화반을 운영하였다.



이태용 : 학원가는 학구열이나 학업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저희 학생들끼리도 반에서 몇 등 하나에 따라서 경쟁이 심했고, 저는 중학교 2학년까지 외교(외국어고등학교) 대비를 했었고, 중3 때 돼서야 비로소 과고(과학고등학교) 대비를 시작했어요. 외교는 어느 정도만 돼도 다 받아줬는데 과고 대비는 정말 진짜 어렵게 받았어요. 애들을 상대로 성적이 이 정도 안 되면 그냥 당신은 학원 다니 수 없습니다 했죠. 학원에 아예 받아주지 않았어요. 특히 서울학원. 거기는 외교반·과고반 있었는데, 과고반은 들어가는 것부터가 어려웠어요. 영재학원이라고 이제 과고 대비에서는 거의 최고급 학원도 있었어요. 이런 정도의 격차가 있었고, 학원가에서는 우열 자체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레벨테스트를 해서 반을 나누고.

임지윤 : 부모님끼리 네트워크 당연히 있었고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부모가 아닌 것 같고 엄마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관심이 없었고, 되게 학구열이 높았던 동네인 거 맞아요. 왜냐면 제 과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엄마 친구분이 소개해주셨고, 학원 다니면서 과외 하는 애들도 많았고, 대치동 학원가로 라이드를 해주시는 엄마 아빠들도 계셨어요. 아코르타워 빌려서 서울 유명 강사 과외를 했다는 소문도 있었죠. 초등학교 때 같은 동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 주셔서 곧 중학교 가니까 기술·가정 과외를 같이 하자고 했대요. 엄마가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대요. 기술·가정 과외까지는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에.

평촌학원가의 학생들은 과외나 학원 수업 외에도 부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가 생겼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친구 어머니의 권유로 주요 과목 외에 비교과목 과외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 관련 정보력은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자녀의 성공적인 성장과 학업 성취는 많은 어머니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되므로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김용환 : 평촌학원가는 교육열이 엄청 대단해요. 레벨테스트를 보고 수강 가능 여부 결정하는 학원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CMS라는 학원은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준비시키는 학원이에요. 학원에서 독서실도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하게 새벽 2시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위기냐면 CMS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하는 정도예요. 제가 동탄·분당에도 학원 지점을 냈었거든요. 이 평촌학원가는 정말 어머님들이 만나셔서 학원·학교 얘기밖에 안 하세요. 학벌들도 상당히 높으시죠.

김용환은 어머니들의 교육열과 네트워크 역량이 평촌의 학원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자녀의 성적 향상과 입시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학원 선택을 주도하며, 학업 성취도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설정함으로써 평촌학원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평촌학원가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최상위 학원에 보내기 위해 과외나 추가 학습을 지원하며, 같은 수준의 학부모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녀의 학업 성취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태용이 언급한 “족보” 같은 자료들은 해당 네트워크에서 자녀의 성적 향상과 입시 성공을 위해 교육 정보를 독점하거나 공유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정보 공유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이 함께 학원에 등록하게 되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학원가의 학구열이 높은 부모들에 의해 형성된 경쟁적 학습 환경이 조성된다. 학업 성취도와 교육의 질을 중시하는 부모들의 열정이 이 지역을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었으며, 이는 학원가의 경쟁과 높은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겨울 방학을 준비하는 평촌학원가 풍경



3. 밤을 밝히던 학원가의 열기

평촌학원가는 학생들의 학업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서로 경쟁하던 학생들의 모습은 평촌학원가 특유의 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학원의 운영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당시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후에도 학원으로 향했고, 일부 학원은 자정이나 새벽 1시까지도 운영하였다. 독서실과 패스트푸드 판매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던 학생들의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김광일 : 예전에 야간자율학습 끝나고 9시, 10시면 우르르 다 학원으로 갔죠. 그래서 학원가에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지금은 학원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늦은 시간에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밤 12시, 새벽 1시까지도 엄청 많았어요. 독서실도 많아서 늦게까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랑 패스트푸드점에서 먹고 그랬죠.

진형석 : 중학교 때는 이제 한 5시쯤에 집 앞에 픽업 차량이 오면 타고 가서 있다가 한 10시쯤에 끝났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야자를 하거나 학원을 가거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야자(야간자율학습) 빼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애들도 많았고.

고등학교 입학 후 야간자율학습이 도입되자, 야간자율학습을 피하려고 학원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중학교 시절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다. 이태용은 특히 2010년대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이 시행되기 전을 떠올리며, 밤 11시나 새벽 1시까지도 학원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많았음을 강조하였다.

2002년 고교입시 평준화가 도입하기 전까지 만안구 박달동의 안양고등학교가 안양 지역 내 최고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준화 이후에는 동안구에 있는 평촌고등학교와 백영고등학교가 새로운 명문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평촌학원가의 영향이 컸다. 평촌학원가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평준화 이후에도 우수한 학업 성과를 유지하였다.

평준화된 환경에서도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은 치열하였고, 평촌학원가는 이러한 경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열, 지역 학원가의 영향력, 그리고 학군 내의 경쟁이 결합하여 특정 학교들이 여전히 높은 명

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국, 평준화 이후에도 안양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들은 변화에 적응하며 그 명성을 이어갔다.

이태용 : 중학교 때는 언제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제한이 아예 없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에 생겼을 거예요. 제한이 없어서 늦으면 11시, 더 늦으면 1시에 집에 왔죠. 신성고등학교는 들어갈 때 기숙사 선발 전형 반 배치 고사를 봐요. 학생 유치하고 기숙사를 제공하고 특수반 넣어주길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과고 대비하다 떨어진 친구들이 많이 갔죠. 평준화가 됐다더라도 신성고 명성이 있으니까, 특목고 대비하던 애들이 학력고사 1위를 못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다 1지망으로 신성고를 넣어버려서 신성고 명맥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태용은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평촌 학군 내에서의 치열한 학업 경쟁을 생생히 증언하였다. 이는 평준화 이후에도 특정 학교들이 여전히 명문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고교입시 비평준화 시절 안양 지역 명문 고등학교로 인정받았던 신성고등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고 심화반(특수반)을 운영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을 펼쳤다. 특수반 운영은 성적 우수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이었지만, 결국 교육부의 규정에 저촉되어 해체되었다. 이는 당시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준다.



4. 학원가의 성장을 이끈 광고 전략

구술자들은 대부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학원가에 입성했다고 회고한다. 이전에는 단지 상가에 있는 학원에 다녔지만, 중학교 교과과정을 선행 학습하고 다른 학군의 학업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학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부모님의 추천이나 친구의 소개, 그리고 학원들의 적극적인 광고 전략이 학생들을 끌어들이었다. 학교 교문에서 홍보 전단을 나눠주거나 학용품을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스 광고·오디오 광고·지역 방송 광고는 물론, 로고송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안양 지역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학원 로고송은 학생들의 뇌리에 학원명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진형석 : 평촌학원가가 버스 광고를 엄청 많이 해서. 03번 마을버스에는 항상 있었죠. 예전에는 마을 버스, TV처럼 모니터가 걸려 있었거든요. 거기서 학원 광고하고, 부착물도 많고, 예전에는 안양TV에서도 막 학원 광고를 하더라고요. 평촌 양대 산맥은 필탑이랑 영재사관. 그때 둘 다 광고를 엄청 많이 했죠. 예전에 CM송같이 노래도 있어서. 그 둘이 제일 션고, 그다음에 청송학원, 서울학원도 있었지만, 그 둘만큼은 그리 세지 않았어요. 진짜 학원의 메카였어요. 인기 강사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광고가 제일 컸죠.

강유라 : 내가 다녔던 데가 평면조형인데 광고를 엄청 많이 했어. 중학교·고등학교 통학을 하잖아. 그 통학버스에 앉아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그 라인에 광고를 엄청나게 붙이거든. 근데 거기에 평면조형이 항상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미술을 안 해도 모든 학생이 다 알아. 그만큼 광고를 해서 유명한 미술 학원이었어. 그리고 워치도 학원가 들어가자마자 초입에 딱 있어서 건물도 커서 되게 잘 보이거든. 미술을 잘 모른다고 하면은 일단 거기 가보랬어. 거기 말고도 되게 학원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그 건물이 제일 큰 학원이었어.

임지윤 : 저는 수학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수업 듣기 너무 싫는데, 그거 푸시 받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다니는데 학원에서 간식을 준대요. 사리곰탕면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처음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는 공부하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어라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그리로 옮겼어요.

강유라 : 학교 통학할 때 입구에서 홍보 공책 같은 거 나눠주거든. 애들이 그런 거 보고도 많이 와. 그



안양시 마을버스 광고(200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홍보물 중에 내가 봤었던 학원인데, 거기는 EBS 특화였어. EBS 연계율이 되게 높았던 수능 시대였을 때 그 학원은 컨셉을 확실하게 잡은 거야. '우리는 영어 공부보다는 EBS만 판다'고 해서 EBS에 나오는 모든 단어랑 질문들을 그냥 들입다 따. 학원에서 강의를 안 해. 시스템이, 일주일 치의 인터넷 강의를 USB에 담아서 나눠줘. 그럼 학생은 일주일 동안, 단어 일주일 치를 다 외우고 강의 교재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학원에 오면, 학원 선생님께 일대일로 테스트를 봐.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한 거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다 해주는 학원이 잘 없으니까 메리트가 있었지. 지금이야 많겠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희귀했어.

평촌학원가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마을버스의 모니터에서 학원 광고를 방영하고, 부착물과 지역 방송 광고를 통해 학원을 홍보하였다. 건물의 크기로 학원 이름을 각인시키거나 간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학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었던 학원도 있었다. 독자적인 학습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여 주목받은 학원도 있었

다. 학원들은 적극적인 광고와 차별화된 학습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학원가의 발전을 이끌어 갔다.

5. 평촌학원가의 형성과 변화 : 교육 중심지로서의 성장과 도전

평촌학원가는 1998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교육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초기에는 종합학원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단과학원이 생겨나며 학원의 다양성과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곳은 교사나 강사들에게도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많은 강사가 평촌학원가에서 강의하기를 목표로 삼았다. 특히 대치동·목동·일산과 함께 4대 학원가로 불리며, 서울 외곽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원가로 성장하였다.

1996년~2000년은 평촌학원가의 태동기로, 주로 대형 입시학원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설립된 학원들은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며 평촌학원가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2001년~2005년의 도약기, 2006년~2010년의 가속기, 그리고 2011년 이후의 성숙기⁴를 거치며 평촌학원가는 학원 산업의 성장단계를 밟았다.

김용환 : 이 학원가는 대치동·목동·일산과 함께 4대 학원가로 불리면서, 유명 강사들이 서남쪽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어 전문단과 꼴을 만든 고 조진만 선생님이 필탑학원에서 활동하셨던 것까지가 유명 강사들이 강의하던 한계선이었습니다. (중략) 당시 평촌학원가에는 서울학원·필탑학원·영재사관학원 등 큰 학원이 있었고, 나머지 오메가학원·고려학원 등 중소학원들이 단과와 종합반을 운영했습니다. 2004년 즈음부터 전문단과 학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일색이었던 종합반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죠.

특히, 평촌학원가는 전문 학원의 발달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국어·수학·과학 등 주요 과목에 특화된 학원들이 생겨나며, 학생들은 이곳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학원들은 소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원의 위치와 집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안양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고교입시 비평준화 시절 안양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용환은, 결혼하기 전까지 안양에 거주하였고, 2007년 10월 평촌학원가에 국어 전문 학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용환 : 평촌학원가에 진입하는 것은 제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만안구·군포 등 외곽 지역에서 강의했죠. 그러다가 고려학원 중등부 국어를 맡으면서 평촌학원가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원가는 종합반이 대세였고,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것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등부 수업을 받으려면 학원에서 충분한 역량을 보여줘야 했죠. 평촌학원가는 페이도 높고 경력을 고려했기 때문에 '학원가 입성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평촌학원가에서 수업하겠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던 시대였죠.

그는 군 복무 후 1990년대 후반부터 학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평촌학원가로 들어왔다. 당시 평촌학원가는 높은 보수와 경력을 중시하는 환경 덕에 “입성 자체가 어려운 곳”으로 여겨질 정도로 학원가에 입성하는 것은 많은 강사에게 큰 목표이자 전망의 대상이었다.

김용환 : 학생들의 수준이 꽤 높아요. 예전에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명문 학교가 있었지만, 이제는 평준화되면서 그런 명문 학교 개념은 사라졌죠. 그래도 신성고나 안양외고 같은 학교들은 여전히 명문으로 평가되지만, 특목고 입시가 없어지면서 큰 학원들은 많이 사라졌죠. 특목고 입시 때문에 군포, 의왕, 수원, 안산, 광명, 과천 같은 인근 지역 학생들이 학원가로 다 모여들었어요. 좋은 강사들 목이 쉬어가면서 강의하던 시절이었죠. 요즘은 인터넷 강의 같은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큰 학원들이 점점 더 세를 키우고, 중소학원들은 교습소 수준으로 작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 두세 명만 있어도 수학 같은 경우 100명, 150명 정도 모아서 강의하면 수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학원 개원해서 40명, 60명 짝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소규모 학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큰 학원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수학학원 중에서는 학생 수가 1,000명 넘는 곳도 있고, 영어학원 중에선 2,000명 정도 되는 곳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명 정도 유지하는 학원들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큰 학원은 더 커지고, 중소학원은 아주 작게 교습소 수준으로 운영되는 시대가 된 거죠.

김용환의 구술에 따르면, 특목고 입시의 종료로 인해 대형 종합학원이 사라지는 추세이다. 대신 단과전문학원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학원가의 생태계는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강의와 같은 비대면 강의의 확산으로 큰 학원들은 점점 더 규모를 확장해 가고 중소학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과거에는 중소규모의 학원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대형 학원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중소규모의 학원들은 교습소 수준으로 축소되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김용환 : 신문에 저희 전단지 끼워서 배포하는 습지 있었고, 학교 앞 전단지도 하고, 『지역내일신문』이라는 게 있어서 학원 홍보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 경로로 들어오니까, 저희도 인터넷으로 계속 인스타그램에 우리 학원 이모저모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작업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홈페이지는 갖췄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광고하고 있고, 내일신문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학교 앞 광고도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올해 한 번 다시 하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학원을 홍보하는 기회를 잡았어요. (중략)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는 걸 대단히 빨리했어요. 그때 최대 인원을 찍었죠. 아이들 과제 검수도 비대면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게 빠르게 했죠.

김용환은 학원 홍보와 운영에 전통적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신문 전단지와 대면 홍보를 통해 학원을 알렸으나, 현재는 인스타그램·블로그·홈페이지 등을 학원 홍보에 활용한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신속하게 온라인 강의용 장비를 갖추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학원 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과 개인 재정을 철저히 분리하였다. 수익금 가운데 자신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학원 통장에 넣어두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였는데, 코로나19 시기에 힘을 발휘한 것이다.

학원을 처음 개업했을 때, 김용환은 여러 도전에 부딪혔다. 당시 32살의 나이로서 경험 부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학원 홍보와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쓴 덕분에 학원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실제 경영에 반영되지는 않아서 적자가 커졌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김용환은 자신만의 학원 운영 방식을 만들었다. 강사의 직업적 안정과 건강이 좋은 강의로 이어져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강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5년 근속 시 한 달의 안식월을 제공하는 등 직원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학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며, 직원들의 안정감과 헌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원의 이미지와 직원 복지를 고려한 경영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현재는 더욱더 안정된 환경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용환 : 과거 비평준화 시절에는 진학해야 할 학교들이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영재학교나 과학고·자사고 같은 특정 학교를 목표로 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깊게 있게 공부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가 더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중략) 평촌 지역에서는 영재고나 과학고 준비를 몇 살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



레벨 편성 모의고사(2024년, 평촌 메가스터디학원 홈페이지 제공)

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부모님들은 아이가 특별해지길 원하고,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생활기록부의 차이가 일반고와 특목고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니까, 점점 더 일찍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하지만 문장제 문제들이나 사고력 문제들이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을 지도해보니까 그 어려움을 잘 알죠. 그래서 과외나 학원을 통해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옛날 비평준화 시절에는 중학교 수준의 내용만 가지고도 시험 봐서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김용환은 과거와 현재의 교육 환경 차이를 설명하였다. 고교입시 비평준화 시절에는 중학교 수준으로만 고등학교 입시를 치렀지만, 지금은 특목고와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려면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점점 더 저학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용환은 현재의 경쟁적 교육 환경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과도한 준비와 경쟁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김용환 : 처음에 서울대에 학생들을 보내고 싶다. 두 번째부터 서울대를 보내게 됐고. 그다음에 뭐 의대를 보내고 싶다 의대를 보내게 됐고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대나 서울대, 좋은 대학들을 많이 보냈는데 서울대 의대를 못 보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작년에 또 서울대 의대 배출하게 됐고 이런 목표는 이제 학생

들을,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 이게 저는 운영자로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거거든요.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합격증 보내놓고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그런 표현을 좀 써주니까 아주 좋았죠.

김용환은 학원 운영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안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를 확장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학원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김용환은 자신의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어나갔다. 특히, 합격생들의 합격증과 함께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순간은 그의 큰 자부심이자 보람으로 남아 있다. 그는 평촌학원가의 역사와 함께한 구성원으로서, 학원가가 지역사회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6. 평촌학원가의 교통 혼잡과 야간 교습

평촌학원가는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목표에 맞는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평촌학원가를 이용해 본 임지윤(30대, 여성), 조아현(30대, 여성), 김찬영(30대, 남성) 등에게 학원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물어보았다.

임지윤 :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가는 게 일상이었죠.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화 어학원·영어 단과 학원·이지어학원 있었고, 청담어학원·영도·에스·아발론·영재사관 뭐 여러 개 다녔어요.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도 많은데 그때그때 유명한 게 달랐던 것 같고, 좀 자주 바뀌었던 것 같아요.

조아현 : 학원가는 학원만 옹기종기 모여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학생들 태우고 다니는라고 도로에 차가 짙 깔리고, 학생들이 다 나와 있고, 차도에는 버스가 너무 많고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진짜 학원가라는 말이 딱 맞는, 학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

김찬영 : 저는 중3 때 학원 다녔었어요. 종합학원도 다녀보고, 단과는 수학하고 영어만 다녔어요. 그때는 청솔학원이 유명했죠. 제가 고2인가 고3 때, 이제 10시 이상은 수업하면 안 된다는 규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10시면 다 끝내야 했거든요. 그때 집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학원 차가 워낙 뽁뽁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평촌학원가는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유명하다. 특히 밤 10시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는, 왕복 10차선 도로가 학원 셔틀버스·자가용·기타 차량 등으로 뒤엉켜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원 건물에서 썰물처럼 빠져나오는 시간, 도로 가장자리는 학생을 태우려는 차량들로 가득 차 차선이 사실상 마비될 정도로 혼잡해진다.

강유라 : 셔틀버스가 잘 돼 있었어. 안양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셔틀버스를 타고 이리로 오지. 주희(친구)랑 나랑 예슬이(친구)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살았어. 주희는 만안구, 나는 동안구. 서로 완전 삼각형 모양으로 살고 있어. 근데 다 평촌학원가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평촌학원가의 그 풍경이 있었다. 저녁 시간 되면 진짜 그 대형 관광버스 있잖아. 보도블록 옆에 온 학원 버스가 짝 다 줄 서 있어. 근데 워낙 차선을 크게 뚫어놓아서 버스가 그렇게 줄 서 있어도 그런 거치고는 덜 막히긴 해.

학원 야간 교습 시간의 제한이 있던 시절⁵에는 모든 학원이 밤 10시에 수업을 마쳤다. 이후 학원에서 나가는 대규모 인파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교통경찰이 배치되기도 하였다. 수십 대의 크고 작은 셔틀버스와 자녀를 데리러 온 보호자 차량으로 인해 가장



평촌학원가 평촌대로 야경(안양시청 제공)

자리 차선은 매우 혼잡하였다. 특히 대형 학원에서는 버스 입구에서 탑승 인원을 호명하고 출석부에 기록하는 과정이 추가로 시간을 소모하기도 하였다. 학원 차량으로 인한 도로 정체가 문제시되면서 차량 통학 대신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인근 단지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졌다.

학원 셔틀버스는 서울 금천구, 수원, 안산, 산본, 과천, 화성, 오산, 평택 등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운행되었다.

이태용: 제게는 학원가라 하면 그냥 학원이 모여 있는 곳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조금 다르게 인식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동네 학원이라는 것도 존재했잖아요. 거기보다 그래도 한 단계 위에 있는 학원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만 있지는 않았고, 너무나 다양한 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강남 8학군 아이들에 대한 열등감 느끼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 나이에 딱히 쓸모 있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나이에 애들이 겪어야 할 필요가 없는 고통을 많이 느꼈어요.

강유라 : 나는 수원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안양으로 왔어. 수원 살았을 때보다 안양에서 다녔던 초등학교가 훨씬 컸어. 중학교 3학년 때는 전 과목 종합반으로, 그리고 외고 준비하는 반이 있어서 잠깐 다녔었고, 고등학교 때서부터는 미술학원 때문에 갔었지.

평촌학원가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졌다. 이태용에 따르면, 학원가는 단순히 학원이 모여 있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부모님은 이곳을 동네 학원보다 높은 수준의 학원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평촌학원가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기대와 교육열을 반영하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평촌학원가는 학부모들에게는 교육적 기회의 보고로 여겨졌지만,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경쟁과 비교의 압박을 동반하는 장소였다.

강유라(30대, 여성)의 회고에 따르면 수원에서 안양으로 이사하면서 느낀 변화 중 하나는 학교 규모의 차이였다. 수원과 비교하면 안양의 학교가 훨씬 컸다는 점은, 평촌학원가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 환경이 더 잘 갖추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 세대가 안양의 교육 환경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었음을 보여준다.

진형석 :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했던 애들한테는 천국, 그쪽이랑 안 어울리면 지옥 같았죠. 평촌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학업 스트레스로 학생들한테 안 좋은 사건도 자주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밤 12시, 1시~2시까지도 애들이 우르르 나왔으니까. 진짜 거기는 지옥이었지. 교통체증 때문에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도 10시 때는 학원 수업 끝나고 학원 차들이 도로 갓길에 세워두는 게 아직도 많아서. 그게 도로 정체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학원가는 학생들의 학습 의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하였다. 공부 의지가 높은 학생에게는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곳이지만, 원치 않는데도 억지로 수업을 들어야 했던 학생들에게는 고역이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교통체증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겼다. 그러나 평촌학원가가 경쟁적인 분위기와 비교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장소로 여겨졌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7. 평촌학원가 관리형 재수종합반

평촌학원가는 안양 구도심과 인근의 과천·의왕·군포 등을 아우르는 사교육 중심지이다. 1차 학원에 해당하는 대형 입시학원은 강남이나 노량진의 유명 강사들이 출강하며, 양질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촌학원가 입시학원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평촌학원가에 가면 된다'는 신뢰와 명성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노력의 결과이다. 낮에는 재수종합반이 운영되고, 새벽 2시까지 독서실을 운영하므로 평촌학원가에서는 밤낮으로 거리에서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인터넷 강좌가 점점 보편화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대면 교육의 중요성 덕분에 여전히 많은 보습학원과 입시학원이 존재한다.

김○○(20대, 남성) : 산본이나 의왕, 그 외 다른 지역에서 평촌학원가를 약간 원정하러 오듯이 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평촌에서 더 잘하는 애들은 대치를 가고, 산본이나 의왕 사는 애들은 여기로 또 다니고.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평촌학원가로 '원정'을 올 정도로 주목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재수종합반의 운영이다. 이곳에는 인근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수생을 위한 관리형 학원이 모여 있었다.



평촌청솔학원
평촌학원가와 역사를 함께하는 대형 학원 중 하나이다.

송수정 : 재수할 때는 그냥 독서실에서 하다가 혼자 하니까 또 실패했고, 그래서 삼수를 하게 됐다. 그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지. 엄마가 버스에서 평촌 청솔학원 광고를 봤어. 안산 버스잖아. 안산에서 광고를 봐서 가게 됐지. 안산 버스까지 평촌 광고가 있었어. 난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집 앞에서 하고 있었어. 평촌까지 전철로 30분 넘게 걸렸어. 근데 동네 학원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학원은 외부 음식 반입 금지여서 주말에 사감을 피해 빈 강의실에서 살살 먹곤 했지. 우리 그때 핸드폰도 내고 그랬어.

평촌 청솔학원은 안산 지역 버스에서도 광고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송수정(30대, 여성)은 안산에서 평촌까지 전철로 30분 이상 걸려 통학하였다. 자율적 독학 재수의 한계를 느꼈던 만큼, 감시 체계가 잘 갖추어진 학습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수정예 집중관리형 재수학원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 학원은 사감의 관리 감독하에 자율 학습을 진행하고 외부 음식 반입 금지, 핸드폰 제출 등의 엄격한 규칙을 통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이민희 : 나는 과천에 살았는데, 제일 가까운 학원가가 평촌이었어. 과천에는 학원가가 없었어. 학원이 있더라도 재수학원은 없었어. 재수학원은 평촌이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고, 집 앞에 다닐 만한 학원은 많은데 뭔가 재수학원은 학원가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사실 지금 생각하면 셔틀 없으면 못 다니는데도. 주말에는 전철 타고 다녔어. 과천은 확실히 학군이 안 돼 있어. 학원가 다닐 때 느끼는 되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라 좋았어.

이민희(30대, 여성)의 구술은 평촌학원가가 안양 인근 도시뿐만 아니라 멀리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통학할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당 지역에 엄격한 관리형 학원이 부재했다는 것이 자신의 지역을 떠나 다른 선택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당시에는 소수정예 맞춤형 관리와 '스파르타식' 관리형 학원이 유행하였다. 평촌학원가에는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청솔학원, 코나투스 등 유명한 재수 종합학원이 많아 학생들이 몰렸다. 이러한 학원들은 엄격한 관리와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 제공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평촌학원가에서는 이러한 유행을 반영해 철저한 관리와 학습 지도를 제공하였다.

이태용 : 평촌학원가는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이 많은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차별점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양한 성적대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지요. 또 학원가는 나이가 워낙에 다양한 사람이 모이잖아요. 뽕 뜯는 형들도, 범생이 엘리트도 많고. 10대의 모든 나이가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죠.

이민희 : 다른 학원가에 비해 그런 건 있었어. 대성 이런 데는 점수가 높아야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공부를 못해도 들어갈 수 있는 재수학원이었어. 강남, 목동이나 대치동 이런 데는 커트라인이 박냈는데.

평촌학원가는 서울의 주요 학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학 성적 기준이 유연한 편이었다. 일부 학원에서는 입학 상담 때 레벨테스트를 해서 입학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지만, 이는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였다.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재수종합반의 경우, 내부에서 등급별 심화 교육반을 운영하였지만, 학원 등록 당시 성적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성적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학원의 입시 성과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처럼 유연한 입학 기준은 성적 향상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평촌학원가의 이러한 특성은 교육 기회의 평등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 기회의 평등성이란 학생들이 출신 배경이나 현재 성적과 무관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송수정 : 고딩(고등학생) 때는 야자까지 하고 나면 9시였나? 그래서 그때 끝나고 학원 갔어요. 학교 앞에 그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있던 말이야. 그거 타고 와서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에 그 셔틀을 다시 타고 집에 가는 거지. 새벽에. 깜깜할 때 버스가 와서 날 태워 가고, 깜깜할 때 다시 태워서 데려다주고.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이야기하면서 친해졌지. 애들을 가둬놓으니까 화장실에서 얘기하거나 셔틀 타고 가는 길에 겨우 말 붙이고 그랬었어.

강제적으로 조성된 면학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은 친밀감을 쌓았다. 학원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학생들은 다른 학교나 다른 도시에서 온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었다. 특히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연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도 했던 재수학원에서는 이러한 통학버스가 학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또래 문화가 중요한 시기에 학원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버스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원가는 늘 붐비지만, 대학 입시가 끝난 시기에는 비교적 한산해진다. 그러나 예체능 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정시가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의 학원가에서는 미술용품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학원가가 가장 한산한 시기에도 입시미술 학원은 여전히 열기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예·체능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학원가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강유라 :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다 저녁에 오지만 방학에는 학원에 한 13시간 정도 있어. 그때는 이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랬던 것 같아. 미술은 어차피 수능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특강을 시작한 단 말이야. 미술은 수능이 끝나고부터 진짜 시작이야.

강유라의 경험에 따르면,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저녁 시간에 주로 학원에 오지만, 방학 중에는 학원에서 10시간 이상 지내기도 하였다. 미술 입시는 수능이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체능 학생들에게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학생들은 학원가에 온종일 머물기에, 평촌학원가 근처에서 끼니를 해결하였다.



8. 학원가의 거대한 매점, 평촌먹거리촌

평촌대로와 관평로 인근에 평촌먹거리촌 1~10문⁶이 있다. 상업 지역으로 구획된 두 건물에 학원가가 밀집된 곳이고, 뒤로 구획된 곳이 '평촌먹거리촌'이다. 학원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평촌학원가의 추억을 회상하면,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다.

학생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먹는 것이었다. 평촌먹거리촌에는 수많은 음식점이 있어 학생들이 선택의 폭이 매우 넓었다. 가격도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 학생들의 지갑 사정에 맞게 합리적이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추어 주문과 조리 속도가 최적화되어 있었다. 구술자들은 자신만의 기억 속 맛집들을 소개해 주었다.

임지윤 : 학원가 생활에서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닭꼬치도 있었는데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마늘떡볶이는 중고등학교 이 때였던 것 같고. 어렸을 때는 지금은 없어진 떡볶이집이 있었거든요. 지금 타코비 있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하시던 데가 되게 맛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서, 학원 쉬는 시간 10분 안에 사라 가야 했어요. 거기 장사할 때 너무 바쁘니까 돈 그냥 다 넣고 알아서 거스름돈 가져가고 그랬죠.

김정서 : 백영고 다닐 때는 학원가가 바로 내려가면 있으니까, 그 마늘떡볶이 여기는 진짜 학원가의 쏘울(Soul)이다. 그리고 피자스쿨도 진짜 엄청나게 자주 가고.

이민희 : 타코야키가 있었어. 타코비라고 그게 거의 원조 격이에요. 제가 거기서 타코야키를 살면서 처음 먹은 거예요. 동글동글한 타코야키. 근데 거기만큼 맛있는 데가 없어요.

김찬영 : 타코비도 있었고, 그 위쪽에 노부부가 하시는 타코야키가 진짜 레전드였는데. 저는 거기를 많이 갔는데 사라져가지고.

김광일 : 컵밥집, 컵 떡볶이집, 억떡볶이 이런 것들이 유명했고. 상호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닭꼬치집도 있고. 토스트집, 몇몇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용돈을 아주 풍요롭게 받지 않으니까, 보통 학원 선생님들이 배달시켜주면서 수업하다가 피자나 치킨 같은 거 먹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학생들은 학원가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학원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감자튀김을 나누어 먹던 날들, 모의고사를 망치고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중앙공원을 거닐며 감정을 추슬렀던 일, 독서실을 나와 몰래 코인노래방에 갔던 기억들이 남아 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마늘떡볶이는 여전히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태용 : 필립학원가 서울학원 그사이 어딘가에 있던 한솔도시락 되게 유명하고 김밥천국도 많이 갔고. 맥도날드도 많이 갔고.

강유라 : 끼니 챙기는 건 고사하고 밥을 쫓겨서 먹었어. 밥 먹을 시간을 30분밖에 안 줘서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하니까. 평면조형 옆 건물에 맥도날드가 있어. 가깝고, 패스트푸드니까 빨리 나오잖아. 아니면 학원과 가까운 라인에 분식집도 간간이 있거든. 학생들이 금방 후루룩 먹을 수 있게 접시에다가 일회용 비닐 씌워서 담아줘. 한 500원, 1,000원. 추억의 가격이지. 1,000원짜리 떡볶이는 밥이라기엔 양이 적어서 간식이

평촌학원가와 평촌먹거리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다수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평촌먹거리촌'을 검색하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나온다. '평촌먹거리촌 문' 조형물이 세워진 구역은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이다.



있어. 보통 밥은 주먹밥 쪽 라인이 잘 돼. 누루라고 있었는데 후발주자로 좀 늦게 들어왔지. 원래는 주먹밥이 먼저 있었어. 오니기리와 이규동 개네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가. 누루도 인기 많았어. 주먹밥을 누룽지처럼 약간 눌러서 구운 건데 먹기 편하니까. 호일에 싸주거든. 봉구스를 호떡처럼 눌러 구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카페라든지 밥 문제라든지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메뉴를 고민하면서 오늘은 어딜 갈까. 밥때가 되자마자 다들 뛰쳐나가서. 엘리베이터도 못 기다리고 다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 엄청 열심히 허겁지겁 먹고 가끔 특식을 먹고 싶은 날이 있어. 학원가가 대로변에 있고 가운데 도로가 넓잖아. 그 건너편에 있는 밥집에 가려면 진짜 큰맘 먹어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건너가는 거 자체가 이미 큰일이니까. 미리 전화해. “저희 몇 명이 몇 시에 갈 건데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회덮밥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땅 하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 지하로 내려가서 그거 먹고 돌아와. 아주 행복했지. 그거 먹은 날 특식이야, 특식.

학원가 근처에는 학생들이 빠르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식집들이 있었다. 떡볶이, 주먹밥 등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였다. 평촌학원가는 먹거리 실험의 장이기도 하였다. 바쁜 학생들을 위해 먹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메뉴들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시도들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상인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한 빠른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강유라 : 그 시절에는 카페가 많지 않았을 때였잖아. 학원가에는 그래도 꽤 카페가 많은 편이었어. 이디야도 되게 드문드문 있었을 시절인데 학원가에도 하나 있었고. 이디야 가격대가 학생들한테는 비싼 편이었어. 이디야 커피 사 먹었다 그러면 진짜 비싼 커피 마신 거야.

오늘날에는 음료와 함께 콘센트를 사용하며 자리를 잡고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카페가 보편적이지 않았다. 독서실에 식음료를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자습 공간이 아닌 이상 다른 공간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학원가에 카페가 새로 생기면서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카페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아 숙제 하던 모습은 학원가의 일상적인 풍경 중 하나로 기억된다. 엔젤리너스, 카페베네, 커피그루나루 같은 대형 커피숍들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학원가에 활기를 더했다. 당시에는 학생들이 책을 펴고 커피를 마시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들은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학업에 몰두하거나, 잠시 쉬어가며

1문 평촌먹거리촌

1문 평촌먹거리촌



평촌먹거리촌(2024년, 이정범 제공)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이러한 변화는 학원가의 풍경을 더욱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만들었으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과 여가의 방식을 제공하였다.

김용환: 예전에 제가 종합반에서 강의할 때만 해도 11시에 마쳤어요. 학원을 마치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시험 끝나면 무조건 회식 문화가 많았죠. 학원가다 보니 회식하러 가면 학원끼리도 마주치는 데, 건배사 같은 것도 다른 학원보다 크게 외치려는, 본세를 보여주려는 그런 기 싸움도 있었고. 학원이 늦게 끝나니까 11시~12시부터 시작을 하면 끝나는 게 4시~5시고 막 그랬었어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여기 먹자골목이었어요.

평촌학원가는 학생들의 학습 공간이었지만, 학원 강사들이 일하는 곳이기도 하다. 김용환의 회고에 따르면, 학원가의 회식 문화는 학교 시험 후에 강사들이 회포를 푸는 교류의 장이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강사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사우나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회식 자리에서는 고생한 만큼 서로 덕담을 나누고, 강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 후배 간의 유대감도 형성되었다. 다른 학원과 회식 시간이 겹칠 때는 목청 싸움이 벌어



평촌학원가 건물과 귀인로190번길
평촌대로와 귀인로190번길이 만나는 곳에 '평촌먹거리촌 2문'이 있다.

지기도 했으며, 입시 결과에 대한 성과가 직접 드러나는 만큼 강사들 간의 기 싸움도 존재했다고 한다.

9. 평촌학원가의 현재와 미래

안양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평촌학원가를 경험한 구술자들은, 자녀를 평촌에서 키우며 학원가에 보내고 싶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는 평촌학원가가 과거의 교육 중심지에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평촌학원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환은 평촌학원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사교육 과열에 따라 학생들이 점점 어린 나이에 학원가로 유입되는 현상을 염려하였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사교육이 치열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냈

다.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을 생각할 때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과거에 평촌학원가는 학업 열기가 집약된 공간으로, 노량진이나 강남의 유명 강사들이 단과 강의를 열면 학생들이 밤을 새워서 등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2005~2010년에는 평촌학원가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지만, 최근 몇 년 새 인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평촌학원가에서 시작해 성장한 학원들이 군포, 의왕, 안양의 다른 지역으로 분원을 확장하면서, 평촌학원가 자체의 인기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⁷

김용환 : 학생들이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 학원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일 거예요. (중략) 지금 출생률의 저하는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아주 큰 위기예요. 이게 점점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이들 자체도 한곳으로 모이겠죠. 그럼 폐교가 되는 학교들이 서울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안양도 나오죠. 만안구부터 나올 거예요. 학원계는 지금 큰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느냐, 사실은 원장님들이나 학원 관련자, 관련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죠.

김용환은 학원가의 미래를 전망하며 만안구의 학교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학생 수 감소로 안양서여중이 폐교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원업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원 원장이나 관련자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며,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안양과천학원연합회는 소속 학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용환 : 현재 연합회는 '안양과천학원연합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과천이 연합회 구성이 어려워서 안양시 산하로 들어온 상태고, 원래는 '안양시학원 연합회'였죠. 저는 보습 분과장이고, 입시 미술·아동 미술·음악·외국어 분과, 과천 분과해서 총 6개 분과가 있어요. 현재 200여 개 학원이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고, 학원 원장님들의 권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조직이에요. 안양시 수강료가 수도권에서 제일 낮은 상태라서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연합회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코로나 때는 방역 물품을 지원해주고, 정보도 계속 공유해 주셨죠. 또, "꿈 쏙 사업"이라는 걸 통해 안양시와 연계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 봉사도 하고 있어요. 학원 원장님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 집행부가 특히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챙겨주고 있어요. 설명회 개최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있고요. 되게 노력을 많이



평촌학원가

하고 계세요.

저출생에 따른 교육 수요 감소는 평촌학원가의 미래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여전히 평촌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학군과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매우 긍정적이다. 학군의 명성과 학원가의 발전은 지역 사회의 교육적 야망과 결합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평촌학원가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註

- 1 한영은, 2013, 『안양시 평촌학원가의 교육 서비스 실태 및 공간 범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쪽.
- 2 평촌학원가에서 국어학원 운영.
- 3 앞의 논문, 31쪽.
- 4 앞의 논문, 18쪽.
- 5 야간자율학습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야간까지 교내에서 자습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0년대 사교육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퍼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발적인 학습을 가장한 강제성이 있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2017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일부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부활해 시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논란이 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야간자율학습 폐지"』, 『YTN』, 2016년 6월 29일; 『'야자·0교시' 부활 조짐...영령이 붙이고 있으면 공부 습관 생긴다?』, 『중앙일보』, 2023년 3월 19일)
- 6 지도상 4문은 찾을 수 없다.
- 7 한영은, 2013, 『안양시 평촌학원가의 교육 서비스 실태 및 공간 범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쪽.

제2장

젊음과 문화의 거리, 평촌로데오거리

윤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1. 평촌의 로데오거리, 어제와 오늘

지하철 4호선 범계역 2번 출구로 올라오면 수많은 인파로 활기찬 평촌로데오거리를 마주할 수 있다. 방금 하교를 한 듯 교복 차림에 책가방을 둘러맨 채 지나가는 학생들, 엄마 손을 꼭 잡고 가게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아이들, 신한은행 앞에서 시계를 쳐다보며 친구를 기다리는 청년들까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변화가를 찬찬히 살펴보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이들이 한데 모여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된다. 수많은 행인을 뒤로하고 길 건너 범계역 광장으로 눈을 돌리면, 버스정류장 뒤로 ‘뉴코아 아웃렛’과 ‘롯데백화점’이 들어서 있고 대각선 방향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범계역 2번 출구부터 일자로 쭉 뻗은 거리 양편에는, 도시가 지나온 세월을 보여주는 울창한 가로수와 다소 낮은 상가 건물 층층이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가 즐비해 있으며 그 위에는 크기가 다른 간판이 빼곡하다. 범계, 범계로데오,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곳, ‘평촌로데오거리’는 평촌을 넘어 안양의 중심가로 발돋움하였다. 사람들은 ‘평촌로데오거리’ 대신 ‘범계’·‘범계로데오’라고 부르고 있으나, 명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촌로데오거리’로 통일함을 미리 밝힌다.

평촌로데오거리의 형성은 평촌신도시의 건립과 맥을 같이 한다. 안양 구시가지와 연계된 평촌신도시는 도시구조의 균형적 재편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가운데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1기 신도시이다. 1990년 아파트 분양 초기에는 평촌신도시가 여타 신도시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기존의 안양 도심과 인접한 덕에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에



평촌신도시 건설 당시 현재 범계역 일대 모습(안양시청 제공)

서 당시 가장 인기가 좋았던 분당에 버금가는 1차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을 선보였다.¹ 그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에 더하여 시청, 경찰서, 법원, 우체국과 같은 굵직한 행정 시설이 대폭 이전된다는 소식은 평촌신도시의 매력을 더욱 상승시켰다.² 그러나 1992년 설레는 마음으로 평촌신도시에 발을 디딘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공사장 흙먼지였다. 한창 입주가 이루어지던 시기였음에도, 병원·약국·상가는커녕 당장 아이들이 등교할 학교조차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다.³ 이에 평촌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은 하나의 도시가 완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삿짐을 싣고 온 차량과形形色색의 입주 환영 현수막으로 활기를 띠고 있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평촌로테오거리의 자리는 여전히 논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9년 경기도 화성에서 안양으로 올라와 호계동 구군포사거리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범계로테오상인연합회 방극숙(60대, 남성) 회장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평촌로테오거리는 상권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하였다.



2024년 범계역과 평촌로데오거리 일대

방국숙 : 안양에서 상권이라고는 안양 1번가와 구사거리가 상권이 제일 번성했던 시기예요. 범계로데오는 생긴 지가 지금 32년 정도 됐나 그럴 거야 아마. 그전에 여기는 상권이라고 볼 수 없고. 논밭이었으니까. 92년 정도에 아마 (입주가) 다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 여기 1층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들도 분양이 안 돼서. 상가가 뜨문뜨문 있었는데, 이제 활성화가 제대로 시작된 것은 그래도 (평촌로데오거리가) 생기고 한 10년 후인가부터 활성화가 좀 됐죠.

실제로 평촌신도시의 초창기 입주를 다룬 한 기사는 “슈퍼마켓 한 곳이 단지 내 지하에 문을 열었을 뿐 56개 상가 건물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아 입주자들은 당분간 인근 안양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등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⁴ 그중에서도 오랜 세월 안양역을 중심으로 각종 식당, 유흥주점, 상점들이 모여 형성되었던 안양1번가는 평촌 주민의 소비 생활을 톡톡히 책임졌다.

평촌로데오거리의 시작은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평촌신도시의 중심상업업무지역은 범계역과 별말역⁵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해 상업시설을 입지시켜 쇼핑몰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지하철 역사·공원·녹지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보행자 전용도로는, 입지여건 및 장소별 활동 특성에 따라 보행·진출입·휴식과 만남·전시와 공연 등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⁶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백화점을 세우기 위해 앞다투어 부지를 사들이고,⁷ 1994년 서울과 평촌신도시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과천선 전 구간이 개통⁸한 것은 범계역과 별말역 주변 중앙로 상권 개발이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범계역 근방에는 ‘뉴코아백화점’과 ‘세반유통’이 개장하고 중·소형 상업용지가 전량 매각되었으며,⁹ 별말역 근방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산업은행·농협·법원·안양시청 등의 공공기관이 줄지어 입주할 예고하였다.¹⁰ 거리 틈틈이 각양각색의 가게로 채워 넣으며 소비 공간으로 이용되던 평촌로데오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2003년 안양시가 계획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의해 범계역부터 평촌중앙공원 맞은편 상가가 한데 묶여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다.¹¹ 범계역부터 약 357m 구간이 5개의 테마 광장과 5,000여 그루의 나무로 뒤덮였으며, 범계역 만남의 광장에는 ‘빛과 영혼을 찾아서’라는 조형물이, 바로 옆 이벤트 거리에는 무지개 색상의 아치 모형이, 중앙광장에는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야외무대가 설치되었다.¹²

그러나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행정상의 지명은 크게 와닿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평촌에서 나고 자란 강지원(20대, 여성)은 실생활에서 해당 거리를 ‘범계로데오거리’ 혹은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으로 불러본 경험이 없다고 말하였다.

강지원 : 원래 거기가 아웃렛이랑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NC, 뉴코아아웃렛이랑 NC백화점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데 식당 안에서 먹는 거 말고 약간 좀 다양한 걸 먹고 싶을 때는 로데오거리 가서 먹고. 그리고 쇼핑을 하러 백화점이나 이런 데로 넘어간다거나 그랬던 동네였고. 사실 저는 로데오라는 이름도 성인이 되고 나서 알았던 것 같아요.

조사자 : 다른 친구들한테 로데오거리에서 많이 놀았냐고 물어보면 그 로데오거리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강지원 : 왜냐하면 우리는 “범계역에서 보자”, 아니면 “(안양)1번가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막 “범계로데오에서 봐” 이렇게 말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강지원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14년간 평촌에서 거주한 권용홍(60대, 남성) 또한,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위치

평촌로테오거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고개를 갸웃하며 그곳이 어디쯤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조사자가 범계역과 평촌역 사이의 변화가라고 설명하자, 그제야 이해했다는 듯 자신은 그곳을 평촌로테오가 아닌 ‘중앙공원’이라 불렀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평촌 주민 사이에서 평촌로테오거리는 ‘범계’·‘범계역’·‘중앙공원’과 같이 그들끼리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2000년대 초반의 평촌로테오거리로 돌아오자.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한 평촌로테오거리는 그야말로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여러 지역에서 장사를 이어가다가 2005년 평촌로테오거리에 정착하게 된 방극숙은, “이곳에 처음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24시간 장사도 잘 됐다”라며 “업종이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화되어 있어 시민이 이용하기 좋았다”라고 그 시절을 떠올렸다.

방극숙 : 그때 당시에는 게임방도 있었고, PC방 말고 게임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유흥업소도 있었고, 또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업소들도 많았고, 지금은 젊은 층들이 이용하는 업소들만 주로 있는데, 그전에 그래도 이 근방에 직장인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메인 말고 뒷북쪽들은 대부분 다 자그마한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어른에 맞게끔 또 여러 가지 맞는 그런 컨셉으로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로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 컨셉으로 다 맞춰져 있는 거지.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형물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평촌로테오거리 상가 곳곳에는 소규모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어 점심시간과 퇴근 무렵이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덕분에 평촌로테오거리에는 직장인들에 맞춘 유흥업소와 식당이 성행하였고 상인들은 손님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2010년대에 휴대폰 대리점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평촌로테오거리의 상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이 호객 행위에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마구잡이로 올려 부르면서 임대료가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그 결과,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 상인들과 사무실들은 하나둘 터전을 떠나야 했는데, 가장 먼저 소규모 사무실들이 자리를 비웠다.

평촌로테오거리의 소비를 책임지고 있던 사무실과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떠나자, 개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프랜차이즈뿐이었고, 유명 프랜차이즈가 대거 입점하자 이를 선호하는 청년층이 자연스럽게 몰려들었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던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와 청년들의 틈 사이에서 견뎌낼 방도가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촌로데오거리의 ‘젊음의 거리’라는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으나, 방극속은 오랜 세월 함께했던 동료와 추억의 가게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방극속 : 성인들이 없어지고 젊은 층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양화도 없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에 맞추다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또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으로다 10년, 20년씩 해서 요식업을 했던 사람들도 견디다 못해 그냥 다 떠나고 그랬어요. 지금도 오래된 사람들은, 지금 스타벅스 있는 자리에 보면 ‘늬뵈골’이라고 고깃집이 크게 있었거든. 그때는 우리처럼 한 20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늬뵈골’하면 그래도, 안양에서 택시가 ‘늬뵈골 가주세요’ 그러면 그쪽에 딱 세워줄 정도였는데. 그런 맛집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2. 로데오거리, 젊음의 거리로 자리 잡다

201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주요 고객층과 업종의 변화는 평촌로데오거리가 명실상부한 ‘젊음의 거리’로 탈바꿈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청년들이 평촌로데오거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이 부여하는 명칭과 의미가 중요해졌다. 평촌로데오거리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그 범위는 행정적으로 구성된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평촌로데오거리는 범계역과 평촌역 사이에 조성된 변화가를 의미하지만, 청년들이 평촌로데오거리라 칭하고 즐겨 이용하는 구역은 범계역 부근에 한정된다.¹³ 그에 반해 평촌역은 범계역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직장인들이 모이고 상가 또한 유흥업종과 회식에 걸맞은 식당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덧 50대에 들어선 김태우(50대, 남성)는 범계역과 평촌역이 서로 닮아있으면서도 그 경계가 분명하게 느껴진다고 말하였다.

조사자 : 평촌에 계시면은 주로 어디에서 노세요?

김태우 : 평촌역.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촌역과 범계역이 거의 똑같아요. 역을 두고 스트리트 쪽 이렇게, 상가 건물들이 짝 있어요. 역으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쪽에도 상가 건물이 짝 준비해 있고. 음식점들이. 역을 나오면은 이쪽에서 짝 있으면은 거기 음주가무를 할 수 있는 이 변화가들이. 그래서 평촌역도 자주 가고 범계역도 자주 가고. 그런데 좀 다른 게, 분당하고 비슷한데요. 평촌역 근처에 주류, 거기 음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주할 수 있는 거리는 좀 어른들이 많이 가요. 법계역은 젊은 층들이 많이 가요. 좀 나뉘었어요.

실제로 청년들은 법계역과 평촌역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한 승원(20대, 남성)은 28년을 안양에서 보낸 토박이지만 평촌역에 방문한 것은 손가락에 꼽는다고 한다. 자신이 평촌로데오거리를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과 맛있는 식당에 방문하기 위함인데, 평촌역의 경우에는 유흥가에 더 가깝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자의 목적과 원하는 조건에 맞는 거리를 찾아 청년은 법계역을, 중장년층은 평촌역을 방문하다 보니 미관광장을 가운데 두고 두 지역의 구분은 더욱 견고해져만 갔다.

높은 임대료는 기존의 자영업자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유명 프랜차이즈로 메꿔냈다. 청년층은 이들 프랜차이즈를 이용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평촌로데오거리는 점차 모두를 위한 거리에서 청년들을 위한 거리로 변모하게 되었다. 주요 고객층이 청년으로 교체되자 평촌로데오거리의 상인들은 새로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만 했다.

평촌로데오거리에서 25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온 강미정(50대, 여성) 또한 마찬가지였다. 2000년대 초반에 강미정은 산본역·인덕원역·안양1번가 등 주변 상권을 두루 둘러보았지만, 평촌로데오거리만큼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없다고 생각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평촌로데오거리 주변의 사무실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을 겨냥해 분수대 앞쪽에 백반집을 열었다. 그러나 점차 사무실과 직장인들이 빠져나가자 백반이라는 종목으로는 도저히 청년들을 끌어당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깊은 고민 끝에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매운 주꾸미볶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2017년 평촌로데오거리 끝으로 자리를 옮겨 '용두동 주꾸미'를 개업했는데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워낙 매운 음식이다 보니 노년층은 못 드시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평촌로데오거리 방문객 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선택한 덕에 지금은 단골손님도 제법 찾아오는 식당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청년들의 취향에 따라 변화하는 평촌로데오거리의 경관은 상인에게나, 이용객에게나 확실히 체감되는 부분이다. 특히 눈에 띄게 늘어난 업종은 바로 '감성 카페'이다. 2010년대 김정서(30대, 여성)가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평촌로데오거리는 나이대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술집과 고깃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김정서가 20대 중반에 접어든 시점이었다. 개인 카페는 커녕 스타벅스도 한 곳밖에 없던 평촌로데오거리에 3개의 프랜차이즈 카페(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할



범계역 부근 로데오거리



평촌역 부근 로데오거리

리스)가 들어섰고, 특색 있는 인테리어로 내부를 꾸민 개인 카페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당시 문을 연 개인 카페의 가장 큰 특징은 상가 건물의 2~4층에 위치해 넓은 평수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1층이 위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높은 임대료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

한승원 : 제가 20살 초반까지만 해도 범계하면 스타벅스 이런 느낌이었는데, 개인 카페들이 한 23, 24살쯤인가? 그때를 기점으로 엄청 많이 생겼어요.

조사자 : 인스타그램이 핫(hot)해진 게 변곡점인가요?

한승원 : 오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4, 5살쯤에 맛집 블로그랑 인스타를 했었는데 그때 범계에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어요.

조사자 : 근데 이 범계가 특이한 게 원래 보통 카페는 1층을 선호하잖아요. 이렇게 층이 잘 보이고. 근데 범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건물에 층층이 끼어있는 거예요.

한승원 : 맞아요. 감히 카페의 수익으로는 1층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로데오거리에는 사람도, 가게도 워낙 많다 보니 상인들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그중 하나가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었다. 최근 청년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방문할 가게를 미리 검색하며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마케팅에 힘을 쓰는 것이다. 이에 상인들은 굳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면서까지 대로변 1층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고,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저렴한 지하층이나 2층 이상 층등을 선택하게 되었다. 덕분에 평촌로데오거리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있어 가게들이 건물 틈에 숨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며, 카페를 이용할 때는 보이는 곳이 아닌 검색을 통해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처럼 평촌로데오거리의 새로운 주류인 청년들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거리의 풍광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안양 시민의 삶에 녹아든 로데오거리

1990년대생인 30대 초반의 김정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대전에서 안양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평촌신도시 근처 호계동에 살고 있다. 범계초등학교와 범계중학교에 다닌 김정서는 ‘자연스럽게’ 평촌로데오거리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워낙 학교와 거리가

가깝다 보니 교내 동아리 활동과 봉사는 모두 범계역 부근에서 이루어졌고,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면 친구들과 평촌로데오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식빵과 생크림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뉴코아아웃렛 10층에 있는 ‘애슐리’에서 원하는 메뉴를 마음껏 골라 먹은 뒤,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20대 후반인 강지원도 평촌로데오거리 곳곳에 학창 시절의 추억이 스며 있다. 강지원은 친구와 평촌로데오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할 때면 범계역 3번 출구의 신한은행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범계역 2번 출구로 나오면 거리로 바로 이어지긴 하지만, 계단을 오르기 싫어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3번 출구로 나가 신한은행 ATM 창구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친구를 기다렸다. 친구와 팔짱을 끼고 거리를 확보하며, 당시 유명했던 로드숍 화장품 가게인 ‘에뛰드, 이니스프리, 미샤’를 방문해 화장품을 구경하고 보세 옷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5천 원짜리 반소매 티셔츠 한 장을 사 입으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쇼핑이었다. 지금은 ‘CGV’로 바뀌었지만, 그 시절에는 ‘프리머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평촌로데오거리는 여전히 이들의 만남의 장소였다. 김정서는 20대 중반까지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들과는 서울과 수원에서, 동네 지인들과는 평촌로데오거리에서 만났다. 20대 후반에 접어들며 로데오거리에 이른바 ‘감성’을 테마로 한 음식점·카페·술집들이 들어서자 다른 지역 지인들에게도 당당하게 범계역으로 올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강지원도 타지에 사는 친구들에게 거리낌 없이 평촌로데오거리로 놀러 올 것을 권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덕분이었다.

강지원 : 교통이 좋거든요. 솔직히 강남까지 30분밖에 안 걸리고, 지하철 바로 근처에 한 정거장만 가면 1호선도 있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 직행으로 가는 것도 있고. (중략) 약간 경기 남부 쪽, 수원 사는 친구들이나. 그래도 강남에서 볼 수 있을 경기도민 친구들이면 안양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평촌로데오거리를 기준으로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면 30분 만에 서울 진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원·과천·광명 등 주변 지역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가 다수 배치되어 있으며, 많은 안양시 버스 노선이 범계역을 지나므로 누구를 만나든 이만한 장소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른바 ‘핫(hot)’한 프랜차이즈는 결국 평촌로데오거리로 들어오





범계역 2번 출구와 신한은행



평촌로데오거리 민·관·경 합동 순찰 및 캠페인(201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기 때문에 굳이 서울까지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게 강지원의 생각이다. 그는 한창 인기 있었던 프랜차이즈 식당을 예로 들며, 서울에서는 반드시 대기해야 하지만 평촌로데오거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적당히 맛있는 식당과 카페 그리고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는 평촌중앙공원은 이 작은 거리에서 “웬만한 액티비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촌로데오거리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4.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평촌로데오거리 만들기

평촌로데오거리는 분명 안양, 특히 평촌 주민에게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간인 것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주 고객층이 직장인에서 청년층으로 옮겨가면서 거리의 분위기가 한층 활기차게 되었다. 청년들의 밀집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김정서는 평촌로데오거리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가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유행에 따라 갑자기 생겨났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가게들이 워낙 많은 탓이기도 하고, 평촌로데오 거리에 비슷한 업종의 가게가 많아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평촌로데오거리의 성격은 주민들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서 : 근데 이게 없어져도, 또 다른 대체가 생기니까. (중략) 굳이 이게 없어졌다 해도 좀 아쉽다?

그럼 다른 데 알아볼까 해도 다른 데 갈 데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굳이 막 그런... 계속 생기니까.

김정서는 혹여나 자신이 자주 가던 가게가 사라져도 비슷한 업종으로 대체 가능한 가게가 많았기 때문에 크게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범계역을 지켜왔던 NC백화점이 사라졌을 때도 뉴코아아웃렛이나 롯데백화점이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정서는 물론 그 주변 지인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주민들은 거리의 변화무쌍함에 무더질 뿐만 아니라 단골가게 하나 만들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평촌로데오거리 또한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낼만한 상징을 선불리 제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한편, 청년층 유입과 함께 상가 건물의 노후화는 평촌로데오거리의 위생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김정서는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거리가 이렇게까지 더럽지 않았으

나 청년층을 겨냥한 가게가 많아진 만큼 20대 초반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거리 곳곳에서 담배꽂초와 토사물 등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이런 흔적은 거리를 넘어 상가 건물 내부까지 확장되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계단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며, 설상가상으로 건물들이 오래되어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잘못된 이용 행태는 여성들의 행동반경에도 제약을 준다. 실제로 평촌로데오거리를 방문하는 많은 여성 고객은 상가 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편이다.

강지원 : 몰카(몰래카메라)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안양) 1번가든 범계든 약간 다 그런 게 있었어요. 한때 진짜 화장실 몰카 사건 엄청 유명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때 막 범계에 그냥 상가에 있는 화장실들은 사실 누가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데 보면 진짜 몰카 구멍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안 가게 된 게 아닌가. 좀 더럽기도 하고 약간 으스스하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상가 자체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김정서 : 화장지는 당연히 없고. 기본적으로 좁고, 되게 좁아요. 칸이 되게 좁고. 그리고 변기가 더러워요. 기본적으로 변기는 무조건 더럽다.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누 없는 데도 거의 대부분이고. (중략) 웬만하면 (화장실을) 안 가거나. 그래서 카페도 스타벅스나 약간 그런 프랜차이즈나 백화점.



로데오거리를 청소하는 상인들(2025년, 범계로데오상인연합회 제공)



범계로데오상인연합회 화장실 개방 홍보(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공)

강지원과 김정서의 말처럼, 여성들은 “걱정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스타벅스나 롯데백화점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김정서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카페 내부에 화장실이 있으면 훨씬 자주 이용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범계로데오상인연합회’는 여성 방문객들이 겪는 고충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평촌로데오거리의 상가는 건물마다, 층마다, 호수마다 소유주가 달라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상가 관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화장실 리모델링을 진행하려면 해당 상가의 모든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지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보니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에 방극숙은 안양시 지원을 활용하였다. 화장실 개선사업을 통해 모든 건물의 1층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전면 개방하고, 매년 5개의 화장실을 지정해 200만 원씩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명 경관등 사업, 가정의 달 어르신 짜장면 무료 나눔 행사 등 상인과 주민 모두를 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방극숙 회장은 “안양의 얼굴”인 평촌로데오거리가 “안전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누구나 벤치에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거리”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각별한 애정을 전하였다.



평촌로테오거리

평촌 주민들에게 평촌로테오거리는 각자의 추억과 의미가 깃든 공간이다. 비록 지금은 서울로 이주하였지만, 강지원에게 평촌과 평촌로테오거리에서 보낸 시간은 여전히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김정서도 평촌로테오거리가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으며 더 이상의 발전과 변화보다는 “지금처럼만 잘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승원은 평촌로테오거리에 대해 “좋은 건 다 여기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간혹 안양에 할 것이 있냐고 묻는 다른 지역 지인이 있을 때면 그를 범계역으로 초대해 직접 눈으로 그 위상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렇게 평촌로테오거리는 언제나 늘 같은 자리에서 평촌은 물론, 안양 시민에게 따뜻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註

- 1 「坪村 安養의 새 다운타운 꿈꾼다」, 『매일경제』, 1990년 6월 28일.
- 2 「自然환경·基盤시설 저마다 "최고" 신도시名物」, 『매일경제』, 1990년 11월 27일.
- 3 「坪村신도시 入住시작」, 『동아일보』, 1992년 4월 2일.
- 4 위의 신문기사.
- 5 ‘넓고 평평한 마을’이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 지명이었던 별말역은 1996년 12월에 한자 지명인 평촌(坪村)역으로 변경되었다.
- 6 한국토지공사, 1997, 『평촌신도시 개발사』,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210~233쪽.
- 7 「동네 구멍가게 생기듯... 백화점 설립戰 가열」, 『조선일보』, 1993년 12월 19일.
- 8 「전철 果川線 이달말 개통」, 『경향신문』, 1994년 3월 3일.
- 9 「신도시 노른자위 땅 (10) 坪村 범계역세권」, 『매일경제』, 1995년 6월 14일.
- 10 「신도시 노른자위 땅 (11) 평촌 별말역세권」, 『매일경제』, 1995년 6월 21일.
- 11 최강림, 2006,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장소만들기에 관한 연구: 수도권 평촌신도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2쪽.
- 12 유성보·한동훈, 「평촌1번가등 수도권 '문화의 거리' 뜬다」, 『경향신문』, 2003년 7월 17일.
- 13 조사자가 만나본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평촌로데오거리를 ‘범계’라고 칭했으며, 평촌역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3장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평촌중앙공원

오윤정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평촌중앙공원의 조성 and 운영

평촌중앙공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평촌신도시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에 위치해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하며, 범계동·부림동·평촌동·평안동 등의 공동주택단지가 공원 and 맞닿아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도보로 방문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평촌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인당 3㎡의 공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근린공원·아동공원·시설녹지·녹도를 포함한 공원녹지를 구상하였다. 그 결과, 평촌신도시 전체 면적 510만 6,000㎡의 12.7%에 해당하는 64만 6,438.9㎡(공공공지 19만 685.8㎡ 포함, 총 66만 6,754.3㎡)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였다.

평촌신도시의 공원·녹지계획은 다음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창조적 생활의 기틀 제공이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자, 개인이 자아를 발견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계획되었다. 둘째, 도시경관의 질 향상이다.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통일성과 다양성, 생명감과 계절감, 장소성이 살아 있는 도시경관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셋째, 오픈 스페이스의 체계화이다. 도로·광장·공원 등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 어린이공원 25개소는 근린분구 내에 두고, 근린공원(6개소), 경관녹지·완충녹지(16개소), 공공공지(2개소) 등을 공원·녹지로 배치하였다.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넓게는 8,814.2㎡(제11호 꿈자람어린이공원)부터 작게는 1,653.3

m²(제24호 샘마을어린이공원)에 이른다. 총 25개소의 어린이공원은 공동주택단지와 단독주택지 내에 고르게 분포되었다. 근린공원은 1만m² 이상, 유치거리 500m 내외가 되도록 하였는데, 이 중 제5호 근린공원인 평촌중앙공원은 평촌신도시 지구 중심 도심부에 인접하며 상징적인 위치에 평지공원 형태로 설계하였다. 평촌중앙공원은 11만 9843.1m²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만 6,000여 평에 해당한다. 이는 총 6개의 평촌신도시 내 근린공원 중에서 두 번째로 넓은 범위로, 약 17만m²로 제일 넓은 제6호 자유공원과 더불어 평촌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꼽힌다.

택지개발 계획 단계에서 평촌중앙공원 조성은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평촌신도시의 공원·녹지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도시 전체에 입체감과 방향성을 제공하는 남북 녹지축의 중심을 형성한다. 셋째, 시청 앞 시민광장과 함께 평촌지구의 대표 오픈 스페이스인 점을 감안하여, 두 시설 간의 적절한 공간 대비와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상호 근접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때, 평촌중앙공원으로서의 이미지 함양을 위하여 상징성이 강한 랜드마크를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 평촌지역에서 자생하는 향토수목을 최대한 이식하여 지역성과 향토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주변의 중심상업업무용지 및 공동주택단지의 성격인 도심기능과 휴식기능을 수용하되, 공간기능별 특성 부각 및 지형 변화로 평지정형공원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도록 하였다.¹ 시청과 미관광장 및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축을 강조한 공간구성을 위해, 공원 중앙에 중심광장을 배치하고 주변에 잔디광장 및 화단을 조성하여 확 트인 공간의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중앙광장 내에 수경시설로서 분수연못을 조성하여 수평적인 공간 속에 수직요소를 가미한 경관을 창출하고, 주민 이용의 편의도모를 위한 체력단련장의 설치 및 문화공간으로서 야외공연장을 설치도록 하였다.²

평촌중앙공원은 평촌신도시 녹지공간의 중심이자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되었다. 문화공간과 여가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충분한 녹지 제공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세부 주요 시설들을 갖추었다. 공원의 중심에 있는 야외무대는 안양시민의 날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시민들의 집결지로 사용되며, 평소에는 간이 의자나 돛자리 등을 펴고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테니스장·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은 동적 활동 공간으로 배치되었고, 은행나무와 병꽃나무 등의 다양한 수종은 도시 주민들에게 도심 속의 녹지 경관을 제공한다.

〈표1〉 평촌신도시 공원·녹지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공원	근린공원	제1호 학운공원	52,842.7
		제2호 평촌공원	39,499.0
		제3호 평화공원	10,019.2
		제4호 희망공원	9,634.8
		제5호 중앙공원	119,843.1
		제6호 자유공원	169,118.0
		소계	400,957.8
	어린이공원	25	103,025.5
녹지	경관녹지	1	628.6
	완충녹지	15	142,456.6
	공공공지	2	19,685.8
합계		49	666,754.3

자료 : 한국토지공사, 1997, 『평촌신도시 개발사』, 225쪽.

〈표2〉 평촌중앙공원 조성 개요

구분	조성 내역	
녹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목류 : 은행나무 등 24종(3,077본) · 관목류 : 병꽃나무 등 9종(70,755본) · 지피식물 : 꽃잔디, 원추리, 벌개미취(77,820본) 	
잔디	· 68,663㎡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 1개소 · 어린이 놀이터 : 1개소 · 대형 야외무대 : 1개소 · 화장실 : 4개소 · 주차장 : 1개소(80대 주차 가능) · 피크닉장 : 1개소(568평) · 조각품 : 9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익 및 체육시설 : 파고라 외 12종 352점 · 축구장 : 1개소(1,023평) · 배드민턴장 : 1개소 4면(431평) · 게이트볼장 : 3면 · 테니스장 : 1개소 4면(664평) · X-게임장 : 1개소(266평)

자료 : 안양시 녹지공원과, 최강림, 2006,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장소만들기」에 관한 연구 : 수도권 '평촌신도시'를 사례로," 92쪽.



평촌중앙공원 전경





평촌중앙공원 전경(201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평촌중앙공원은 1994년 준공 이후 여러 차례의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분수대를 조성하고 조경을 보수하여 현재의 경관을 갖추게 되었다. 평촌중앙공원 정비사업은 1999년 10월 14일~2000년 1월 14일로 계획되었으나, 주민 공청회와 4차례의 관계 간 회의를 거치면서 2003년 10월에서야 개방하였다. 평촌중앙공원 정비는 물을 소재로 한 친환경적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15m 길이의 터널분수, 직경 30m까지 물줄기가 치솟는 바닥분수, 상징분수와 12지상 분수, 계류분수 등의 5개의 분수대를 설치하였다. 소나무·느티나무·철쭉·주목 등 4종의 수목 2,085그루를 추가로 식재하고, 35종의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잔디광장과 상징분수대를 임시 폐쇄하고 시설 정비를 하였다. 잔디광장(2,500㎡)에는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상징분수대 바닥(170㎡)에는 판석 포장과 방수공사를 실시해 바닥면을 정비하여, 평촌신도시의 최적의 녹색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평촌중앙공원은 3만 6,000여 평의 평지에 펼쳐져 있으며, 주요 상업지구인 범계역과 평촌역 사이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평촌중앙공원은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집결지이자 만남의 장소로 이용된다. 또한 공원 내부에는 운동시설·조경시설·휴양시설 등 다양한 세부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근린공원에 기대하는 바를 다각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표3〉 평촌중앙공원 시설

구분	세부시설
테마공원	테마공원, 테마길
운동시설	다목적운동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피크닉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하키연습장, 농구장, X-게임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조경시설	조형물, 수목, 분수시설, 계류시설, 화강판석, 점토블럭, 잔디식재
휴양시설	벤치, 파골라
유희시설	조합·모험 놀이대
편익시설	화장실, 음수대
공원관리시설	관리사무실, 헬스, 문주, 안내관, 휴지통, 불라드, 공원 등
기타시설	광장, 놀이마당, 모래사장, 야외무대, 주차장



평촌중앙공원 바닥분수(201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평촌중앙공원 계류분수(2024년)





2. 평촌중앙공원 지킴이, 매점

평촌중앙공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해 온 박○○(60대, 여성)³은 공원 내 시설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주저 없이 매점을 쫓았다. 평촌중앙공원의 유일한 매점일 뿐만 아니라, 매점 앞에 파라솔이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 휴식 공간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박○○ : 공원에서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매점이에요, 거기가 제일 사람들 많아.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여흥에 제일 많은데 매점에서 연도 팔고 먹을 것도 파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붐비죠.

현재 매점을 운영하는 박강순(60대, 여성)은 매점 개설과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25년 이상 동안 평촌중앙공원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98년, 안양시장애인 협회가 공원 내 매점 운영권을 위임받아 매점 관리자를 모집하였고, 그의 남편이 선정되면서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후 목련마을로 이사하며 평촌 주민이 된 지도 15년이 되었다. 25년간 매점을 운영하면서 자판기 파손이나 줌도둑 등 여러 사건·사고로 마음고생도 하였으나, 어린 시절 매점을 자주 찾던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 자녀들과 함께 와서 인사를 건네면 반갑기도 하고 지난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평촌중앙공원의 유일한 매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장소이지만, 초창기와 달리 현재는 공원 외곽에 편의점이 많아지면서 손님이 예전처럼 많지 않다고 한다. 특히,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사실상 ‘주말 장사’가 되었다. 주말에는 어묵과 순대, 떡볶이 등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박강순 : 우리는 겨울에는 거의 문 닫다시피 하고, 여름에도 막 비 오고 그러면 장사 못하고. 이거 한철 이잖아. 주말 장사라고 봐야지, 거의 날씨 좋으면, 그 대신 또 비 오면 완전 짱이고.

날씨와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점 영업시간은 유동적이다. 하절기에는 오전 8시 30분에 열어서 밤 10시 이후까지 영업하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자정까지 문을 열기도 한다. 그러나 동절기에는 아예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어서 오전 8시 30분에 문을 열기는 하지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 무렵에 문을 닫는다.

매점의 규모가 크지 않아 시중의 편의점에 비해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가격도 다소



평촌중앙공원 매점 앞 파라솔(안양시청 제공)



평촌중앙공원 매점

높은 편이라 손님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 달린 장난감, 연과 얼레 세트 등 평촌중앙공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물품들을 고수하며 편의점과는 다른 매점만의 특색을 유지하고 있다.

3. 평촌중앙공원 야외무대

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야외무대는 안양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많은 사람이 집결하게 되는 대형 행사 유치에 적합한 공간이다. 야외무대 바닥에는 분수 시설이 매립되어 있어서 5월부터 10월까지의 일정 시간에 분수대가 가동되어 도심에서 청량함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야외무대 주변으로는 계단식의 원형 스탠드가 완만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야외무대에서 공연이 있을 때는 관람석 역할을 하지만 공연이 없을 때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된다. 스탠드는 층고가 낮고 폭이 넓어서 돛자리를 깔거나 간이의자를 놓기에 적합하며, 주말에는 소풍 나온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평촌신도시의 입주 초기인 1993년에 입주하여 초등학교 4학년의 시작을 평촌에서 하게 된 김소라(가명, 40대, 여성)는, 평촌중앙공원을 친구들과 만남의 장소 혹은 모임의 장소로 표현하며 학창시절 자주 갔던 곳으로 회상하였다.

김소라 : 그 계단 형식, 약간 공연장처럼 계단으로 된 데를 제일 많이 이용했어요. 가장 많이. 거기 앉아서 친구하고 얘기한다거나 성인이 되어서는 거기서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치킨도 사서 맥주 마시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배달됐거든요. 그때가 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그 정도? 제가 그때 친구들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성당을 다녀가지고 한 번씩 성당에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공원을 잡아놓으면 거기로 가서 체육대회 하고. 그냥 약간, 중앙공원은 평촌(평촌역 주변 상업지구)에서 좀 놀다가 잠깐 쉬러, 산책하러 가는 데였어요.

평촌중앙공원을 친구들과 함께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편한 장소 혹은 평촌역과 범계역 주변 상가에서 모임을 한 뒤 집으로 가기 전에 들러 산책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모습은, 2000년대에 태어난 오늘날의 20대 초반 사람들에게게서도 발견되었다. 2004년에 평촌에서 태어나 평촌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이준형(가명, 20대, 남성) 역시 평촌중앙공원을 친구들과 편하게 술 마실 수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하였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평촌중앙공원 야외무대(2007년, 안양시청 제공)



시민축제가 열리는 평촌중앙공원(2007년, 안양시청 제공)

이준형 : 저는 보통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는데, 코스가 보통 범계역에서 놀다가 술 마시고 밥 먹고 중앙공원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산책하면서 논다든가. 밤에 가면 돛자리 깔고 술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맥주 캔이 많이 나와요. 밤에 가면 저희 또래쯤? 대부분 애들이 거기에 이제 돛자리 깔고, 스탠드 같은 데 돛자리 깔고. 그래서 치킨, 떡볶이 이런 거 시켜놓고 맥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평촌중앙공원이 젊은이들의 모임 장소로 이용되는 것은 평촌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귀가하기에 편하고 장소 이용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아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밤의 공원이 젊은이들의 공간이라면, 공원의 아침과 오후는 다른 모습이다. 이른 아침에는 원형 스탠드 주변을 뛰거나 걷는 주민들이 많으며, 점심 무렵에는 점심 식사를 마친 인근 직장인들이 식후 걷기를 위하여 모여든다. 또한, 아기 유모차를 끌거나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들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스탠드에 캠핑용 의자와 간이 테이블을 설치한 뒤 친구와 담소를 나누거나 홀로 독서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평촌중앙공원의 야외무대 스탠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달라도 그곳이 평촌 주민들이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4. 미관광장의 농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흔히 ‘중앙공원 농구장’이라고 불리는 곳은 엄밀하게 따지면 평촌중앙공원에 속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농구장은 중앙공원과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미관광장에 위치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앙공원 농구장’ 혹은 ‘공원 농구장’으로 부른다.

미관광장 지하에는 750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⁴, 지상에는 농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성되어 있다. 미관광장 중심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길게 있고, 그 주변에 농구코트 3개와 반코트 2개가 있다. 원래 미관광장은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었으나 1999년에 스케이트장과 농구코트를 우레탄으로 포장하였고 이후 야간 조명 시설까지 갖추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안양 시민의 농구에 대한 사랑은 축구에 견줄 만하다. 그 배경으로 프로농구단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의 연고지라는 점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1997년 한국프로농구 출범 당시, 서울방송(SBS) 실업농구단이 ‘안양 SBS스타즈’로 창단하면서 안양을 연



미관광장 농구장의 야간 모습

고지로 삼았다. 이후 구단명이 'KT&G 카이츠'·'한국인삼공사', 'KGC인삼공사'를 거쳐 현재의 '정관장 레드부스터스'로 변하는 약 30년 동안 꾸준히 연고지를 이어왔다. 그 덕분에 안양 지역에서는 선수 출신이 직접 농구 강습을 하거나 농구교실을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길거리 농구 경기에서 선수 출신을 만나기도 한다.

농구장은 밤에도 조명을 밝히고 농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매일 밤 농구장에 간다는 전형석(가명, 20대, 남성)에게 평촌중앙공원은 농구 하러 가는 곳이다. 그는 이용객이 많아 혼잡한 저녁 시간대를 피해 밤 11~12시 무렵에 농구장에 간다고 한다. 농구장을 이용하는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데, 절반가량이 1990년대 농구대잔치와 길거리 농구를 경험한 40~50대이다. 사람들이 몰리는 오후 6시~8시에는 농구코트를 차지하려면, 먼저 코트를 차지하고 있는 팀과 겨루어서 이기는 쪽이 남고 지는 쪽이 코트를 내주는, 일명 “밀어내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야간에 가면 이런 밀어내기를 하지 않고 여유롭게 농구장을 쓸 수 있어서 주로 늦은 시각에 간다는 것이다.

이준형 : 안양은 좀 농구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중앙공원에 가면 선출이라고 하잖아요. 안양 KGC(현재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에서 농구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고 선출들이 좀 있어

요. 선출들도 있고 또 호계중 그런 농구부 학교, 농구부가 있는 학교가 있고 하니깐, 전반적으로 안양이 농구 수준이 좀 높고 그런 것 같아요.

미관광장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농구장과 함께 밤늦게까지 조명이 켜져 있는 곳으로 야간 조명 아래에서도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가족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미관광장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기 좋은 장소로 알려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롤러스케이트 대회 등 행사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롤러스케이트 애호가들이 모여들었다. 안양시에서도 2001년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보름동안 안양시청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이 관내 학생들에게 무료 강습을 해주거나 인라인 건강 마라톤 축제를 개최하는 등 롤러스케이트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인라인 전용 공간으로 개편된 이후, 하루 최고 이용자가 400~500명을 넘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2004년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회원들 32명으로 구성된 '인라인 봉사대'가 조직되었다.

미관광장에서 개최한 제2회 안양 SBS스타즈배 길거리 농구대회(2001년, 이정범 제공)





미관광장에서 열린 제2회 청소년 인라인스케이팅대회(2000년, 안양시청 제공)

인라인 봉사대는 인라인스케이팅장 이용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알려주거나 강습을 진행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고, 순찰 활동도 하였다. 인라인스케이팅장 옆에는 인라인스케이팅 용품을 판매·대여를 하는 스포츠숍이 있다. 인라인스케이팅과 헬멧, 보호대를 비롯하여 킥보드와 스케이팅보드 등을 유료로 대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장비를 소장하지 않더라도 인라인스케이팅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케이팅보드나 스텐트스쿠터 등을 탈 수 있는 X-게임장과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5. 연날리기

평촌중앙공원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특색 있게 비추어지는 것은, 하늘을 나는 연의 모습일 것이다. 적게는 대여섯 명, 많게는 십여 명이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열레를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연을 날리는 모습은 평촌중앙공원에서는 낯선 모습이 아

니다. 주말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온 부모들이 자녀에게 연 날리는 법을 알려주고, 아이들은 연을 띄워보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평일에는 연을 띄우기 위하여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대여섯 개의 연이 하늘에 고요히 떠 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누가 연을 날리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들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남성으로 현재 매일 7~8명 정도가 중앙공원에 와서 연을 날린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이들은 보통 오후 2시 무렵에 공원으로 와서 5시까지 연을 날리고 귀가한다.

연을 날리기 위하여 매일 의왕시에서 평촌중앙공원까지 온다는 김종윤(70대, 남성)은 2년 전부터 연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2년 전, 우연히 평촌중앙공원에 들렀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연 날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연날리기에는 큰돈이 들지 않으니 괜찮은 취미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연날리기 취미가 시작되었다.

김종윤 : 지금도 다른 데는 어디 한 번 가려고 그러면, 취미 가지려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러면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장비도 그렇고. 그런데 연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비만 안 오면 되니까. 눈 오는 날도 날릴 수 있고 흐린 날도 비만 안 오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슬슬 시작했죠. 정말 그렇더라고.

김종윤은 연날리기를 취미로 삼을 결정을 한 뒤, 연 날리러 오는 노인들 중 ‘연박사’라는 분을 통해 연과 열레 등을 구입하였다. 평촌중앙공원에서 연을 취미로 날리는 사람



들을 위한 단체 온라인 대화방이 있는데, 고등학생이 만들었다고 한다. 함께 어떤 활동을 하거나 모임 약속을 잡지는 않고 어쩌다가 연 사진이 오는 정도이며, 활동은 거의 없다. 가끔 연 날리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음식을 갖고 오면 함께 나눠 먹거나 막걸리 한 잔을 나눠 마시기는 하지만, 연날리기는 개인적인 취미활동이고 서로의 연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과 공간을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날리기 때문에 집단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종윤은 공원에서 연을 날리는 중에, 2년 전의 자신처럼 연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장비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그는 구경꾼들을 위해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연을 공원 바닥에 전시해 놓는다. 또한 꼬인 연줄을 풀어주는 칼과 릴낚시용 스피닝릴을 개조해서 만든 어린이용 열레, 나무에 걸린 연을 꺼내주는 도구 등 많은 짐을 자전거에 싣고 다닌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연 날리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장비를 꺼내서 돕기도 한다.

평촌중앙공원은 부지가 넓고 바람이 잘 불어 연날리기에 적합한 장소지만, 최근에는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드론과 줄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초보자들이 날리는 연과 얽히는 일도 간혹 생긴다. 원래 연이 서로 얽히면 줄을 끊어서 날려버리는데, 김종윤을 비롯한 취미 활동가들이 날리는 연은 개당 3~5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대이므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한다고 한다.



평촌중앙공원에서 연 날리는 사람들

6. 평촌중앙공원의 알뜰나눔장터, 토요일벼룩시장

평촌중앙공원과 미관광장 사이의 도로는 '차 없는 거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지만, 벼룩시장이 열리는 때에는 차량이 통제되기 때문이다. 평촌중앙공원의 알뜰나눔장터는 '토요일벼룩시장'으로 유명하다. 2001년에 시작된 벼룩시장은 초기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었으나, 2024년 현재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열린다. 벼룩시장에서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하면, 판매 구역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나, 시농고 쓰지 않은 중고 생활용품의 상호 교환 또는 판매를 통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알뜰나눔장터 개장일에 차없는 거리로 운영 중인 평촌대로212번길 평촌중앙공원 구간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2011년 5월,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2024년 5월)

또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경제 교육 학습장 역할을 동반하고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 판매자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 참가자는 안양 시민이나 관내 거주 외국인으로 제한하지만, 학생 참가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실제 판매자로 참여해 본 권미연(가명, 40대, 여성)은 알뜰나눔장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며 자신 또한 매주 판매자 혹은 구매자로 시장에 갔다고 한다.

권미연 : 사람들이 정말 다 캐리어에 싸가지고 나올 정도로 인기 많았거든요.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저도 주마다 싸가지고 나가고 막 그랬어요. 저는 옷도 팔고 안 쓰는 소형 가전 같은 것도 팔고 애들 장난감 같은 거, 맞아 애들 장난감 사러 많이 나갔어요.

2018년에는 안양 시민 세 명 중 한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성황이었고 착한소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2023년부터 다시 개장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7월~8월의 휴서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평촌의 주말 명소가 되었다.

7. 평촌중앙공원에 대한 추억

평촌신도시 중심에 있는 평촌중앙공원은 주민들이 건강 증진, 여가, 만남 등 다양한 목적으로 찾는 생활 밀착형 공원이다.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주민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며, 이곳은 어느새 평촌 주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공간이 되었다. 평촌아트홀·둘레길·축구장 등이 있는 평촌자유공원은 공연·전시 관람이나 운동 등의 특정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평촌중앙공원은 평촌신도시 한가운데 위치하여 일상적으로 들르는 공간이다. 평촌자유공원보다 접근성이 좋으며, 상대적으로 일상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평촌에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평촌중앙공원에 대해 어떻게 추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김소라(40대, 여성) : 중앙공원은 일단 나들이? 소풍은 아니고 야외활동? 그런 거 하러 갔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왔을 때는 공원이 완공 전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부안중에서 공원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CA 이런 클럽 활동을 하면, 활동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나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제32회 관악백일장(200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들이 개념으로 가까운 데를 가서 야외 활동을 했는데, 중앙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는 다든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린이날이나 한글날 같은 날에 사생대회 하잖아요. 그림 그리거나 글짓기 같은 거 할 때, 신청을 해서 나가면, 무조건 중앙공원이었어요. 중앙공원에서 돛자리 떠 놓고 옆드려서 글짓기를 하던 게 제일 많이 기억나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부분은 일단 아이들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게 좀 더 생긴 것 같고, 나무가 커진 거. 나무가 너무 너무 커졌고. (중략) 예전에는 농구장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 보드 그거 하는 것도 생기고 뭔가 액티비티 위주로 약간 좀 많이 바뀐 느낌이에요.

권미연(40대, 여성) : 예전 모습이란 달라진 건, 분수랑 물놀이 같은 게 중간에 한 번 공사를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조성이 된 거거든요. 원래 옛날에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지금 마치 안양의 명물 장소인 것처럼, 물놀이 명소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공원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계절마다 꽃을 되게 잘 심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튼リップ도 있고 또 해바라기도 있고 그런 거 구경하러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생각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 밴드부를 했었는데





1	2
3	4

1. 학생동아리 페스티벌(201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 미관광장 농구장에서 농구를 즐기는 학생들(200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3. 엄마와 아이들의 평촌중앙공원 가을 산책(200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4. 평촌중앙공원 물놀이(2017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시 승격 30주년 안양시민축제 불꽃놀이(200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그때 중고등학생들 무슨 축제처럼 그런 행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무대에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동아리로 신청해서 했었는데, 저는 피아노 쳤던 기억이 나요.

이준형(20대, 남성) : 저는 기억나는 게, '구구단'이라는 여자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 멤버인 김세정이 안양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안양 출신이라서 한번 안양 축제에 왔었거든요. 중앙공원에서 했었어요. 안양시민의 날인가? 그래서 그 아이들 보러 갔던 거 생각나요. 그때가 중2 때인가? 친구들과 보러 갔었어요.

전형석(20대, 남성) : 저는 중앙공원에서 했던 축제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부모님들이랑 같이 보던 그 불꽃놀이. 축제 끝나는 마지막 날에 원래 불꽃놀이 했었잖아.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던데, 그 때 그 모습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하늘 보면서 탄성 지르고 했던 거요.

누군가는 평촌중앙공원을 부모님과 함께한 시민축제의 장소로 기억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학창시절의 사생대회나 소풍 장소 혹은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무대 위에 올랐던 곳으로 기억한다. 다채로운 기억은 평촌중앙공원이 축제와 사생대회, 소풍 장소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해오며 평촌은 물론 안양 시민들에게 중요한 공간으로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촌중앙공원은 늘 어딘가에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시대가 바뀌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바뀌듯이 공원 역시 낡은 시설을 보수하거나 새롭게 정비하며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평촌중앙공원은 안양 시민, 특히 평촌 주민에게 편안한 도심 공원으로서 역할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註

- 1 최강림, 2006,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장소만들기'에 관한 연구 : 수도권 '평촌신도시'를 사례로,」 92쪽.
- 2 한국토지공사, 2007, 『평촌신도시 개발사』, 228쪽.
- 3 제보자의 요청으로 이름은 가명 처리
- 4 안양도시공사(<https://www.auc.or.kr/>)

제4장

주민들의 힐링공간, 평촌자유공원

오윤정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구릉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평촌자유공원

평촌신도시 갈산동에 조성된 평촌자유공원은 평촌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의 의왕시 내손동 주민들도 즐겨 찾는 도시 근린공원이다. 평촌중앙공원과 더불어 평촌신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이다. 평촌중앙공원은 평지에 계획적으로 조성한 공원이지만, 평촌자유공원은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조성한 자연형 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구릉지를 오르내릴 수 있는 둘레길과 약수터, 높게 자란 수목림 등이 특징이다.

평촌자유공원의 면적은 총 19만 6,118㎡로, 평촌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제6호 근린공원으로 구상되었다. 신도시 남단의 기존 구릉지를 활용하여 구릉형 공원으로 개발하되, 기존의 수목이나 지형을 최대한 보존·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고속화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완충녹지대로 조성하고 기존 자연 지형을 중심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한편, 곳곳에 운동 공간을 두어 지역 주민들의 뒷동산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정상부에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고인돌이 발굴된 곳은 보존과 함께 교육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며, 원거리 이용객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다.¹현재 평촌자유공원에는 평촌아트홀, 자유센터, 애국보훈공원,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시설이 있다.



갈산동 평촌자유공원 전경





평촌아트홀에서 열린 안양 연구 작가 발굴 지원 전시회(2024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제공)

2. 세대별로 구분되는 평촌자유공원 활용법

일반적으로 공원은 남녀노소가 모두 이용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평촌자유공원은 이용하는 방식은 연령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30대 젊은 층의 경우 평촌중앙공원을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인식하는 반면, 평촌자유공원은 특정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1993년 3월에 평촌신도시에 입주한 김소라(가명, 40대, 여성)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30대 후반까지 평촌신도시에 거주하였다. 그에게 평촌자유공원은 평촌아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전시 관람을 위해 찾는 곳이었고,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의 남동생이나 학교 남학생들이 주말마다 축구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그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러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평촌중앙공원은 집에서 걸어갈 수 있지만, 평촌자유공원은 평촌신도시 남쪽 끝에 있어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으로 더욱 찾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2004년생으로 평촌에서 태어난 전성빈(가명, 20대, 남성) 역시 평촌자유공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축구장 이용 때문에 지금까지 서너 번 가본 게 전부라고

하였다. 또 다른 2004년생 이준형(가명, 20대, 남성) 역시 평촌자유공원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의 가지 않으며 “대부분이 평촌자유공원은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잘 안 가요.”라고 언급하며 두 공간 이용에 세대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준형은 자신이 대학 입시 재수를 하던 시절에 평촌자유공원을 간헐적으로 찾았다고 하였다. 학원 외출 시간을 이용하여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자 옆에 있는 장기판을 꺼내 친구와 장기를 두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평촌자유공원에 거의 가지 않으며 “공원에 가자고 하면 애초에 제일 가까운 데가 중앙공원이니깐 그냥 중앙공원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며 평촌자유공원과 평촌중앙공원의 이용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였다.



임종규 :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여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중앙공원은 안 가요 나는. 주로 여
기만 오지. 중앙공원에 잘 안 다녀요. 무슨 행사나 있고 무슨 뭐 그런 거 뭐 들어오고 그럴 때나 가서
구경이나 가서 하고.

고향 과천에서 농사지으며 살다가 서울랜드가 들어오면서 농지를 보상받고 1975년
에 안양으로 이사 왔다는 임종규(가명, 70대, 남성)의 안양 생활이 벌써 49년이 되었다.
안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첫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올해 49세가 되었으니 안
양에서의 생활이 몇 년이 되었는지는 금방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제는 고향 과천에서 살
았던 기간보다 이곳 안양에서 보낸 기간이 훨씬 더 오래니 안양이 고향과 다름없다. 그
는 환갑 지나고 2~3년 뒤 퇴직하고 나서부터 평촌자유공원에 나오기 시작하여, 평촌자
유공원으로 산책 나온 지가 벌써 15~16년 되었다. 공원에 나와서 둘레길을 걷기도 하
고, 룬볼경기장 옆에 있는 정자에서 다른 노인들과 장기를 두거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
낸다.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노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정자로 모이는데 많이 올 때는
40~50명 정도 모이기도 한다. 룬볼경기장 옆에는 2개의 정자가 좌우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곳을 찾는 노인들은 나름대로 이 공간을 그들만의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 실
외 공간임에도 달력과 시계를 정자 기둥 높은 곳에 걸어놓고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
한 수납장도 가져다 놓았다. 수납장에는 누군가가 기증한 노안용 큰 글자 장기판과 장기
알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장기판과 장기알, 바둑판과 바둑알이 정리되어 있다.

노인들은 종종 점심 식사 내기 장기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중국음식점에서 배

평촌자유공원 룬볼경기장 옆 정자



달하여 먹는다. 그러나 이러한 재미도 날씨가 좋아야 가능하다. 혹한기나 혹서기 또는 폭우가 내리는 날에는 모이기가 어렵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가 되면 한쪽 정자에만 방풍용 비닐을 쳐주는데, 두 정자로 나눠서 지내던 노인들이 한곳에 모여야 해서 불편하다고 한다. 노인들은 바로 옆에 있는 실내 론볼경기장을 부러워하며, 자신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장에 실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방풍 비닐만이라도 정자 두 곳 모두에 설치해 주기를 원한다.

단독주택 필지를 분양받아 평촌으로 입성하게 된 김종영(70대, 남성) 역시 평촌중앙공원보다는 평촌자유공원을 더 많이 이용한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평촌중앙공원은 “공연이나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애기엄마들이 가죠. 왜 애기엄마들이 많이 가냐면 그 이유가, 바닥에 잔디가 깔려있고 바닥이 고르기 때문에 애기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평촌중앙공원에 가지 않고 평촌자유공원에 가서 “워킹”을 한다. 그가 사는 귀인동이 평촌자유공원과 더욱 가까운 것도 평촌자유공원을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공원 시설 중에서 맥반석을 깔아놓은 지압마당을 자주 이용하는데 혈액 순환에 도움이 돼서 좋다고 한다. 둘레길은 내리막길에 짚으로 된 매트를 깔아놓아 미끄럼을 방지하고 바닥이 푹신해서 걷기에 좋다. 이용자들이 좋다고 칭찬한다고 하였다.

공원은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내부의 운동시설을 통해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평촌자유공원은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간이다. 특히, 기존에 있던 구릉지를 활용하여 도심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둘레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도시의 계획형 공원과 큰 차이를 갖고

평촌자유공원 정자에서 장기 두는 노인들



있다. 인공적인 도시 건축물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망중한을 느끼고자 하는 평촌 주민들은 평촌자유공원을 찾는다. 평촌자유공원은 도보로 축축한 흙과 우거진 나무, 시원한 산 공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평촌 주민들의 일상에 존재한다.

3. 일상에 특별함을 제공하는 평촌자유공원의 시설

1) 평촌아트홀

평촌아트홀은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안양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안양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1989년 12월에 '안양문예회관'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2004년 현재 위치에 안양역사관과 함께 평촌아트홀로 개관하였다. 안양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평촌아트홀은 약 640석 규모의 클래식 음악 전문 공연장과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촌아트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 자유센터

자유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와 자유수호전시관, 2층에는 어린이교육장·안보교육장·광복회 안양시지회, 3층에는 갈산작은도서관이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안보운동단체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건물 주변에는 6·25참전공적비와 태극·횃불·기단 등 다양한 조형물과 실제로 사용되었던 해병대 상륙장갑차도 전시되어 있다. 또한, 안양 출신 항일애국지사인 이재천·이재현 형제의 동상과 조형물, 한항길 선생과 원태우 의사의 기념비가 있다. 이 일대는 '애국보훈광장'이라고 불린다. 평촌자유공원의 '자유'라는 명칭 역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호국선열을 기리며 따왔다고 한다.



평촌아트홀(2017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평촌아트홀에 개관했던 안양역사관(200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평촌자유공원 내 항일애국지사 이재천·이재현 형제 추모상(안양시청 제공)



평촌자유공원 내 6·25 참전공적비(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자유센터(202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3) 어린이교통공원

경기도 최초로 개장한 어린이교통공원은 1997년에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들여 조성하였다. 터널과 차로 등의 도로 시설, 신호기와 철도 건널목 등 교통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 강사와 교육 강사가 상주한다. 영상 장비를 갖춘 실내 교육장과 실외 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교통질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평촌자유공원을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며, 자녀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즐겨 찾는다



어린이교통공원(안양시청 제공)



어린이교통공원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2007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4) 지석묘(고인돌 유적지)

평촌자유공원에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무덤 양식인 지석묘가 전시되어 있다. 1990년 평촌 택지개발 과정에서 총 13기의 지석묘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5기를 평촌자유공원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평촌 지석묘는 모두 지하에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작은 돌을 고인 후, 덮개돌을 올리는 기반식 고인돌이다. 발굴 당시에 돌화살촉과 무늬 없는 토기 등의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이는 안양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해 온 곳임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평촌자유공원 내 지석묘(이정범 제공)



평촌자유공원 내 지석묘(이정범 제공)

5) 축구장

평촌자유공원 시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300석 규모의 관람석과 조명탑을 갖추고 있는 인조잔디축구장이다. 평촌신도시 조성 이후인 1996년, 안양시는 체육관 건립 부지였던 2,722평을 다목적경기장으로 조성하였다. 축구장·농구장·족구장 등의 구기종목 시설, 윗몸 일으키기·균형대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퍼겔러(등나무 벤치)와 평벤치 마루 등 10종의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후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 축구장의 모습을 갖추었다. 안양 지역 조기축구회를 비롯하여 초·중고 축구클럽의 경기가 연중 개최된다.



축구장 준공식에서 시축하는 이석용 전 안양시장(1996년 10월 25일,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인조잔디축구장 개장 기념 친선 경기에 참여한 부흥중학교 여자축구부(2006년 8월 22일,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평촌자유공원 축구장(2020년, 인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평촌자유공원 내 안양시 론볼경기장 전경(202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6) 론볼(Lawn Bowls)경기장

평촌자유공원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가 론볼경기장이다. 론볼은 규정된 수의 볼을 ‘잭’이라 불리는 작은 볼에 가까이 굴리는 경기로, 육체 활동량이 적어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노년층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그리고 장애인 재활 스포츠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론볼경기장은 기존 경기장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되어, 2021년 5월에 인조 잔디, LED 조명, 방송 장비 등을 갖춘 실내 경기장으로 보수하고 재개장하였다. 안양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안양시 장애인 론볼연맹이므로 경기장 이용 관련 문의는 해당 연맹에 해야 한다.

7) 갈산둘레길

평촌자유공원은 구릉지를 품고 조성되었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자연 녹지를 즐길 수



갈산둘레길을 맨발로 걷는 시민들(안양시청 제공)

있는 장소이다. 구릉지에 마련된 둘레길은 이러한 환경 덕분에 인기 있는 운동 코스로 자리 잡았다. 코스 길이는 짧게는 850m, 길게는 1,600m로, 걷다 보면 공원 곳곳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다. 갈산둘레길의 정상은 해발 85m로, 전체적으로 나지막한 구릉지이므로 고령층이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다. 공원 내 지압마당과 흙길은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관리하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이곳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註

1 한국토지공사, 1997, 『평촌신도시 개발사』, 230쪽.

05

평촌 사람들의 삶과 경험

제1장 이동리 사람들

제2장 평촌신도시 원주민 이야기

제3장 교육을 위해 평촌으로 이주한 사람들

제4장 평촌신도시에서 성장한 사람들 : 평촌, 성장과 추억의 도시



제1장

이동리 사람들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수료



1. 별말, 너른 곳의 기억에 대하여

안양 남동쪽의 너른 평야에 자리한 마을. 평평한 들판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별말’이라 불렀다고 한다. 넓은 별판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하나 생겼고 이어서 마을이 하나 더 생기고부터 ‘두 별말’ 또는 ‘이평촌(二平村)’이라 했고, 이를 줄여서 ‘이동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 마을이지만, 위아래를 구분하여 웃말은 상평촌, 아랫말은 하평촌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별말은 “한강에서 과천, 안양에 이르는 모든 취락 중 가장 큰 동네”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고, 주민들의 기억에 의하면, 가구 수가 100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로 있다가 1973년 안양시 승격과 함께 평촌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992년 평촌신도시가 생기면서 안양시에 만안구와 동안구가 설치될 때, 평촌동은 동안구에 속하였고, 이듬해인 1993년 평촌동은 평촌동과 평안동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1994년 평안동이 다시 평안동과 귀인동으로 갈라지면서 안양시에는 총 31개의 동이 자리 잡게 되었다.

별말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어 나온 소출을 안양에 있는 장에 가서 팔며 생계를 이었다. 백운저수지(현재 백운호수)¹가 생기기 전까지는 물이 귀해서 모내기 때를 맞추지 못하기도 하였고, 밭이 많았다고 한다.

별말노인회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노인회장을 맡았던 박길원(80대, 남성)은 3대째 별말에서 살아온 토박이로, 농사가 쉽지 않아 그로 인해 농민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었다. 박길원은 1944년생으로 백운저수지가 생기기 전인 1950년대 초반에는 10대의 소년이었다. 1940~1950년대 일제로부터 해방과 미 군정기, 6·25

전쟁 등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는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별말 또한 그 드넓은 별판에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그에 따라 논농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1953년 백운저수지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면서부터는 밭이었던 곳을 논으로 개간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생산량이 적었고, 많은 사람이 보릿고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별말에는 오랫동안 대를 이어 정착한 음씨 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² 그중 몇몇은 경제적 사정이 넉넉한 ‘부잣집’으로, 별말 일대의 많은 땅이 음씨 집안의 소유였다. 많은 별말 사람들이 음씨 집안 소유의 땅을 소작하였다.

박길원 : 그전에는 참 물이 귀해서 가물면 모도 일찍 내지 못하고 늦게 내고 이러다가, 저기 백운저수지라고, 백운호수, 그거를 이제 막았어요. 내가 국민학생쯤 됐을까. 그걸 막아서 밭이란 게 물이 들어왔지. 밭도 많았어요. 그전에 논 만들기 전에. 물이 없을 적에는 밭이어서 콩 심고 감자 심고 이런저런 것들을 키웠지. 그러다가 그 저수지가 생김으로써 쌀농사도 제대로 짓고 그랬어. (중략) 있는 사람은 뭐 그때 시절에는 괜찮았죠. 부자가 (계속) 부자 된다고 없는 사람은 농사지어서 빚 갚고 이러다 보면 3월쯤 해서 양식이 떨어져. 그러면 이 장리쌀을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리쌀 한 가마니 먹으면 그해 가을에 반 가마를 더 줘야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자를 내는 거지.





1970년대 평촌동사무소 앞 흥안로 확장 공사하는 평촌 사람들(이정범 제공)

박길원의 구술에 따르면, 과거 벌말의 소작인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토지 소유주에게 ‘장리쌀’을 빌렸다. 가을 추수기에 원금과 함께 빌린 양의 50%를 이자로 갚아야 했다. 이러한 고리채 관행은 1961년에 정부가 실시한 ‘농어촌 고리채 및 정리사업’의 영향으로 차차 중단되었다. 당시의 고리채 정리사업은, 구체적으로 1961년 5월 25일 이전의 채무 중 연리 20% 이상을 고리채로 간주하고, 원금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리(里)·동(洞)의 정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고리채로 판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을 교부하였다. 농업금융채권은 연리 20%로, 그중 8%는 국가 부담이며, 나머지 12%는 채무자가 정부 융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이보다 복잡한 농촌 금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행된 데다, 당시 조속히 가시적인 경제 재건 효과를 바라던 정부가 공업 부문에 중점을 두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고리채 정리사업이 설령 단기적이고 실패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박길원의 기억 속에서는 벌말 소작농들의 경제적 형편이 개선되고 그들의 숨통을 트이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길원 :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1960년대 그때 고리채 정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정부가 고리채 정리를 했어요. 고리채 정리를 정부에서 해서 그걸(채무를) 갚아주다시피 한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좀 나아졌고 그 후로 그렇게 땅을 빌려서 한 사람도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땅을, 상환을 몇 년 부으면 소유권을 인정해 줘. 그걸 했는데 우리가 한 그천 평 정도?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죠.

조사자 : 그럼 그천 평 정도니까 부족하지는 않으셨겠네요.

박길원 : 아니, 그거 가지고는, 지금같이 농사짓는 게 아니라 많이 생산을 못 했어요. 모든 게 다, 농약 같은 것도 없었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겨우 먹고 살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68년도쯤? 동일방직 공장이 이리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땅 있는 사람들 진짜인지는 몰라도 (토지 보상금으로) 한 100원 정도밖에 안 줬다고 그래. 그때 주위 땅이 한 400원 정도 이렇게 했을 때지.

박길원의 집안은 그의 아버지가 1950년 단행된 농지개혁 당시 정부에 지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분배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얻음으로써 농사지을 땅 2,000평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남한의 농지개혁은 1950년대에 단행되었다. 당시 대다수 농민이 소작농이었고 고리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토대로 농지 소유권을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이전하는데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 남한 정부가 지주로부터 매수한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지급·요구하였는데,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주생산물 연 생산량 또는 생산액의 30%를 5년간 정부에 내는 방식으로 지가를 상환”하였으며, “상환을 마친 농민은 분배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얻었다”.³ 지가를 5년간 상환하여 얻은 토지 덕분에 박길원의 어린 시절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쁘지는 않았던 듯하다.

마을 사람들은 논과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고,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안양 읍내 시장에 내다 팔았다. 경제 사정이 여유로운 이들은 우마차가 있었지만, 보통은 소를 기르지 않아 직접 짐을 메고 먼 길을 오가야 했다. 당시에는 번듯한 도로도 없고 버스가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먼 길을 걸어 다녔다. 때로는 농산물을 팔러 오가는 도중에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가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그는 회상하였다.

박길원의 집안과 같이 대대로 농사를 짓던 이들의 삶은 1970년대, 공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 별말에 동일방직 안양공장이 들어서며 농지였던 땅이 공장 부지로 전환되었다. 토지 소유주들이 받은 보상은 당시 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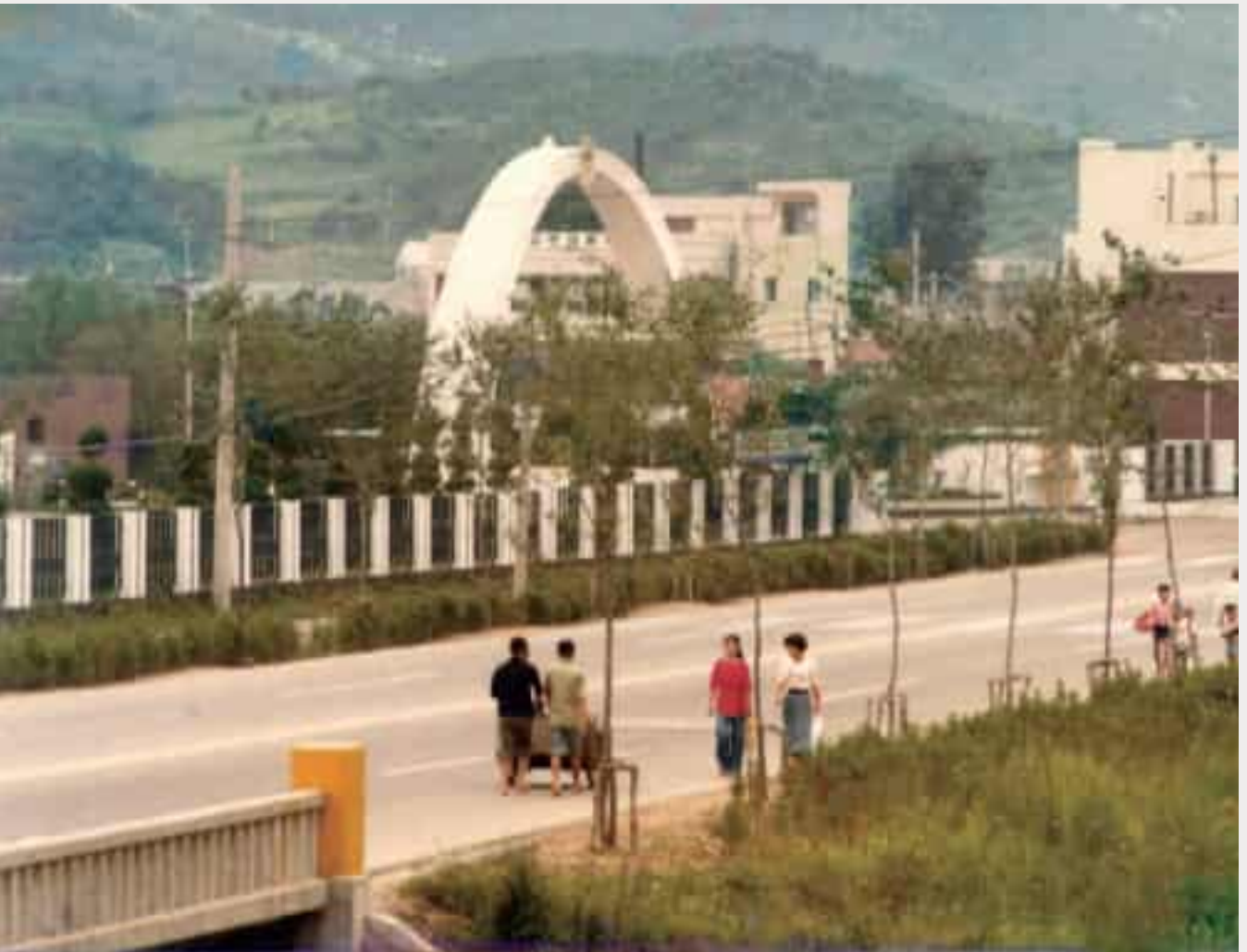


별말 옆에 들어선 동일방직 안양공장(1970년, 음경석 제공)

에 비해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길원은 마침 그보다 1년 전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상황이었고 동일방직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여성 인력이 필요한 동일방직 안양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러 오는 젊은 여성들이 별말과 그 주변으로 많이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집 구조를 조금씩 개조하여 방을 여러 개 들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하였다.

박길원 : 여자들이 많아. 몇백 명 됐지. 그때 당시에 (기숙사)건물도 딱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창고 뭐 이런 데 방을 만들어서 세를 놓고 그랬지. 여공들이 이제 집 없이 올라왔잖아요. 건넌방이랑 창고 방 개조해서 방 두 개를 (세를) 놔줬지. 한 2~3년 동안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중략) 공장에서 일하는 별말 사람들은 없었어요. 전부 다 저기 아랫 데(아랫지방)에서 많이 온 것 같아요. 전라도 이런 데. (중략) (공장에) 기숙사가 있었어. 그런데 기숙사 갖고는 모자라지.

그가 30대였던 1970년대에는 방범 활동으로 동네 치안을 살피기도 하였다. 주민이 마을을 순찰하는 주민야경단은, 1953년 공비 토벌로 인한 치안 공백 보충을 위해 동리 단위로 발족하여 주민들이 윤번제로 방범 순찰을 하던 것인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동일방직 안양공장이 들어오면서 정비된 흥안로와 인덕원교(1978년, 박영인 제공)



학의천 인덕원교를 건너는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1978년, 박영인 제공)

자율방범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박길원은 자율방범대의 뿌리가 되는 주민야경대부터 시작하여 수년간 꾸준히 동네 지킴이 역할을 하였다. 방범대 활동 외에도, 1990년대부터 동사무소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였고, 통장을 맡아 마을 일을 보기도 하였다. 마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박길원 : 그때 시절은 무법천지 아니야. 동네에서 도둑맞기도 하고 이래서 야경(단)을 들어왔어요. 이 동네에서 이제 집집마다 누구는 오늘, 누구는 내일, 누구는 그다음 날. 이렇게 날을 정해서 명단을 짜고 동네 야경을 들고 그랬지. 이제 그러다가 야경이 없어지고 방범으로 바뀌었어요. 방범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그전에는 시끄러웠는데, 방범대가 생김으로써 이 동네 형님들 다 방범 서니까 젊은 애들도 부모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고개도 숙이고, 이래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지, 그때. (중략) 방범도 보통 1시까지지는 있어서 술 자시고 한 분들은 술 깨라고 방범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집에 연락해서 모셔가라 그러고. 추운 날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살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박길원은 2남 2녀를 두었다. 그의 자녀들 모두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별말에서 자랐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평촌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정부에서 땅을 수용할 때, 박길원도 아버지가 마련하셨던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되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았다. 그 보상금으로 자녀들 대학 교육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다.

박길원의 아들 중 한 명은 인덕원에 있던 신성고등학교에 다녔다. 신성고등학교는 1974년에 개교하였으나, 그 전신은 박길원이 다녔던 성림고등공민학교이다.

박길원 : 학교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죠. 인덕원 거기, 내가 다니던 시절에는 고등공민학교라고, (중략) 3년간 거길 다녔지. 제가 그래서 중학교 과정은 거기서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 지금의 신성중·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 자리를 팔고 저기 안양, 그리로 이사 갔어요, 학교가. 내가 아마 그회 졸업생인가 그럴 거야.

박길원이 다닌 교육기관이 성장을 거듭하여 그의 아들이 공부했던 중고등학교로 발전하여, 부자(父子)를 동문 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별말 출신의 사람들은 대를 이어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 선·후배가 되기도 한다. 혈연과 지연에 이어 학연까지 단단하게 관계의 고리를 맺음으로써 별말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세대를 뛰어넘어 추억과 역사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별말애항회가 마련한 별말경로회관 건물



별말경로당



별말경로회관 건립기념비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평촌동 주민이 일체단
 결하여 한마을 한뜻을 모아 1987년 11월 17일
 완공된 건물로 주민화합은 물론 특히 노인복지
 회관으로 대대손손 노인들에게 안식처로 길이
 보존하기 위하여 지표로 이 건물을 세웠음”

도로와 교량 건설은 언제나 지역 내의 큰 변화와 함께 온다. 1970년대 동일방직 안양공장이 세워지면서 근방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다리가 놓였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평촌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진창 흙길 대신 아스팔트가 깔린 포장도로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편리한 교통, 번듯한 상점가와 아파트는 온전히 대대로 그 지역에 살아오던 사람들의 몫이 될 수 없었다. 박길원은 땅과 집을 팔고 나서 근처의 의왕시 지역으로 이사를 나갔으며 이웃들도 비슷한 과정을 경험했다고 한다. 건설 초기의 분양가나 토지 보상금에 비해 가파르게 치솟는 분양가의 평촌신도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만큼의 경제적 여력은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그는 65세가 되던 2010년 무렵 ‘별말노인회’에 가입하였다. 현재 별말노인회 회원들이 모이는 ‘별말경로당’은 평촌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도보 10~15분 내외면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이다. 경로당이 위치한 건물은 ‘별말애향회’가 중심이 되어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끝에 1987년 준공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립 과정에서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별말애향회가 주도하여 정월 대보름에 풍물패가 마을을 다니며 지신밟기를 해주고 받은 것을 모으고, 안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보탬이지만, 여전히 건물 공사비를 모두 충당하기가 어려웠다. 어쩔 수없이 빚을 지게 된 별말애향회는 준공 허가를 받기도 전에 건물 공간 일부를 임대하면서까지 수년간 빚을 갚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현재 별말경로당은 일반적으로 별말 토박이들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회원 수는 약 1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는 별말의 마을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박길원 : 여기 경로당은 일반적으로는 (외부 출신을) 받지 않아요. 원래 그 토박이들만 이렇게 해서. 그 령게 토박이들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 마을이 컸으니까. 그대로 인수인계해서 (회장단)명단에 올라간 거지. 어렸을 때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지. 다 수고하다가 이제 나가 계시기도 하고. 의왕



별말경로당 월례회 오찬(201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으로 가도, 여기서 살던 친구가 라 시로 갔어도, 이제 나이가 80이 되니까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소주 한 잔도 나누고, 어디 갈 데 있으면 또 가자 그래서 가고. 그런 친구가 한 8명 정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목요일 날 우리 항상 모이거든.

일흔이 넘고 여든이 넘어도 이들은 별말에서 어린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우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인덕원보다 “별말이 훨씬 더 컸는데”라고 말하며 세상의 변화를 새삼스럽게 느끼는 듯했다. 너른 별판의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 ‘별말’은 이렇게 여든 노인의 기억에 생생한 고향이며, 지금도 친구들과 가족을 통해 온몸의 감각과 정서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1970~1980년대 평촌 사람들의 농사



모판 설치하기(이정범 제공)



논에 물 대기(이정범 제공)



모찌기(이정범 제공)



벼 베기(이정범 제공)



고추 모종 심기(이정범 제공)



사료용 옥수수 재배(이정범 제공)



벼 이삭 훑기(이정범 제공)



콩 타작하기(이정범 제공)

2. 끈끈한 생명력과 유대감으로 이어진 곳, 귀인마을

상공에서 평촌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평촌을 내려다보면, 도로의 북쪽 방향으로 도로와 바로 면해 있는 신촌동과 귀인동을 볼 수 있다. 특히 반듯하게 직선으로 구획이 나뉜 평촌신도시 안에서, 여러 방향으로 조금은 굴곡진 모양의 길이 남아 있는 곳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곳이 귀인마을, 곧 지금의 귀인동의 뿌리가 되는 곳이다. 귀인마을은 별말, 민백이와 더불어 안양의 동쪽 넓은 별판에 자리한 유서 깊고 규모 있는 마을이었다. 행정구역상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상서면 이동리로, 1914년에는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로 구분되었다. 이후 1941년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다시 1949년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고, 1973년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읍은 안양시로 승격되었는데, 이와 함께 이동리는 평촌동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92년에는 동안구에 편입되었다. 1993년 행정동 평촌동이 평촌동과 평안동으로 갈라지면서 귀인마을은 평안동 관할이 되었으나, 이듬해인 1994년 평안동이 다시 평안동과 귀인동으로 분할되면서 귀인마을은 옛 이름을 되찾아 오늘날의 귀인동이 되었다.

과거 귀인마을은 “신말(新村) 동쪽에 위치하여 온양 정씨가 배판한 마을”로, “조선시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양반들이 한양길을 오가거나 과거를 보러 갈 때 들러 머무른 곳”이라 하여 ‘귀인(貴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⁴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과천현 하서면 귀인일동과 귀인이동이 행정구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귀인마을이 안양 지역에서 매우 번성하였고 규모도 큰 마을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후에 귀인일동과 귀인이동이 통합되어 후에 이동리가 되었다. 귀인마을이 자리했던 곳에는 현재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2022년 한국일보의 기사에서는 현재의 귀인동과 신촌동, 즉 귀인마을과 신말이 있던 지역에서 신도시 특유의 반듯한 직선 형태의 구획이 아닌 구불구불한 옛길 형태가 남아 있는 이유를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 귀인마을 주민들이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강제 수용에 따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향에 재정착하는 길도 막힌다고 생각하여 귀인마을의 신도시 편입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86년 4월 『동아일보』에 귀인마을의 개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들의 인터뷰가 실렸다. 당시 6대째 귀인마을에 살고 있는 김정환은 “경주 김씨와 온양 정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을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해 대대로 살아온 고향 땅을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떠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걱

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영승은 귀인마을을 포함한 이 지역이 토지수용 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주민의 기득권을 도시 중산층에게 내주는 결과가 되므로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⁵ 택시 영업을 하며 1993년 달안동의 한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았던 주민 최흥기(60대, 남성)도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를 떠올리며 귀인마을에 대해 언급하였다.

최흥기 : 귀인동은 옛날 사람들, 저기 먹자골목이랑 학원가, 그게 원주민들이 있던 곳이라 데모해서 (정부가) 아파트를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상가로 허가가 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도 아파트가 다 들어섰을 거예요.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저렇게 빼놓은 거지.

귀인마을을 이루고 있는 온양 정씨와 경주 김씨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저항한 결과, 귀인마을은 평촌신도시 개발지구에서 제외, 존치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뒤로도 2000년이 될 때까지 귀인마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귀인마을 주변에 먹자골목과 학원가가 위치하여 평촌신도시 변화가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귀인마을은 평촌신도시 일대의 유일한 미개발지로서 도시의 섬처럼 보이게 되었다. 귀인마을의 개발을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소리는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현대건설을 통해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때에도 기존 주택 철거에 저항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2년 현재의 귀인마을현대홈타운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현재 귀인동의 모습 일부가 당시 아파트 건축에 동의한 세대들의 토지 형태를 따르고 있어 평촌신도시의 여느 아파트들과 달리 반듯하고 네모난 모양의 단지 형태는 아니다.





귀인로190번길 왼쪽이 귀인마을, 오른쪽이 평촌학원가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아파트와 상가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아파트 입구



귀인마을을 지나는 비포장도로(1983년, 안양시청 제공)

1962년 귀인마을의 이씨 집안에 시집와서 몇 해를 제외하고는 귀인마을에서 줄곧 살아온 박복희(80대, 여성)는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마을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귀인마을의 가구 수는 74호 정도 되었으며, 모두가 농사를 짓고 소를 기르고 돼지를 쳤다고 하였다. 그러다 1990년대 평촌신도시의 개발, 그리고 2000년대의 현대홈타운아파트 건설과 함께 장화를 신고 겨우 다닐 정도로 질척이던 진흙 길은 깨끗하고 넓은 포장도로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박복희 : 이제 그때는 애들도 다 크고 그러니까 다 나가서, 각자 일이 없지. 농사짓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건 농사짓는 기술 외에는 없으니까. 땅이 없어졌으니까, 여자들은 놀고 또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지. 농사짓다가 뭘 직장을 잡겠어. 그리고 댄 데로 가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 이제 각자 헤어져서 살고 만나질 못하니까.

조사자 : 다시 만나거나 모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박복희 : 이제 아파트 들어서면서 아파트로 이사 온 사람들이 있고, 나처럼 미리 다시 집 짓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만. 요 옆에 있는 홈플러스, 거기 있던 집 주인도 이제는 저 댄 동네에서 살거든. 여기 땅에 지어서 세를 놓고 (주인이) 살기는 저 건너 살고. 요 옆집도 그렇고 다 이렇게 흩어졌어.

그러면서도 그는 담담하게 별로 서운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복희 : 그때는 일하기가 싫어서 서운한 것도 별로 없었어. 이천(농사일은) 손발에 다 흙을 묻혀야만 일이 되는 거니까. ‘이 노력이면 어디 가서 뭘 못해 먹겠나’라는 생각에서. 괜찮았어. 거의 다 마음은 그렇지만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귀인마을로 시집왔을 때 그녀는 맘머느리로서 시부모님과 시할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그가 시집온 이씨 집안은 자작으로 밭농사를 하고, 서울 부재지주의 논을 맡아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박복희 : 우리는 밭이 800평짜리 하나 있었고, 논은 열서너 마지기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 아버님이, 서울 사람들이 이제 땅을 사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남을 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남의 농사를 맡아서 좀 지었지. (중략) 서울 사람 농사를 우리가 지어 반씩 나누는 거야. 만약 이제 열 가마가 나왔다, 그러면 다섯 가마는 그리 주고 다섯 가마는 우리가 갖는 거고. 그렇게 많이 농사지었지.

그는 당시 다른 집들도 형편이 비슷했으나, 일부 집들은 논을 소유하고 있어, 소작하지 않았다고 회상하였다. 그는 집안 어른들을 도와 집안일과 농사일을 함께 해냈으며, 마흔 살 무렵에는 2~3년간 귀인마을 부녀회장을 하며 여러 가지 행사를 도맡기도 하였다. 그는 “동네에서 일 많이 하기로는 정말 이 손에 꼽힌다”면서 정말 일 많이 했었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동네 어르신들 관광 보내드렸던 것과 새마을 운동의 일환인 절미절식 운동했던 것을 기억해 냈다.

박복희 : 내가 마흔 살쯤 되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예순이 넘었지, 아마? 그 때까 양반들을 1년에 한두 번씩 관광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때는 버스만 타면,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더 단합도 잘 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면 참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놀러 가게 되면, 돈이 없으니까 쌀을 걸으러 다녀. 이제 다들 농사를 지으니까. 그럼 뭐 얼마를 (정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주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향아리에서 떠. 뒷박, 그 향아리에 있는 바가지로 한 뒷박 떠 주는 거야. 양재기면 양재기로 하나. 정해서 얼마 그런 게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서너 명이 그렇게 쌀을 걸으러 다녀요. 그렇게 걸은 쌀 나누어서 떡 하고 밥 하고. 그렇게 싸가지고 여행 가는 거

지. 관광하는 날. 그걸 다 우리 집에서 했어. 한 해는 내가 하고, 한 해는 지금은 돌아가신 양반이 하고 이렇게 그 둘이서. 여기저기서 찬조받은 걸로는 술 사고. 반찬은 이 집 저 집에서 가져오고. 그냥 가는 것만 해도 좋다는 거야. 어느 해는 간단하게 김밥을 싸면, 한 200개를 싸. 우리 마을에서 큰 가마솥에다 밥을 해서, 마루에 한가득 앉아 김밥들을 싸는 거지. 관광 가실 분들도 다 같이 싸. 내일 여행 가면 오늘 싸는 거야.

1980년대 귀인마을 동네 어르신들의 효도 관광은 소박하였다.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부녀회장과 회원들은 집마다 찾아다니며 쌀을 조금씩 모은 후 떡을 하고 밥을 했다. 가끔 김밥으로 대신할 때는 젊은 여성들만이 아니라 여행 갈 어르신들도 다 같이 한데 모여 앉아 오순도순 김밥을 말기도 하였다. 박복희는 당시 자녀들이 어려서 관광에 같이 따라가지는 못했고 다른 부녀회원들 일부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녀왔다고 했는데, 이때 도움을 준 부녀회원들 3명을 포함해 그는 ‘우리 클럽’이라고 불렀다. “3명이 다 가서 수발하고 그랬다”면서 “그때는 정말 재미있었다”고 그는 회상하였다. 한편 귀인마을에는 조그만 구멍가게가 생겼는데, 농협 구판장이었던 것 같다. 운영은 대부분 새마을 부녀회가 맡았다.

박복희 :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생겼어. 나 부녀회 했을 때. 농협에서 동네마다 이렇게 가게 하나를 차리면 물건을 대주지. 그렇게 해서 장사를 좀 했지. 애들 주전부리나 막걸리, 소주. 반찬거리 그런 건 없고. 있어도 팔리지도 않지만. 콩나물, 두부 그런 게 전부고, 다 여기서 자급자족해서 먹으니까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잖아. 고추장, 간장 이런 것도 하나 필요가 없거든. 이제 외간장이나 필요하니까 그런 거 갖다 놓고 이런 거지.

농사를 짓던 시절 조그만 구멍가게로도 큰 마을이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농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산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 물품이 풍부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촌신도시로 개발되기 전까지, 그리고 현대홈타운아파트가 세워지기 전까지도 귀인마을의 길은 좁고 구불거렸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마을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마을 어귀의 가게 앞에 섰다. 주민들은 안양 시내에 나가려면 하루에 네 번 정도 오는 마을버스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1년에 한두 번씩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관광버스는 마당과 마당을 거치며 마을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태워 갔다.



1990년대 초반 귀인마을(안양시청 제공)

박복희 : (마을버스가) 드나든 길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조금씩 시간이 단축됐지. 나중에 그 길로 관광 버스가 들어온 거예요. 가게는 마당이 넓으니까 마당에서 돌려 나가고 그랬지. 시골마당이 크잖아. 나락도 말려야 하고, 우리 집 마당도 큰 트럭이 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차가 우리 마당까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남의 집 마당으로, 마당으로 해서 우리 집 마당까지 들어오는 거지. (마을 입구까지) 들어오는 길까지는 있는데 하나둘, 두 집 마당을 거쳐야 우리 마당으로 들어오거든. 그런 식으로 (버스가) 마당으로도 다녔지.

귀인마을 공동체는 서로에게 활짝 열려 있는 곳이었다. 비록 길은 좁지만 각 가구가 소유한 집의 마당은 수확한 벼를 잔뜩 널어 말릴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넓었으며, 높은 담이나 벽으로 막힌 것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어 버스나 트럭이 오갈 수 있는 일종의 ‘길’ 역할을 하며 마을 사람들 간 교류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의 한 갑잔치는 또한 마을의 축제와도 같았다.

박복희 : 내가 마흔여덟일 때 우리 아버님이 예순하나, 그전에는 환갑 살기가 또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환갑잔치들을 제대로 했어요. 마당에 자리 차리고 집에서 국수 삶아서 잔치한 거지. 그러면 동네



귀인마을 표지석
귀인마을 현대홈타운과 귀인경로당 근처에 있다.



귀인마을 토박이들을 만날 수 있던 귀인경로당



귀인경로당 앞 '귀인마을 표지석' 뒷면에 새긴 귀인향우회 명단

사람들이 다 와서 해요. 집집마다 예순 넘은 분들 거의 다 하셨어. 생활 여력이 닿는 집들은 거의 다 하고, 그냥 식구들끼리 조용하게 하는 집도 있는가 하면, 크게 (잔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시간이 흘러 식당과 같은 상업 공간이 생겨나는 등의 변화가 있고부터는 집에서 환갑 잔치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식당을 빌려 식당에서는 밥·국·국수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 반찬이나 떡 등은 환갑을 맞은 집에서 해갔다는 것이다.

박복희 : 식당은 거기서 국수나 밥, 국 이런 것만 하고 반찬, 떡 같은 건 여기서 다 해. 국수 나오는 것만 이제 그릇 세면 되고, 밥하면 밥그릇만 세면 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한 번만 모여도 70명은 되지. 그리고 한 집에서 하나만 오나? 애들 다 데리고 오지, 두 양주(兩主) 다 오지. 막 다 큰 애들은 안 오지만, 그렇게 손님이 많았어.

마을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마을 사람들은 평촌의 아파트 혹은 주변 도시로 이주했지만, '귀인마을 향우회'를 구심점 삼아 꾸준히 모임을 하였다. 박복희의 기억에서 귀인마을 향우회는 '마을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 7~8년 정도 지난 때, 즉 1990년대 말쯤 만들어졌다고 한다. 향우회를 중심으로 귀인마을 사람들은 주로 지금의 안양남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열었다. 한때 귀인중학교 운동장을 빌리기도 했지만, 주변 아파트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어쨌든 연중 가장 날씨가 좋은 가을, 귀인마을 출신 사람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안양남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였다. 이 행사는 10여 년간 지속되었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행사를 이끄는 향우회와 더불어 주변의 찬조를 받아 매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귀인마을의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 나갔던 것이다.

박복희 : 학교에서 운동회, 가을에 한 번씩 만나서 행사를 했거든. 그때는 참 많이 왔었어. 향우회 회장이랑 총무가 있으니까, 이제 (주민들) 사는 곳 주소를 다 알아서 연락을 하는 거지. 이제는 많이 와도 다 자손들이 와. (원주민은) 없어. 지난 가을인가, 한 번 (운동회를) 했는데 그때 오셨던 양반들 중에는 금방 돌아가신 양반들도 있고, 그때 못 온 양반도 있고. 또 치매 걸린 양반은 자손이 모시고 와서 그때 보기도 했고. 좌우간 우리네 또래는 별로 없어요. 자식들도 다 오는 게 아니라, 좀 살 만한 애들이나 오는 거지, 힘든 애들은 나타나지도 않지. 지금은 운동장에서 늘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헤어지는 거지.



귀인마을 옆으로 건설되는 평촌신도시(1993, 안양시청 역사 포토갤러리 제공)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이들은 점차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고, 향우회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던 이들 또한 그러하였다. 향우회를 창설하여 회장도 도맡았던 이는 지금 90대 노인으로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일요일에 주로 열렸던 운동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이는 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소박해짐에 따라 식당에 모여 밥 한 끼 같이하며 얼굴을 보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박복희의 경우, 평촌신도시 입주가 한창이던 1990년대에 가족이 모두 귀인마을을 떠나 수원으로 이사하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2000년에 귀인마을에 남아 있는 집터에 건물을 세웠다. 당시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아파트가 3분의 1쯤 지어질 무렵이었는데, 당시 는 실거주보다는 안양농협 지점을 유치하여 임대료를 받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귀인 마을 주변에는 은행이 드물었고, 특히 농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 그의 건물이 세워지는 위치와 건물을 눈여겨 보고 있던 농협 은행이 찾아와 자리를 잡았다. 엘리베이터를 들이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4층 건물로 올리고 3~4층은 독서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학생들 수 자체

가 줄어든 데다, 카페형 독서실이나 학원이 많이 생겨나 학생들은 별로 없고 자격증이나 진급 시험을 준비하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아 멀리 나가본 적이 없었던 박복희는, 이제 해외 근무가 잦은 딸과 사위를 따라 유럽이나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 달 혹은 여러 해씩 살아보기도 하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11개나 되는 친구들 모임도 있었지만,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모임을 즐였다고 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창들 모임의 경우, “처음에 모임 때는 27~28명씩 됐는데” 거의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4~5명이 모인다. 그럼에도 박복희는 여전히 활기차게, 곳곳한 몸으로 지인들을 만나러 간다.

귀인마을의 생명력은 단지 공원 안이나 아파트 근처에 세워진 귀인마을 표지석에만 있지 않다. 여전히 이곳에 남아서, 혹은 다른 곳에 살면서 서로의 인연을 유지하고 끈을 놓지 않는 주민들의 삶 속에도 녹아있고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

박길원 : 1944년생, 별말경로당 노인회장, 3대째 별말 거주.

박복희 : 1940년생, 1962년 귀인마을로 시집옴, 현재 귀인동 거주.

최흥기 : 1958년생, 1993년 셋별마을한양3단지아파트 입주, 현재 한가람한양아파트 거주.

註

- 1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저수지로, 1953년 9월 준공되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안양시 평촌 지역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1990년대 평촌신도시 개발로 저수지 기능을 상실하고 관광시설로 이용되고 있다.(출처: 위키백과 '백운호수', 2024년 8월 1일 검색)
- 2 "조선 초기에 과산 음씨가 최초로 그 마을에 살기 시작해서 음촌이라고 부른 적도 있는데, 음종인은 현재도 안양에서 18대째 살고 있는 과산 음씨 집안 후손이다. (중략) 평촌에는 음씨뿐만 아니라 밀양 박씨, 전주 이씨, 김해 김씨도 이곳에 터를 잡고 대대로 살았다."(이진희, 「제7장. 너른 들, 별말이었던 평촌의 상전벽해」, 『안양근대산책』, 2017, 안양문화원, 197쪽)
- 3 「농지개혁 의미는? 소작농→자작농 촉진...한국 농업발전 초석 다져」, 『농민신문』, 2024년 4월 24일.
- 4 「이정범의 추억 속의 안양(414) : 평촌 귀인마을 풍경」, 『안양광역시신문』, 2024년 3월 15일.
- 5 「안양평촌택지 공영개발 주민들 반대」, 『동아일보』, 1986년 4월 11일.

제2장

평촌신도시 원주민 이야기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수료



원주민(原住民)이란 어떤 지역에서 원래부터 사는 사람을 말한다. 한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의미의 '토박이' 또는 '본토박이'라는 순우리말 표현도 있다. 평촌신도시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났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의 기간으로 볼 때, 평촌신도시도 한 세대가 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도시'와 '원주민'이라는 표현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하지만, 평촌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해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은 '평촌신도시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촌신도시 원주민들은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뿌리 내리고 살아왔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평촌신도시 적응기 : 이경옥의 이야기

이경옥은 1993년 평촌신도시에 분양받은 신촌동 무궁화마을 효성한양아파트를 입주하면서 평촌신도시에 자리 잡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갓 태어난 신도시를 낯설어하였다.

이경옥 : 아파트가 되게 삭막한 데라고 생각했거든요. 입주를 했는데 살 동네가 아니야, 이 동네. 그때 당시 실거주 6개월이 지나야 했어요. 그게 분양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만 살고 다시 서울로 이사 가야지'하고 마음먹고, 그 6개월 동안은 김치나 반찬도 서울 친정에서 받아왔지요. 서울 가서 장 봐서 오고. (중략) 여기 호계시장이 있는데도 거기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은행을 가도 과천으로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경수산업도로도, 그때 막 도로에 보도석 같은 걸 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촌 안에도 나무가 요만한 작은 나무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식재될 당시니

까. 그러니까 (평촌에는) 생활 기반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은행을 가도 과천청사 있는, NC백화점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다녔어요.

당시 그는 둘째와 셋째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은 뒤 퇴직한 상태에서 평촌으로 이사를 왔다. 평촌신도시 구획이 자리 잡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안양에서 아파트가 많은 곳은 비산동 정도였다. 서울처럼 오래된 도시에서만 살았던 그가 아파트 중간 점검차 평촌을 방문했을 때 ‘어머나, 이런 시골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그 당시 1기 신도시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평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주변에서 분당 쪽을 도전해 보라고 하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전에 서울의 다른 아파트에 여러 번 청약했다가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 심리적 부담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곳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당시에 분당 다음으로 평촌이라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분당은 어쩐지 거리가 더 멀다고 느꼈으며, 성남시의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조도 보지 않고 평촌의 무궁화 한양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였다. 한양아파트 24평형을 청약하면서도 그 평수가 작으니 큰지 가늠하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당시는 24평형과 32평형 분양가 차이가 크지 않았음에도, 젊었던 그때는 은행 대출을 하면 큰 일이 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가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집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결국 나중에 같은 단지 내에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 데 더 많은 돈을 들이게 되었다. 지금이라면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당연히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더 큰 평형의 아파트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평촌신도시 초기 입주자 가운데 주부들은 소비 취향과 이동 수단의 여부에 따라 이동 범위를 결정하였다. 이경옥은 주로 백화점 셔틀버스를 타고 과천에 갔고, 가끔 안양동 구도심 상권에 있는 2001아울렛 셔틀버스를 타기도 하였다. 당시 평촌신도시 중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범계역 주변에 세반쇼핑이 있었는데 그곳도 이용하였다. 세반쇼핑은 현재 홈플러스 평촌점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

당시 셔틀버스는 주부들에게 제일 편하고 빠른 교통수단이었다. 백화점 셔틀버스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빠르면서 분당 등 다른 지역 쇼핑몰로 이동하기에 편리하였다. 버스비 없이 쇼핑몰까지 이동할 수 있고, 물건 하나만 사면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올 수 있어 실용적이었다. 어떤 날에는 쇼핑몰 인근에서 볼일을 본 뒤, 작은 물건 하나를 사고 셔틀버스로 귀가하기도 하였다. 분당 삼성플라자 셔틀버스는 범계역에서 평촌역 방향으로 이동한 뒤,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서현역까지 고객들을 태우고 다녔다. 그는 안양1번가를 갈 때 2001아울렛 셔틀버스를 이용하였다. 안양1번가를 다녔던 것은 당시 직장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며, 안양1동 외에 안양동의 다른 지역은 거의 가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경옥 : 저는 직장이 안양1번가에 있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 밥 먹으러 다니면서 안양역도 안 갔던 것 같아요. 농협 안양1번가지점 정도, 거기까지는 은행 일 때문에 갔겠죠. (중략) 지금 생각해도 후회 되는 건 현재 구(舊) 서이면사무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안양옥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점심을 먹으려고 안양옥을 지나서 롯데리아 있는 쪽으로 식당을 이용했는데, ‘어, 있네~’ 하고 쳐다만 보고 그 안양옥을 못 가봤다는 거예요.

평촌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대중교통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주부들이 장을 보러면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여야 이용할 수 있었다. 무궁화마을은 호계동 주공아파트와 가까이 있었는데, 주공아파트단지 내 사잇길로 가면 호계시장이 있었다. 이경옥은 종종 호계시장까지 걸어서 장을 보러 다녔다. 또한, 아파트 내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였는데, 아파트단지에 두부 장수가 두부며 이런저런 반찬거리를 싣고 저녁 6시쯤, 일정한 시간에 왔다고 한다. 그때마다 ‘삐죽삐죽’하는 소리가 나서 ‘삐꾸기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회상한다.

이경옥 : 그때 당시 아파트에 ‘삐죽삐죽’ 하면서 6시 되면 두부 장수가 와요. 두부도 가져오고 다른 것도 가져오고.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애들이 그래요. 삐꾸기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



평촌신도시 입주 초기 목련대우선경아파트(1992년, 이정범 제공)
101동은 현재 201동이다.



은하수청구아파트 입주 초기 모습(1992년, 이정범 제공)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생활편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이다.

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삐걱삐걱’ 하면 집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 엄마가 삐꾸기 시간에는 들어오라고 하니깐. 안 그러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는 해요. “엄마, 그때 우리 삐꾸기 시간 있지 않았어?”, “응, 두부 장수 있었어.”, “아, 그래, 내가 늦게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났잖아.” 그런 얘기를 해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단지마다 일주일에 한 번 알뜰시장이 열렸다. 주민들은 채소·생선·과일 등을 구매하였다. 가끔 야시장이 설 때는 저녁부터 술을 즐기는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요즘은 아파트단지나 범계역 근처에 현금을 받고 저렴하게 채소를 파는 가게들이 늘어나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일이 있어 안양 시내에 갈 때 중앙시장에 들러 장을 봤지만, 최근에는 굳이 중앙시장을 이용할 일이 없으며, 장 볼 일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김스클럽에 가서 물건을 산 뒤 배달시킨다고 하였다.

옷이나 생활용품을 사려면 2001아울렛이나 NC백화점에 갔고, 이후에는 새로 생긴 김스클럽에 다녔다. 이경옥이 생각하기에, 범계역 상권은 뉴코아아울렛과 롯데백화점까지로 인식되어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평촌역 상권은 “40대 아저씨들이 이용하는 장소” 같은 곳이라면서, 평촌역과 범계역 근방의 상업지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촌에 이사 와서 제일 재미있었다고 느꼈던 시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일 때였다. 평촌신도시 안을 맴돌고 백화점 셔틀버스나 시내버스를 타고 쇼핑몰과 만안구의 직장만 맴돌던 그가 평촌에 살면서 배우게 된 것은, 이웃과의 교류였다.

이경옥 : 애가 딱 입학을 했는데, 저는 그전까지 아파트는 되게 삭막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운동회 날 되면, 그 동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운동장에 다 모여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그날 무슨 마을 축제처럼... 그렇게 애들 초등학교 보냈어요.

이경옥 : 제가 어떤 걸 배웠냐면, 옆집 사람과 얘기하는 걸 그때 배웠어요. 서울 살 때는 엄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다 봐주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옆집 사람과 노는 걸 제가 못해요. 그런데 여기(평촌)를 딱 왔는데, 제가 지금도 충격적인 게, 아래층 아줌마가 어디 시골에서 무가 왔다고, 무를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이거 무값을 얼마를 가져다줘야 하는지 몰라서. 저는 뭔가 받으면 뭐든 지불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 생활만 해 봤지, 누구랑 소통이라는 걸 안 해보다가. (중략) 그냥 먹으라고 하셔서 집에 왔는데 저는 이게



목련마을 2단지과 3단지 사이 보행로의 상가. 소량 구매를 원하는 1~2인 가구가 주요 고객이다.

찝찝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한 송이를 사다 드렸죠. (바나나가) 무보다는 훨씬 몇 배 비싼 거. 이제 그러면서 옆집도 놀러 갈 줄 알게 되고, 우리 애들 어릴 때 옆집에도 맡기고 여성회관도 가고. 그런 시절을 지냈죠.

그렇지만 완전히 이웃과 친밀해지는 것은 그의 성격상 맞지 않았다. 1990년대 당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웃들끼리 격의 없이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으나, 이경옥에게는 그런 일상의 반복이 피곤하고 힘들었다고 한다.

이경옥 : 아침에 애들 학교 가고 나면 어느 집에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수다 떨고 점심까지 해결해요. 커피 마시고. 처음에 옆집 사람이 아침에 자기네 집에 놀러 오래요. 저는 놀러 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 언제 저렇게 집을 다 치워놓고 놀러 오라고 하는 걸까?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내 사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싹 치워놓고 나서야 “놀러 오세요.” 해야 하는데. 그래서 몇 번 오라고 하니 가봤어요. 웬걸? 청소도 안 하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놀다가 점심까지 먹고 애들 올 때 되면은 그러는 거야. 오늘은 이 집에서 점심 먹고 다음에는 이 집에서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처음에는 되게 재미있었는데 나중에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좀 그랬어요.

평촌 사람들 대부분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에 대체로 안양에 산다고 하지 않고 “평촌 살아요.”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자신도 모르게 평촌에 산다고 답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안양문화원에 갔을 때 누군가가 그런 대답에 대해 지적하였고, 그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고 한다.

이경옥 : 문화원을 가야 하기도 하고, 안양을 알아야 하니까 그때부터는 골목골목을 다니기 시작한 게 이제 만안구죠. 그전까지는 만안구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거 같아요. 문화원을 딱 갔는데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평촌도 안양인데 왜 평촌 사람들은 굳이 평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조사자 : 그분은 아마도 만안구 사시는 분이었을 것 같네요.

이경옥 :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 있었나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중략) 이제 그다음부터는 누가 물어보면 “안양 살아요.” 그랬죠. 특히 이제 이쪽 만안구 쪽에 와서는 “어디 살아요?” 그러면 “저기 동안구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평촌이라는 얘기 안 하죠.

이경옥 : 평촌 범계역을 기준으로 해서 큰 도로잖아요. (부동산에서는) 시민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평북, 평남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의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거래가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안양’과 ‘평촌’을 구분하려는 분위기처럼, 드물기는 하나 평촌 내에서 ‘평북’과 ‘평남’으로 구분 짓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한편, 과거에는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단지 근처의 학교를 피하는 경향도 있었다. 지금은 분양아파트로 전환되어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듯도 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화해설사로서 활동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오히려 그런 촌촌한 구별과 배제의 사고방식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시시키기도 하였다. 그는 학교마다 가보면 아이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 동안구와 만안구의 차이가 있고, 평촌 안에서도 동안초등학교·민백초등학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 학교마다 아이들의 성향과 분위기는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경옥 : 저는 평촌이 좋은 것들 중 하나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길 있죠. 그 길이 너무 좋아요. 평촌 같은 경우는 이쪽 단지에서 이쪽 단지, 그러면 그 사잇길, 사잇길에 심어진 나무도 이제는 30년이 넘었



향촌마을 평안어린이공원 근처 아파트단지 사잇길

잡아요. 그러니까 요만하던 나무들이 이제 다 컸거든요. 처음에는 나무가 제 키만 했었어요. 평촌 나무가 다 이랬는데, 이런 나무들이 30년 되니까 저보다 커요, 지금은.

평촌신도시가 생겨난 지 30년이 넘은 지금, 평촌은 어딜 가나 푸른 나무의 생명력으로 넘치며 아늑한 느낌을 준다. 또한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에 반듯하고 촘촘하게 난 길과 양옆으로 드리워진 무성한 나무 그늘도 그렇다. 이경옥은 평촌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아파트단지 사잇길을 꼽는다. 아파트단지 사잇길마다 심은 나무들이 서로 달라 각 길을 걸을 때마다 느낌이 또 다르고 새로운 길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촌신도시는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

이경옥 : 또 평촌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신기초등학교에서 단독주택

들과의 사이길이 있잖아요, 그쪽 넘어가는 길은 전부 단풍나무라든가, 부흥고등학교 뒤쪽 길로는 대왕참나무, 어디는 양버즘나무, 어디는 회양목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어디를 봐도 그건 평촌이 좋은 것 같아요. 세경아파트와 신라아파트 그 사이길도 걸어 다니기가 좋아요. 그런 길은 나무들이 다 커서 걸을 때 항상 그늘져 있고 좋아요. 저는 그런 길이 좋아서 평촌 딱 들어오면 잘 걸어 다녀요. 만약 제가 비산 이마트에서 범계까지 간다 그러면 이마트 뒷길을 이용해서 부영이 있고, 여기 관악마을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거든요. 부흥고등학교 있고, 부흥초등학교 사이길이 참 걷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면 범계역.

여기에 더하여 평촌은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넓고 조명이 많아 밤에도 환해서 안심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낮이든 밤이든 안심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곳, 콘크리트 아파트 사이에서도 녹음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평촌이다.

2. 아파트를 넘어, 지역을 위한 노력 : 엄기복의 이야기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 역할을 맡고 있는 엄기복은 1996년도 9월 한가람 세경아파트에 입주하였다. 그는 1988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했으며, 평촌신도시에 오기 전까지는 광명시 하안동에서 살았는데 광명과 수원을 오가다 보니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당시 경기도 남부에 베드타운 도시들이 하나둘 형성되면서 산업도로가 포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셋길로 도망 다니기도 하면서 어렵게 출퇴근을 하였다. 그래서 그는 장거리 출퇴근을 계속하는 것은 힘들다겠다는 생각과 함께, 언젠가는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겨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990년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내 또한 서울 출신이어서 두 사람 모두 수원에는 연고가 없으니 주변의 1기 신도시에 가능한 한 도전했다고 한다. 현실적인 이유로 분당을 포기하고 산본 7단지에 도전했는데 이때 주소지 문제로 필요한 서류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는 바람에 ‘서류 미비’라는 이유로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도 인연이 아니다, 여기서 살지 말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평촌신도시에 도전하였다.

엄기복 : 여기가 마지막에 있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중략) 분양할 때 가서, 그때는 로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15층의 가운데 정도? 5·6·7·8층. 사무실에 가서 “이 로열층이 좀 당첨되겠습니까?” 그랬더

니 거기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하더라). 그렇죠, 전산으로 하는데. 그래서 로열층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는데 또 기층이 되더라고요. 기층에 들어와서 좋았지요.

1기 신도시 여러 곳을 도전할 때만 해도 그에게 평촌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평촌은 거의 30년째 삶을 영위해 온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여기가 살기 좋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엄기복 : 근데 여기가 좋죠. 저번에 한 번, 딸내미를 목동에 태워다 준다고 그래서 동생네 집을 가는데, 애가 하는 소리가, "아유, 아빠, 나는 서울에서 못 산다. 답답하고 차도 막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신도시, 계획도시로, 이런 데가 사는 게 좋다. 뽕뽕 다 뚫려 있잖아요.

평촌에서 오래 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학군'이다. 1996년 세경아파트 이주 당시에는 지금처럼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는 자녀들이 모두 미취학아동이었다. 자녀들이 자라서 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평촌의 학교들도 자리가 잡히고 학원들도 생겨났다.

엄기복은 평촌으로 이사 온 지 약 10년 정도 지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는 아파트 동대표로 시작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한가람 세경아파트 노인정 개소식(1997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시 전체 31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현재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시작으로 부림동, 평촌신도시, 그리고 안양시를 아우르며 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혀갔던 것이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이 쌓이고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역의 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엄기복이 동대표를 맡았던 세경아파트는 1,292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부림동에서는 부영아파트(1,733세대) 다음으로 세대 수가 많다. 그는 처음에는 총무를 맡았고 그다음에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차례로 맡게 되었다. 이런 봉사 경력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96년에 평촌으로 이사를 왔으나, 2004년까지는 가정과 직장에만 집중하였다. 당시에는 어렸던 자녀들을 돌보면서 평일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으나,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그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일 가운데 하나는 경로잔치 예산을 확대한 것이다. 당시 경로잔치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주민이었는데, 세경아파트 내 인원을 파악해 보니 150~170명 정도였다. 안양시에서 분배하는 예산이 있긴 했으나, 당시



평촌 아크로타워 대강당에서 개최한 2009년 부림동 경로잔치(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그 예산만으로는 “짜장면값도 안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예전에는 예산 부족으로 동(洞) 차원에서 장소를 빌려 각 아파트단지의 어르신들을 모아 음식을 대접하였으나 참여율이 매우 낮았다. 이에 세경아파트 동대표들과 어버이날 경로잔치 진으로 회의를 한 후, 부림동 전체 회의에서 세경아파트는 따로 경로잔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업기복 : 저희한테 들어온 예산을 주시고, 저희가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우리가 업(up)시켜서 100%, 거의 90% 이상 다 참석할 수 있게끔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1인당 13,000~14,000원 정도면 훌륭하더라고요. 또 지인 중에 무명 가수들 있잖아요, 트로트. 그런 분들에게 “와서 봉사 좀 해라.” 초청하고. 아는 사람들니까. 우리 경로잔치 하니까, 점심시간이니까 와서 노래 좀 불러달라고. (중략) (시에서 주는 예산을 아파트별로 쪼개면 매우 적은 돈인데,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나요?) 제가 아파트에서 대표를 하면서 수익 창출을 많이 했어요. 저는 관리 체제가 아니라 경영 체제로 운영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를.

업기복 : 분리수거하는 데서도 다 돈 받고 합니다. 게시판 광고, 현수막 거는 것도 돈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적립하잖아요. 그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월 70만 원 정도, 매년 820~8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를) 하면서 공개 입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

서 (수입이) 월 2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연 2,500 정도. 그러니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의류 따로, 폐지 따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면서, 세대 수가 많으니까 폐품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개 입찰했을 때 이렇게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매월 상당하더라고요.

그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했는지 이야기하였다. 현재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아파트의 이러한 외부 수익은 주민들에게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환급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외부 업체를 통해 얻은 수입들을 아파트 설비 보강이나 수리에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경로잔치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들을 할 때 사용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외부 수익이 넉넉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서 “10원 한 장 걸지 않고” 아파트를 관리하고 행사를 열 수 있었다. 집행 내역은 게시판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높은 신뢰를 얻었다.

업기복 :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지인들이 고생한다고 찬조도 해주시고. 거기서 결산 내역을 보면, 우리가 찬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 다 기입해서 액수까지 적어서 게시판에 공고하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그가 대표로 있기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면서, 아파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아파트단지 알뜰시장도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큰 규모로 1박 2일 동안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업체들을 받아 수익을 높일 수 있었다. 업종이 너무 겹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하였다. 종종 비위생적이라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근처의 식당들이 싫어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원활하게 운영되었다고 한다.

부림동의 바로 옆에는 인덕원동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는 인덕원역은 앞으로 4개의 노선¹이 교차하는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인기가 상승하였지만, 그가 회상하는 인덕원 일대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

업기복 : 인덕원은 옛날에는 그냥 유희문화 그런 데였죠. 인덕원의 원래 행정구역은 관양2동이에요. 그게 이번엔 바뀐 거예요.² 웬만한 사람들은 인덕원은 다 알아요. 안양의 인덕원은. 그런데 관양2동이라는 건 몰라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현실에 맞게끔 명칭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돼서 올해 2024년 1월 1일자로 인덕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시대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모임조차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

엄기복 : 협의회장을 코로나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회장'이라고 그러요, 저 보고. 그때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짚 가지고 있었지만, 다수가 모이는 그런 모임을 할 수 없다 보니 행사 같은 걸 못 하고. 겨우 해놓은 게 GTX-C 노선만. 그때 (GTX-C 노선에서) 인덕원역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포함) 안 되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행정기관의 시장님부터 해서, 이젠 주민 차원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해서 국회나 국토부라든가 쫓아다니면서 관철시켰죠. (중략) 지금은 이제 C 노선에 인덕원역이 들어가 있죠. 그것만 좀 열심히 했어요. 각 동의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홍보 활동도 하면서. (중략) 국회는 지역구 위원들이 힘도 쓰고 행정기관 차원에서는 시장님이란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다 보니까 그 역이 만들어지더라고요.

GTX-C 노선을 만드는 이유가 가기 힘들고 멀리 떨어진 지역을 서로 이어 좀 더 빨리 오가기 위한 것인데, 역을 자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역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엄기복은 자신이 사는 부림동만 생각했다면 인덕원역의 변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모든 정책 결정이 시민들의 노력과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촌, 나아가 안양 전체를 위해 시민들이 뜻을 모으고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사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점, 그것이 인덕원역의 복합환승센터 결정을 떠받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20년 이상 세경아파트와 부림동, 동안구와 안양시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

엄기복 : 다양한 걸 했어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젊었을 때는 베드타운에 사는 사람의 전형으로,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 강의를 하고 끝나는 시간이 9시 정도니까 집에 오면 10시 정도.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또 주말이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일)하고. 거의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봉사라는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저의 마음도 그렇고, 자의 반 타의 반이죠. 끌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받을 디딘 후로 여태 받을 못 빼고 있네요.

엄기복은 평촌신도시의 분양 입주주민으로서, 또 한 아파트에서만 30년 가까이 거주하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산지 정화 캠페인(201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두루 돌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데 힘을 보태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앞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기복 : 이제 자꾸 패턴이 바뀌어야 해요. 사람도 바뀌면서 뉴페이스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가져다가 현실에 맞게끔 꾸려가고 그래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과거에 많이 머물러 있죠. 물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오랫동안 굳림하다 보면 미래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저는 사람이 자꾸 바뀌어야 한다는 마인드인데.

변화를 꾀하는 그의 마음은 활동이 중지되었던 사회단체를 부활시켜 동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부림동에는 다른 여느 동과 마찬가지로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약 12개의 사회단체가 있다. 그중 체육회는 10여 년 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04년에 엄기복과 지역 주민들에 의해 부활한 사례이다. 안양시에서는 매년 10월 시민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동별로 1,000만~2,000만 원가량



2012년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한 부림동 선수단(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의 예산이 배분된다. 예산은 참가선수단의 연습 및 식사 등의 비용과 체육대회 당일 경비로 사용한다. 또한 부림동은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옷놀이대회를 여는데, 이때 안양시에서도 2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여 대회를 통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부림동 체육회는 안양시의 지원 예산을 운용하여 이와 같은 체육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진 이래 3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평촌신도시에는 이경옥이나 엄기복과 같이 오래도록 이곳에 머무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잠시 살다 떠나는 이들도 있다. 그뿐 아니라 주민 자치 조직이나 아파트 내 일상의 경관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부림동 체육회처럼 중단되었던 조직이 다시 활성화되기도 하고, 아파트단지마다 열렸던 알뜰시장처럼 사라진 것들도 있다. 물론 사람이나 경관, 조직의 변화에도 평촌신도시 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엄기복은, 중대형 평형대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아파트단지보다 소형 평형 중심의 아파트단지가 전입과 전출이 자주 일어나서 이웃이 자주 바뀐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림동은 단독주택이 없고 아파트와 상가로만 이루어져 있어, 아파트 주민들은 이웃 간에 서로



2023년 정월대보름 맞이 부림동 율놀이 한마당(부림동행정복지센터 제공)

잘 모르고 삭막하다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오래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서로 가까워져 이웃 간의 친분을 쌓게 된다고 한다. 평촌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해서 지금까지 거주하는 ‘평촌신도시 원주민이 형성한 아파트 문화는 새로 이사 오는 이웃들에게도 전달이 된다.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주민자치 조직에도 젊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부림동의 경우,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연령대가 40~50대인 주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엄기복은 젊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아니라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것이 비결인 셈이다.

엄기복 : 봉사 좀 하자,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봉사하고. 이제 같은 동네 살면서. 우리가 이웃사촌이잖아요. 게시판에 (공고들) 붙여서, 저랑 아는 분들에게 공고 나갔으니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도 (모집)하고. 요즘 아파트는 옆집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 신혼 때 와서 아이가 생겨서 (집 규모를) 늘려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서

2024 더 좋아하는 안양제도 10

1. 안양시청 1층 100㎡ 이상 주차장
2. 안양시청 1층 100㎡ 이상 주차장
3. 안양시청 1층 100㎡ 이상 주차장
4. 안양시청 1층 100㎡ 이상 주차장
5. 안양시청 1층 100㎡ 이상 주차장
6. 안양시청 1층 100㎡ 이상 주차장
7. 안양시청 1층 100㎡ 이상 주차장
8. 안양시청 1층 100㎡ 이상 주차장
9. 안양시청 1층 100㎡ 이상 주차장
10. 안양시청 1층 100㎡ 이상 주차장

부림동 행정복지센터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

WELCOME

부림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림동은, 행정, 교통, 금융, 교육의 중심지!

안양시청을 비롯해 법원, 검찰청, 교육지원청 등 주요 공공기관 밀집해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4곳선 영문학교 등이 편입된 교육을 지원하며, 임대 주택 인센티브 및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저렴한 시세대로는 안정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3개의 학교는 지역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과 산책로가 있는 부림동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주요기관

행정기관

- 안양시청
- 안양시의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안양경찰서
- 안양소방서
- 안양지방법원 부림지원
- 안양부동산중개업소
- 부림우체국
- 부림시우체국

교육기관

- 안양자천교육지원청
- 부림초등학교
- 부림초등학교
- 부림초등학교
- 부림중학교
- 부림고등학교
- 부림고등학교
- 부림고등학교
- 부림고등학교
- 부림고등학교

사회단체

- 부림자치위원회
- 부림향우회
- 부림노년자모임회
- 부림동민회
- 부림동주민자치위원회
- 부림동주민자치위원회
- 부림동주민자치위원회
- 부림동주민자치위원회
- 부림동주민자치위원회
- 부림동주민자치위원회

“안양시민이 되십시오”
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양시청 1층 100㎡ 이상 주차장

2024년 2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수강료	교육장소
탁구	수, 목	13:00~15:00	6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탁구	수, 목	16:00~18:00	60,000	
고급수구구대	수, 목	18:00~21:00	6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고급수구구대	수, 목	18:00~21:00	60,000	
태권도	수, 목	08:00~10:00	4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태권도	수, 목	11:00~12:30	40,000	
태권도	수, 목	13:30~15:00	4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태권도	수, 목	16:00~18:00	40,000	
태권도	수, 목	18:30~21:00	4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태권도	수, 목	18:30~21:00	40,000	
태권도	수, 목	11:00~12:30	4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태권도	수, 목	13:30~15:00	40,000	
태권도	수, 목	16:00~18:00	4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태권도	수, 목	18:30~21:00	40,000	
태권도	수, 목	18:30~21:00	4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태권도	수, 목	18:30~21:00	40,000	
태권도	수, 목	11:00~12:30	4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태권도	수, 목	13:30~15:00	40,000	
태권도	수, 목	16:00~18:00	4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태권도	수, 목	18:30~21:00	40,000	
태권도	수, 목	18:30~21:00	4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태권도	수, 목	18:30~21:00	40,000	
태권도	수, 목	11:00~12:30	4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태권도	수, 목	13:30~15:00	40,000	
태권도	수, 목	16:00~18:00	40,000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태권도	수, 목	18:30~21:00	40,000	

주소: 안양시 부림동 194-1 부림동행정복지센터

전화: 031-8045-4670

부림동 자체 제작 소식지(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제공)

로 인사 주고받고 연락하고 학부모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아는 척하고 하다 보면 부모도 이제 인사하게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 대화도 좀 나눠 보고.

주민자치 조직을 유지하는 힘은 결국 끊임없는 관계 맺기와 꾸준한 활동에서 나온다. 매월 정해진 날에 열리는 월례회의 외에도, 주말 중 하루를 활용하여 관할 동을 함께 돌며 쓰레기 줍기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한다. 사실 매월 회의를 열기는 하지만 항상 어떤 주제나 안건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회원들과의 유대 관계를 다지고 자치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 평촌을 지켜나가는 주민들의 노력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바탕에는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가 있었다. 특히 평촌신도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평촌을 지키며 오랫동안 지내온 이들이 새로운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평촌신도시를 만들어 온 동력인 듯하다.

제보자

이경옥 : 1993년 1월 무궁화한양아파트 입주, 현재 목련마을 우성 3단지 거주.

엄기복 : 1996년 9월 한가람세경아파트 입주, 현재까지 거주.

註

- 1 GTX-C 노선, 인덕원~동탄선(인동선), 월곶~판교선(월판선), 기존 4호선.
- 2 인덕원동은 1990년 관양동에서 관양2동으로 분동하였고, 1993년에는 관할지역 중 평촌택지개발지구를 부림동으로 분동하였으며, 2024년 인덕원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https://www.anyang.go.kr/>, 검색일자 : 2024. 8. 5.)

제3장

교육을 위해 평촌으로 이주한 사람들

오윤정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촌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20대 미만의 인구가 많이 사는 신도시 가구 구성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가구 구성은 신도시에 소비 시설과 교육 기관이 집중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 신도시 가구 구성의 연령별 특징을 반영하듯 1기 신도시 모두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것을 볼 때, 평촌의 높은 교육열은 평촌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안양은 물론이고 과천·의왕·군포 등 인근 도시의 학생들이 평촌학원가로 몰릴 정도로 평촌은 교육 인프라가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 인해 자녀의 학령기에 맞춰 평촌신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들의 이주를 일종의 ‘교육이주’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평촌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이러한 교육이주 현상의 배경에는 평촌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학군지와 귀인중학교라는 두 요소를 꼽아볼 수 있다.

1. 평촌학원가 중심의 학군지

‘학군’이란 입시 제도의 개편에 따라 지역별로 나누어 설정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집합을 일컫는 말로, ‘학군지’라는 어휘만 보면 그 해당 학군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육 종사자들 사이에서 학군지라는 표현은 다소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이들에게 학군지란 ‘학원이 밀집해 있는 곳’ 혹은 ‘학구열이 높은 곳’을 가리킨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군지로는 서울의 대치동·목동·중계동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이 손꼽힌다. 이러한 학군지는 단순히 학원의 수가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원이 많다는 것은 사교육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고, 양적 증가는 곧 그 속에서의 질적인 향상, 교육에서는 높은 명문대 입시 합격률과 연결된다.

서울 대치동에 주말이나 방학 때 유명 학원의 특강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학생들이 비행기 통학을 하거나 임시 월세방을 구하면서까지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촌은 대치동만큼은 아니지만, 경기도 서남부권 최고의 학군지로, 가깝게는 의왕·과천·군포를 비롯하여 멀리는 안산·시흥에서 평촌학원가로 몰려들었다.

유지원 : 저희가 원래 안산에 살았거든요. 큰애가 안산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을 때, 애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 봤더니 애는 좀 경쟁력 있는 애다, 애가 용인외고나 안양외고를 목표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는 이제 외고 준비하는 거였으니까는, 그래서 영어만 평촌 쪽으로 와서 공부를 했죠. 안산 지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럽지 않으니까, 다른 애들은 방과 후에 놀 때 자기는 평촌 학원으로 와야 되니까.

유지원(가명, 50대, 여성)은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남이 공부를 잘해서 안양외고 입학의 목표로 하였고, 외고 진학 준비를 위해 평촌 학원가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원래 안산에 거주하였으며, 두 아들 모두 초등학교·중학교를 안산에서 다녔다. 하지만 장남의 고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방과 후에 안산과 평촌을 매일 데리고 오가게 되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서 곧바로 평촌에 있는 학원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아들은 방과 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아들은 안산에 있는 학원에 다니며 시간적 여유를 갖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평촌으로 학원 수업을 들으러 다녔고, 덕분에 안양외고에 입학할 수 있었다. 유지원이 그렇게 안산과 평촌을 매일 오갔던 것은, 평촌 학군지 수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에게 평촌학원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유지원 : 저희 조카가 창원에 있었는데, 창원도 학구열이 높은 곳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여기로 올려 보내라 하고는 여기서 제가 끼고 공부를 시켰거든요. 학원 다니면서 제가 집에서는 공부 습관 잡아주고. 중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조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애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려가서도 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혼자 공부해요.

유지원은 조카가 평촌학원가에 다니면서 학습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였다.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진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태



귀인동 평촌학원가

도나 생각이 스스로 바뀌게 되는 효과는, 평촌학원가로 보내는 많은 학부모가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평촌은 대부분의 학교가 학업에 몰두하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어, 자녀가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는 쉽게 나쁜 방향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작용한다.

최송아 : 여기 애들 스스로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안 해도 수학학원은 다녀야 한다, 영어까지는 다녀야 된다. “메인 학원은 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애한테 “너 말 안 들으면 수학 끊어 버린다.” 그러면 애가 “그래도 그건 다녀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어떤 엄마는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세계 온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학원을 다 끊은 거예요. 한 6개월을. 근데 이제 본인이 겨울방학에 엄마 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윈터스쿨 보내달라고 그래서 윈터스쿨에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최송아(가명, 40대, 여성)는 큰아이의 사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 학부모들로부터 사춘기 자녀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다고 한다. 자녀의 사춘기에 대해 걱정은 하지만, 학군지의 아이들은 사춘기에 방황하더라도 주변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곧 다시 학업으로 돌아왔다는 누군가의 이

야기를 들으며 학군지로 이사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

학군지에 대한 믿음은 단지 학업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원에 다니느라 바쁘고, 부모의 지속적인 관리 아래 있으며, 유사한 가정환경을 공유하는 또래들과 어울리다 보니 학교 폭력이나 ‘왕따’ 같은 청소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준형(가명, 20대, 남성)도 학창 시절에 학교 내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학교 내 괴롭힘 문제도 잘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준형 : 학원에 가면 출석 체크를 해야 하니까, 출석 체크를 안 하면 엄마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학원에 가 있어요. 애들이 많이 학원에 가 있어요. 마을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근데 학원은 가요. 학원에서도 담배 피는데, 학원 빠질 생각은 또 안 해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가 일탈 또는 금지된 흡연을 하더라도 학원에 가서 한다는 말은 소위 “평촌 애들은 놀아도 학원 가서 논다”는 문장으로 표현된다. 이는 학군지 청소년들은 일탈하더라도 학업만은 놓지 않는다는 인식이 학군지 내에서는 형성되어 있고, 불량한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 방과 후에는 학원에 있다는 안도감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평촌을 학군지로 선호하게 되며 평촌으로 “입성”하고자 한다.

2. 경기도의 명문, 귀인중학교

평촌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군지가 된 배경에는 평촌학원가와 더불어 명문 중학교로 소문난 귀인중학교의 영향이 크다. 귀인중학교는 귀인동에 위치한 공립중학교로, 1993년 3월에 총 14개 학급으로 개교하였다. 귀인중학교가 명문 중학교로 유명해진 데에는 고교 진학 결과가 우수하며, 교육과정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더라도 다른 중학교 출신보다 학습력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평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졸업생 369명 중 54명(15%)이 영재고·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로 진학하였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화성시나 김포시처럼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비평준

화 지역이 있으며,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입시 경쟁을 치르기도 한다. 하지만 안양시는 2002년부터 고교평준화 제도가 적용되어서, 소위 ‘뽕뽕이’라고 불리는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지역 내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 점수가 무의미하다. 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고 등의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중학생들은 해당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 성취가 중요하지만, 일반고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고교평준화가 적용되면서 비평준화 시절처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입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귀인중학교가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률이 높고, 학업 수준이 높은 명문중학교로 주목받으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귀인중학교 배정을 위한 ‘입시전’이 벌어진다. 이 경쟁은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놓고 겨루는 것이 아니라, 귀인중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귀인중학교(김민성 제공)





귀인초등학교(김민성 제공)

평촌신도시의 중학교 배정은 다소 독특하게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통·리별로 학교가 배정되지만, 중학교는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지망할 수 있는 중학교가 다르다.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를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정한 후에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다. 안양시의 중학교 학군은 크게 만안중학군과 동안중학군으로 나뉘는데, 동안중학군은 다시 동A구역·동B구역·평촌구역으로 나뉜다. 이중 동안중학군에 속하는 평촌구역만 다른 방식으로 학교가 배정된다.

만안중학군과 동안중학군의 동A구역·동B구역은 1~6지망까지 해당 구역에 있는 중학교들을 선택해서 지망할 수 있다. 그러나 평촌구역만은 초등학교마다 제시된 1지망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해당 중학교로 지정된다. 평촌구역 내 일부 초등학교 가운데 1지망 중학교가 두 곳으로 제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거주지에 따라 한 곳만 제시된다. 즉, 대부분의 안양시 초등학교는 중학교 배정에서 6개의 선택지가 있으나, 평촌구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초등학교 배정받듯이 거주지에 따라 지정된 중학교가 있는 것이다. 귀인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에게는 평촌중학교와 귀인중학교가 1지망으로 안내되지만, 학생의 거주지 주소에 따라 둘 중 한 곳으로 배정된다. 그렇지만 1지망으로 귀인중학교가 제시되는 거주지에 사는 학생이라도 모두 귀인중학교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전·입학 순서에 따라 귀인중학교로 배정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이는 민백초등학교도 동일하다.

즉, 민백초등학교와 귀인초등학교 학생들은 현재 거주지 주소에 따라 귀인중학교에 배정되어야 하지만, 전·입학 시점, 다시 말해 재학 기간에 따라 귀인중학교로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4학년 때 귀인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A와 6학년 2학기 때 귀인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B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함께 귀인초등학교를 졸업해도 B는 재학 기간이 짧아 귀인중학교로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녀를 귀인중학교로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적절한 시기에, 대개 초등 6학년이 되기 전에 귀인중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이사하고 자녀를 전학시킨다.

귀인중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주로 귀인동 꿈마을에 모여 있다. 귀인마을현대홈타운아파트 2단지를 비롯하여, 꿈마을 현대·우성·동아·건영·금호·한신·라이프아파트 등이 해당한다. 이 단지들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인중학교 학군이라는 이유로 평촌신도시 내 동일 면적의 아파트보다 전세거나 매매가가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한번 입주하면 학군지에서 살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 즉 자녀의 대학 진학 또는 취업 후에나 평촌을 떠난다. 또한 해당 단지들은 세대 수가 많지 않아, 구매력이 있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편이다.

귀인중학교 배정을 위한 아파트 입주가 어려운 경우, 학부모들은 차선책으로 평촌동 900~930번지로 전입을 선택하게 된다. 평촌동 900~930번지는 귀인동 평촌떡거리촌 인근의 단독주택 필지로, 1층 상가와 2층·3층 주택으로 구성된 상가주택 밀집 구역이다. 상가주택은 대부분 1층에는 식당·인테리어업체·학원·커피숍 등이 입점해 있으며, 2층은 두 세대가 입주할 수 있게 나뉘어 있고, 3층에는 건물주가 거주한다. 주거용 공간



민백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수업(200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인 2층은 대략 전용면적 60㎡ 정도로 방 2개와 거실로 구성되어 있다.

김종영 : 여기는 전세 매물이 많아요. 전세금 사기 때문에 요즘 주택은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와서 여기가 월세 동네가 되게 생겼어요. 여기는 학교가 있으니깐, 회전도 잘 되고. 왜냐하면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애들이, 1학년이 입학하러 또 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깐 로테이션이 되죠. 월세는 또 월급 받는 분들한테는 부담이잖아요? 여기 2층 같은 데 전세 1억에서 2억이면 방 2개, 거실 그러니깐. 한 층에 두 세대니깐. 아파트는 그 돈이 안 맞으니깐 못 들어가고.

귀인동 상가주택번영회장 김종영(70대, 남성)은 1980년대 중반에 호계동 현대아파트로 이사 와서 살다가, 평촌신도시 단독주택 필지를 분양받아 귀인동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이 일대에서 이사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이지만 귀인동 상가주택은 예외적이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단위가 학교 입학과 졸업 시기에 맞춰 입주하고 나가는 구조로, 여전히 전세 매물이 월등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 건물주 세대의 방 한 칸을 빌려서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위장 전입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위장 전입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권미연(40대, 여성) :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제 주변에도 걸렸어요. 그걸 알고 애들이 카톡으로 누구 위장 전입했대 이런 식으로 약간 따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야 걸려봤자 못 쫓아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먹자골목에 다세대 주택에 위장 전입해서, 거기가 원룸이 많아요. 이제 아파트는 위장 전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원룸을 월세로 해놓고 거기에 위장 전입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방은 그냥 비어 있는데 월세만 계속 나가는 그런 집 많다고 들었고, 그냥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과외방처럼 월요일날 국어 선생님 모시고 화요일날 영어 선생님, 이런 식으로 쓰는 집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위장 전입은 근절되지 않아, 위장 전입 금지 플래카드가 동네 여기저기에

붙고 위장 전입에 대한 소문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아다닌다. 이처럼 학군지 아파트에 입성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주거 환경을 타협하거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 위에서 학군지 입성을 시도한다.

3. 교육이주 과정

자녀의 교육을 위해 평촌으로 이주한 교육이주민은 자녀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입성 시기를 조율한다. 영유아 때부터 평촌의 교육 환경에 노출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원 전이나 초등학교 입학 앞둔 유치원 때 이사를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귀인중학교 입학 을 바라보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사를 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간혹 특목고 입시를 위해 중학교 때 이사 오기도 한다. 평촌 교육이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녀 교육의 성공, 즉 중·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명문대학교로 입학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평촌은 유명 학군지인 만큼 내부적으로 학업 경쟁이 치열하여 평촌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사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교육을 위해 평촌으로 이주해 온 주민과 평촌에서 학령기를 보낸 주민들은 평촌 교육이주와 관련된 그들의 경험을 아래와 같이 구술한다.

최송아(가명, 40대, 여성)는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해 1월에 꿈마을로 이사를 왔다. 그전에는 의왕 숲속마을아파트에 살았는데, 영어는 조기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어유치원에 보내며 나름대로는 자녀의 교육에 신경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평촌학원가에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변 언니들의 조언에 따라 평촌학원가에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자신의 자녀 또래 아이들이 배운다는 교재 수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최송아 : 이게 진짜 7살 애들이 하는 교재라고, 7살도 너무 늦었다고. 그다음에 수학 과정도 다른 학원에서 진행하는 교재 보면 되게 어려운 걸로 하고 있어요. 저는 주변에 있던 언니들이 먼저 평촌에 와 있었어요. 그 언니들이 너도 이제 여기 학군지 와야 된다 그러가지고 그 말 듣고 이사를 결심했어요. 남편도 반대하고 시부모님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제가 우겨서 여기 와갔고 처음에는 전세살이로 시작했어요.



귀인동 꿈마을 전경.
가운데가 민백초등학교, 왼쪽 아래가 귀인초등학교와 백영고등학교이다.

귀인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다행히 집 주인의 배려로 빠르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아무리 자녀의 교육을 위한 이사라고는 하지만, 최송아는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낡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고 한다. 그가 살던 숲속마을아파트는 신축이었다. 그러나 그는 현재 평촌으로 이사 온 것에 대해 만족해한다.

최송아 : 여기 와서 딱 느낀 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의사소통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사는 수준이 되게 비슷비슷하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그렇게 자주 가지도 않지만, 가끔 해외 나가면 그걸 애들이 유치원에 가서 나 어디 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의 어떤 애는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애들이 유치원에 가서 그런 자랑하지 못하게 단속시켰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다 해외여행 가고, 경제적 수준 차이가 거의 없이 비슷한 아파트단지에 있는 애들이 학교에 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게 편해요. 애들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니, 말할 때도 숲속마을 때처럼 고민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했을 때도 “너 거기 해?” 그러면 “나도 이거 해.”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에도 좋고. 그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여기 와서 저는, 제가 교육에 관심이 있던 어머니가, 그런 게 편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최송아는 무엇보다도 경제 수준이 비슷하다는 점과 비슷한 경제 수준에서 나눌 수 있는 정보 공유에서 편안함을 느꼈다고 한다. 가족과의 해외여행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유, 자녀 교육에 대한 적극성 등이 이전 동네에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었다. 그러나 그도 이사 직후에 자녀의 학습 때문에 우울한 시기도 있었다고 한다.

최송아 : 거의 한 2년은 우울증 같은 게 걸렸던 것 같아요. 애가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그 정도로 잘 따라오지 못하니까. 여기서 키웠던 분들처럼 이렇게 루트를 못 따라가니까. 좀 비교하고 약간 자책하고 좀 그랬죠.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4살 때는 숲 유치원, 7살 때까지는 영유(영어유치원) 이렇게 보내다가 6살 때쯤 사교력 수학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학년 정도 되면 어디를 보내고, 영어는 또 어디를 보내고, 나중에 입시로 4~5학년이 되면 어디를 보내고, 영재원 보내고 이런 루트가 있어요.

최송아는 첫째 아이가 8살 때 평촌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자녀에게 더 일찍 교육 루트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자녀가 평촌에서 제시하는 학습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해 주변과 비교하며 자책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중학교 입학 앞둔 초등학



교 고학년 무렵에서야 이사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문의가 오거나, 평촌에서는 보통 수준의 학원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수준 높은 학원으로 인식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일찍 평촌에 들어와서 자녀 교육을 시작한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4. 평촌에서 다른 지역으로

평촌 교육이주민은 자녀가 성공적으로 대학입시를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평촌으로 입성한다. 그러나 모두가 목표한 바를 이뤄내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원했던 중학교로 배정받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하기도 하고, 일부는 교육과정과 내부 경쟁을 힘겨워하며 다시 평촌을 떠나기도 한다. 그래서 학군지로의 이사는 자녀의 성향과 실력에 대해 고심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평촌 학부모들은 입을 모은다.

유미영 : 여기는 오면 이제 귀인중학교가 첫째 목표예요. 거의 다 귀인중학교 때문에 왔었어요. 안면도에서 온 아줌마가 있었어요. 안면도에서 차를 끌고 애를 데리고 왔다가 2시간 이상 기다리다 개를 또 싣고 안면도 집으로 간다니깐. 그래서 방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쪽 생활도 있으니까,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그래서 내가, “애가 공부 좀 해요?” 그랬더니 한다고는 하는데 “이거 못 할 것인데요” 그러더라고. “여기 방을 얻어가지고 살려 했더니 저쪽 집 살림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지도 못하고 그래요,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하여튼 여기 희한한 동네였어.

귀인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유미영(가명, 여성, 60대)은 평촌 교육이주와 관련해서 안면도에서 방 하나 얻으러 왔던 학부모를 떠올렸다. 그러나 안면도가 생활터인 가족 모두가 평촌으로 옮겨올 수 없는 상황이라 고심하고 있었는데, 유미영은 자신 역시 이 지역에서 두 아들을 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학업 수준에 따라 때로는 말리기도 한다고 하였다.

유미영 : 애가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 엄마들은 괜찮아. 나도 우리 애들 여기서 학교를 보내고 결혼해서 살지만, 애가 공부 잘하지도 못한 엄마들이 그냥 흑시나 여기 들어와 있으면 공부 좀 할까 그런,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의왕에서 어떤 엄마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가 공부 좀 해요?” 그랬더니 “워낙 못하니까 흑시...” 그래. 내가 그런 애들 잡지마라고 했어.



태권도, 영어, 음악 학원 등이 있는 꿈마을 동아아파트 상가

학부모들 사이에는 귀인중학교에 진학한 자녀가 기대만큼 잘하지 못하고 힘들어해서 다른 중학교로 전학하거나, 입학 전부터 평촌학원가 출신 학생들과 경쟁에서 밀려 귀인중학교 배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이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렇지만 그런 소문에는 주로 평촌 내에서는 힘겨워하던 아이가 평촌 밖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평촌의 교육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며 평촌 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곳에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학부모들은 ‘평촌에서 사교육을 하기를 잘했다’, ‘평촌의 교육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소문이나 주변 지인의 경험 속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례가 언급되지만, 중·고등학교 전학은 초등학교 때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은 평촌에서 자녀의 교육을 마무리한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늦게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학부모의 역할을 끝내고 평촌을 떠난다고 하였다.

최송아 : 저희 집을 판매하고 가신 분이 딱 그런 분이었어요. 애들을 여기에서 다 키우시고 성장을 시킨 다음에, 대학교까지 보내신 다음에, 약간 공기 좋은 숲속마을로 오히려 이사 가려고 나가시는 거였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로 가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판매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전세가 잘 나가



학원 간판이 빼곡한 평촌학원가 풍경(201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니까, 안정적으로 전세가 잘 나가니까 집을 팔지 않고 전세로 돌려요, 여기에 있는 전세 비용으로 조금 저렴한 집을 하나 살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재산처럼 두고 전세로 다른 데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 비용으로 (아파트) 하나를 더 해서 집을 그채 보유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최송아는 전세로 평촌에 입주한 뒤, 이후 다른 단지의 아파트를 자가로 매입하였다. 구매한 아파트의 전 주인은 자녀 교육을 마친 뒤 평촌을 떠나 의왕 숲속마을로 이사한 경우였다. 그러나 평촌신도시의 아파트는 수요가 높아 재산 가치가 높아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전세금으로 평촌보다 시세가 낮은 지역에 새 아파트 한 채를 더 매입하여 평촌을 떠나기도 한다.

김소라 : 제 고등학교 친구들만 예를 들면, 한 6명 중에 2명은 서울로 이사 갔고, 나머지는 결혼해서 다른 데 살고 있고, 평촌에 계속 살고 있는 친구는 한 명 있어요. 어떤 애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수원으로 이사 갔고요, 지금은 광주에 살지만. 또 다른 친구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흥으로 이사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동생이 취업하고 나서, 동생이 서울로 취업해서 나와 사니까, 강원도로 노후 보내신다고 아예 아파트를 팔고 가셨거든요. 제 친구 중에, 개는 안양에서, 평촌은 아니고 안양에서 살면서 평촌권 학교를 저희랑 같이 다니고 거주지역이 만안구인데, 학교를 평촌 쪽에 다니다 보니 평촌 교육이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애들 교육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걸 고려를 한다고, 학원도 많고 가깝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소라는 고등학교 친구 중 여전히 평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한 명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족이 평촌을 떠난 사례들도 적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다. 그의 부모님 역시 남동생이 취업하자 평촌을 떠나 강원도로 가서서 이제 평촌에 올 일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평촌에서 유년기를 보낸 친구 중 일부는 자신이 학부모가 되면서 평촌의 교육 환경을 인정하고 평촌 이주를 고려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평촌신도시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지역의 노후화된 환경이 2기 신도시의 세련됨과 비교되고 평촌학원가가 예전 같지 않아 대치동을 선택하는 학생이 많다는 등의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평촌 지역의 생활 정보나 부동산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평촌 지역으로 교육이주를 염두에 두며 평촌의 교육열 정도와 귀인중학교 배정을 위한 적당한 이사 시기, 초·중·고등학교의 분위기 등을 문의하는 글이 여전히 자

주 올라온다. 평촌은 여전히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이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되는 곳이며, 많은 이들이 열정적인 교육 환경과 그로 인한 입시 성공에 대한 꿈을 꾸며 평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한다.

참고자료

권성실, 2005, 「압축형 신도시 개발관점의 수도권 1기 신도시 계획 특성」, 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박사학위논문.

한영은, 2012, 「안양시 평촌 학원가의 교육 서비스 실태 및 공간 범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註

1 구술의 주제가 민감한 내용이라서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는 가명 처리.

제4장

평촌신도시에서 성장한 사람들 : 평촌, 성장과 추억의 도시

홍수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평촌신도시는 원래 농촌이었던 지역이 대규모로 개발되며 변화한 지역이다. 주거 단지
와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학교와 공원이 함께 조성되면서 지역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평촌신도시는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형
성되었다.

평촌신도시 입주 초기에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현재 30대가 되어 평촌에서 자란
첫 세대가 되었다. 아파트단지와 함께 성장한 이들의 기억과 경험은 평촌이라는 공간의
장소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평촌은 단순히 주거와 상업 기능만을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오랜 시간 동
안 머물며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추억이 깃든 장소이다. 일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유
년 시절의 기억은 각자의 삶 속에 고유한 평촌의 풍경으로 남아 있다. 개인의 기억 속에
담긴 평촌의 이야기를 채록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
해할 수 있게 해준다. 유년기를 이곳에서 보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들
여다보는 시도는, 평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도시의 의미를 깊이 있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만남의 장소, 범계역

지하철역을 에워싼 아파트단지에서 자란 사람들, 일명 ‘평촌아파트 키즈’ 사이에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만남의 장소가 있다. 바로 범계역 2번 출구를 나와 오른쪽에
보이는 신한은행 앞이다. 이곳은 ‘약속의 장소’답게 늘 사람들로 붐비며, 인근 평촌1번가



범계역 주변 백화점과 아울렛(2024년)



문화의 거리는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득해 항상 활기가 넘친다. 교복 차림으로 삼삼오오 모여 다니는 학생들, 장을 보거나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백화점과 주요 상권이 자리 잡은 범계역에서 나오면 곧바로 먹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한 거리가 펼쳐진다. 중앙에 있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주점가가 이어진다.

평촌신도시의 발돋움과 함께 자란 조아현(30대, 여성)은 범계초등학교 출신이다. 조아현의 어린 시절은 평촌신도시의 거리와 건물, 그리고 풍경과 깊게 얽혀 있다. 푸른 나무와 잘 가꾸진 공원, 다양한 소음이 어우러진 거리 풍경은 조아현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조사자는 조아현의 도움으로 평촌 곳곳을 답사하며 해당 장소와 관련된 구술자들의 추억을 들었다. 조아현, 임지윤(30대, 여성), 김광일(30대, 남성)의 사례는 평촌신도시 내에서의 청소년 교류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의 예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아현 : 초등학교 시절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고등학교에 와보니까 그냥 애들이 다 서로 알더라고. 범계초 출신이 은근히 많았어.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는 거지. 고등학교 와서 만나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사실은 그 전부터, 초등학교 때 알고 지낸 적이 있었던 거지. 난 다영이(초·중·고등학교 동창생) 아마 첫 만남부터 따지면 22년이 된 거야. 소름이지. 근데 난 다영이랑 서로한테 항상 얘기해. 너랑 나랑 실제로 친해지게 된 지는 10년 될까 말까라고.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같이 놀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보면 개가 개였나 보다 하는 거지. 얘기하다 추억이 겹쳐서 보면 놀라서 그게 자기였다더라고.

임지윤 : 학원에서 만난 친구를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기도 하죠. 귀인초, 귀인중 애들을 다 학원가에서 만났었으니까. 백명고 갔더니 학원에서 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학원에서 만나서 아직도 친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학원에서 같은 반 했던 친구는 이제 또 얼굴 봤던 사이니까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이런 게 좀 신기했어요.

김광일 : 여기 학교가 아마 평촌초, 귀인초, 범계초, 달안초등학교까지 되게 많아요. 또 신기초등학교도 있고 부흥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 안양초, 안양서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좁은 지역 안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학교가 달라도 서로 누구 건너면 알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여기서 살았고, 친구들이랑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신기한 곳인 것 같아요. 같은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끼리는 웬만하면 대부분 누가 누군지 알 거예요.



범계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보이는 문화의 거리 모습

평촌신도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이면서 단지 안에 학교를 품고 있는 구조이다. 학교들이 역세권 주변에 위치하다 보니 방과 후나 주말에 시내에서 함께 즐길 거리가 많아 동창생끼리의 추억도 많다. 안양시에도 고교평준화제도가 시행¹되면서 학교 선택권이 생겼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고등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단지나 동네에 사는 또래 친구들이 많아 다른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쉽게 겹 지인을 만날 수 있었다. 안양에서 살았다면, “○○초등학교 출신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 그 학교에 아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금방 서로 소개받아 친해질 수 있다. 평촌신도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고등학교에서도 쉽게 동창을 찾을 수 있다. 동네 지리에 대한 공유된 지식 덕분에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 간의 이러한 정보망은 학령기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평촌신도시의 구조적 특성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조아현 : 그냥 학교 끝나고 다 같이 뛰어나가면 거기가 목적지인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제 옛날에 스마트폰 이런 연락처도 없었고 항상 가면 있는 게 친구들이었잖아. 이제 얘기하지. “집에 갔다가 이제 열(여기)로 와.”하면은 그냥 일(이리)로 오는 거고. “걸(거기)로 와.”하면 걸로 가고. 가방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엄마 나갔다 올게.”이러고서 나가. 학교 주위가 다 1단지~9단지니까. 어디 있다고 말 안 해도 가보면 있겠거니 하지.

조아현의 경험은 당시 청소년들이 주로 모이던 장소가 몇 군데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목련마을 5단지 앞 소공원엔 평촌 아이들에게 익숙한 놀이터였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는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자연스럽게 집합 장소가 되었다. 집과 놀이터의 근접성은 청소년들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단지 내 놀이터는 아이가 하교 후 집에 없을 때, 가족들이 아이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인식되었다.

조아현의 구술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점은 자연스러운 만남과 상호작용이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나 개인 연락처가 널리 사용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은 특정 장소에 가면 항상 친구들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집 갔다가 그리로 와.”라는 표현은 자연스러운 만남의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조아현의 경험은 평촌신도시 내에서 청소년들이 형성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확장되었는지 보여준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혹은 다른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과 동네에서 다시 만나는 경험을 통해 초기의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형성된 공간적 근접성은 20대, 30대가 되어 서로 다른 진로와 생활양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가끔 만나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신도시이지만 전통적인 지역의 특성과도 겹치는 독특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평촌신도시 내 청소년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은 공간적 근접성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갔다.

조아현 : 저기 신기초등학교랑 라이벌이었는데. 맨날 학원가에서 만나서 시비 붙었어. 학원 가면 이제 여러 초등학교에서 오니까 맨날 신기초 애들한테 왜 따라 하나 이런 거 있잖아. 학교 건물이 비슷하



목련어린이공원 놀이터
목련어린이공원은 범계초등학교와 평촌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등하교 시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교차하는 장소이다.

게 생겼거든. 페인트칠을 같은 업체에서 했나 보지. 근데 어릴 땐 그런 거 모르니까 “너네 왜 맨날 우리(범계초) 따라 해?”, “아닌데? 우리가 먼저 했는데?” 유치하게 싸웠지.

범계초등학교 출신인 조아현은 어린 시절 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사이의 라이벌 관계를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다. 평촌신도시 내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역 학원가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며 서로 신경전을 벌이곤 하였다. 학원가를 중심으로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함께 수업을 들으며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동창이 아니더라도, 같은 동네 친구로서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 서로 교류할 기회가 많았다.

평촌신도시의 학원가는 청소년들에게 거주지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교류의 장이었다. 학원가는 방과 후나 주말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조아현은 어린 시절, 같은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등하교하며 나눴던 짧은 대화와 방과 후 학원가로 가는 길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또래 간 친밀감을 높였다고 회상하였다. 또한, 학원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균것질을 하며 입시 스트레스를 나누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다. 이는 학원가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아현은 울타리를 넘어 학교를 빠져나와 놀았던 기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우유 급식이 있던 시절에는 놀이터에서 바로 보이는 초등학교 건물 외벽에 우유 팩을 던져 터트리며 노는 일도 있었다고 전하였다.

조아현 : 범계초등학교 바로 옆에 소공원(현재 꿈자람어린이공원)이 있거든. 놀이터 지금 리모델링된 거지. 흙도 없어지고 바닥재 새로 깔고. 거기서 애들하고 경찰과 도둑(참가자들이 경찰과 도둑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게임)도 하고. 초등학교 때는 막 어디 멀리 나가고 이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 그냥 애들 만나서 놀고, 아니면 그냥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근데 그 소공원이 여러 개 단지가 딱 접치는 중간에 있어서. 또 5단지 자율방범대 해가지고 이상한 컨테이너 떨어져 있는 데 있잖아. 항상 “저건 뭘까?” 싶었어. 호호(호호떡볶이)가 포장마차로 있었던 자리가 딱 거기 그 자리야. 원래 포장마차였는데 아줌마들이 거기 위생도 그렇고 애들한테 안 좋다고 생각했어. 그때 한창 4대 불량식품 단속하던 시절이었잖아. 그래서 건물로 아예 들어가신 거야. 그 뒤에 5단지 놀이터 있었거든. 아줌마한테 떡볶이 그천 원어치 달라고 해서 사서 그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떡볶이 먹고 그랬어.

임지윤 : 저 초등학교 때 거기 놀이터에 분식점이 있었어요. 포장마차처럼. 그건 유명했어요. 원래 좌판처럼 트럭 같은 데서 하시다가 거기 상가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사



범계중학교

장님이 트럭 같은 거 뺐겼다고, 오늘 못 먹는다고 하시기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장님이 5단지랑 3단지 사이 그 놀이터 앞에서 포차부터 시작하셨거든요. 되게 옛날이네요. 재밌어요.

김정서 : 저는 범계초, 범계중, 백영고 나왔고요. 저 유년기에 범계역을 그냥 자주 갔어요. 범계역이 바로 옆이니까 노래방 가고, 옛날에 미스터 피자, 한스텔리 갔던 거 기억나고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디텔리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자주 갔었고요. 코인노래방 가고,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니까 놀이동산² 같은 데도 다 같이 갔다 오기도 하고. 항상 범계에서 모여서 모든 걸 다 범계에서 했던 것 같아요.

평촌신도시의 지리적 특성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거 단지 간의 간격이 넓고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낮은 울타리와 편리한 횡단로 덕분에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도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청소년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친구들을 만나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었다.

조아현 : 초등학교 때 2단지에 살았었거든. 그때 단지 안의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다녔었는데 내가 피아노 학원비를 들고, 거기 지하 1층에 비디오 대여점이 있거든. 거기 앞 오락실에서 게임 하다가, 가방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학원비가 (기기) 뒤로 들어간 거야. 이제 학원비 내야 하는데 없는 거지. 그래서 집에 가서 “학원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니?” 엄마가 오락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엄마랑 같이 가서 찾았어. 그러니까 내가 쥐 잡듯이 찾았으면 혼날 일 없었을 텐데.

평촌신도시의 아파트단지마다 고유한 특색을 지닌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상가들은 보통 지상층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세탁소·문구점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층에는 마트와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단지 내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수학이나 영어 단과 학원 등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단지 내 상가는 평촌 학원가로 진입하기 전의 초기 학업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자,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조아현은 초등학교 시절 목련 2단지 내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다녔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학원비를 들고 비디오 대여점 앞에서 게임을 하다가 학원비를 분실해 혼났던 일이었다. 당시 상가 내에서 겪었던 이와 같은 일탈과 실수의 경험은 지금은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평촌신도시 아이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학습의 장인 학원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겪은 많은 일은 시공간적 기억으로 강하게 남아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했던 경험들은 중요한 사회적 학습의 장이 되었다.

2. 청소년 놀이문화의 중심, 범계역 상권

평촌신도시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범계역은 노래방·PC방·당구장·보드게임방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평촌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서 도보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교류 장소로서 학창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다. 안양샘병원에서 태어난 이영기(30대, 남성)는 목련·무궁화마을 등 평촌신도시 내의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는 범계역세권에 살며 근처 학교에 다녔던 덕분에 통학 시간이 한 번도 3분을 넘긴 적이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성인이 된 지금

도 평촌신도시 역세권의 편리함을 실감한다고 말하면서 범계역 근처의 맛집과 상점들에 대한 자신의 추억을 즐겁게 풀어놓았다.

이영기 : 평촌은 신한은행 범계점³. 말할 필요도 없지. 여기서 모이면 노래방, PC방, 당구장, 보드게임 방도 가고. 늘 계 길 안 건너고 다 한 군데 있어. 그리고 맛있는 데가 중요하다. (범계)초·중학교 다닐 때 나와서 이쪽으로 쪽 가면 유가네 닭갈비랑 디텔리가 있어. 되게 가까워. 애들끼리 자주 간 데가 디텔리. 거기 오른쪽에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머리를 깎고 나와서 디텔리 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콩볼 자주 갔지. 육쌘냉면⁴도 오래됐고, 앤하우스라는 카페도 맨날 갔다. 애들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남으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앉아 있고. 그리고 닭볶음탕 파는 데인데 맨날 웨이팅이 있어서 진짜 오픈런⁵ 해야 해요. 5시에 오픈하거든. 아침부터 닭도리탕 먹으려고 오픈런 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맛있어. 양도 많아. 호호떡볶이 맛있고. 범계에서 만나면 신나가지고 “야, 밥이나 먹고 시작하자.”하면서 병천순대 가고.

김광일 : 범계역 가면은 신한은행 얘기하면 대부분 아마 이쪽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도 신한은행이 있고. 중학교 때는 앵콜노래방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씨시봉이라는 노래방. 옛날에 캔모아라는 카페가 있었고.

임지윤 : 범계는 신한은행이나 중앙 분수에서 많이 만났던 것 같고요. 범계에서는 너무 옛날얘기 같은데, 맨발노래방이랑 주얼리(노래방) 많이 갔었어요.

강유라 : 범계는 없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없는 게 있다면 특이하게 프랜차이즈 위주로 들어오고, 개인 카페나 레스토랑이 잘 안 들어와. 감성 카페 거리 같은 느낌은 안 나지.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유행 따라 금방 바뀌어.

범계역 주변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영기의 이야기를 통해 범계역 상권의 여가 시설과 식당들이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으로 기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영기가 언급한 맛집들은 범계역 상권의 역사와 함께해 온 곳들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전통 있는 맛집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이는 범계역 상권이 빠르게 변하면서도 일부 가게들이 꾸준히 지역사회의 기억과 추억을 간직한 채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청소년



평촌 사람들 사이에서 만남의 장소로 유명한 범계역 2번 출구 앞 신한은행



범계역 중앙분수대
중앙분수대를 기점으로 평촌역 방향으로 더 들어가면 주점가가 나온다.

들과 지역 주민들은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 왔다.

강유라 :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범계역 상권이 엄청 커졌어요. 영화관·서점 등이 생기면서 유동 인구가 많아졌고, 화장품 가게 같은 로드샵도 많이 들어왔어요. 범계역 앞에 있는 분수대를 기준으로 학생들 놀이터와 성인들 놀이터가 나뉘어. 분수대 전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분수대 넘어서는 성인들이 주로 가는 술집이 많아.

범계역 상권은 롯데백화점의 개장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백화점의 개장은 영화관과 서점 같은 다양한 근린시설을 유입시켜 유동 인구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드러그스토어, 생활용품 종합쇼핑 매장, 화장품 로드샵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문화의 거리 중앙에 있는 분수대는 지역 내 공간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분수대를 기준으로 범계역 방향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반대 방향은 성인들이 주로 찾는 술집들이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공간의 사용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해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권의 변화는 낮과 밤, 학생과 성인의 수요에 따라 상권이 다채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묘미를 제공한다.



최근 범계역 상권의 주요 소비 연령대가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상권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의 상점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주요 소비층으로 삼아, 학생들의 용돈에 맞춘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했고, 상인들 역시 학생들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회상된다. 범계역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저녁에는 주점들이 성행하지만, 여전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자주 목격된다. 이는 상권의 주요 소비층이 여전히 학생들이며, 상권의 활동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필요에 맞춰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범계역 상권은 유행에 빠르게 편승하는 특성이 있다. 강유라(30대, 여성)은 범계역 상권의 프랜차이즈 중심 구조와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유행을 따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 있는 맛집이 부족해 특정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애착 형성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범계역 상권이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의 이면을 보여준다.

범계역 주변 상권은 다양한 여가와 식음료 선택지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 특히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만남의 장소와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구술자들은 범계역에서의 추억을 돌아보며 조사자에게 자신들이 향유했던 문화를 공유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금도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들도 많았다.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입점과 NC백화점의 폐점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들 수 있다.

'범계역 롯데'이라 부르는
롯데백화점 평촌점(이정범 제공)



범계역 상권은 롯데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같은 대형 쇼핑센터와 다양한 소규모 상점들이 혼재되어 있다. 2012년 롯데백화점이 입점하기 전에는 뉴코아 아울렛과 NC백화점이 평촌 주민의 주요 쇼핑 장소였으나,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상권에 큰 변화가 생겼다. 롯데백화점은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었지만, 그로 인해 NC백화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오랫동안 애용해 온 장소가 사라진 것에 대해 많은 주민이 아쉬움을 표했다.

조아현 : 저 롯데백(롯데백화점)이 생기기 전에 뉴코아아울렛이 있고 뉴코아 백화점이 앞에 대각선으로 있었잖아. 거기 영화 보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가 투명하니까 공사장이 내려다보이니까. 그래서 맨날 생각했다니까. 거기 맨날 이제 올라가면서 그 공사 부지를 보니까 맨날 여기 항상 뭐 하는 곳 일까, 여기 뭐가 생길까 항상 궁금했어. (롯데백화점) 처음 이제 개장하고 들어갔을 때 나는 (뉴코아) 문 닫을까 봐 걱정이었는데. 아니 여기 롯데백화점 있고 아울렛 있고 백화점까지 3개가 너무 복잡한 거야. 나는 상도덕 걱정했어. 내가 알기로 롯데백화점이 오래 그렇게 했던 이유가 지하 주차장 문제 때문이래. 왜냐하면 밑에 지하철이 있으니까 주차장 해결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몇십 년 동안 그렇게하다가 결국에는 지상에 따로 만들었다더라고. 더 쾌적한 영화관이 생기게 돼서 좋긴 했지. 저기 이제 안가잖아. 뉴코아아울렛은 어쨌든 저렴하잖아. 근데 뉴코아 백화점은 이도 저도 아니고. 근데 롯데백이 있으면 사람들이 뉴코아아울렛을 가서 물건 사지. 우리 뉴코아(백화점)가 점점 허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 너무 슬펐단다. 닫기 전에는 그 앞에 옷 팔고 그랬잖아.⁶ 왜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 안 들었니?

당시 범계역 주변의 백화점들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허브로 기능하였다. 조아현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듯, 백화점은 영화 관람과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상권의 쇠퇴에 따른 주민들의 감정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조아현이 느낀 감정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상권이 쇠락하는 것을 개인적인 상실로 받아들였다. 이는 지역 상권이 단순한 경제 활동의 장소가 아닌, 주민들의 추억과 일상이 얽힌 중요한 공간임을 드러낸다. 뉴코아백화점의 폐업 전 할인 행사와 같은 구체적인 경험은 주민들이 상권의 변화를 어떻게 느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진형석 : 범계역에서 만난다고 하면 신한은행 아니면 분수대에서도 만났지만, 예전에는 NC백화점 / 층 맥도날드에서 많이 만났죠. 지금은 오피스텔이 생겼는데 거기가 예전에 뉴코아 있던 데예요. 또 (범



뉴코아백화점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오피스텔

계역) 큰 분수들은 없어졌고 땅에서 나오는 거로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좋았는데. 거기가 예전에 있는 그 큰 분수대가 여음만 되면 애들 막 들어가서 물 맞고 그랬어요. 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어머니와 좋은 추억들이 많았죠. 그런 장소가 없어진다고 하니 그때 좀 많이 슬펐죠.

진형석(30대, 남성)과 같이 구술자들은 사라진 뉴코아(NC)백화점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추억과 지역사회 기억과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뉴코아백화점 맥도날드에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구술자들의 경험을 통해 상권의 변화가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백화점과 아울렛은 가족과 친구들이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는 곳으로 단순한 상업적 공간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이런 장소가 사라진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교류의 장이 줄어드는 셈이다.

상권 변화가 미친 경제적·사회적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롯데백화점의 개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기존 상권의 붕괴와 더불어 불필요한 소비와 지출을 증가시킨 부작용도 있었다. 김정서(30대, 여성)를 비롯한 여러 구술자는 롯데백화점의 개장 이후 다른 백화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났다고 멧쩍게 웃으며 덧붙였다.

주민들은 사라진 장소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을 통해 상업시설의 변화가 단순한 공간의 물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문화적 경험과 기억에 깊이 영향을 미쳤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구술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마치 뉴코아백화점이 젊은 신입에 밀려난 노장처럼 느꼈다고 표현하였다. 롯데백화점 같은 최신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오래된 장소들이 사라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뉴코아백화점과 같은 과거의 상업시설에 대한 애착을 간직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설들이 기존의 장소들을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곳에 대한 추억과 애정을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며 응원하고 있었다. 상권의 변화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익숙한 환경이 변하면서 생기는 아쉬움도 함께 남겼다.

결론적으로, 조아현의 구술은 상권 변화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잘 보여준다. 백화점이 제공하는 편리성과 문화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과밀화와 경쟁, 그리고 기존 상권의 쇠락은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권 변화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김정서 : 뉴코아, 롯데백화점 많이 갔는데 NC백화점은 애슐리 말고는 거의 안 가긴 했어요. 거기 뭐가 좀 없긴 했어요.



뉴코아백화점(1997년, 이정범 제공)

이영기 : 뉴코아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 먹으면서 엄마 쇼핑하는 거 기다리곤 했지.

구술자들은 사라진 아울렛과 백화점에서 부모님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낸 기억을 공유하였다. 특히 어린 시절 백화점에 가서 부모님이 쇼핑하는 동안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에서 군것질하며 기다리던 기억은 구술자들에게 공통적이었다. 뉴코아백화점 1층에 있던 맥도날드에서 지루함을 이겨내며 기다리던 어린 시절, 주말 나들이를 나온 친구들을 만나 가족 간 인사를 나누던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 간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백화점은 쇼핑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만남의 장이기도 했다. 백화점 내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문화 센터를 이용하며 학부모들 간 학군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다지기도 하였다. 지하철역과 백화점이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퇴근 후 저녁 장을 보기 위하여 자주 들르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고, 푸드코트는 다양한 식음료를 즐기는 외식 공간으로도 널리 이용되었다. 이처럼 범계역 백화점 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와 일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장소들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억과 정체성 일부로 작용한다. 상업시설의 변화는 단순한 공간의 물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문화적 경험과 기억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움을 느끼고 이전의 공간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3. 녹음 속 유년기 : 푸른 추억의 평촌중앙공원

평촌신도시는 자연 친화적인 조경이 돋보이는 곳이다. 아파트단지는 물론이고 개방된 근린시설까지 수목 조경이 뛰어나 도심 속에서도 자연휴양림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한낮에 평촌중앙공원에 들어서면 나무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와 분수대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여름 축제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평촌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초역세권의 주거지는 시내를 감싸는 듯한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곳곳에 있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거리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주민들은 건널목을 건널 때마다 색다른 공원을 맞이하며 이로 인해 매일매일 다채로운 자연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도로변으로 통하는 셋길에 곳곳에 나 있어 도보로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경사가 없는 평탄한 지형 덕분에 걷기 좋은 환경을 자랑하며, 공원 곳곳에는 걷기 코스와 스트레칭 방법을 안내하는 팻말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려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활동성을 증진하려는 고민의 결과로 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구술자들은 평촌에서의 유년기를 회상하며 특히 평촌중앙공원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억을 강조하였다.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에 있는 평촌중앙공원은 평촌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수경시설과 중앙분수대가 있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많은 사람이 공원 잔디 위에 돛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여름에는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평촌신도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개최하는 안양시민축제는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축제이다. 안양은 곳곳에 공공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평촌중앙공원에도 지역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아크로타워가 보이는 평촌중앙공원 모습



평촌중앙공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작품(안양시청 제공)

예술을 접할 수 있다. 넓은 부지 덕분에 다양한 주민 참여 행사가 열린다.

2000년 안양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처음 개최된 안양시민축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형 축제이다. 민과 관이 함께 주관하는 대규모 공식 행사 덕분에 지역 주민들은 높은 문화생활 만족도를 보인다.⁷

조아현은 어린 시절 중앙공원을 가로지르며 즐겁게 뛰어놀던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유년기의 추억 중 하나는 바로 ‘알뜰나눔장터’, 소위 벼룩시장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평촌대로212번길은 차 없는 거리로 변모하여 알뜰나눔장터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며, 자전거 도로와 체육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알뜰나눔장터에서 물건을 팔아본 경험은 평촌 아이들 사이에서 공통된 추억이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dot자리에 펼쳐놓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흥정하는 그 시간은 마치 작은 축제와도 같았다. 조아현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물건을 모아 벼룩시장에서 함께 팔고 그 돈으로 군것질했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평촌중앙공원 차없는거리 알뜰나눔장터(201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알뜰나눔장터(201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조아현 : 1년에 한 번씩 9월 말에서 10월에 안양축제를 중앙공원에서 했었거든.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거기 벼룩시장에서도, 벼룩시장 만나 이 표현이 맞아, 아나바다, 본인이 쓰던 거, 이제 그거 매주 했었어. 나도 해봤어. 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되게 활발해서 친구들끼리 “우리도 팔자!” 해가지고 물건 모아서 팔고, 팔아서 번 돈으로 막 사 먹고, 추억이 다시 살아나네. 차 없는 거리는 아직 하는가 보던데. 하여튼 되게 활발했어.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는 주민들 간의 신뢰와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알뜰나눔장터 같은 행사는 지역사회에 친밀한 활력을 불어넣으며,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였다.

강유라 : 나는 아무래도 거기 공원이 좋거든. 중앙공원에서 토요일마다 벼룩시장을 열어. 내가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엄청 전통 있는 벼룩시장이야. 안양 사람들은 다 알아. 차 못 들어오게 도로를 다 막고 길 위에 돛자리 깔고 물건 팔거든. 나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거기서 친구랑 열심히 팔고 그 돈으로 밥 먹으러 가고. 강아지랑 산책도 많이 하고. 캠페인이나 부스도 많이 열거든. 과학 상상의 날에 공원에서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그림 대회도 열고, 글쓰기 대회도 되게 많이 열려. 안양 학



경기 같은 거 하면 중앙공원에서 큰 스크린으로 같이 보면서 응원하고.

조아현은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했을 때를 되새기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열광했던 순간의 열기는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기억이라며 웃었다. 연예인 공연과 불꽃놀이 행사 등 다양한 무대 행사가 자주 열렸던 평촌중앙공원은 축제 장소로도 기억되는 공간이다. 또한, 공원 내 농구장 옆 롤러장에서 롤러블레이드를 타는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모습은 평촌의 일상적인 풍경 중 하나였다. 조아현은 집에서부터 롤러블레이드를 신고 나와 친구들과 함께 즐기던 시간이 어린 시절의 중요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아현 : 여름에 애들 분수 맞고 그런 거 있는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중앙공원에서든 되게 많이 놀았다. 거기 농구대에서 놀고 자전거도 타고. 농구장 옆에 롤러블레이드 타는 데가 있거든. 애들이랑 거기 맨날 타고 놀고. 초등학교 때는 아예 본인 거 집에서부터 타고 나와. 없으면 큰일 나지. 만약에 같이 놀 친구가 롤러블레이드 없는 친구야, 그러면 한 짝씩 타.

전성빈(가명, 20대, 남성) 등 구술자들이 언급한 농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평촌 중앙공원 바로 앞에 있는 미관광장에 자리 잡고 있다. 조아현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간의 가장 큰 매력은 장비가 없는 아이들도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특별한 준비물 없이,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이곳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놀이 공간으로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는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자유롭게 활주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활기 넘치는 장면 속에서 가끔 강사로 보이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스케이트 타는 법을 강습하는 모습도 보인다. 주변 파라솔 아래에는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유아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헬멧과 무릎 보호대 같은 안전장비도 대여할 수 있어 개인 장비가 없어도 즐길 수 있다.

김광일 : 농구 좋아해서 거기 공원 가면 다른 친구들 만나고. 이 친구들이랑 갔는데 다른 친구도 있고.

전성빈 : 저는 진짜 거의 매일 가요. 농구장 쓰러. 밤 11시에도 가는데, 맨날 있는 멤버가 있어요. 아저씨들도 맨날 오시고 이제 다 아는 사람이예요. 워낙 길거리 농구가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냥 즉석에서 팀을



평촌중앙공원 바닥분수를 즐기는 어린이들(2025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평촌중앙공원 내 매점

만들어요. 우리 넷이 같이 팀 짜서 저기 코트 가서 시합하자고 그러면 이기면 밀어내고 지면 자기가 나가고. 20년~30년 전에도 그랬어요.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깐 그런 식으로 둘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미관광장의 농구장은 평촌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길거리 농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곳의 매력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은 채, 농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특정 시간대에는 고정된 구성원들이 모여 경기를 즐긴다.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농구장만의 독특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농구장 외에도 X-게임장과 테니스장 등 여러 운동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평촌중앙공원에는 중앙 분수 외에도 다양한 물놀이 공간이 있다. 아이들은 분수의 물 줄기를 피해 다니거나, 물총 싸움을 하거나, 시냇가처럼 조성된 곳에 둘러앉아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튀기며 논다. 놀다가 지치면 매점에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사 먹으며 쉬곤 하였다. 평촌중앙공원에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매점은 열심히 뛰놀던 아이들이 더위를 식히는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평촌중앙공원의 광장은 연을 날리거나 비눗방울을 부는 등 다양한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활기찬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여가를 만끽할 수 있다. 아이들은 공원의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난다. 비눗방울이 공중에 떠오르면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며 쫓아다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한데 모이는 이 장소는 그야말로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울려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의 장이다.

또 평촌중앙공원에는 작은 도서관과 조용한 산책로가 있으며, 구보를 할 수 있는 운동장도 있다. 여가와 체육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김광일 : 저는 보통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는데 코스가 범계역에서 놀다가 술 마시고 밥 먹고 중앙공원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산책한다던가. 거기 스탠드 같은 데 돛자리 깔고 치킨·떡볶이 이런 거 시켜 놓고 맥주 마시는 것. 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축제 끝난 날에 부모님들이랑 같이 보던 그 불꽃놀이.

김광일(가명, 20대, 남성) 말처럼 평촌중앙공원은 평촌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 공간이다. 공원에서는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며,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평촌중앙공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구술자들은 평촌학원가와 가까운 평촌자유공원도 자주 언급하였다. 특히 호계동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공원에 더 익숙하다. 평촌자유공원은 마을 조기축구회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공간이며, 공원 내에는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다. 교통 안내판이 실제 도로와 유사하게 구현되어 있어 아이들이 교통 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곳이다. 조아현은 범계초등학교에서 어린이교통공원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기억이 있다.

진형석 : 학원 끝나면 자유공원에 가서 축구하고 집에 돌아오는 게 추억이었죠.

조아현 : 어릴 때 견학으로 자유공원 안에 있는 교통공원을 꼭 갔지. 거기 교통박물관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현장체험학습으로 필수라 갔었어.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은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된다. 이처럼 평촌신도시는 단순히 주거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곳의 공원·벼룩시장·축제와 일상적인 활동들은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조아현의 이야기처럼 평촌에서의 어린 시절은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으며, 그 기억들은 평촌신도시만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증언하고 있다.

4. 평생 살고 싶은 동네, 평촌

평촌신도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평촌신도시에서의 문화생활에 좋은 기억이 있었다. ‘평촌’이 가지는 의미를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은 ‘나의 소중한 유년 시절’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도 좋을 동네’라고 답했다.

김광일 : 학원가에 맥도날드 앞에 있던 동상이 되게 오래됐어요. 예전에 생일 파티하면 꼭 거기서 사진을 찍어줬었어요. 약간 장수풍뎡이같이 생긴 건데 생일 파티를 맥도날드에서 많이들 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플라로이드 같은 거로 찍어주는데, 안에서 찍기도 하고 아니면 동상에서 다 같이 앉아서 찍는 경우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를 여기서 꼭 자라다 보니까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평촌신도시에서의 유년기 경험은 김광일에게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상을 그릴 수 있게 해주었다. 평촌은 그의 삶에서 하나의 이상적인 기준점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평촌을 떠난 후에도 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이는 단순히 지역사회 인프라만이 아니라 그가 소중히 여기는 유년 시절을 보낸 장소에 대한 깊은 애착이 뒷받침된 결과였다.

김광일 : 저는 여기서 유년기를 보냈으니까 지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지역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배우자는 처음에 평촌에 왔을 때 '너무 도시적인 느낌' 때문에 좀 안 좋아 하긴 했는데, 살다 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일의 아내가 처음에 평촌을 싫어했던 이유는, 역세권 인프라로 활성화된 상권의 혼잡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심 속에서도 목가적인 환경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평촌의 매력을 발견하고 애착이 생겼다. 평촌은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여유를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외지인들에게도 쉽게 장소에 대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동네이다.

김광일 : 성인이 돼서 산본으로 이사 갔어도 이제 친구들이 다 여기에 있고 하다 보니까 자주 오가기도 했고. 제가 안양에서 자라서 결혼도 하고 제 아이가 같은 동네에서 노니까 감회가 새롭죠. 엄마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놀이터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중앙공원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애들 엄마는 유치원처럼 끝나고 나면 중앙공원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 많이들 가는데, 또래 친구들이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저기 (목련) 5차에 소공원이라고 작고 오래된 놀이터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불량한 친구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새로 공사하고 깨끗해져서 아이들도 거기서 많이 놀더라고요.

김광일은 성인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지만, 평촌 친구들과 교류를 계속 이어갔다. 결국, 그는 평촌으로 다시 돌아왔다. 자녀의 교육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평촌에 대한 깊은 애착 때문이기도 하다. 김광일은 자신이 어렸을 때 놀던 공간에서 자녀가 노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 장소는 자신이 자라면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추억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 주는 안정감이 있었다. 김광일은 자녀가 그 공간에서 노는 모습을 보며 추억이 살아 있는 장소의 의미를 다시금 느꼈다. 장소에 대한 애착이 자녀에게도 전달되기를 그는 바라고 있다.

임지윤 : 평촌에만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고 나서 느꼈죠. 저는 어렸을 때 이사를 너



평촌중앙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시민 모습

무 다니고 싶어서 결혼하면 이사 다니는 게 꿈일 정도로 너무 설렜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지역을 가보니
 까, 평촌이 좋은 점이 되게 많은 동네였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역세권인 것도, 제가 친구들이랑 가끔
 명동도 놀러 가고 했거든요. 지금은 명동이 너무 먼 거예요. 그때는 멀게 안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교통도
 좋았던 거고, 버스도 많았던 건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애들이 진짜 착했던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커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
 는데,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놀랄 때도 있었어요. 학폭(학교폭력) 얘기 나오면 나는 본
 적이 없는 것도 친구들은 봤던 적 있다고 하니까. '그렇군. 진짜 충격이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임지윤은 평촌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해 본 후에야 평촌의 교통 편의성을 실감했다
 고 밝혔다. 이러한 '역체감'은 평촌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보여준다. 또 임지윤
 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평촌에서 자라면서 경험한 학군 환경은 긍정적인 면이 많았던 것으
 로 보인다. 특히 그가 학교폭력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부분은 평촌에서의 생활
 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해당 지역이 학생들이 긍정적인 교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모든 학
 생에게 같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다. 개인의 경험은 그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
 영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사례가 전체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서 : 살기가 좋다. 놀기도 좋고 또 서울 강남 갈 때도 직행버스가 있어서 좋고, 계속 노선도 늘어나
 터라고요. 특별히 서울에 살겠다는 목심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여기서 그냥 안락하게, 편리하게 살고 싶
 어요.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서 편찮아요. 앞으로도 살 의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제 서울로까지 놀러
 나가지 않고 오히려 경기도 쪽에서 놀게 되고, 서울 애들도 범계로 오는 거로 알아요. 경기도에서 좀 이제
 놀 만한 데라고 하면 수원이었었는데 요새는 그냥 가까운 데 가자고 해서 범계도 많이 오는 추세예요.

평촌은 교통 편의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 덕분에 서울 못지않은 생활환경을 제
 공한다. 김정서는 평촌의 인프라가 수원이나 서울 못지않은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자랑스
 럽게 이야기한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경기도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유년 시절을 평촌에서 보낸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살기 좋은 동네로 여기며 앞으로
 도 계속해서 살고 싶어 한다. 성인이 된 그들은 평촌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와 동일시하
 며, 자신이 그 미래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만큼 평촌은 그들에게
 삶의 본거지로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동네인 것이다.

평촌신도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의 추억을 간직하며, 그때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평촌신도시는 그들에게 항상 따뜻하고 평화로운 안식처로 기억될 것이다.

註

- 1 2002학년도부터 안양, 성남, 고양, 부천 등 수도권 4개 권역과 7개 시 지역에 고교평준화제도 도입됨에 따라 선지원 후추첨, 근거리 우선 배정 방식을 절충한 평준화 방식의 고입선발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김우태, 「안양지역 고교평준화도입 확정」, 『오마이뉴스』, 2001년 1월 4일)
- 2 서울대공원은 4호선으로 범계역과 가까이 안양권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주 놀러 간다.
- 3 범계역 2번 출구 근처의 신한은행은 평촌점으로, 구술자가 범계역 근처에 있어서 범계점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현재는 상호를 '고기 주는 냉면집'으로 변경했다.
- 5 가게가 문을 열자마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영업시간 전에 미리 줄을 서는 것을 의미한다.
- 6 폐업 전 매대에서 대폭 할인 행사를 자주 했다.
- 7 「안양시, 3년 만의 오프라인 안양 시민축제 개최」, 『경인매일』, 2022년 8월 31일.

집필(가나다순)

김용환	수원도시재단 차장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수로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오윤정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우승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윤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홍수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황의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수로

기획총괄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자료정리

설혜영, 김정서

편집·교정

이화정, 최인경

어반스케치

서은주, 서향숙, 이강은, 하미경(안양어반스케치회)

안양시사 17 **평촌동&평촌신도시**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26-3

ISBN 979-11-94861-09-6 (세트)



THE HISTORY OF ANYANG CITY



9 773-11-94861-283
ISBN 979-11-94861-283
ISBN 979-11-94861-096 (平装)